연 구 자 료
연구 92-14-64

· 지 역 연 구 ·

베 트 남

박 동 균

1993. 5.

KOICA
한국국제협력단

머 리 말

1992년 12월 한 · 베트남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 들었습니다. 베트남은 개혁 · 개방정책에 힘입어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경제개혁등 각 분야에 걸쳐 대외개방정책을 가속하여 왔습니다. 특히 대서방관계 개선을 통한 서방세계의 자본 및 선진기술의 도입, 국제기구를 통한 차관 사업유치등 어려운 국내외 여건하에서 경제개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2000년대를 바라보며 외교 · 경제적으로도 더욱 중요한 남방외교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 달한 것입니다. 베트남은 풍부한 천연자원이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어 개발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선발개도국인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국제협력단은 대개도국 협력차원에서 베트남에 대하여 인도적 차원의 원조와 함께 개발조사, 분야별 기술연수, 개발경험 전수, 청년해외봉사단 파견 등 아국의 국제협력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베트남 지역연구 보고서는 현지출장을 통한 자료수집과 IBRD, UNDP 및 베트남 경제관련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본 협력단 연구실의 박동균 연구원이 작성하였습니다. 자료의 부족등으로 완벽을 기하지 못했으나, 본 책자가 한 · 베트남 각 분야의 협력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의견이며, 본 협력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1993년 5월

연 구 조 사 국 장　　홍 종 후

목 차

Ⅰ. 일 반 개 황 ····· 1

1. 지리적 특성 ····· 1
2. 문화·인류적 특성 ····· 4
3. 인구 및 사회 ····· 9
4. 교육 및 보건 ····· 14
5. 정치·행정 및 외교 ····· 23

Ⅱ. 경제 및 대외무역 ····· 33

1. 경제개혁 정책 ····· 33
2. 예산 및 재정 ····· 61
3. 가격·임금 및 금융 ····· 73
4. 경제협력 ····· 78
5. 대외무역 ····· 92

Ⅲ. 부문별 동향 ····· 103

1. 농·축산업 ····· 103
2. 임 업 ····· 127
3. 수 산 업 ····· 143
4. 광 업 ····· 146
5. 전력 및 에너지 ····· 161
6. 공 업 ····· 170
7. 수송 및 교통 ····· 188

8. 통　　신 ····· 203
9. 건 설 업 ····· 207

Ⅳ. 개발원조 ····· 213

1. 원조 현황 ····· 213
2. 국제기구에 의한 원조 ····· 221
3. 서방국가의 원조 ····· 225
4.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 ····· 238

Ⅴ. 한-베트남 협력 ····· 241

1. 한-베트남 협력현황 ····· 241
2. 대베트남 협력방향 ····· 246

참고문헌 ····· 263

〈부　록〉

1. 베트남 전도 ····· 269
2.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요약 ····· 271
3. 원조 현황 ····· 273
4. 지역별 베트남 수출 동향 ····· 282
5. 원조에 의한 수입액 추이 ····· 283
6. 베트남 역대 국회 현황 ····· 285
7. 한·베트남 주요인사 교류 및 일지 ····· 286
8. '91/'92 주요 일지 ····· 287
9. NGOs in Vietnam ····· 299

Ⅰ. 일 반 개 황

1. 지리적 특성

가. 위치 및 면적

○ 베트남은 인도지나 반도 동쪽에 가늘고 긴 S자형으로 동경 103°27′-109°28′, 북위 8°30′-23°24′에 위치함. 북으로는 중국을 마주 대하고, 동으로부터 남서쪽에 이르기까지는 남중국해 및 태국과 접해 있으며, 서쪽은 쯔엉(長)산맥을 경계로 라오스·캄보디아와 접하고 있음. '77년 5월 영해 12해리를 선포하였으며 영해접속해역은 영해와 합해서 24해리, 전관경제수역은 200해리를 선포함. '84년 6월에는 영공선언을 함.

○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1.4배에 해당하는 329,566㎢로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는 1,650㎞에 달하며, 동서로 가장 넓은 곳은 600㎞이고 가장 좁은 곳은 48㎞임. 해안선의 길이는 총 3,260㎞에 달함. 베트남을 묘사할 때 흔히 그 모양을 기다란 대나무 막대 양끝에 바구니 같은 것을 달아 물건 운반용으로 쓰고 있는 건(ganh)이라는 도구에 비유하기도 함.

○ 국토의 3/4이 산악, 구릉, 고원지대인 베트남은 19세기 후반 프랑스에 점령된 후 통킹(Tongking), 안남(Annam), 코친차이나(Cochinchina)의 세 지역으로 나누어졌으나 이 구분은 더이상 의미가 없으며 50개성으로 구분되어 있음. 현재 베트남인들의 중요한 생활중심지는 홍하델타와 메콩델타유역으로 이곳이 경제·사회·문화의 중심을 이룸.

○ 통킹지방은 베트남의 북부지방으로 면적이 115,700㎢이며 통킹만에 접한 델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산악으로 구성되어 있음. 최고 2,000~3,000m에 달하는 높은 산과 중국의 운남성에서 발원한 하천인 송코이강이 최장으로 국경지대에서

혹하, 로강 등 기타의 많은 하천과 합류하며, 풍향과 조류에 의하여 사토의 운반과 퇴적작용을 통해 하류지역에 광대한 델타(면적 15,000㎢)를 형성함.

○ 안남지방은 베트남의 중부 남지나해에 면한 지방으로 면적이 147,600㎢이고, 안남산맥이 동남해안으로 뻗어 있어서 바다와 급경사를 이룸. 북부는 땅이 비옥하여 농산물이 풍부하게 생산되나 중남부 일대는 야자수가 무성한 밀림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 산지에서는 야생동물이 많으며 상당량의 목재가 생산됨.

○ 코친차이나 지방은 남부에 해당하며 면적이 64,700㎢임. 티벳고원에서 발원하여 라오스, 태국과 국경을 이루고, 캄보디아를 지나 이 지방의 중앙을 흐르는 메콩(Mekong)강은 하구인 남지나해 부근에 사토를 축적하여 광대한 델타(면적 22,000㎢)를 이루고 있음. 이 지역은 농업, 상업 및 교통이 발달되어 있으며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임.

나. 기후 · 토양 및 식물분포

○ 아시아몬순지대에 속하며 건기와 우기가 번갈아 오는 적도 몬순특유의 강우유형을 나타내고 있음. 기후대는 북부산지의 냉량기후, 북부에서 중부에 걸친 고온다습한 열대기후, 남부저지대의 열대몬순기후, 습기가 많고 서늘한 산지기후, 그리고 약간 건조한 적도기후 등으로 구분됨. 기온은 위도상의 차이보다 고도상의 차이에 더욱 많은 영향을 받는데 중부 고원지대에 있는 다랏(해발 1,500m)의 연평균 기온은 18.9℃이며, 북쪽의 산간지대는 가장 추울때(12월-1월) 기온이 영하 2℃까지 내려감.

○ 강우량은 지역적인 차이가 있어 일년에 3,000㎜가 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800㎜도 안되는 지역도 있음. 그러나 전국이 대체로 1,800㎜정도이며, 계절풍의 영향으로 비가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내리는 특징이 있음. 5월부터 10월까지가 우기이며, 11월부터 4월까지는 건조한 계절이고, 1월부터 3월사이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음.

○ 호지민시 인근과 메콩델타지역의 경우 가장 활동하기 좋은 계절은 11월에서 2월사이인데 이때 기온은 22℃~26℃사이로 비교적 신선한 편임. 3~5월은 습도가 높고 기온도 30℃이상 올라가 불쾌지수가 높고 6월부터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됨. 주요 도시의 평균기온과 강우량은 다음과 같음.

〈표 Ⅰ-1〉 주요 도시 연평균 기온

(단위 : ℃)

구 분	여름평균기온	겨울평균기온	연 평 균
하 노 이	29.2	17.2	23.2
후 에	29.3	20.5	24.9
호 지 민	29.7	24.0	27.8

주 : 각종 참고문헌의 자료를 인용하여 재편집 · 작성 하였음을 밝혀둠.

〈표 Ⅰ-2〉 주요 도시 연평균 강우량

(단위 : ㎜)

구 분	우기평균강우량	건기평균강우량	연 평 균
하 노 이	1,530	270	1,800
후 에	2,320	580	2,900
호 지 민	1,800	200	2,000

다. 토 양

○ 토양은 기후와 지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지형에 따른 토양형태는 중국 국경지대와 중부 안남산맥의 일부 암석지대인 암석 천층토양(생산력이 낮음)과 델타지대의 충적지하수토양(지하수위가 높을수록 생산력이 낮음)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음. 기후에 따른 토양형태로는 열대 몬순기후에서는 점토집적 적색토양과 열대다우기후의 철 · 알루미늄화 토양이 있는데 전자는 광물질이 풍부한 노화토양으로 산림 벌채 후에 방치하면 토지의 생산량이 저하되며, 후자는 생산력이 일반적으로 낮음.

라. 식물분포

○ 열대 · 아열대형의 식물분포를 보이는 바, 북부에서 안남산맥에 걸친 낙엽수림대와 북부에서 중부 저지대에 걸친 활엽수림대로 나누어지며, 이들 지대의 해안지역은 오랫동안 인위적인 산림의 파괴로 초원지대가 형성되어 있음. 홍하와 메콩델타하구 연안지대는 홍수림지대로 되어있으며 델타지역의 내륙부에는 습지림이 분포하고 안남산맥 서부의 내륙저지대는 건조 활엽수림대가 분포되어 있음.

2. 문화 · 인류적 특성

가. 언 어

○ 공용어로 베트남어를 사용하나 불어, 영어, 러시아어 등이 일부 통용되고 있으며 소수 민족인 산악지대 부족민들은 각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타이, 메오, 므엉, 눙 등 민족어는 이들 거주지역에서 공용어로 법으로 인정되어 있음. 언어는 북부가 표준어로 발음이 명료한데 반해 남부는 부드럽고 가벼운 면이 있고 중부는 강한 어조가 많은 현상을 보임.

나. 민 족

1) 특 성

○ 다민족 국가이나 대부분은 베트남족(몽골민족과 토착민의 혼혈)으로 이들이 전체 인구의 88%를 차지함. 델타 및 해안 도시지구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역사상 중국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음. 인구의 12%는 소수민족으로 중부 · 산악지대에 살고 있으며 베트남인들은 이들을 경멸조로 모이(Moi)라고 부르고 있음. 소수민족의 분포상태를 보면 북부, 중부의 경계부근에 므엉, 따오(흑타이)족 등이 살고 있고, 북부산지에는 타이어계의 눙족과 흑타이족, 만족,

라. 식물분포

○ 열대 · 아열대형의 식물분포를 보이는 바, 북부에서 안남산맥에 걸친 낙엽수림대와 북부에서 중부 저지대에 걸친 활엽수림대로 나누어지며, 이들 지대의 해안지역은 오랫동안 인위적인 산림의 파괴로 초원지대가 형성되어 있음. 홍하와 메콩델타하구 연안지대는 홍수림지대로 되어있으며 델타지역의 내륙부에는 습지림이 분포하고 안남산맥 서부의 내륙저지대는 건조 활엽수림대가 분포되어 있음.

2. 문화 · 인류적 특성

가. 언 어

○ 공용어로 베트남어를 사용하나 불어, 영어, 러시아어 등이 일부 통용되고 있으며 소수 민족인 산악지대 부족민들은 각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타이, 메오, 므엉, 눙 등 민족어는 이들 거주지역에서 공용어로 법으로 인정되어 있음. 언어는 북부가 표준어로 발음이 명료한데 반해 남부는 부드럽고 가벼운 면이 있고 중부는 강한 어조가 많은 현상을 보임.

나. 민 족

1) 특 성

○ 다민족 국가이나 대부분은 베트남족(몽골민족과 토착민의 혼혈)으로 이들이 전체 인구의 88%를 차지함. 델타 및 해안 도시지구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역사상 중국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음. 인구의 12%는 소수민족으로 중부 · 산악지대에 살고 있으며 베트남인들은 이들을 경멸조로 모이(Moi)라고 부르고 있음. 소수민족의 분포상태를 보면 북부, 중부의 경계부근에 므엉, 따오(흑타이)족 등이 살고 있고, 북부산지에는 타이어계의 눙족과 흑타이족, 만족,

중국계의 메오(Meo)족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더 많은 종족으로 세분화될 수 있음. 이외에 중부에서 캄보디아에 걸쳐 분포한 참족 등이 있고, 또 중부산악지대에는 인도네시아 산악부족이 살고 있음. 소수민족의 수는 '91년 현재 54개 종족 800만명 이라고 정부는 공식 발표함.

o 베트남은 그 지역적 차이에 따라 북부, 중부, 남부의 3지역으로 나뉘어지는데, 북부와 중부는 자연조건이 험하고 홍수, 한발 등의 재해가 많은데(중부는 매년 태풍의 피해를 받고 있음) 이러한 자연조건의 영향으로 북부인은 매우 근면하고, 중부인은 인내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음(호치민 등 베트남 혁명가의 다수가 중부 출신). 이에 반해 남부인은 자연조건의 혜택으로 개방적이며 낙천적인 성격을 지님.

2) 화　　교

o 1670년대 명조 말기에 명의 일부 세력이 당시의 캄보디아령 하디엥에 상륙, 코친차이나 남반부 지구에 후에왕조 승인하에 정착하였으며, 그후 다낭에도 상륙하여 코친차이나 지방의 미토(MYTHO), 비엔호아, 동나이강 유역에 거주한 것이 베트남 화교 이주의 시작임. 이들은 부근일대의 개발·건설에 힘을 쏟으며 항구를 건설하여 무역업에 종사하였음. 화교의 대부분은 구 코친차이나지구, 특히 구 사이공 쵸롱지구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여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남베트남의 상공업, 무역, 금융분야에 세력을 넓히며 확고한 경제기반을 구축하였음.

o 구 월남의 역대정부는 화교세력의 증가에 대하여 주로 화교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 취업금지법이나 화교의 베트남국적화법(베트남에서 출생한 화교에 강제적으로 베트남국적부여) 및 기타 법률로 화교의 활동을 억제하려고 노력했음. 한편 북베트남지구에 거주하는 화교숫자는 적었는데 '75년 통일전에 이미 적극적으로 공산당 및 정부의 정책과 지도에 따라 베트남 인민과 협력하여 국가건설에 매진하여 왔음. 통일전 베트남 국적을 취득한 화교의 총 수는 북쪽에 약 30만명, 남쪽에는 120만명 정도였다고 알려짐.

○ 베트남 통일후 '78년 4월말 부터 7월에 걸쳐 남북지방에 거주한 화교가 대량으로 중국으로 탈출한 사건이 발생한 바, 중국측은 이것을 베트남 정부에 의한 "중국 교민 배척 · 박해 · 추방"이라고 비난함. 이에 대해 베트남측은 "화교와 중국계 베트남인을 선동하여 귀국을 강요한 중국의 악랄한 음모"라고 반박하는 가운데 이 사건은 '78년 중국의 베트남 원조중지와 양국간 우호관계 단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됨. 이로인해 16만명 가량의 화교(주로 노동자)가 중국으로 귀국하였으며 베트남측은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받음.

○ 이와는 별개로 '75년 남북통일 이후 많은 화교가 "Boat People(선상난민)"로서 국외로 탈출하였으나 아직 약 100만명의 화교가 잔류하고 있음. 이들중 40만명은 호지민시 쵸롱구에 거주하며 개혁(Doi Moi)정책 및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따라 상업활동에 종사하여 '91년 현재 호지민시 공업부문의 2/3, 상업활동의 1/3을 차지함.

다. 종 교

○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종교단체는 베트남 조국전선에 참여하고 정부와 당의 정책에 협력하도록 하고 있음. '91년 각료평의회가 공포한 종교활동에 관한 새로운 규칙에 의하면 국가의 독립을 방해하거나 국가에 반대하는 모든 행위는 법에 의해서 처벌되고 종교와 관련된 임명에는 정부의 찬성이 필요하며, 종교 목적의 집회나 종교학교의 개설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불교가 제1종교이고 그 다음은 카톨릭이며 외래종교로 유교, 도교, 개신교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외에 베트남 고유의 종교인 카오다이교와 호아하오교가 특히 남부지역에 퍼져 있음.

〈표 Ⅰ-3〉 주요 종교 분포비율

(단위 : %)

구 분	총인구중 점유비
불 교	55.5%
카 톨 릭	7.4%
카 오 다 이	2.5%
호 아 하 오	2.5%
기 타	22.1%

1) 불 교

○ 주로 대승불교이며 22개 종파로 나뉘어져 있고, 그 대부분은 중국에서 전래된 선종과 정토종으로 불교도 총수는 인구의 약 55%를 점유함. '90년초 현재 전국 불교사원 · 관련시설의 총수는 4,743개이며, 승려의 총수는 1만 7,000명으로 알려짐.

2) 카톨릭

○ 카톨릭 교인의 총수는 약 360만명이고 북쪽에 약 100만명, 남쪽에는 200만명이 있음. 하노이, 후에, 호지민 등 3개의 대교구를 비롯 22개 교구가 있으며, 성직자수는 추기경 1명, 대주교 2명, 주교 363명, 신부 2,000명, 수도사 · 수녀가 약 1만 2,000명임. 개신교 신도의 수는 전국적으로 약 30만명이라고 함.

3) 카오다이교

○ 1926년 사이공에서 창립되어 남부의 타이닌에 총 본산을 두고 농민층에 널리 퍼져 있음. 불교, 도교, 유교, 그리스도교 등의 종교를 통합했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복합종교로 신도수는 약 50만명이며 타이닌, 롱안 및 벤트레주에 집중되어 있음.

4) 호아하오교

○ 1939년 남부 론센 근처의 호아하오촌에서 유행했던 기도중심의 일종의 대중불교로서 남서부의 메콩델타 지역에 다수의 신도가 있고, 주로 남서부의 안기앙, 동탑, 구롱, 하우기앙 등에 집단거주하고 있음.

라. 신문 및 방송

1) 신 문

○ 신문과 방송은 Doi Moi(개혁)정책 실행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함. 신문보도법은 '89년 12월 국회에서 가결되었음. 이 법은 신문·방송의 자유는 인정하나 보도는 당의 노선과 입장, 국내외의 문화, 과학, 기술성과를 신문·방송 정책과 목표에 따라서 전달해야 하며, 국민으로 하여금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반대하게 하거나 민족단결을 방해하는 보도나 선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일간지는 5종류가 있는데, 주요 신문으로는 전국지로 '51년 3월에 창간된 발행부수 60만부의 공산당 기관지인 년면(Nhan Dan : 인민), '49년 창간된 발행부수 20만부의 군기관지 콴 도이 년면(Quan Doi Nhan Dan : 인민군대) 등이 있음. 호지민 공산당 기관지인 사이공 자아이퐁(사이공해방)이 일간지로 발행부수 10만부이고, Vietnam News가 일간 영어지로 '91년 6월 창간됨. 그외 월간 공산당 이론지인 땁치콩산(Tap Chi Cong San : 잡지공산)과 영어와 불어로 출판되는 월간지 VIETNAM COURIER등이 있음.

2) 방 송

○ 베트남 전국에 54개의 라디오 방송채널(단파, 중파 등)이 있으며, 하노이에 라디오 중앙국이 1개 있고 기타 각성마다 1개국씩 있음. 베트남 소리방송은 유일한 전국 방송이며 각국어에 의한 국제방송도 행함. TV방송 채널은 베트남 프로그램 방영채널과 소련 프로그램 방영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노이, 타이빙, 호지민,

퀴농, 다낭, 냐짱, 후에, 칸토에 TV 방송국이 있음.

o TV는 매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씩 방영하며, 이후 영어로 방송되는 30분간의 뉴스시간이 있어 하루에 3시간 30분씩 방송을 행함. 하노이에서 100㎞ 정도 떨어진 땀 다오(Tam Dao)에 TV 위성중계국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호주의 원조로 설립된 것임.

o 통신사로는 VNA(Vietnam News Agency, 45년 창설)와 TTXVN(Thong Tan Xa Vietnam : 베트남어 통신)이 있으며 외국 통신사로는 AFP, TASS, 신화사, 교또통신 및 동구권 통신사(ADN, BTA, PAP, CTK)등이 주재하고 있음.

o TV는 '89년 100가구당 7.6대에서 '92년에는 10대로 증가했는데 '95년까지는 15대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라디오카셋트의 경우는 '92년 15대에서 '95년 22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 인구 및 사회

가. 인구문제

o 베트남 인구는 '92년 1월 현재 69,269,844명('89년 대비 485만명 증가)으로 '91년 인구증가율은 2.17%이며, 인구밀도는 210명/㎢('89년 195명)임. 인구분포는 아직 농촌인구가 8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메콩델타지역은 홍하델타지역보다 인구밀도가 2배이상 높은 지역으로 약 200~250명/㎢임. 인구증가율은 '82년~'89년간 2.1%였으나, '91년에는 2.17%로 약간 증가하였음. 정부는 2000년까지 인구증가율 2%를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1.7%대로 끌어내릴 계획임.

퀴농, 다낭, 냐짱, 후에, 칸토에 TV 방송국이 있음.

o TV는 매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씩 방영하며, 이후 영어로 방송되는 30분간의 뉴스시간이 있어 하루에 3시간 30분씩 방송을 행함. 하노이에서 100㎞ 정도 떨어진 땀 다오(Tam Dao)에 TV 위성중계국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호주의 원조로 설립된 것임.

o 통신사로는 VNA(Vietnam News Agency, 45년 창설)와 TTXVN(Thong Tan Xa Vietnam : 베트남어 통신)이 있으며 외국 통신사로는 AFP, TASS, 신화사, 교또통신 및 동구권 통신사(ADN, BTA, PAP, CTK)등이 주재하고 있음.

o TV는 '89년 100가구당 7.6대에서 '92년에는 10대로 증가했는데 '95년까지는 15대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라디오카셋트의 경우는 '92년 15대에서 '95년 22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 인구 및 사회

가. 인구문제

o 베트남 인구는 '92년 1월 현재 69,269,844명('89년 대비 485만명 증가)으로 '91년 인구증가율은 2.17%이며, 인구밀도는 210명/㎢('89년 195명)임. 인구분포는 아직 농촌인구가 8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메콩델타지역은 홍하델타지역보다 인구밀도가 2배이상 높은 지역으로 약 200~250명/㎢임. 인구증가율은 '82년~'89년간 2.1%였으나, '91년에는 2.17%로 약간 증가하였음. 정부는 2000년까지 인구증가율 2%를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1.7%대로 끌어내릴 계획임.

〈표 Ⅰ-4〉 인구구성

(단위 : 천명, %)

연 도	총 계	남	여
1989	64,774.0	31,589.0	33,185.0
		(48.0)	(51.2)
1990	66,233.3	33,906.0	33,906.0
		(48.8)	(51.2)
1991	67,678.7	33,209.1	34,469.6
		(49.1)	(50.9)

○ 인구구성상 특징은 여성인구와 소년인구의 비중이 크다는 것이며, 여성인구의 비중은 전체의 51.5%를 점함.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여성인구의 비중은 20세이상의 경우에는 52%를 상회하는 반면, 14세 이하는 49%로써 연령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연령면에서는 14세 이하 인구가 전체의 38.3%, 60세이상 인구는 전체의 7.1%를 점하고 있어 전체인구 중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낮아 부양 부담이 큼.

○ 다음은 '90년도의 연령별 출산횟수(출생아 만명당), 지역별 출생아 1,000명당 출산여성의 나이분포와 출생아 1,000명당 여성의 출산횟수를 나타낸 것임.

〈표 Ⅰ-5〉 연령별 출산횟수

(단위 : 출생아 만명당)

연 도	총 계	출 산 횟 수			
		1회	2회	3회	4회이상
총 계	10,000	3,570	2,617	1,791	2,022
연 령 별					
15~19	319	291	25	2	1
20~24	3,079	2,111	774	163	31
25~29	3,395	894	1,301	836	364
30~34	1,946	190	420	597	739
35~39	901	52	81	162	606
40~44	284	13	13	27	231
45~49	76	19	3	4	50

〈표 Ⅰ-6〉 연령별 출산여성 현황

(단위 : 천명당)

구 분	총 계	연령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총 계	1,000	30	295	335	202	98	32	8
북 쪽	1,000	26	307	351	196	87	27	6
남 쪽	1,000	34	281	314	209	111	39	12

〈표 Ⅰ-7〉 여성의 출산횟수

(단위 : 천명당)

구 분	총 계	출산횟수			
		첫째	둘재	세째	넷째
총 계	1,000	352	254	176	218
북 쪽	1,000	350	270	192	188
남 쪽	1,000	354	235	157	254

나. 사회문제

○ '90년 통계에 따르면 3대 도시중 수도 하노이는 315만명, 호지민시는 400만명, 하이퐁은 148만명이며, 도시인구는 베트남 전체인구의 20%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연령별 분포를 보면 총인구의 약 54%가 노동가능인력이며 그중 60%이상이 젊은층으로 매년 110만명정도의 노동인구가 배출되고 있음.

○ 고용에 관한 정보는 광범위한 자유노동시장의 존재와 국영 및 집단 고용자들의 "야간부업"등으로 정확한 통계가 없는 실정임. 한편, 선상난민의 유출로 남부지역에는 숙련 노동자가 감소하였고 북부지역에서는 화교들의 출국으로 인해 광산분야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었음.

○ '80년대에 해외취업이 크게 장려되, 그중 95%가 소련, 동독,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등 동구권국가에서 일하였으나 단순작업이 대부분으로 소득이 적은 편이며, 소득의 40%를 정부에 송금해야 했음. 최근 동구지역의 민주화와 더불어 베트남인 근로자에 대한 본국송환이 요구되고 있음. 캄보디아 철군과 군대 감축노력으로 인한 제대병의 증가, 해외인력 송출중단 등이 고용상태를 악화시키고 있어 '90년의 경우 노동인구 3,500만명 중 약 20%인 700만명 가량이 실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베트남 당국의 공식발표는 120만명) 이는 전년대비 10.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표 Ⅰ-8〉 산업별 노동력 분포

(단위 : 천명)

구 분	1988	1989	1990	1991
총 계	28,921.8	28,939.7	32,286.0	31,091.0
실물부문	26,941.4	27,060.0	28,320.4	29,120.9
공 업	3,149.6	3,241.1	3,392.0	3,400.0
건 설	855.5	794.6	817.7	821.2
농 업	20,890.7	20,697.5	21,683.1	22,392.1
임 업	211.3	196.8	205.9	216.5
수 송	425.5	455.4	475.5	490.0
통 신	39.6	39.6	35.0	47.0
상 업	1,331.3	1,606.4	1,680.9	1,724.1
기 타	20.9	28.9	30.3	30.0
비실물부문	1,980.1	1,879.7	1,965.6	1,970.1
과 학	59.9	59.7	50.5	50.0
교 육	829.8	768.1	802.6	798.5
문화·예술	44.7	43.3	45.4	45.0
보건·복지·스포츠	304.6	288.1	302.9	300.5
재정·신용·은행	-	96.6	91.2	106.5

○ 베트남의 노동력 수준은 학력과 기술수준의 측면에서 볼 때 임금수준과 대비하여 양호한 편임. 임금은 동남아 최저수준으로서 '90년 월평균 20~30달러(기업주 지불액 기준)였으나, '90년 임시노동법은 외국인 투자업체의 최저임금 수준을 일반노동자 50달러, 전문기술자 120달러, 관리자 250달러로 규정하고 있음. 임금의 지급은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노동계약단체에 지급하는 두가지 방식이 있으며, 노조설립을 인정하고 있으나 심각한 노사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임금수준을 낮추어 '92년 6월 현재 최저임금은 30~35달러 상당임.

o 통일 후 1인당 국민소득수준은 '76년의 101달러에서 '80년에는 91달러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특히 남부지역에서 심각하였음. 이 기간 동안 호지민시 인근의 어린이 중 28~38%가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됨. 특히 소득이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여 '84년에는 베트남의 1인당 일평균 칼로리 섭취량은 최소요구량 2,300cal에 훨씬 미달된 1,850cal로 추정됨. 특히 신생아 중 20~30%가 2.5㎏이하로 어린이 중 10%가 영양실조로 사망하였던 것으로 추정됨.

o '91년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은 210달러로서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이며 저축률은 낮고 엥겔지수는 높음. 농가가계의 소득 및 소비지출 구조를 보면 월평균소득은 2만 1,000동(1 USD=10,000동)으로서 이중 농업소득이 55.7%에 달하며 생계비지출은 10,000동으로서 이 중 식료품비가 69.6%를 차지하였음.

o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생활을 살펴보면 영구주택은 20.1%에 불과하고 반영구주택이 61.3%로 대부분을 차지함. 주택은 영구주택의 66%, 반영구주택의 73%가 사유이며 특히 '86년 이후 신축된 주택은 85% 이상이 사유임. '92년도에 약 2억달러의 무역흑자로 인하여 하노이 근교에서 현재 주택건축사업(대개 2층)이 활발한데, 특이한 점은 건물의 정면에 건축된 연도를 표시하고 있음. 전기보급률은 88.4%로서 북부는 95%인데 비해 남부는 83%로 다소의 격차가 있음.

〈표 Ⅰ-9〉 가구 소유형태 및 주택유형별('89)

주택유형	총가구수	소유권			
		국가	개인	집단	기타
하노이(수도)가구수					
도시	234,990	112,867	111,180	5,257	5,686
영구	101,197	61,525	37,688	926	1,058
반영구	117,495	48,565	63,442	4,265	1,223
기타	16,298	2,777	10,050	66	3,405
호지민가구수 총계	737,534	118,317	506,017	8,437	50,763
영구	94,371	72,503	392,101	6,361	2,374
반영구	501,790	2,851	119,509	1,449	30,825
기타	141,373	110,017	421,420	7,993	17,564
도시	588,954	42,963	48,407	627	49,524
영구	91,916	64,647	46,232	627	2,351
반영구	419,305	2,664	318,220	6,034	30,404
기타	77,733	8,300	56,968	1,332	16,769
농촌	148,580	42,706	138,597	444	1,239
영구	2,455	257	2,175	-	23
반영구	82,485	7,856	73,881	327	421
기타	63,640	187	62,541	117	795

4. 교육 및 보건

가. 교 육

○ '75년 베트남이 통일된 후 통일베트남은 사회주의를 체제와 이념의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질서의 창출 및 평등과 자유가 바탕이 되는 아름다운 사회건설이라는 기치아래 새로운 사회문화정책을 실시하며 사회개혁을 추진하여 왔음. 따라서 교육정책은 모든 인민이 사회주의의 목적에 부합되는 도덕적 ·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주안점을 둠.

○ 이와 동시에 베트남의 이념적 · 문화적 혁명에 있어 교육은 사회의 높은 물질적,

〈표 Ⅰ-9〉 가구 소유형태 및 주택유형별('89)

주택유형	총가구수	소유권			
		국가	개인	집단	기타
하노이(수도)가구수					
도시	234,990	112,867	111,180	5,257	5,686
영구	101,197	61,525	37,688	926	1,058
반영구	117,495	48,565	63,442	4,265	1,223
기타	16,298	2,777	10,050	66	3,405
호지민가구수 총계	737,534	118,317	506,017	8,437	50,763
영구	94,371	72,503	392,101	6,361	2,374
반영구	501,790	2,851	119,509	1,449	30,825
기타	141,373	110,017	421,420	7,993	17,564
도시	588,954	42,963	48,407	627	49,524
영구	91,916	64,647	46,232	627	2,351
반영구	419,305	2,664	318,220	6,034	30,404
기타	77,733	8,300	56,968	1,332	16,769
농촌	148,580	42,706	138,597	444	1,239
영구	2,455	257	2,175	-	23
반영구	82,485	7,856	73,881	327	421
기타	63,640	187	62,541	117	795

4. 교육 및 보건

가. 교 육

○ '75년 베트남이 통일된 후 통일베트남은 사회주의를 체제와 이념의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질서의 창출 및 평등과 자유가 바탕이 되는 아름다운 사회건설이라는 기치아래 새로운 사회문화정책을 실시하며 사회개혁을 추진하여 왔음. 따라서 교육정책은 모든 인민이 사회주의의 목적에 부합되는 도덕적 ·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주안점을 둠.

○ 이와 동시에 베트남의 이념적 · 문화적 혁명에 있어 교육은 사회의 높은 물질적,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이해함. 교육은 ①사회주의적 내용과 민족적 성격을 지닌 사회 건설, ②정확한 사고를 개발하고 고상하면서도 아름다운 감성개발로 노동자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 및 전체사회, 자연 그리고 그 자신이 주인으로서 지식과 능력을 획득하는 새로운 사회주의적 인간을 형성하는 것임.

o 일반 의무교육으로 12년제의 보통교육제도(7~18세)가 실시되고 있는데, 보통교육제도는 9년제의 초등학교 교육과 3년제의 중등학교 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음. 이외에도 중등직업학교, 직업훈련학교 및 기술노동자학교가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으로서는 대학, 대학과정의 전문학교 및 대학원이 있음.

o 글을 깨우친 성인대상의 보수교육학교와 3~6세의 아동을 위한 유치원이 있음. 국민학교 및 중학교 수준의 교육은 전국적으로 무료로 실시해 왔으나, 경영난으로 '90~'91년 이후는 초급교육 대상인 1~5학년 학생만 무료로 실시하고 있음. 학기는 매년 9월부터 익년 8월까지임.

o '86년이후 많은 교사가 경제난으로 인한 생활고로 교직을 떠났으며 미취학 아동수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생활고로 교직을 떠난 교사의 수는 '89년 8월까지 2년사이에 2만명이며, 교사들은 봉급이 매우 낮기때문에 개인 교습 등을 통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음. 학교설비('60년대의 한국과 비슷한 설정) 및 학용품이 크게 부족하여 교육의 질적 저하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초등교육활동의 부진으로 문맹자가 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음.

o '90년 현재 10~35세사이의 문맹자수는 약 520만명(대부분 산악지역등 변경지역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과 메콩델타 거주자)이고, 6~11세 사이의 아동중 약 100만명이 취학하지 않고 있음. '85년도 초·중등학교에 등록된 총 학생수는 해당 연령층의 43%인 바, 이는 베트남보다 부유한 태국의 29%('86년)에 비해도 높은 수치임. 베트남의 총 학생수는 1,225만명이며 현재 장애아들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음. 초등교육은 북부지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으며, 남부지방의 아이들은 적어도 3학년까지는 학교를 다니고 있음. 고원지대 소수민족 아동들의 학교

출석률은 매우 낮은데, 이는 고립적인 농업중심사회에서 교육이 상대적으로 불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o '85년 현재 문맹률은 12.3%(남자 7.7%, 여자 16.3%)로 추계되며 25세이하의 경우는 6~9%로 남녀간 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5~40세의 경우는 문맹률이 남자가 5% 이하이며 여자는 7~10로 남녀 공히 10%이하인 것으로 추계됨. 이는 다른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10〉 **연도별 교육기관별 학생수 추이**

(단위 : 천명)

구 분	1980~1981	1987~1988	1989~1990	1990~1991
총 계	12,737.2	13,305.1	12,157.9	12,249.8
보통학생	11,836.7	12,623.1	11,710.1	11,882.5
학 생	610.6	422.1	209.1	102.3
고등학생(실업계)	136.1	147.0	124.7	135.4
대 학 생	153.8	112.9	114.0	129.6

o 중등학교 학생들은 일주일에 서너차례 육체노동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일과시간이 2부로 나뉘어져 반나절은 학과공부에, 나머지는 학급에서 또는 현장실습을 통해 노동기술을 익힘. 통일후 남부에 있던 약 1천개 이상의 사립학교는 모두 공립학교로 변경되었으며 '89년에는 전산학 전문교육을 목표로 한 사립대학교 탕롱(Thang Long)이 호지민시에 설립되었음. '75년 이래 새로이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으로는 다낭기술전문대학, 냐쨩 수산대학, 떠이구옌대학 등이 있음.

o UNICEF는 교육정책을 돕기위하여 쓰기교재와 교과서를 공급하고 있으며, UNDP는 교육성 지원, 한국은 직업훈련원설립 및 기존시설의 개선을 통하여 베트남의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표 Ⅰ-11〉 교육기관 현황

(단위 : 개, 100명)

구 분	1987-88	1988-89	1989-90
기 술 학 교			
학 교	293	267	270
교 사	118	107	105
학 생	1,470	1,386	1,247
졸 업 생	471	467	404
대학및전문학교			
학 교	100	103	103
교 사	198	199	207
학 생	1,129	1,208	1,140
졸 업 생	192	196	206

〈표 Ⅰ-12〉 해외유학 학생수 추이

년 도	총 계	대학원과정	학사학위	전문기술
1976~1977	7,211	190	622	6,359
1978~1979	3,025	262	1,010	1,753
1980~1981	3,712	247	907	2,558
1981~1982	4,319	177	925	3,217
1982~1983	3,041	271	928	1,842
1983~1984	1,901	290	885	726
1984~1985	1,974	387	803	781
1985~1986	3,051	275	756	2,020
1986~1987	4,188	273	725	3,190
1987~1988	4,766	275	616	4,123
1988~1989	6,777	312	645	5,820
1989~1990	1,945	340	600	1,005

나. 보 건

1) 현 황

○ 장기간의 전쟁으로 국민건강과 보건은 해로운 영향을 받았지만 지난 30년간 펴온 보건정책은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었고, 중앙의 통제를 받는 전국적인 의료망의 확충으로 전국민이 의료혜택을 받고 있음. 보건부는 모든 의료정책을 총괄하며 한약과 양약의 생산, 분배를 담당하고 의료전문요원의 훈련과 의료기관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음.

○ 의료체계는 3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1단계는 촌락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촌락에 한명 이상의 보조의사와 간호원, 조산원으로 구성된 보건소가 있고 각 촌락에는 보건활동가라고 불리는 시간제근무 의료요원들이 있음. 2단계는 각성과 군단위로 실시되며, 3단계는 도시의 전문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함. 이들 최종 의료기관들은 연구를 담당하며 국가의료 정책들을 계획, 실시하고 의과대학생과 수련의 교육도 책임지고 있음.

○ 진료는 기본적으로 무료이고 의료혜택은 정부관리와 국영기업체 근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며 입원시에는 가족들이 환자의 식사를 책임져야 함. 의사의 비율은 인구 3천명당 한명꼴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의료시설과 공급이 부족하고 일반적인 의약품조차 불충분한 실정임.

○ 보건활동은 위생, 면역과 각 지역별 예방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중보건체제는 결핵, 페스트, 콜레라 등의 발병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개돼 왔고, '75년부터 의료체계를 남베트남에도 확대·적용함에 따라 남부지방의 의료설비 2/3를 국유화했음. 보건부는 말라리아와 트라코마, 결핵, 나병의 억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었음.

○ 산악지대와 늪지의 약 500만 인구를 괴롭혀 왔던 말라리아는 더 이상 풍토병으로 분류되고 있진 않지만 도시에서조차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며 말라리아 치료약도 그 효능을 잃어가고 있는 형편이며 호주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무상원조를 실시하고 있음. 한때 1,000만 인구에게 고통을 주고 10만명의 시력을 앗아갔던 트라코마는 교육과 철저한 예방을 통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결핵의 발병율 역시 감소 추세에 있음.

○ 베트남에는 2개의 주요 전통 의학교육기관이 있는데 하노이시 소재 전통의학 중앙연구소와 14세기 명의의 이름을 본뜬 호지민시 소재 투에 틴학교임. 이 학교의 훈련과정은 서방의 일반 의과대학 못지 않게 엄격하며 교과과정에는 침술, 물리치료, 호흡훈련과 전통 한약조제 등이 포함돼 있음. 마테리아 메디카 연구소(하노이)는 한약재의 성분을 분류하고 적정량을 규정하며 효능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음.

2) 보건문제

○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1가구 2자녀, 만혼, 25세 이전 첫 자녀 안갖기, 둘째 자녀는 첫 자녀 출산 5년 이후에 갖기 등을 장려하고 있음. 출산휴가는 둘째 자녀 출산까지만 주어지므로 3자녀 이상을 원하는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함. 전통적으로 산모는 10-12개월동안 모유를 먹이나 현재는 직장에서의 출산휴가가 3개월로 제한돼 있으므로 어머니들은 출산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모유를 주며, 이유시기가 된 아기들에게는 묽은 쌀죽을 먹임.

○ 5세이하의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많이 걸려있으며, 사춘기 청소년의 신장은 주위

국가와 비교하여 작고 몸무게도 미달된 상태임. 인구성장율이 2%가 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한국은 가족계획이 성공한 나라로 알려진 가운데 KOICA는 전반적인 가족계획사업을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실시하되, 기초보건시설의 확장, 산모와 태아의 영양 및 건강 등 전반적인 문제에 관하여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이옥신은 미군이 살포했던 고엽제의 맹독성 부산물로 보건부는 이 독성이 초래하는 신체적 영향, 그 중에서도 특히 고엽제로 피해를 받은 주민들의 선천적 기형에 중점을 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월남전에 투입되었던 한국군 장병들도 고엽제의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등 그 피해가 대단히 크므로 KOICA는 의료기기, 시약 및 약품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베트남이 축적한 경험 및 의료기술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의료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유대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민보건과 관련한 문제는 전쟁중에 만연한 마약중독(주로 아편)과 성병퇴치이며 마약중독 치료와 윤락녀 재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관한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AIDS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음. 특히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외국의 활발한 투자 및 관광객 급증으로 국민보건이 위협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80~'90년 10년 사이에 의료인수는 만명당 2.4명에서 3.6명으로 증가하였으나 반면에 인구 만명당 침상수는 37.0석에서 32.3석으로 감소하였음. 다음은 의료보건 지수와 의료·공중보건의 보급현황임.

〈표 Ⅰ-13〉 의료보건지수

항 목	1980	1985	1990
- 의사(인구 만명당)	8.3	10.7	10.7
- 유아 사망율(1,000명당)	90	76	46
- 어린이(0-5세 사망율 : 1,000명당)	116	98	81
- 산모사망율(십만명당)	100	140	110
- 5세이하 어린이 영양실조(%, 체중 미달)			
불량한 정도		51.5	41.8
심각한 정도		12.5	14.2
- 안전 식수 공급율(%)			
총계			34
도시			50
농촌			17.5
- 주택 위생화장실 보급율(%)			
총계			22
도시			50
농촌			15
- 가족계획을 하는 기혼여성 비율(%, 15-49세)			55
- 의료요원에 의한 출산 비율(%)	99		98
- 체중 미달 출생율(%, 2,500g 이하)	21		18
- 헤모글로빈함량이 10g/100㎖이하인 여성비율(%) (15-49세)			45
- 발견된 전신마비 건수(인구 십만명당, 1988)	0.12	0.10	0.05
- 파상풍에 의한 신생아사망율(출생천명당, 1989)		14.7	3.04
- 홍역에 의한 유아사망율(출생 천명당, 1989)		0.46	0.35
-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율(1살 영아 비율)		42	87
- 홍역에 의한 유아사망율(출생 천명당, 1989)			
- 파상풍예방접종한 임신여성 비율(%, 1989)		18	22
- 5세이하 유아사망율(설사 : 출생 천명당, 1989)			0.76
- 5세이하 유아사망율(폐렴 : 출생 천명당, 1989)			3

〈표 Ⅰ-14〉 의료·공중보건의 보급현황

구 분	단위	1980	1986	1988	1990
병 원	개	2,238	1,331	1,413	1,438
요 양 소	개	98	103	107	109
침 상	천床	198.8	214.1	223.0	205.1
병 원	〃	117.3	121.8	127.6	118.3
요양소	〃	67.6	89.0	80.6	72.5
병원1개소당 침상수	床	88.8	160.9	157.8	142.7
인구 만명당 침상수	床	37.0	35.0	35.0	32.3
인구 만명당 의사수	명	2.4	3.2	3.3	3.6
의 사	천명	12.9	19.9	21.3	23.3
내 과 의	천명	31.7	43.8	46.0	47.5
간 호 원	천명	76.1	83.7	78.4	69.5
산 부 인 과	천명	13.9	15.1	14.3	-
약 제 사(고급)	천명	5.1	5.7	6.1	6.1
(중급)		5.2	6.4	6.4	5.9
보 조 원	천명	14.4	15.6	15.3	12.3
일인당 의료검진	회	2.0	2.1	1.8	1.2
환자일인당 입원일	일	8.0	8.2	6.5	7.7
일반 외래 검진횟수	만회	92.1	130.5	114.6	79.3

주 : 침상은 통계자료의 오차로 합계가 일치되지는 않음.

5. 정치 · 행정 및 외교

가. 헌 법

○ '80년 12월 19일 공포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헌법에 사회주의 건설을 향한 개혁(Doi Moi)정책이 더욱 가미된 '92년 개정헌법이 4월 15일 통과됨. 신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은 물론 경제제도, 정치제도 등을 명문화하여 베트남의 권력구조, 정치노선 등을 명료하게 나타냄. 베트남은 '45년 9월 2일 독립을 선언하고, '46년에 헌법을 공포한 이래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변화에 대처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3차례 걸쳐 헌법을 개정했음.

- 헌법(전문 72조) 제정(1946년 11.8)
- 헌법(전문 112조) 1차 개정(1959년 12.31)
- 헌법(전문 147조) 2차 개정(1980년 12.18)
- 헌법(전문 147조) 3차 개정(1992년 4.15)

1) 헌법개정의 배경

○ 베트남인민공화국은 제 3, 4, 5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사회주의 혁명노선을 확고히 다졌으며 '75년 4월 30일 통일을 달성함. '76년 7월 2일 국명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개칭하고 남부베트남 사회주의화-사회주의식 경제도입-을 위해 '80년에 헌법을 개정하였음. 그러나 집단농장 등 남부에 도입한 사회주의식 경제도입이 실패함으로써 베트남은 통일이후 통제경제하에서 실시한 대량생산 및 공업화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이에 '86년 12월 제6차 당대회에서 당은 정책노선의 잘못을 시인하고 개방과 개혁(Doi Moi)정책을 채택하여 추진하면서 높은 성과를 보임.

○ '91년 6월 제 7차 당대회에서 당이 개방과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세계 모든 나라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대외외교노선을 채택 · 실천함에

따라 국내외 정세변화 속에서 가난과 경제공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 국민들에게 경제활동 동기를 부여하고 국가경제개발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 하게 됨.

○ 개정헌법은 전문 12장 147조로 그 구성은 개정전과 같지만, 147개조중 115개조가 개정되었고 23개조는 대폭 개정된 내용임. 특히 전문에는 개정전의 혁명역사를 상세히 기술치 않고 '30년의 베트남 공산당 창립이후 독립·통일을 거쳐 헌법이 제정된 것을 간략하게 기술함. 전문에서는 베트남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지민사상에 따라 사회주의국가로 과도기의 국가건설 강령에 따라서 국가건설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명기함.

○ 국가의 체제로서는 국가는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국가이고, 베트남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의 지도자이다"라 규정함. 모든 국가권력은 국회에 있으며 입법, 행정, 사법의 분할은 없지만, 국회, 정부,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원이 각각 임무와 권한을 분담함.

○ 종전의 국가평의회가 국회상임위원회로 바뀌어졌으며, 국회의 상설기관으로서 기능을 담당함. 국가원수의 임무는 대통령에 위임되며, 국가평의회의장 제도는 폐지됨. 각료평의회는 정부라고 개정되어 "각료는 국회의원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조항이 첨가됨.

○ 경제제도에 관해서는 이제까지의 22개의 조항이 15개 조항으로 개정되어 국가관리하의 시장기구 중심에서 사회주의의 방향에 따른 다부문 상품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책을 확인하고, 다부문 경제구조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함. 헌법개정권은 국회에 있고 적어도 의원의 2/3이상의 찬성을 요함.

2) 구헌법과의 비교

(1) 경제제도

○ 경제정책의 목표를 '80년 헌법은 "사회주의 공업화와 사회주의 대량생산"이라고

하였으나 신헌법(제16조)은 "국민이 잘 살고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는데 두고 있음. 경제구조에 있어서는 구헌법은 경제구성원인 "국영경제"와 "협동조합경제"만의 경제실현을 강조했으나 신헌법에서는 경제구성체를 "국영경제, 집단경제, 개인자본경제, 국가자본경제"로 확대하고 개인자본경제 육성을 보장함. 구헌법은 국가주도하의 계획경제를 강조하여 개인의 경제활동, 노동영역 및 규모를 제한하고 대외무역 및 외국과의 교류를 국가가 독점했으나, '92년 신헌법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자유 및 외국과의 경제교류 확대를 허용하였음.

○ 경제관리방법에 있어서 구헌법은 "비사회주의 경제구성원의 개조"와 "계획화" 사업의 역할과 방법에 대해서 강조했음. 신헌법은 "개인, 조직과 외국투자자본이 있는 기업의 합법적인 재산은 국유화 되지 않으며 국가관리가 있는 시장경제에 따라 여러 구성원이 참가하는 실물경제 발전"을 명문화함으로 국가가 법률, 계획과 정책을 통해 경제를 통일되게 관리함. 신·구헌법 모두 "토지는 전인민에게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헌법은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노동결과만을 향유할 수 있었는데 반해 신헌법에서는 국가는 조직과 개인이 토지를 안정적으로 장기 사용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그 토지사용권의 이전을 허용함.

(2) 정치제도

○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 '46년, '59년, '80년 헌법에서 "베트남은 사회주의 연합의 일원으로서 민주혁명 달성-사회주의 혁명착수-사회주의 과도기 진입-사회주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적극 공헌한다"는 노선을 제시하고 그 노선을 유지해 왔음. 신헌법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으로 사회주의 과도기에서 국가건설 강령('91년 6월 제7차 당해회에서 채택한 베트남 공산당 강령)을 실천하면서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국가를 건설하고 모든 국가와 독립, 자주, 평화, 우의, 협력등 대외노선의 실현으로 개혁사업-국가건설사업에 승리를 쟁취한다라고 제시함.

○ 동구권 국가와 구소련에서 공산당 활동이 금지된 현시점에서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국가임. 일부 공산국가가 헌법에서 삼권(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독립과 권력

분립을 표명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삼권분립이라는 서구 이론을 채택하지 않고 모든 권력이 국회에 집중되어 국회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사회주의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음. 개정 헌법하에서는 국가기구의 조직과 활동은 민주집중제원칙에 따르며 국가권력은 통일적으로 국회에 집중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분리하지 않고 다만, 국회와 정부-최고인민재판소-최고인민검찰원-의 긴밀한 협조하에서 자신의 직능과 권한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분담과 분임이 있음.

나. 국 회

○ 국회는 인민의 최고대표기관으로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이며 유일한 입헌, 입법기관으로서 14개항의 임무와 권한을 가지는 바, 헌법 제84조에 의거, 국회는 대통령, 부통령, 수상, 최고인민재판소 재판장, 최고인민검찰소장의 선출과 해임권을 가지며 대내외정책을 결정함. 국회는 상임위원회의 소집으로 매년 2회 회기를 소집하고 정부, 수상 혹은 국회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결정한 때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음. 국회는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대통령, 정부, 수상등)과 사법기관(재판소, 검찰원)을 감독함. 국회의원의 임기는 5년이나 국회는 헌법 제85조에 의거, 국회의원 총수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 임기를 단축하거나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국회상임위원회는 국회의장, 국회부의장과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며 전쟁상태의 선포, 국가동원령, 긴급사태 선포를 하고 다음 회기에 비준을 받으며 국회 휴회중에도 국회의 임무와 권한을 수행함. 국회상임위원회의 권한중에는 정부, 수상,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정부,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원의 헌법, 법률위반 공문의 집행을 정지시키며 이들 기관이 국회상임위원회 법령, 의결을 위반할 경우 공무을 폐기시킬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음. 이는 삼권분립으로 약화될 수 있는 국가의 권력을 국회에 집중시켜 국사를 효과적으로 신속히 처리한다는 것임.

○ 국회의 임무와 권한은 ① 헌법, 법률제정과 개정, ② 헌법, 법률, 국회결의 준수에 관한 최고감독권한의 행사, ③ 경제 · 사회개발계획 결정, ④ 재정 및 금융정책, 국가예산과 배분의 결정, ⑤ 국가 민족정책의 결정, ⑥ 대통령의 활동, 국회, 정부, 인민재판소, 인민검찰원,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규정, ⑦ 정 · 부대통령, 정 · 부국회의장, 국회상임위원회, 수상, 최고 인민재판소장관, 최고 인민검찰원장관의 선출 · 파면 · 탄핵, ⑧ 수상에 의한 부수상 각료 및 기타 정부구성원의 임명 제안의 승인, ⑨ 대통령에 의한 국방안전보장평의회의 설립제안 승인, ⑩ 정부의 성 및 기타 정부기관의 설립, 폐지의 결정, 지방성 · 시 경계의 변경, ⑪ 특별행정경제 특별구의 설립 · 폐지의 결정, ⑫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의 결정과 긴급사태에 관한 규정, ⑬ 외교기본정책의 결정 등임.

다. 행정제도

1) 대통령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대내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며 국회의원중에서 선출됨. 임기는 국회임기에 따르고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군을 통수하고 국방안전보장평의회의 의장직을 맞는 등 11개조항의 임무와 권한을 가지며 국회상임위원회 회의에 참가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의 회의에도 참가할 권한을 가짐. 헌법은 국회의장이 의장인 국회상임위원회의 권한, 임무(헌법 제91조)와 대통령의 권한과 임무(헌법 제103조)를 구분하고 있으나, 국가의 중요한 모든 문제는 국회상임위원회에서 입안되며 대통령은 동 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데 불과함.

○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는 하나 국회위에 군림할 수 없고, 국회의 의사에 복종해야하며, 헌법 제103조에 의거 11개항의 임무와 권한을 가지나 그 권한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헌법을 시행하고 국회의 결정을 시행하는 권한뿐임.

2) 정부와 수상

○ 신헌법에 따라 정부는 국회의 집행기관 및 국가최고행정기관(행정부로서 행정권을 수행)으로 확정되었으며, 헌법 제109 및 제110조에 의거 국가 사회의 모든 분야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 받음. 정부는 국회와 분리된 행정기관이 아니라 국회의 법, 의결, 결정에 복종하고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국회의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수상, 부수상, 각료등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음.

○ 수상은 정부의 대표자로서 정부의 활동을 지휘하며 국회에서 선출 · 해임 · 탄핵되고 국회의 감독을 받으며,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짐. 수상을 제외하고 기타의 정부구성원은 국회의원일 필요가 없으며, 임기는 국회의 임기와 같은 5년임.

3) 지방행정

○ 행정구분은 ① 전국을 성, 중앙직할시로, ② 성은 현, 성도, 시로 ③ 중앙직할시는 현, 군, 시로 세분되며, ④ 현은 마을과 읍으로, ⑤ 성도와 시는 소구로, ⑥ 군은 구로 나누어 짐. '89년 6월과 '91년 6월, 12월의 국회의결에 따라 전국은 50성으로 구성되었고, 중앙정부직할시로서 수도 하노이, 하이퐁, 호지민시가 있으며, 현의 수는 430현 전후임.

○ 헌법 제9장에서 2개의 주요 지방정권기관(인민평의회와 인민위원회)를 규정하였으며, 인민평의회는 국가의 지방권력기관으로 지방인민의 의지, 소망 및 주민의 주권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인민에 의해서 선출되며 인민과 국가의 상급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짐. 인민평의회는 각 분야 생활과 경제 · 사회발전계획 및 법률시행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인민위원회는 인민평의회의 집행기관인 지방행정기관으로 인민평회의가 선출 · 해임함. 인민평회의와 국가상급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인민위원회는 지방 각분야에 관한 관리 및 시행책임을 짐.

○ 베트남의 정치제도에 있어 특징은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강하다는 점인데 이는

인종이 다양하고 역사적으로 독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투쟁하여 왔기 때문임. 선출직인 지방인민위원회의 장은 중앙부처의 장관과 대등한 위치에 있으며 자본의 동원과 이용, 무역 등은 중앙정부의 통제 밖에 있어 때때로 조세납부와 중앙정부의 입법을 준수하지 않아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함.

라. 국가기구 및 당의 활동원칙

1) 국가기구

○ 헌법은 국가의 권력수립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데, 국가는 법률로서 관리하고 법제를 부단히 강화하며 행정, 사법기관은 입법기관(국회)에 복종해야 하고 국가의 하급기관은 상급기관에, 지방은 중앙에 복종해야 함. 헌법은 이 밖에도 인민의 주권행사를 위해 민주적 원칙을 확정했는데, 국가의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며(헌법 2조), 인민은 권력을 국회와 인민평회의를 통해서 행사하고(헌법 6조), 국가기관 및 공무원은 인민에게 봉사해야 함(헌법 8조).

○ 정부는 중요한 문제들을 국민에게 보고해야 하며(헌법 114조), 인민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 토론시 인민단체 대표를 초청 참가시켜야 함(헌법 111조). 지방인민단체지도자들은 인민평회의 및 인민위원회의 인민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 토의에 참가해야 함(헌법 125조).

2) 당의 역할

○ 다당제가 도입되지 않고 있는 베트남에서 '30년에 창당되고 항불투쟁과 대미구국투쟁을 이끌며 통일을 달성한 베트남 공산당의 역할에 대해 개정헌법은 제4조에서 "베트남 공산당은 노동자계급의 선봉대이고 노동자 농민계급 및 전 인민의 권리에 충성하는 대표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지민사상을 신봉하는 국가 및 사회의 영도세력으로 당의 모든 조직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내에서 활동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당원수는 약 200만명으로 알려져 있음.

○ "국가와 당"이 아니라 "당과 국가"인 것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당의 역할이 강조되고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 공산당의 주요조직은 당대회, 중앙위원회, 정치국등이며, 정치국이 실제로 공산당의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기구로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됨. 현재 정부의 수상, 대통령, 국회의장은 모두 정치국원임. 공산당외에 정치에 참가하는 단체로 베트남조국전선과 노동연맹이 있음.

마. 사법제도

○ 헌법은 사법권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재판소와 검찰원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권 행사기관으로는 최고인민재판소와 군사재판소가 있음. 검찰원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인민검찰원, 군사검찰원으로 나누어짐. 특별한 상황하에서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배심제도를 실시하고, 재판에 있어 재판관과 배심원은 독립해 있고 법률에 따라 판결함.

○ 최고인민재판소 재판장, 최고인민검찰원장은 국회에서 선출되고 국회에 의해서 해임되며, 국회의 감독을 받고, 임기는 5년임. 재판소는 국가의 판결기관으로서 독립권을 가지고 법률만을 준수하며 판사는 국가가 임명함. 검찰원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인민검찰원, 군사검찰원으로 나누어짐. 검찰원은 기관, 조직, 공민의 법률 준수업무를 감찰하는 기관이며 국가공소권을 집행함. 따라서 사법기관은 독립권을 가지나 그것은 절대적인 독립권이 아니라 법률시행의 독립권이며 국가의 법률집행시의 독립인 것임.

바. 국　　방

○ 베트남 군대는 「베트남 인민군」이라고 칭하고, 대통령은 인민군 총사령관 및 국방·안전보장평의회의 의장이 됨. 군은 조국과 인민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며, 국가의 독립, 주권, 안전, 공공의 질서, 영토의 통일과 보전을 위해서 항상 싸울준비를 할 의무가 있고 또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성과를 지키며 전인민과 함께 국가건설에

참가해야 함.

사. 외교정책

○ 외교기본정책은 다음과 같음. ① 베트남은 정치, 사회제도가 다른 세계의 모든 국가와 상호독립, 주권, 영토보전의 존중, 상호내정 불간섭, 평등, 호혜의 기초 위에서 평화, 우호, 관계와 협력확대의 정책을 수행하며, 사회주의 제국과의 연대, 우호, 협력과 평화, 민족독립, 민주주의, 사회진보를 위한 세계인민 공통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에 공헌함. ② 중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촉진하고, 양국협력을 확대하며 양국간에 남아있는 제문제를 교섭을 통해서 해결함. ③ 쿠바 기타 사회주의 제국과의 우호, 평등, 호혜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인도와의 연대 ·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협력의 효과를 높임. 그외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계속 확대하며, 비동맹운동의 강화 · 확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함. ④ 동남아시아와 아 · 태평양 제국과의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평화 · 우호 · 협력의 동남아시아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⑤유럽 및 서구, 일본, 기타 국가와 평등 · 호혜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것 등임.

○ 외교관계를 살펴보면 '92년 4월 현재 베트남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든가 혹은 수립을 결정한 국가수는 132개국임.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BALT 3국과 CIS · 동구 · 사회주의국가(인도지나 국가를 포함)27개국, 아시아국가 14개국,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제국 66개국, 북유럽, 미주, 대양주, 일본 등 25개국과 EC이며 '92년 12월 22일 한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함.

○ 국제기관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UN에는 '77년 9월에 가입하였으며 UN 전문국제기관의 회원국임. 메콩강조정위원회(통칭 MECON 위원회, 인도차이나 3국과 태국으로 구성)에 대해서는 캄보디아의 불참가로 '78년 1월 잠정 메콩위원회를 설립하고 이에 가담해서 활동을 계속해 왔음. 아시아 지역에서는 ADB, 동남아시아 개발각료회의, 동남아 어업개발센터, 아시아 생산성본부 등에 가입했음.

○ 베트남은 '76년 7월 「동남아시아 제국과의 우호 · 협력관계 수립의 기초가 되는 4원

칙」을 제시, ASEAN 각국에 대한 적극 외교를 개시함. 동년 8월 태국과 외교관계 수립을 비롯 ASEAN 가맹 5개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함.

○ 미국은 '90년 7월 베트남과 대화정책을 변경하여, '91년 4월 4단계 미월관계 정상화의 일정표를 발표하였으며, 동년 11월 관계정상화의 교섭에 임함. 미국과 베트남은 국교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93년중에 정식외교관계를 재개할 것으로 보임.

○ 인접한 라오스, 캄보디아와는 '30년 인도차이나 공산당 결성후 '75년의 인도차이나 각국의 해방달성까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들의 해방투쟁을 지지해 왔음. 캄보디아와의 각별한 형제관계 강화를 그 외교정책 주요목표로 "인도차이나 연방"의 결성을 의도하였으며 아시아제국과 경제교류의 확대를 꾀하여 이들과의 관계는 급속히 개선되었음. '92년 2월말 브루네이와도 베트남 정부는 대군사외교관계 수립을 결정함. 베트남은 ASEAN에 가입희망을 계속 표명하고 있고, ASEAN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음.

Ⅱ. 경제 및 대외교역

1. 경제개혁 정책

가. 배 경

○ 베트남의 경제 상황은 오랜 통일전쟁과 '77년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원조중단, '78년 말 캄보디아 침공으로 인한 중국의 보복공격과 이에따른 방위비 팽창, 외국의 경제원조삭감, 재해에 의한 연속적인 식량생산 부진 및 물가고 등으로 '79년과 '80년에 거의 최저수준에 이름. '81년의 제3차 5개년계획 이후, 생산부진 장애는 보조금의존형 경영에 있다고 판단되어 '85년 6월 당 중앙위원회는 경제전반에 걸친 관료주의적 보조금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사회주의 방식에 입각한 회계체제 · 사업제도의 도입을 목표로 한 물가, 임금, 통화에 관한 결의를 발표함.

○ 이 결의는 자주 · 자립 경제원칙으로 경제 각 분야에서 정부보조금을 없애고 경제활성화를 이룩코자 노력하였으나 절대적인 생산물자 부족과 개혁의지 및 준비의 미숙 등으로 개혁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동 정책 실시이후 인플레이션의 상승과 물자의 부족, 물가폭동, 투기등의 경향이 심화됨. 이로 인해 경제는 커다라 혼란에 빠지고 당 · 국가는 이 경제개혁의 실패를 인정함.

○ '89년부터는 정부의 개혁(DOI MOI)정책의 성과-특히 경제개혁-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인플레이션의 진정과 벼농사의 풍작, 외국투자의 증가등 경제 건설이 진작되어, '91년 6월의 제7회 당대회에서는 경제개혁정책을 지속 시킬 것을 결의하였으며, 개정헌법에는 개혁된 경제제도가 명문화 됨.

○ 그러나 '91년 이후 소련의 원조중지와 수입결제시 시장가격으로 교환가능한 통화를 사용할 것이 요구되고, 미국의 경제제재조치가 해제되지 않음으로서 재정사정은 어려운 상태에 빠짐. 이를 타개코자 정부는 절약, 효과적 생산, 증세, 적극적 외화도입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하여 왔음. 이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 시장경제로 향한

정책들을 계속 채택한 결과 '92년도에는 최초로 3억 5천만달러 상당의 무역흑자를 보이는 등 Doi Moi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음.

○ 개정헌법은 경제개혁정책에 맞추어 베트남의 경제제도에 관한 규정을 개정(전 15조)하였음. 현 경제제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① 국가는 국가관리와 사회주의의 방향을 기초로해서 시장메카니즘에 맞는 다부문경제체제를 발전시키는 바, 이는 국가소유, 집단소유, 민간부문등 다양한 생산형태로 나뉘며, 이중 국가와 집단소유제도가 중추가 됨.

② 국가경제정책의 목표는 국가를 번영시키며 국민의 물질적 · 정신적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임. 이는 국가 · 집단 · 개인 · 민간자본가 · 국영자본가의 개별경제주체가 갖는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외국과의 경제 · 과학기술협력의 확대와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해 이 목표를 달성코자 함.

③ 모든 토지는 국가의 관리하에 정해진 목표에 따라 사용되고 그 목표가 달성되도록 국가는 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 장기간 안정된 사용을 위해 토지를 할당함. 해당기관과 개인은 합리적 · 경제적으로 토지를 보호 · 이용 · 개발할 책임이 있으며, 국가에서 할당된 토지의 사용권을 이양할 수 있음. 국영 기업체는 생산과 경영등 사업집행에 있어서 자율권을 갖고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짐.

④ 개인 및 민간자본가는 자유롭게 생산 · 사업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되는 부문과 업무에 종사하는 한 활동범위 및 분야에 하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⑤ 개별경제주체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자본금 및 자산은 국가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사업형태는 법률에 따라서 국내외의 개인과 혹은 합작형태로 활동을 할 수 있음.

⑥ 개인과 단체의 합법적 자산은 국유화 대상이 되지 않으나, 국가는 국방과 안전보장 등 국가이익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시장가격에 기준하여 개인 · 단체의 자산을 구입 또는 보상해서 징발할 수가 있음.

⑦ 국회는 대외경제관계를 통일 · 관리하고 확대하며 상호의 독립 및 주권의 존중과 호혜원칙하에 국내생산을 보호 · 장려하여 모든 국가 및 국제기관과 경제협력관계를 발전시킴.

⑧ 국가 혹은 외국의 기관 · 개인이 베트남의 법률 · 국제법과 관행에 따라서 베트남에 자본, 기술을 투자할 것을 장려하며 이들의 합법적 자본금, 자산 및 기타 이익의 소유권을 보장함. 외국 투자자본에 의한 사업체는 국유화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밝힘.

⑨ 국가는 법률 · 계획 · 정책에 따라서 국가경제를 통일 관리하며 경제 · 사회활동 및 국가관리에 있어 절약정신을 발휘함.

⑩ 법률은 사업활동과 국가경제에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을 해치며, 집단과 국민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엄벌에 처하고, 국가와 생산자 및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을 채택함.

나. 경제개혁추진 현황

○ 베트남은 '90년까지 4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였는데, 주요 경제개혁 일지는 다음 도표와 같이 나타낼수 있음.

〈도 표〉 주요 경제개혁일지

1975 ~ 1980	1981 ~ 1985	1986 ~ 1992 ~ 현재
[사회주의경제 도입과 붕괴]	→ [자본주의경제도입 사회주의로의 복귀]	→ [본격적인 자본주의 경제도입]
· 중공업우선 · 집단화 경제정책 · 대량생산 · 남부사회주의 개조 실패	· 기업청부제 · 유통검열제완화 · 경제난 · 경제정책 실패	· 1986 : 도이모이 정책채택 제조업의 해외무역허용 · 1987 : 외국인투자법 제정 · 1988 : 외국인투자법 시행 외환관리법 제정 변동환율제 채택 · 1990 : 외국인투자법 개정 민간기업법 제정 · 1991 : 제5차 5개년계획 착수 美 · 베트남 관계개선 회의 시작 · 1992 : 신헌법 채택, 수출가공구 건설시작, 토지사유화 인정,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 발표, 일본엔차관 재개, 중국차관 제공발표, 미국의 對 베트남 경제제재 부분 완화시작

○ 지난 30년간의 주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1-1965)

○ 중공업 우선정책을 경제개발의 목표로 채택하였으며, 경제 각 부문에서 노동력을 집중, 사회주의 대량생산을 꾀하였으나 자본, 기술부족과 외국으로부터 충분한 원조를 얻지 못하여 계획된 목표 달성에 실패함.

2)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6-1980)

○ '75년 남북통일이후 남부 베트남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파기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의 통합을 시도하였음. 그러나 '77년 9월 남부에서 시작한 집단농장화 추진은 실패하였으며, 동시에 4년('77~'80년)간 지속된 자연재해(태풍, 홍수, 가뭄)로 인해 식량 자급자족도 달성하지 못함. 캄보디아 침공 및 중국과의 충돌 등으로 인한 중국으로 부터의 원조중단, 국제금융기구 및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베트남 경제고립화정책 등으로 성과를 이루는데 실패함.

3)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81-1985)

○ 집단농장화 실패등 제2차 경제개발 계획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국가, 집단, 개인 3자간의 이익의 결합"이라는 구호아래, 시장경제 원리도입, 상품유통과 배분제도 개선 등의 도입으로 공업생산은 연평균 9%이상의 성장을 기록함. '83년에는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유통통제완화로 자유시장의 번창과 인플레이션 유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83년부터 다시 경제를 통제하게 됨.

4) 제4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6-1990)

○ '86년 제6차 전당대회에서 Doi Moi(개혁)및 경제개발정책을 발표하고 식량 · 식

품, 소비 물자, 수출상품 생산증대를 5개년 계획의 3대 목표로 책정하여 이를 위해 개인자본 및 이윤인정, 임금제한 폐지 및 고용의 자유 인정 등 본격적인 경제자율화의 기조를 구축하였으나 당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함.

○ 그러나 식량증산과 인플레이션의 진정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87년 외국인투자법 공포이후 25개국 193개 프로젝트(총투자액 13억 5천만불)를 승인하였음. 한편, '89년에는 쌀 140만톤을 수출하였으며, '90년에는 원유 200만톤을 생산하는 등 부분적인 경제개혁의 가시적 성과도 달성함.

다. 2000년 경제사회안정과 발전전략(1991-2000)

○ 베트남 공산당중앙위원회는 '91년 6월 제7차 당대회에서 국가계획위원회가 제출한 베트남 사회 · 경제안정 및 발전전략안을 채택하였음. 이 전략안의 주요내용은 2000년까지의 사회 · 경제적 성취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1인당 국민소득의 100% 증가, 물가 상승율 연 10%이내 억제, 수출의 5배증가, 서구 및 북구 선진국과의 경제적 유대강화임. 이와같은 전략목표는 결국 사회 ·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의 생활수준과 국제경제를 향상시키며, 국가방위와 안정을 공고히 유지함으로써 21세기 초에 보다 빠른 경제성장을 구가하기 위한 선행조건을 이룩하는 것임.

○ 이로인해 '92년에는 최초로 약 7천 5백만달러의 무역흑자를 낳았으며, 외국과의 관계도 개선되어 외국인의 투자도 급증하였으며,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일본 등으로부터 지원된 ODA 자금으로 기자재 도입, 인프라(도로, 항만, 에너지 등)의 개 · 보수에 사용하여 상기 목표를 달성코자 함.

○ 이 발전전략의 주요 경제 목표는 다음〈표 Ⅱ-1〉과 같음.

〈표 Ⅱ-1〉 경제의 주요 목표

구 분	1991~1995	1996~2000	1991~2000
1. 연평균 GDP 성장률(%)			
-1안	5~5.5	8.0	6.9
-2안	6~6.5	8.5	7.5
2. 연평균 농업생산 성장률(%)			
-1안	3.7~4.0	4.0~4.5	4.1
-2안	4.0~4.5	4.0~4.5	4.2
3. 연평균 공업생산 성장률(%)			
-1안	8.0~9.0	10.0~11.0	9.5
-2안	4.0~4.5	4.0~4.5	4.2
4. 총수출액(억 달러)			
-1안	120	250	370
-2안	150	300	450
5. 총 투 자(억 달러)			
-1안	77	273	350
-2안	105	345	450
a. 내 자(억 달러)			
-1안	41	179	220
-2안	50	200	250
정부부문			
-1안	24	76	100
-2안	30	90	120
민간부문			
-1안	17	103	120
-2안	20	110	130
b. 외 자(억 달러)			
-1안	36	94	130
-2안	55	145	200

1) 배　　경

○ 베트남은 통일후 약 15년 동안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생산활동을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며 교육, 과학, 문화,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대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현재의 경제상태는 소규모 생산 위주인 저개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형편임. 이와 더불어 고인플레이션과 생산성 향상의 불안정, 천연자원 및 인력을 충분히 활용치 못한 개발상태는 사회 · 경제적으로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였는데, 이는 장기간의 전쟁과 독선적이고 모방적인 개발모형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해 온 결과임.

○ 베트남 공산당은 지난 '86년 제6차 당대회에서 신 개혁정책과 새로운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관료적 집권주의의 타파, 국가보조금제도의 폐지, "다부문경제"(소유권의 주체에 따른 경제단위)에 걸맞는 새로운 관리 메카니즘 실시 등을 천명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 특히 '89년 이후, 사회 · 경제적으로 중대한 변화를 거듭하여 오면서 당 주도의 이같은 변화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세계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야기된 사회 · 경제적 난국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고, 개혁의 진행상태도 순조롭지 못한 편이었음.

2) 목　　적

(1) 일반목적

○ 국가는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를 운용하며 국민의 재산에 대한 대표권자로서 소유권을 갖는 동시에 사회정의 구현과 합법적인 소득 보호, 국민의 생활향상과 가난한 사람의 숫자를 줄이도록 분배구조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함. 사회 · 경제개발계획은 모든 인민이 국가와 자신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용하고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경제부문의 목적은 경제활동을 민주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노동의 사회적 중요성을 높여 최대의 성과를 얻는 것임.

○ 모든 인민은 합법적 사업운영과 사업형태의 선정에 있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아니하며, 법은 소유권과 합법적인 소득을 보호함. 외국의 자본과 기술, 해외시장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하여 모든 국내자원을 활용·개발하는 개방경제체제를 수립하고, 국가의 산업화와 현대화를 과학, 기술, 교육, 훈련 등의 개발정도와 실제여건에 맞추어 추진함. 법과 경제정책은 고용기회의 창출, 적절한 소득분배, 환경보호, 정치적 안정, 사회질서, 신변보호 및 문화적 가치를 유지함으로써 개별 경제단위가 사회적 효율성 제고에 관심을 갖도록 인도하며 국가는 개별경제단위가 사회정책에 부응하는 만큼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함.

(2) 전략적 목적

○ 전략적 목적은 사회·경제적 안정과 발전으로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고 국가를 발전시키며 국가방위와 안정을 공고히 하여, 21세기초에 조속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여건을 창조하는 것으로 2000년까지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목표를 달성함.

○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며 물질, 문화 정신생활의 향상을 꾀함. 이를 위해 의식주를 해결하고 생필품 수요충족과 빈곤퇴치, 어린이 영양실조상태 극복, 청소년 체력향상, 국민 수명연장 및 노동자 취업문제 해결, 실업율 감소와 인구증가율(매년 0.04~0.06%씩 인하)을 낮춤. 또한 문맹퇴치, 취학연령 아동의 취학보장과 도시, 농촌생활용수 공급 및 하수도 문제해결, 환경오염 방지, 소수민족 정착 등을 통한 생활안정 보장을 이룩함.

○ 생산규모와 생산효율의 향상을 통한 경제안정과 발전으로 2000년까지는 개인당 국민소득이 적어도 '90년의 2배에(약 400달러) 이르도록 경제개발을 가속화함. 이와 동시에 국내저축은 국민소득의 약 15%를 달성하고, 인플레이션 억제, 물가와 통화의 안정, 예산지출 감소와 국제무역수지의 향상으로 건전한 국가재정을 달성함.

○ 민주주의의 실현과 사회정의의 안정 등으로 현저한 사회발전과 변화를 이룩하고, 부정·부패와 특권을 배격하며, 도덕적 타락을 방지하고, 국민의 지적수준을 향상시킴.

○ 과학과 공업 및 기술적 응용과 연구능력을 배양하고, 기술 및 직업교육·훈련을 활성화하며, 간부의 자질을 향상시킴.

○ 경제, 문화, 사회적 하부구조 건설에 매진하며, 특히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경제기반 강화, 노동집약적 공업의 육성, 노동생산력 증대 같은 초점을 둠. 이를 위해 교통수송망을 개편·확장하되, 우선적으로 해상교통을 발전 시키기 위해 기존 항만시설을 확장하고 북부와 남부 지방에 새로운 항구를 건설하여 해상운송 수단과 원양어업을 발전시킴. 동시에 남·북철도와 국제선 철도망을 개·보수하여 서비스를 향상 시키며 도로는 제1번, 제5번 국도를 포함한 국도 및 일부 도로의 상태를 개선하고 이들 도로상에 있는 중요 교량을 건설하여 각 지방간의 원활한 수송 및 교통을 보장함. 민간항공의 발전으로 국내의 항공노선 취항을 확대하고 공항을 조기에 현대화함. 도시와 농촌의 주택, 생활용수, 교육, 보건과 문화생활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및 확장을 꾀함.

○ '95년까지는 공황을 벗어나 사회·경제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과 평화, 독립, 사회주의적 사업을 확고히 지키며 2000년까지 경제개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90년대 말보다 빠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함.

(3) 산업별 목표

○ 농업생산의 경우 단위면적당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종합경영제를 도입하여 농지개간, 토지개량, 수리시설확장, 종자개량, 병충해방지, 경작지 면적 확대 등으로 2000년까지 식량생산량을 '90년 대비 2.5배 증가(약 3,000만톤) 시킴. 농업구조 개편을 통하여 열대과일과 산업용 나무재배 및 축산업 등으로 다양화함. 일부 농장을 가공산업을 포함한 산업용 목재플란테이션으로 육성하며, 방직공업원료 해결(뽕나무 재배)과 2000년대에는 수출을 위해 약 100만ha의 산업용 원목수출을 위한 인공조림 단지를 조성함. 그외 쌀, 옥수수, 땅콩, 커피, 차 감자, 채소, 육류, 해산물 등과 같은 가공농·수산품 수출을 증가시킴.

○ 비료 등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토양 퇴화를 방지하고, 농기구 개량

등을 통해 기계화 농업을 실현하고, 농산물 건조, 보관, 운송문제 해결, 외국과의 협력·합작투자를 확대하여 농·임·수산가공업의 현대화를 추진함. 냉동 및 포장산업을 발전시켜 상품의 품질향상과 경쟁력을 키우고 농·수산물 가공수출을 장려하며 이런 분야의 발전을 새로운 농촌건설과 병행하여 농촌을 점진적으로 새로운 사회주의에 도달하게 함.

○ 안정적인 토지사용을 통하여 농가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케 하며, 모든 농가의 농업 생산에 새로운 기술을 보급, 각 분야을 발전시켜 실업문제를 해결하되 노동구조를 바꾸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노동력을 점차 감소시킴. 국가는 농촌 전화사업, 산악지대의 소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수리사업 확장, 교통·통신망 확장, 소규모 도시건설을 통해 새로운 농촌건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함.

○ 임업은 무엇보다도 산림자원을 보호·발전시키며 약 5백만ha의 황폐한 산에 인공조림을 통해 울창한 산림을 안정시킴. 특히 경제림 조성에 주력하고 산림을 보호하며, 농업·임산물 가공산업과 결합시키고, 대규모 축산업도 발전시켜 임업과 농산물의 현지가공산업의 발전을 통해 수출을 꾀함. 모든 산지에 책임을 지고 관리할 주인을 내정하여, 산림경영의 효율성을 증가 시키고 국가는 조림산업에 필요한 자본과 식량일부를 보조하며, 투자자본을 우대금리로 대출하는 등 정책적인 뒷받침을 함.

○ 수산업은 고기잡이와 양식에 치중하며 특히 새우양식과 기타 수출 부가가치가 있는 수산업을 발전시킴. 동시에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수산전문가 및 어부를 양성함. 어장보호법을 제정·공포하여 수산자원남획을 방지하고 가공공장을 확장하여 어민을 보호하며, 원양어선단을 발전시켜 2000년에는 1,500만톤의 어획고 달성과 수출을 증가시킴.

○ 모든 경제주체가 능력을 발휘하여 소비재 상품산업을 발전시켜 국민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수출을 촉진함.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료·시설·기술인력의 최대 활용과 부족한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상품의 품질보장과 경쟁력을 향상시

키며 외국기업과 합작 등을 통하여 생필품 공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기계, 석유화학, 방직, 피혁, 전자, 금속, 고무, 플라스틱, 도자기, 의약품, 장식용품 등의 중·경공업을 발전시킴.

○ 에너지 개발은 수력·화력발전을 균형있게 건설하여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전력수요를 충족시키며, 2000년의 전력생산량을 현재의 2.5배가 되도록 함. 유전개발은 외국과의 합작을 통해서 추진하고 정유시설의 확충과 석유화학공업 및 기타 관련산업도 발전시킴. 석탁개발은 외국과 합작을 통해서 개발하여 2000년에 1,000만톤의 석탄을 생산하며, 그외 요소 및 각종 복합비료 생산확대 및 시설확장, 살충제, 건설자재 등을 개발함.

○ 도시와 농촌에서 중요한 분야로 서비스경제를 발전시켜 경제구성원들의 능력을 발휘케 하여 경제구조와 노동구조에서 비중을 증가시킴. 유통시장과 상업을 발전시켜 상품유통과 수요, 특히 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곳에서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무역에서 국영상업의 역할을 증가시킴. 운송, 관광, 항공, 해상, 무역, 보험, 과학과 기술이전, 통신, 광고, 투자, 법률 및 경영자문 등의 모든 분야의 서비스를 발전시킴. 또한 국가의 풍부한 문화유산은 물론 천연자원 개발 및 관광을 발전시킴.

3) 개선방향

(1) 자본정책

○ 전략적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관건은 막대한 자본 형성과 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음으로 이에 대한 국가재정정책이 조기에 수립 공포되어야 하는데 자본형성정책의 주요 관건은 다음과 같음.

①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와 여건의 조성

② 자본축적을 위한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의 근검절약 실행

③ 모든 자원과 자산, 유휴자금, 물적·지적 노동력의 경제개발 분야 투입.

④ 사회전반에 걸쳐 수익원 개발을 통하여 국가예산 증가

⑤ 외자도입을 위한 모든 가능성의 활용

o 국내에서 제공된 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서는 다음 사항들이 시행되어야 함.

① 근검절약과 경제개발을 위한 국민자본 및 자원의 활용 극대화인 저축의 장려
② 수익원의 증대, 탈세방지, 소비억제, 적자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국민으로부터의 차용 등을 통한 국가예산의 균형유지
③ '95년까지 연간 물가상승률을 10%이하로 억제
④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치를 위한 여러 형태의 방안과 가능성의 활용
⑤ 자본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투자제도의 개혁

(2) 경제구조 재조정

o 경제구조는 생활여건, 사회·경제적 안정화 및 산업화의 목적에 부응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 농업, 임업, 어업은 꾸준한 생산량의 증가와 더불어 국민경제에 있어 더욱 중요한 위치를 점해야 하나, 국민경제에 있어 이들 산업의 비중은 기타 산업부문이 성장하는 비율에 따라 점차 줄여나가야 함.

o 또한 소비재와 수출상품 산업, 에너지와 엔지니어링 산업, 기타 원료 및 기초화학, 철 및 비철금속, 건설자재, 원광 등 자재생산산업이 중점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석유·가스 산업, 석유화학, 전자, 컴퓨터 및 신소재 산업 등과 같은 기술집약적인 산업도 역시 중점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경제구조 재조정이 필요함.

(3) 경제주체의 재조정

o 다부문경제 체제내에 경제주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은 기본적인 세가지 형태로 전국민 소유, 집단소유(조합), 개인소유가 있으며, 그외에 이러한 각종 소유로부터 여러 종류의 혼합형태인 경영조직이 있음.

o 국가경제부문(국영경제)이란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단위 또는 그 자본이 모두 국

가소유인 경제단위로 이루어진 경제부문으로 국영경제는 중점사업을 우선 발전시키며 국가의 경제발전 조정 및 지도를 보장하나, 국영형태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다른 경제형태로 전환함.

○ 집단적 경제부문은 그 구성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자본과 노력을 제공하고 민주주의와 평등, 상호호혜의 원칙하에서 운영되는 경제주체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협동조합은 이같은 집단적 경제부분의 한 형태임. 협동조합은 분야 및 특성과 관리수준에 따라 전체가 참가한 집단화 협동조합과 생산공정별로 된 집단화 협동조합으로 구분되며, 개인경제단위가 협동조합에 참가하여 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음. 협동조합은 행정구역 범위에 구속됨이 없이 전문경여 또는 여러분야 종합경영을 할 수 있으며 기금 적립과 공동시설기반을 구축하며 경제적으로 조합원을 지원함. 개별주체는 서로 다른 협동조합에 참가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 정관에 따라 탈퇴할 수가 있음.

○ 사경제부문은 1인 또는 다수의 개인이 자본을 투자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인력을 고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경제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의 자본투자가 있는 경제주체도 포함됨. 국가는 지속적으로 이같은 다부문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합법적인 생산과 사업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이들 경제주체들이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

(4) 지역발전 방안

○ 국가 전체의 지역개발 원칙에 따라 주요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에 따라 노동력의 분산 및 여러 지역간의 경제협력의 기초를 제공하는 지역경제 구조를 확립시키기 위한 주요 지역별 전략을 수립함. 각 지역은 경제 · 사회 · 자연 · 문화적 조건의 잇점과 지역경제 구성원의 능력을 검토하여 외국을 포함한 기타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생산구조와 투자구조를 도입함. 중앙 및 지방정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익을 위하여 지역차원의 투자에 자원을 활용해야 하며, 동시에 중앙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나 국가방위에 있어 필수적인 지역 및 산간지역의 발전을 우선 지원함.

o 구체적으로 평야지대는 식량 및 식료품 생산, 산림지대는 산업용 속성수 및 열대과일 생산에 치중하는 각종 임산물 생산위주의 산림경영 위주로 하되, 환경 및 생태계 보존·개선에도 주의를 하며 축산업을 주종목으로 발전시킴. 각 성은 가공산업의 발전으로 경제구조를 다양화하며, 분업 및 노동력 재배치를 통하여 농촌공업을 발전시키고, 서비스업을 확대하며, 정부 투자자본은 주로 수자원관련 사업과 기간산업시설의 건설사업에 지원함.

o 메콩델타 지대는 전국에서 가장 큰 곡창지대로서 투자효과가 크므로 국내수요 및 수출을 위한 상품생산을 장려함. 홍하델타 지대는 식량과 식품생산 잠재력이 크며 축산업, 각종 가공산업 및 소규모 수공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지대임. 중부 해안은 채소와 열대과일 재배에 적합하고, 농업경제와 해안경제의 효율적 결합이 가능한 지역임.

o 동남부지역은 산업용 속성수 재배에 적합하고, 중부산악지대는 전국 산림의 3/4의 면적을 점유한 지역으로 경제발전 잠재력은 크나 각종 제약이 많으므로, 이 지역 발전 방향은 실물경제 체제로 전환하여 산업용 속성수, 열대과일, 축산업, 광산을 개발하여 많은 노동력을 흡수하도록 하여야 함.

o 동부지역은 석탁개발에 집중하되 하이구엔지역은 수력발전소 건설과 보오크사이트 개발, 그리고 산악지대 건설은 고산지대의 소수민족과 관련된 사업인 동시에 국가의 사업으로 국가는 도로, 발전소를 건설하고 농경지를 확보하여 소수민족을 이주·정착케 하고 교육지원과 세제혜택, 예산배정에서 소수민족우대, 소수민족이 생산한 상품의 보호정책등을 시행함.

o 해안도시와 대륙붕 지역을 개발하여 양식과 수산가공지역으로 전문화하고 석유, 가스등을 개발·가공하여 기타 생산분야와 해상 관련 서비스분야를 함께 발전시키며 동시에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도서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을 실시함.

o 급격히 발전하는 대도시 주변에 여러개의 소규모 위성도시를 건설함으로써 대도시

로의 인구집중을 막도록함. 시, 읍, 면 개선과 개발사업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본으로 개발경제 주체와 개인들이 마련한 자본으로 실시하며 국가는 계획수립과 공공시설 건설투자에만 주력함.

○ 북쪽의 하노이-하이퐁과 일부항구, 남쪽은 호지민시-붕타우와 비엔호아, 중부지방의 다낭과 일부 항구지역에 국가 경제 · 사회 · 문화 · 과학기술의 센터이자 각 지방경제를 촉진하는 중심지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대외경제 발전 교두보로 만들기 위해 국가투자자본과 외국의 투자자본으로 개발함.

(5) 대외경제정책

○ 다음과 같은 대외경제정책을 채택하여야 함.

① 대외경제활동의 효율성 제고와 확대

② 경제효율성과 사회적 효과의 측면에서 장 · 단기 수익에 주의

③ 대외경제관계의 다각화와 다변화를 통한 수출증가

④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관계 회복 및 확대와 인도와의 경제 및 시장 결속강화

⑤ 동북아 · 동남아 경제와 관계 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내의 경제적, 생태적 문제 해결에 노력

⑥ 선진자본주의 국가와의 새로운 경제적 결속 및 서구, 개발도상국과의 유대강화

⑦ 각종 국제기구의 일원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실행하며 필요와 가능성에 따라 각종 국제기구 또는 경제권에 가입

⑧ 외국인 투자와 합작사업 유치에 노력하며 새로운 요구에 따라 대외경제 분야에 종사할 간부 양성과 각종 기관을 통합하는 일관된 종합시스템 구성

(6) 국내정책

○ 고용기회의 제공과 사회노동 잠재력의 최대 활용이 중요한 목표로 이는 경제, 기술, 투자의 기틀을 정립하는 척도가 됨. 따라서 향후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고용기회가 늘어나야하며 이러한 고용창출로 인력수출 및 사회 · 경제적 효율성

제고와 새로운 체제에 알맞는 인력과 산업 구조조정을 통하여 국영부문의 임금체제 개혁을 달성할 수 있음.

- 농촌지역 : 고소득 작물 경작, 곡물생산 증대와 경작지의 최대활용, 가축사육 및 산림의 개발, 양식 및 수산가공업, 경공업 및 수공업 등의 분야
- 도시지역 : 경공업과 수공업, 도시건설과 유지, 각종 서비스업 등의 분야

○ 교육훈련분야에서의 정책은 전통적인 교육열을 더욱 높이고 국민의 지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목표는 과거의 교육체계 혁신에서 비롯된 경험을 평가하고 전략적 욕구에 부응하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달성함. 따라서 교육제도를 개편하여 다양한 직업교육의 발굴과 기술교육의 사회적 정착을 이룩하며 장·단기, 정규·비정규 과정을 통한 기술 및 직업교육을 강화함.

○ 자연과학과 기술분야는 현존 기업의 기술수준을 향상, 혁신,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전자산업, 컴퓨터산업, 유전공학, 신소재 개발과 고도의 가공기술 같은 현대적 기술의 축적, 사회과학 향상 및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의적 응용과 새로운 학문의 도입,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변화가 이루어져야 함.

○ 경제적·과학적 관리 메커니즘과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생산 및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연구의 응용과 기술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조직과 관리 메카니즘의 개혁을 위해 국가는 계획, 재정, 금융, 법률을 통해 경제관리를 하며, 관리책임을 중앙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부문별 관리와 지역별 관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함.

4) 과제 및 개선방안

○ 도이모이 추진이후 남북격차, 농공격차, 공민격차의 3대 격차가 발생하였음. 이는 ①자본주의적 경제기반을 갖고 있는 남측에 외자의 80%, 특히 남부의 석유자

원에 집중되는 남북격차, ②토지소유의 자유화 도입으로 농업부문은 급성장 및 부유화한 반면 국영기업이 60%를 차지하는 제조업 분야의 성장이 낮은 농공격차, ③'91년 7월의 국영기업에 대한 저금리우대 조치 철폐로 국영기업과 사기업의 금리가 일원화 되며 가격의 자유화 진전으로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의 생산격차가 현저해진 공민 격차임.

○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개혁 추진상의 문제점 및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장기간의 전쟁에 따른 전국토의 황폐화
- 자금부족에 의한 인프라의 절대적 미비
- 150억 달러를 초과하는 누적외채와 국제수지적자
- 극단적인 자금, 기술의 부족으로 산업확대 곤란
- 환율의 불안정으로 원활한 수출입 업무추진 곤란
- 개혁정책 추진에 따른 인플레 등 각종 혼란 발생
- 국영기업체의 민영화 지연
- 경제관료 및 전문가의 부족
- 민간부문의 훈련된 기업가 부족
- 실업자의 급증
- 노동기피, 배금사상의 발호 및 관료의 부패현상 진행
- 공산권 붕괴에 따른 원조의 중단, 경화결재요구 및 공업용 원자재 확보곤란

○ 이런 여러 현상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 전략은 여러 부문에서 의욕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하며 자본·기술 및 경영기법의 부족과 국영기업의 부실화 문제를 대외개방정책, 특히 합작투자의 유치를 통하여 해결을 모색한다는 것임. 그러나 이 목표의 성공여부는 미국을 위시한 서구의 완전한 경제제재조치 해제와 국제금융기관의 원조가 얼마나 빨리 이뤄질 수 있는가에 달려있음.

○ 앞서 언급한 개발전략은 대외경제관계에 의존한다는 불확실성 외에도 투자우선순

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데 약점이 있음. 중공업에 편중된 국영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오래전부터 독립채산을 추진하여 왔으나 국영기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은 오히려 증대일로에 있음. 최근에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국영기업의 과감한 해체 또는 민영화로써 재정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음.

○ 이와 동시에 UNDP의 권유로 국가계획위원회가 ODA의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며, SCCI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며, 체계적인 경제개발체제를 확립 하였음.

○ 베트남 경제의 특징으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반면 노동력이 풍부한 점을 감안한다면 개발경제를 지향하는 한, 노동집약적 경공업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공업의 육성은 실업문제의 완화와 더불어 생필품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임. 경공업의 육성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이것은 농업부문의 경영형태 개선과 기계화 보다도 중요한데 그 이유는 농업생산성의 증대로 인한 농촌인력의 방출보다는 산업화 ·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력의 흡수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임.

라. 경제구조의 변화

1) 개 황

○ '8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경제개혁정책들은 베트남의 사회 ·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82-'91년간 베트남의 사회총생산은 불변가격지수로 1.7배, 국민소득 역시 1.7배 증가하였는데 그 성장은 주로 '80년대에 이루어진 것임. 이를 최근

5개년만의 추이를 살펴보면, 경제개혁 정책이 실시된 이래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사회총생산의 '86~'90년간의 증가율은 26.4%, 연평균 4.8%로 국민소득 증가율은 동기간에 20%이고 연평균 3.9%임. 사회총생산과 국민소득 증가율은 다음과 같음.

〈표 Ⅱ-2〉 **사회 총생산 및 국민소득 증가율**

년 도	사회 총생산증가율(%)	국민소득증가율(%)
'86	7.4	6.5
'87	5.4	3.4
'88	6.5	4.6
'89	2.0	2.7
'90	2.9	2.4

o 사회총생산(GROSS SOCIAL PRODUCT)은 경상가격으로 '91년 89조 4,060억 동이며 그 내역은 공업 30조 6,490억 동(34.3%), 건설 6조 2,380억 동(7%), 농업 35조 7,840억 동(40%), 무역·물자공급 11조 3,170억 동(12.7%)임. 국민소득은 경상가격으로 '91년 45조 5,508억 6,300만 동이며 그 내역은 〈표 Ⅱ-3〉과 같음. 국민 1인당 소득은 '89년 추계는 215달러이었으며, '90년~'92년 동안은 매년 200달러 내외로 추정되나 정확한 수치는 통계상의 차이로 알려져 있지 않음. 외화준비고는 '90년 6월말 1억 1,300만달러이며, 그 중 금준비고는 3,300만 달러임. (1 Once= 360 달러로 환산).

〈표 Ⅱ-3〉 사회 총생산 및 국민소득 추이

(경상가격)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사회총생산 (10억동, %)	705.1 (100.0)	3,344.5 (100.0)	17,787.1 (100.0)	32,653.9 (100.0)	53,606.1 (100.0)	89,405.5 (100.0)
경제주체별						
국영부문	246.4 (34.9)	1,123.0 (33.6)	5,419,7 (30.5)	11,251.1 (34.5)	19,471.2 (36.3)	33,107.4 (37.0)
비국영부문	458.7 (65.1)	2,221.5 (66.4)	12,367,4 (69.5)	21,402.8 (65.5)	34,134.9 (63.7)	56,298.1 (63.0)
산업별						
공업	286.1 (40.6)	1,317.8 (39.4)	5,967,2 (33.5)	10,834.8 (33.2)	18,823.0 (35.1)	30,648.7 (34.3)
건설업	36.3 (5.1)	146.8 (4.4)	902.5 (5.1)	2,270.4 (7.0)	3.968.3 (7.4)	6.238.0 (7.0)
농림업	268.8 (38.1)	1,400.3 (41.9)	8,562.7 (48.1)	1,466.7 (44.9)	22,260.1 (41.5)	38,389.3 (42.9)
수송및통신	8.4 (1.2)	42.5 (1.3)	315.6 (1.8)	609.8 (1.9)	1,319.1 (2.5)	2,123.9 (2.4)
무역및물자공급	97.5 (13.8)	408.8 (12.2)	1,869.3 (10.5)	4,021.0 (12.3)	6,842.3 (12.8)	11,317.1 (12.7)
기타	8.0 (1.2)	28.3 (0.8)	169.8 (1.0)	250.2 (0.8)	393.2 (0.7)	688.5 (0.8)
국민소득 (백만동, %)	394.9 (100.0)	1,899.3 (100.0)	9,751.3 (100.0)	17,513.9 (100.0)	27,513.5 (100.0)	45,550.9 (100.0)
경영주체별						
국영부문	117.6 (29.8)	519.7 (27.4)	2,191,7 (22.5)	4,577.5 (26.3)	7,711.4 (28.0)	13,225.5 (29.0)
비국영부문	110.0 (70.2)	1,379.6 (72.6)	7,559.6 (77.5)	12,836.4 (73.5)	19,802.1 (72.0)	32,525.4 (71.0)
산업별						
공업	110.0 (28.1)	525.3 (27.7)	2,012.1 (20.6)	3,631.3 (20.9)	6,348.2 (23.1)	10,370.7 (22.8)
건설업	13.3 (3.4)	58.3 (3.1)	343.8 (3.5)	847.1 (4.9)	1,285.5 (4.7)	2,014.9 (4.4)
농림업	184.4 (46.6)	957.6 (50.3)	5,692.1 (58.4)	9,388 (53.9)	14,056.8 (51.1)	23,563.3 (51.7)
수송및통신	3.8 (1.0)	17.3 (0.9)	138.4 (1.4)	259.2 (1.5)	543.5 (2.0)	878.4 (1.9)
무역및물자공급	75.8 (19.2)	317.0 (16.7)	1,421.7 (14.6)	3,078.3 (17.6)	4,950.7 (18.0)	8,148.3 (17.9)
기타	6.9 (1.7)	23.8 (1.3)	143.3 (1.5)	210.2 (1.2)	328.9 (1.2)	575.3 (1.3)

○ 베트남의 부문별 국민소득 비중을 보면, '92년 현재 공업부문은 22.8%, 농림업부문은 51.7%를 차지하고 있는데, '86년 이후 농림업 부문이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식량증산과 농업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할 수 있음. 국민소득과 사회총생산을 비교하여 보면 지수의 변동방향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볼 때 농업과 유통업은 사회총생산보다는 국민소득에서의 점유율이 높은데 비하여 산업과 건설업은 그 반대임. 이는 산업과 건설부문에 외국인 국적 생산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사회총생산의 성장지수를 기간별로 나누어 산업부문별 성장추이를 보면, '76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공업부문의 사회총생산이 '76-'90년간 2배 이상, 국민소득 기준으로 1.9배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였으며, 농업부문 총생산은 1.7배, 건설부문 1.3배로 비교적 저조한 성장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표Ⅱ-4〉와 같이 '82년을 기준년도로 하면, '91년은 농업부문의 사회총생산이 1.7배이상, 국민소득 기준으로는 1.7배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였고, 공업부문과 건설부문 총생산은 1.6배로 약간 저조한 성장을 기록하였음. 이와 같이 서로 어긋난 것은 농업부문의 가격이 공산품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더 빨리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여줌.

〈표 Ⅱ-4〉 사회 총생산지수 및 국민소득지수 추이

(1982=100, 단위 : %)

연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사회총생산	107.4	105.4	106.5	102.0	102.9	166.7
경영주체별						
국영부문	110.0	106.9	105.8	102.6	104.9	170.0
비국영부문	105.4	104.4	106.9	101.6	101.8	164.9
산업별						
공업	106.2	108.6	109.8	97.5	104.5	162.8
건설업	99.4	105.2	99.2	103.5	103.8	157.2
농림업	112.4	102.1	104.1	107.1	101.4	172.5
수송및통신	106.7	110.8	103.5	93.1	105.4	161.0
무역및물자공급	102.7	103.9	106.5	103.1	102.1	165.3
기타	70.4	102.5	105.7	100.3	100.5	175.1
국민소득지수	106.5	103.3	104.6	102.7	102.4	165.5
경제주체별						
국영부문	115.3	113.0	99.4	109.1	105.0	171.5
비국영부문	103.7	99.9	106.6	100.3	101.5	164.2
산업별						
공업	104.6	111.4	103.9	97.7	104.6	163.4
건설업	99.8	105.6	96.5	102.8	105.7	156.7
농림업	109.5	98.6	105.2	106.1	101.4	167.6
수송및통신	108.7	110.4	100.7	93.3	106.3	161.6
무역및물자공급	106.0	103.9	106.1	102.7	101.9	164.6
기타	70.1	102.9	104.8	100.1	100.5	174.9

2) 경제성장추이

○ 〈표 Ⅱ-5〉는 사회주의 생산방식 혹은 순물질생산체계(MPS : Material Product system)*에 의해 '82년 불변가격으로 계산된 각 부문의 성장율, 국민소득의 성장율과 국민계정체계(SNA)에 의한 GDP의 성장율을 나타냄. '89년 가격으로 계산된 GDP수치에 따르면, 개혁기간 동안인 '88년과 '89년 GDP 성장추세는 가속화되었는데 성장율은 '87년 3.9%에서 '88년에는 5.1%로 '89년에는 8.0%로 증가했음. 이는 경제개혁조치가 생산에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음을 나타내는 것임.

○ MPS에 의한 국민소득의 성장율을 보면 '87~'90년 기간동안 성장율은 둔화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GDP자료와 상이한 성장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82년 가격이 최근 몇년 동안 높은 성장을 유지한 농업부문을 낮게 평가하고 있고, MPS계산에서 누락된 서비스부문이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MPS체계로 계산된 수치가 과소추정되었기 때문임. 따라서 사회주의 생산방식을 따르면 베트남의 '85년도 경제성장율은 5.7%, '89년도 경제성장율은 5.5%로 '88년도에 비해 조금 감소하였고, 1990년에는 2.4%로 크게 하락함.

○ 국민소득의 성장율을 경영형태면에서 보면 국영기업이 점하는 비중은 일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민간부문의 성장율은 '87년 이후 증가되다가 '90년에는 다시 감소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개혁하에서 안정되자 국영기업 생산체제가 회복되고 있음을 〈표 Ⅱ-5〉는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 UN경제통계방식 도입; 베트남은 경제통계 방식에 있어 현행 사회주의 생산방식(MPS : The Socialist Material Production System 혹은 Net Material Product System)대신 유엔국가계정방식 (SNA : The UN's System of National Accounts)을 도입함, 이는 UNDP에 의해 지원된 기술원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통계국은 '89년 가격기준으로 최근 몇년동안의 GDP 자료를 전산화하고 있는데 '93년도 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 SNA도입으로 실질적으로 국가경제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투입산출 방식을 베트남경제 시스템에 구축하게 되며, SNA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89년을 기준연도로 정했는데 이는 정부경제정책 및 운용에 본격적인 개혁 원년으로 기록되는 해임. 새로운 SNA에 의하면 1989-90년대에 베트남의 GDP성장율은 연평균 5.7%를 기록한데 반해 종전 방식으로는 3.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차이를 보여줌. 이러한 차이는 SNA가 종래 비생산적이라 해 무시되었던 서비스분야를 포함했기 때문이며 '89년의 가계저축은 5억 4천만불을, 공공분야 지출은 예산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임.

〈표 Ⅱ-5〉 경제성장율의 변화

(단위 : %)

항 목	1987	1988	1989	1990
불변가격 GDP*	3.9	5.1	8.0	5.1
국민소득**	2.6	5.7	5.5	2.4
국영기업	12.6	20.5	-7.4	5.5
집단부문	2.7	10.8	3.3	1.2
민간부문	-6.2	3.4	3.7	1.1
농 업	-3.4	5.9	6.4	1.2
공 업	11.4	3.9	-2.3	4.6
상 업	3.8	6.2	2.7	1.9
운수 및 통신업	12.9	0.0	-8.6	6.3
건 설 업	6.0	-3.8	2.0	5.8

주 : *1989년 기준, **1982년 기준

○ '80년대 후반의 각 산업부문별 성장율을 보면, 농업부문의 경우 '88년 5.9%, '89년에 6.4%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농업부문의 성장은 이 기간의 농업개혁과 가격개혁에 기인함. 그러나 MPS통계를 보면 다른 산업에서는 '89년의 안정화 프로그램에 의해 부정적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데 가장 심하게 영향받은 부문은 공업(-2.3% 성장)과 운수, 통신(-8.6%)이었고 반면, 건설부문은 2.0%, 국내교통은 2.7% 성장함.

○ 그러나 이러한 수치들은 '89년 국가소유부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반영이겠지만, 비국영부문에서의 성장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국영기업은 이자율의 증가, 전체 신용의 제한, 구소련 원조의 소멸 또는 구소련산 원자재가격 상승에 의해 '89년에 크게 타격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음.

○ SNA와 MPS 수치 모두에 따르면 '90년에 경제성장은 뚜렷이 둔화되었는데, GDP 성장은 단지 5.1%였고, MPS 형식으로 추계된 국민소득도 단지, 2.4% 성장하였음. 산업부문 별로는 공업, 운수·통신, 건설부문의 성장율이 '89년에 비해 증가하였음. 국영기업 역시 '89년과는 달리 5.5%의 성장을 기록함.

○ '91년에는 경제성장이 감소되었는데 '91년 상반기 동안 태풍에 의한 자연적 재해와 구소련체제의 붕괴로 인한 교역과 대외원조의 급격한 감소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임. 구소련과의 무역감소는 남부지역에 비해 북부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쳐 지역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는데 홍하텔타 지역에 소재해 있는 국영기업들과 기계생산업체들은 신발류, 카페트, 대나무류 가구와 같은 몇백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품을 소련에 수출해 왔는데, 이 교역이 '91년에 갑자기 중단됨에 따라 북부지역경제는 어려움에 빠졌음. '92년에는 쌀 200만톤을 수출하는등 무역흑자를 보이며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음.

○ 경제성장 둔화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대동구 국가수출량 격감과 해외 취업노동자의 귀환을 들 수 있음. 이와 동시에 구소련으로부터의 정유와 비료의 수입은 비사회주의권으로 부터의 구매로 대체되어야만 했고, CMEA국가들의 원자재 공급중단 및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원자재 수습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임.

○ '91년 식량곡물생산은 '90년 보다 약간 더 많은 2,170만톤을 기록하였으며, 원유산출량 역시 기대 이상으로 증대되었고, 새우, 고무와 같은 가공된 1차 상품의 수출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추세는 계속되리라 전망되며 '92년에는 최초로 무역흑자를 낳았음. UN의 국가계정방식에 따른 2000년대 까지의 예상 GDP성장과 성장율 목표는 다음과 같음.

〈표 Ⅱ-6〉 예상 경제성장율의 변화

(단위 : %)

연 도	GDP : 10억동 ('89년 경상가격)	전년대비성장율(%) (전년대비증가율)
1991	28,465	3.8
1992	29,888	5.0
1993	31,681	6.0
1994	33,836	6.8
1995	36,373	7.5
1996	39,283	8.0
1997	42,622	8.5
1998	46,458	9.0
1999	50,872	9.5
2000	55,959	10.0

마. 투자 및 소비

○ 투자와 소비의 추이〈표 Ⅱ-7〉를 보면 총투자는 '80~'90년 사이에는 57%의 증가를 보였으나 '80년도 후반에 들어와서 조금씩 감소되고 있음. 반면 소비는 10년간 54%로 투자보다는 다소 낮은 율로 증가하였으나 투자와는 달리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그 결과 총 지출 중 투자의 구성비는 '80년의 9.6%에서 '88년에는 15.0%로 현저히 증가하였으나 '90년에는 12.6%로 오히려 감소하였음.

〈표 Ⅱ-7〉 투자 및 소비의 추이 : 지수와 구성

(단위 : %)

구 분	1980	1986	1988	1990
투 자	100	140.9	154.0	156.9
고정자산	100	174.2	137.2	154.0
유동자산	100	230.3	290.9	204.6
소 비	100	133.3	144.9	153.6
개 인	100	135.2	146.9	155.7
사 회	100	102.4	112.0	119.6
투 자	9.6	14.5	15.0	11.6
고정자산	3.2	4.0	2.9	3.2
유동자산	6.4	10.5	12.1	8.4
소 비	90.4	85.5	85.0	88.4
개 인	85.2	81.7	81.1	84.5
사 회	5.2	3.7	3.9	3.9

○ 투자지출 중 국가투자의 규모(표 Ⅱ-8 참조)는 '76~'86년 사이에 61% 증가하였으나 '90년에는 41%로 다소 감소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70년대 후반에는 기계장비에 치중한 반면, '80년대에는 비생산부문인 건물설비 등에 치중하였기 때문임.

〈표 Ⅱ-8〉 국가 투자지출 추이 : 지수와 구성

(단위 : %)

구 분	1976	1980	1986	1990
총 계	100	124.6	160.5	141.3
건물 · 설비	100	97.9	282.8	153.5
기계 · 장비	100	184.9	82.1	86.9
기 타	100	126.1	260.0	236.8
	(1980)	(1986)	(1988)	(1990)
생산부문	90.2	81.2	85.6	85.6
공 업	40.7	35.7	45.4	44.7
건 설	5.4	1.5	0.9	-
농 업	19.0	19.7	19.2	20.4
임 업	2.8	4.8	3.6	3.3
수 송	19.8	15.4	12.7	12.2
통 신	1.7	0.7	0.7	2.2
유 통	1.6	3.4	3.1	2.8
기 타	-	0.0	0.0	-
비생산부문	9.8	18.8	14.4	14.4
주택 · 공공서비스	3.4	8.5	5.7	6.6
과 학	0.9	0.7	1.2	-
교 육	2.6	3.6	2.8	-
문화 · 예술	0.3	1.1	1.3	-
보건 · 사회보장	1.9	2.2	2.0	-
금융 · 보험	-	0.0	0.0	-
기 타	0.7	2.7	1.4	-

2. 예산 및 재정

가. 예산체계

○ 예산은 중앙정부와 세개의 지방정부인 성(Province), 구(District), 자치구(Commune)로 구성된 4개 정부차원에서 편성·집행되며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이 총공공지출과 수입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재무부가 정부통합예산의 책임을 맡고 있으나, 보통 정부통합예산의 2/3정도인 중앙정부 예산만을 직접 통제하며 나머지 1/3은 지방정부의 관할하에 있음.

○ 재정체계는 다른 계획경제국가와 유사하지만, 동구권국가에 비해 지방정부에 대한 공공지출을 철저히 통제하지 않는 편으로 대부분의 세금징수는 지방정부의 관할이며 중앙정부는 관세만을 징수함. 재정수입은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정부 예산으로 나누어지고, 일부 세금은 일정비율로 분할되며, 매년 협상과정을 통해 예산배분 비율을 결정하는 특징이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간 예산은 1년 단위로 계획되어 매년 5월 각 부처와 성은 다음해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가계획위원회(State Planning Committee : SPC)와 재무부에 제출함. 총 예산수입 및 자금지원 예상액의 각 행정단위간 배분은 SPC와 관련부처, 성 당국간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져, 9월까지 국가예산안이 각료평의회 사무국(OCM : Office of the Council of Ministers)에 최종승인을 위해 제출됨.

나. 예산구조와 운용

○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편성되는데 세입은 주로 농업세, 공상업세, 물품세 등 조세수입과 국영부문의 생산물 판매수입으로 충당되며 세출은 국영부문의 임금지출, 농산물구입 대금지출 및 기본적 소비물자의 구입대금 지출 및 수입·국영기업 적자에 대한 보조금지출등에 사용됨. 재정적자에 대한 대책으로서 절약의 강화 외에 국가건설 국·공립채 발행, 외국으로부터의 송금규제 완화, 외자도입, 외국과의

경제협력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92년 상반기에는 최초로 무역흑자를 이룩하였으며 인플레이션도 15%로 상당히 낮아졌음. 다음은 3개년간의 정부의 재정운용 상태를 나타냄.

〈표 Ⅱ-9〉 **정부의 재정운용 추이**

(단위 : 10억 동)

구 분	1988	1989	1990
세 입	1,617	3,428	4,460
(전년비증가율 : %)	(326.3)	(112.0)	(30.1)
국영기업에서의 이전	971	1,410	1,640
조세수입	455	1,043	1,520
비조세수입	191	975	1,300
세 출	2,710	5,631	6,712
(전년비증가율 : %)	(426.3)	(107.8)	(19.2)
경상지출	2,161	4,131	5,012
자본지출	549	1,500	1,700
재정적자보전	-1,093	-2,203	-2,252
외국차관, 원조금	356	548	1,052
중앙은행차입	450	1,655	1,200
국 채	17	-	-
지불체불	270	-	-

1) 세 입

○ 중앙정부는 '89년 현재 총 공공지출의 약67%와 재정수익의 31%정도 책임지고 있으므로 36%의 재정 불균형을 낳고 있음. 따라서 재정상황의 현저한 특징 중의 하나는 세입이 매우 낮아 재정원천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재정적자를 계속 보이고 있음.

○ 총 세입은 '88년이후 계속 증가해서 '90년에 GDP의 13.1% 수준이 되었으나, 세입원천의 구조는 변화되어 국영기업으로부터의 이전은 '87년까지는 대부분을

차치했으나 '88년 GDP의 7.2%로 '90년에는 5.3%로 상대적으로 감소됨. 즉, 세입면에서는 예산이 지나치게 국영기업으로 부터의 이전수입에 의존하였으나, 국영기업에 보다 많은 재정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전수입이 크게 하락하였음. '88년에는 GDP의 11.3%만이 정부 세입으로 들어왔으며, 국영기업으로 부터의 이전수입은 세입이 64%로 약간 증가하였음. 총세수입중에서 조세수입은 '88년 24%에서 '90년에는 27%로 계속 증가하였는데 이는 '88년 Dong화의 평가절하와 상품세입세와 농산물세의 증가에 기인함.

○ 조세수입은 인플레이션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89년에는 GDP의 3.4%에 불과함. 동 기간동안 전체 세입의 상승경향은('88년 11.3%에서 '90년 13.1%) 원유생산으로 부터의 비조세세입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비조세 수입은 '88년 GDP의 1.2%에서 '90년 4.3%로 증가했는데 만약 증가된 석유세입이 없었다면 정부의 재정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임. 향후 정부의 직접통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됨에 따라 정부의 조세수입은 더욱 늘어날 전망임.

2) 세　　출

○ 정부 세입이 경상수지를 상쇄할만큼 충분하지 못하였는데 이자를 제외한 경상지출은 '88년 GDP의 13.9%였으나, '89년과 '90년에 베트남정부는 경상지출을 제한하여 '90년에는 13.2%로 감소됨. 임금과 봉급은 '88년 GDP의 7.0%수준에서 '89년 4.0%, '90년 GDP의 3.7% 수준으로 크게 삭감됨.

○ '90년의 경우 정부지출은 6조7천억동이 넘었으며, 재정적자는 2조2억동으로 적자는 지출대비 45%까지 이르러 정부는 중앙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차입을 시도했음. 정부의 이자 지불은 '90년 GDP의 1.9%에 달했는데 이러한 이자 지불의 증가는 '89년과 '90년사이에 외채를 갚으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음. 투자프로그램은 최근 몇년간에 적절한 수준이어서 자본지출은 '88년에 GDP의 4.4%, '89년에 6.4%까지 증가되었으나, '90년에는 자본지출은 GDP의 4.5%로 다시 떨어졌음.

3) 재정적자의 보전

o 만성적인 재정적자는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의 초인플레의 주요 원인이 되어왔음. 이자지불을 포함한 총경상지출은 총세입을 초과하여 '88년의 재정적자는 GDP의 7.1%수준이었음. 따라서 이 기간동안 구소련의 보조는 적자보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는데, '88년의 경우 GDP의 4.4%였던 자본지출의 일부분에는 구소련의 프로젝트인 호아빈수력발전소 건설이 포함된 동시에 사회주의 국가로부터의 차관과 원조로 예산에 기재된 프로젝트도 적자보전에 어느정도 기여하였음. 그러나 '88년에는 원조성격을 갖는 차관이 단지 GDP의 2.4%에 불과하여, 7.2%수준의 재정적자를 메꾸는데 크게 기여하지는 못했음.

o '89년에 구소련으로 부터의 원조가 감소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이전부터 베트남은 큰 재정적자를 보여 왔음. '88년에 국가중앙은행을 통해 조달한 적자부문은 GDP의 2.9%에 불과하며, '89년에 총적자는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지만, 대부분 통화발행에 의해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데 중앙은행으로 부터의 차입을 통해 조달된 적자부분은 GDP의 6.0%로 거의 두배가 되었음. '90년 정부의 이자지불전 적자는 GDP의 4.6%수준으로 '86년보다 크게 감소하였음.

다. 정부지출의 구조

o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 년간에 걸쳐 공공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단행하여, 개혁 프로그램하에서 국영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지급을 철폐하며,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는 등 어느 정도 재정개혁의 성과를 거둠. '80년 중반이후 정부지출을 감소시키는 한편 사회부문에 대한 지출을 증대시키며 부문간 재정지출을 변화시켰지만 '90년말 현재 정부 총지출을 크게 줄이지는 못함.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성되는 정부예산의 총지출은 '89년 불변가격으로 '87년 GDP의 16.6%에서 '90년에는 19.6%로 증가하였음.

〈표 Ⅱ-10〉 정부지출의 GDP비중 추이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총 지 출						
(십 억 동)	121	515	2,840	6,105	9.186	10,630
(GDP비중)	19.0	16.6	18.4	18.7	19.6	12.0
(불변가격)**	5,354	4,084	5,397	6,105	6,735	4,257
경상지출						
(십 억 동)	85	395	2,167	4,028	7,062	9,180
(GDP비중)	13.4	12.7	13.9	12.3	15.1	10.4
(불변가격)	3,800	3,693	4,229	4,028	5,177	3,676
자본지출						
(십 억 동)	36	120	673	2,077	2,124	1,450
(GDP비중)	5.6	3.9	4.3	6.4	4.5	1.6
(불변가격)	1,554	1,111	1,168	2,077	1,557	581

주 : * 잠정치, ** 1989년 가격기준

1) 경상지출

(1) 현 황

○ 경상지출은 정부지출의 3/4정도를 차지해 왔으나, 개혁 프로그램하에서 그 구성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음. '89년의 경우 투입재와 상품에 대한 정부보조금 철폐로 인해 정부지출은 GDP의 5.3%가 감소된 반면, 다른 정부지출은 GDP의 3.6%만큼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GDP의 1.7%만큼 정부지출이 감소하였음. '90년에는 경상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대하였는데, 이는 대 상업기업 자본투자를 위한 모든 예산분배를 중단한 결과임.

○ 정부지출 임금은 '89년 개혁결과 경상지출의 11.8%에서 32.0%로 증가하였으나 '90년에는 24.7%로 감소하였고 '91년에는 21.8%로 더욱 감소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공공부문의 고용을 억제했기 때문임. 더욱이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조정에 소극적이어서 '90년 '91년에 걸쳐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감소하였음. 〈표 Ⅱ-11〉은 경상지출의 구성과 그 추이를 자세히 나타내고 있음.

○ 한편, 정부는 군병력과 국영기업의 고용을 감축하는 동시에 공공부문을 간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90년 27만명의 국영기업 노동자(국영기업 노동력의 11%)들을 해고시켰으며, 민간서비스분야의 간소화를 단행함. '91년에 정부노동력은 5% 더 감소되었으며, 향후 민간서비스분야의 20%도 수년내에 감소될 예정임. 이런 현상과 매년 새로이 증가하는 노동가능 인구로 인해 '92년 현재 비공식적으로 약 700만명의 실업자가 존재함.

〈표 Ⅱ-11〉 경상지출의 구성 및 그 추이 I

(단위 : 10억동)

분 류	1988	1989	1990	1991
임금 및 봉급	225	1,290	1,744	2,001
보조금	812	-	-	-
식량조달	486	-	-	-
생 산	51	-	-	-
수 출	275	-	-	-
이 자	26	48	903	1,400
기 타	1,074	2,690	4,415	5,779
국영기업 지원	88	128	68	-
행정경비	30	120	181	241
의 료	47	124	295	433
교 육	37	83	261	385
관리 및 운영	80	245	290	428
나머지 1)	792	1,990	3,319	4,292
총경상지출	2,176	4,028	7,062	9,180
(GDP의 비중, %)				
임금 및 봉급	1.7	4.0	3.7	2.3
보조금	5.3	-	-	-
식량조달	3.1	-	-	-
이 자	0.2	0.1	1.9	1.6
기 타	7.0	8.2	9.4	6.5
관리 및 운영	0.5	0.8	0.6	0.5
나머지	5.1	6.1	7.1	4.9
총경상지출	14.0	12.3	15.1	10.4
(경상지출의 비중, %)				
임금 및 봉급	11.8	32.0	24.7	21.8
보조금	37.5	-	-	-
식량조달	22.4	-	-	-
이 자	1.2	1.2	12.8	15.3
기 타	49.6	66.8	62.5	62.9
관리 및 운영	3.7	6.1	4.1	4.7
나머지	36.5	49.4	47.0	46.8
GDP(경상가격)	5,444	32,654	46,813	88,446

주 : 1)국방비에 대한 기본적 지출포함

(2) 사회부문

○ 정부는 공공부문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반면 사회부문(Social Sector)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였는데, 주요 사회지출은 '88년과 '90년 사이에 크게 늘어났음. 정부총지출 중 사회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88년 GDP의 2.2%에서 '91년 3.5%로 증대하였으며, 정부지출 중 사회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88년 15.9%에서 '91년 33.5%로 늘어남.

○ 보건과 교육에 관한 공공지출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용지출은 GDP의 1%수준으로 여타 개도국에 비해 낮으며, 보건부문에 대한 공공지출도 여전히 낮은데 정부의 보건비 지출은 '89년 GDP의 0.6%수준임. 다음은 GDP 대비 개도국의 보건 및 교육부문 지출의 GDP에서의 비중 비교표임.

〈표 Ⅱ-12〉 **개도국의 교육 및 보건부문 지출현황**

(단위 : %)

구 분	베 트 남	태 국	중 국	방글라데시	네 팔
교 육	1.0	3.5	3.4	1.9	2.0
보 건	0.6	1.1	0.8	0.7	-

○ '90년 연금, 기타 사회보장에 대한 총지출은 교육·보건비 지출을 훨씬 초과했는데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회적 부문에서 더 중요한 부문으로 지출 전환이 필요함. 특히, 교육부문은 예산증가가 필요한 우선분야임. '90년과 '91년 정부의 교사임금 인상율이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따르지 못함에 따라 교사들의 실질임금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교직을 떠나는 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표 Ⅱ-13〉 경상지출의 구성 및 그 추이 Ⅱ

(단위 : 10억동)

분 류	1989	1990	1991
일반 행정 서비스	460	676	693
경제 서비스[1]	389	523	705
사회 서비스	1,252	1,998	3,705
교 육	317	439	705
보 건	209	368	458
사회보장	448	695	1,120
기 타	278	496	792
이 자	48	903	1,400
기타(보조금 포함)	1,879	2,962	3,307
국 방	1.311	2,270	-
총경상지출(10억동)	4,028	7,062	9,180
(GDP에서의 비중, %)			
일반 행정 부문	1.4	1.4	0.8
경제 서비스	1.2	1.1	0.8
사회 서비스	3.8	4.3	3.5
이 자	0.1	1.9	1.6
기타(보조금포함)	5.8	6.3	3.7
국 방	4.0	4.8	-
총 경 상 지 출	12.3	15.1	10.4
(총경상지출비중, %)			
일반 행정 부문	11.4	9.6	7.5
경제 서비스	9.7	7.4	7.7
사회 서비스	31.1	28.3	33.5
이 자	1.2	12.8	15.3
기타(보조금포함)	46.6	41.9	36.0
국 방	32.5	32.1	-
GDP(경상가격)	32,654	46,813	88,446

주 : [1] 농업, 임업, 수송 등의 산업포함

(3) 지방정부

○ 지방정부의 지출액은 총공공부문지출의 1/3에 해당하는데, 대부분의 지방 경상지출 예산은 지방행정(24%), 교육(21%), 보건(11%)으로 구성됨, 지방수익은 지방과 중앙 정부예산으로 분할되어 재정이 매우 풍부한 지방으로 부터 부족한 지방으로 재분배되는데, '89년의 경우 베트남의 절반에 해당하는 성이(약 22개) 혜택을 받음.

○ 정부지출의 재분배 상황은 지방정부별로 상이한데 1인당 징수액은 '89년 북부해안지역의 15,900동에서 호지민시의 128,000동에까지 8배의 차이가 남. 이와 반대로 1인당 재정지출은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음. 〈표 Ⅱ-14〉를 보면 1인당 정부지출의 균등성이 사회보장의 균등으로 전환됨을 알 수 있는데 의사비율은 부유한 메콩델타 지역보다 재정이 빈곤한 북부해안과 중부해안 지역이 더 양호하며 교사당 학생수도 지역별 큰차이가 없음(27~30명). 따라서 정부지출은 명백히 지역간 사회보장의 재분배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줌.

○ 재정수입에 대한 지출비율은 가장 빈곤한 지역인 중북부 해안지역에서 정부지출이 수입징수보다 70% 더 높은데, 이는 중앙으로부터의 보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상태가 빈곤한 지방인 북부산악지역과 중부고원지대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보조를 받고 있음. 홍하델타 지역의 재정수입과 지출은 기본적으로 비슷하며, 메콩델타와 남부해안지역은 재정수입의 20%를 중앙에 제공하는데(하노이, 하이퐁), 특히 남부공업지대의 호지민시와 주변지역은 더 많이 기여하였음.

〈표 Ⅱ-14〉 지역별 재정수입과 지출 ('89)

지역	일인당 재정수입	일인당 재정지출	재정지출 비 율	일인당 GDP	의 사 비 율	교 사 비 율
	(천동)	(천동)	(%)	(천동)	(명)	(명)
베트남전체	44.1	31.3	0.71	507	3,929	26.7
북부해안	15.9	27.1	1.70	226	4,581	24.8
중부고원	23.9	38.1	1.59	243	6,053	24.0
북부산악	23,1	30.3	1.31	315	3,124	22.1
홍하델타	22.0	21.5	0.98	393	3,129	26.6
메콩델타	32.2	26.5	0.82	371	4,545	27.2
하노이市[1]	41.6	32.2	0.78	599	3,513	30.8
호치민市	86.2	46.5	0.54	518	2,111	26.9

주 : [1] 하이퐁 포함

2) 자본지출

○ 국가계획위원회(SPC)는 중앙은행이 대출한 신용과 정부예산이 제공한 투자자금을 분배하는데, SPC는 성정부, 중앙정부의 부서간 자본을 할당하고, 각료회의사무국(OCM)의 승인을 얻어 투자계획을 입안함. SPC를 포함한 관련부서의 대표로 구성되는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는 작은 규모의 투자안은 OCM이 정한 규정과 총예산에 의거하여 SPC가 승인한 투자자본기금에 의해 재정지원함.

○ 정부예산의 무상지원 자본과 은행을 통한 장기투자신용이 각 부와 성예산에 연간계획을 통해 할당·분배되며, 각 연도계획에는 무상지원과 신용 및 재정에 필요한 조건들과 함께 자세한 투자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투자개발은행(Bank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는 국내은행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장기대부

의 원천이며, 이 은행을 통한 신용대출은 보조·배급성격을 띠므로 각 연도계획에 따라 할당·배분됨.

○ 〈표 Ⅱ-15〉에 의하면 자본지출은 평균 GDP의 4% 수준이었으나, '89년은 예외적으로 몇몇 신규사업의 시작과 쌀 비축량 증대로 인해 GDP의 6.4%까지 증가하였으나, '91년에는 다시 평균수준이하인 1.6%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였음. 이는 정부가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정부예산에서 은행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임.

○ 공업과 건설부문은 개혁정책과 지출삭감에 의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은 분야로, 이 분야에 대한 자본지출은 '89년 GDP의 2.3%에서 '91년 0.1%로 대폭 감소됐음. 고인플레이션, 큰 폭의 생산량변동, 취약한 은행구조로 인해 사부문의 투자가 억제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여러가지 법적구조의 미비로 사적부문의 활동규제와 투자가 제한되어 왔기 때문임.

〈표 Ⅱ-15〉 **자본지출구성 추이**

(단위 : 십억동, %)

구 분	1989	1990	1991
GDP (비중, %)	32,654(100)	46,813(100)	88,446(100)
공업과 건설	766.0(2.3)	745.8(1.6)	48.9(0.1)
농업과 임업	68.0(0.2)	113.3(0.2)	70.3(0.1)
관개시설	131.0(0.4)	243.1(0.5)	244.1(0.3)
수송과 통신	197.0(0.6)	323.3(0.7)	335.3(0.4)
상업과 서비스	47.0(0.1)	90.9(0.2)	22.7(0.0)
비생산 부문[1]	410.0(1.3)	424.8(0.9)	367.0(0.4)
적 립 금[2]	451.0(1.4)	177.0(0.4)	135.9(0.2)
기 타	7.0(0.0)	5.9(0.0)	225.7(0.3)
총자본지출	2,077.0(6.4)	2,124.0(4.5)	1,450.0(1.6)

주 : 1) 비생산부문에는 교육, 보건, 문화 포함.
2) 주요물자를 위한 운용자금 포함

○ 정부는 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89년 이후 공공자금의 국영기업에 대한 직접 이전을 억제하였으며 국영기업들에 대한 모든 공공투자를 은행을 통한 신용대출로 전환하였음.

○ 재정상태의 어려움과 외국의 미약한 재정적 지원때문에 투자지출의 경우 공공투자가 매우 저조함. '89년 이후 구소련과 동유럽의 원조 및 물자지원 중단과 서방국가로부터 자본유입이 크게 감소되어 정부는 투자지출을 감소하거나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통화공급을 증대시키지 않을 수 없어 많은 화폐를 발행하여 통화공급 확대를 꾀했음.

○ '90년 경제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매출세, 소득세 및 특별소비세의 관련법 제정에 의한 세제개편에 따라 재정적자는 점차 축소되고 있음. 현재까지 실시된 베트남 개혁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가격개혁과 보조금철폐가 정부예산 항목을 명료하게 하여 광범위한 분야들에 대한 정부예산 배분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던 것임.

○ 투자개발은행은 정부통제하에 재정적으로 수익이 별로 없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나, 이러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이 이용할 수 있는 장기적 재원이 전무한 상태임. '90~'91년 국영기업의 투자개발은행에 대한 투자는 주로 국가은행의 직접적인 신용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90년에는 3,000억동, '91년 6,000억동이었음. '90년의 경우 3,000억동은 국가중앙은행에서 투자개발은행으로 이전되어 산업에 40%, 운송에 20% 정도, 나머지는 다른 부문에 각각 배분되었음.

3. 가격 · 임금 및 금융

가. 가격 및 임금정책

○ 가격개혁을 위한 첫 조치는 '79년 국경기업이 자유시장에서 원자재를 구입하여 생산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시행되었음. '81년 새로운 가격조치를 도입하여 북부의 행정지도 가격제도를 남부의 자유시장 가격제와 더욱 유사한 형태로 개정하였음. '85년의 가격 개혁은 훨씬 파급효과가 커서 가격왜곡을 해소하고 모든 경제부문에서 보조금제도를 철폐하였음.

○ '85년의 가격개혁으로 농산물조달가격은 각 지방의 수요 · 공급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공산품가격은 생산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인상되어 철강, 석유, 전기, 비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산품가격은 실질비용을 토대로 결정되었음. 소비자 차등가격체계가 철폐되었으나 6개 주요 소비재에 대해 배급제를 유지하였으며, '87년에는 쌀과 등유에만 배급제가 실시됨.

○ 농산물가격은 현재 거의 모든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89년말 공산품에 대해서는 국경기업 생산품의 약 80%가 이미 시장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 사회복지필수품목(Social Benefit Items)을 제외하고는 국가창구를 통해 판매되는 모든 소비재는 시장가격수준에 가격이 책정되며 또한 자유시장에서의 상황에 맞게 수시로 조정되고 있음.

○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직원의 급여구조는 거의 균등하나 전쟁의 영향으로 급여수준은 미미한 실정임. 국영기업 근로자의 소득에는 현금 월급과 배급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가격보조금 및 사회복지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배급대상 상품은 기초소비재이며 직위에 따라 수량과 품질이 정해지며 이밖에 주택, 보건, 교통, 기타 공공시설물과 같은 혜택이 주어짐.

○ 그러나 지난 수년간 인플레이션을 보전하고, 배급물품감소 및 지도가격 상승 등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급여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음. '89년 1월 정부는 특정한 소비자보조금을 명목임금구조에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공무원 임금구조 개편을 단행하였으며 공무원의 최저 월급여 또는 쌀값 인상을 고려하여 재조정하였음.

나. 화폐 및 금융정책

○ '88년 이후 일련의 개혁정책이 도입되어 통화제도와 수단, 화폐와 이자율 정책, 금시장 등에 영향을 주게 되어 화폐와 금융분야의 전반적인 흐름에 변화를 일으키게 됨. '86~'88년 기간 중 국내 총여신이 인플레이션만큼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영기업이 약 87%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여신을 받았고 협동조합이 10%, 민간부문이 3%를 차지하였는데 운전자금을 위한 여신이 고정자본 여신보다도 급격히 증가하여 기업의 높은 생산비용을 반영하고 있음.

○ 고정자본여신은 '87년부터 국영기업이 이미 국가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서만 여신을 제공받을 수 있고 동시에 그들 자신의 자본으로부터 총자본의 25%를 충당할 수 있을 때 가능하게 되어 더욱 제한을 받게 됨.

○ '88년 이전까지 금융체제는 베트남국가은행(State Bank of Vietnam : SBV), 대외무역은행(Bank for Forign Trade of Vietnam : Vietcombank), 건설투자은행(Construction Investment Bank : CIB)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88년 7월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 금융체제가 개편됨. 금융체제의 운영조정을 위해 국가은행위원회(National Bank Committee : NBC)가 설치되었고 지방금융위원회가 조정역할을 위해 각 지방에 설치되었으며 추가로 국가금융 및 재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재정-금융정책을 입안·조정함.

○ 신설 농업개발은행(Bank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 BAD)과 상공은행

(Bank for Industry & Commerce : Incombank) 두 은행이 상업은행으로서 각각 역할을 담당함. 베트남국가은행의 중앙은행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저축기금의 예치는 농업개발은행과 상공은행에서 취급하게 됨. 대외무역은행과 상공은행에 더 많은 자율권이 주어졌고, 그 이익과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짐.

○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베트남의 취약한 금융서비스 부문인데 최근들어 베트남의 금융체제가 점차 상업금융체제로 전환되면서 대고객서비스도 개선되고 있음. 특히 SBV을 중심으로 국영전문은행(대외무역은행, 투자개발은행, 상공은행, 농업개발은행 등) 및 지점으로 은행체제외에 국영 또는 합작의 신용조합, 보험회사 및 금융회사형태의 금융기관이 존재하며, 상업은행과 외국과의 합작은행 및 외국은행이 사무소나 지점을 두고 있음.

○ '89년 3월 이전까지는 이자율이 인플레이션율을 훨씬 밑돌았으며, 예금과 대출에 대한 금리가 국영기업에는 저금리가 적용되고 민간부문에는 고금리가 적용되었음. 즉 목적과 대출자에 따라 이자율이 상이하게 적용되어, 국영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는 그것이 연간계획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왔음. '89년 3월 이후 대출자에 대한 차등정책이 철폐되었고 이자율도 현실화되었으며, 월이자율도 분기별 인플레이션율이 나옴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절됨.

○ 경제개혁과 더불어 시장경제체제로 체질적응이 비교적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자산, 여신 및 수신, 수익 등이 공표되지 않아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금융부문에서 최초의 영업실적보고서가 나와 시장경제전환에 따른 성과로 평가되고 있음. 베트남 대외무역은행(VIETCOMBANK)은 '93년 4월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베트남은행사상 처음으로 '91년 연간보고서를 발표하며, '91년말 기준 평가자산은 10억불, 세전수익은 1,600만불을 기록했다고 밝힘.

○ '88년 9월이전까지 금거래는 적어도 원칙적으로 국가독점사항이었고 따라서 금수출

은 금지되었으나 그후 금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매입과 판매가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졌음. 불안정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VIETCOMBANK은 '89년 3월 이후 국내외 시장여건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으로 민간으로부터 외환을 통해 금을 매입하고 있음.

○ 통화는 동(DONG)이며, 은행권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10,000 짜리가 '92년 5월 발행되었음. '89년 3월 베트남 정부는 환율을 공정환율로 통일시키고 변동환율제를 도입하여 '92년 1월 중반에는 1만 2,000동 대에서 환율이 변했지만 소폭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93년 4월 현재 1만동임.

○ 인플레이션율은 '88년 중반이후 안정되어 '90년의 인플레이션율은 '89년말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60%였으며, '91년 인플레이션율은 50% 정도이고, 정부가 '92년도의 인플레이션은 15%임. 통화 유통량(M2)은 '90년 6월말 6조3,690억 DONG이었음.

○ 인플레이션의 직접적인 원인은 국가은행(SBV)으로부터의 신용급증에 따른 통화공급의 급속한 증대로 '89~'90년에는 인플레이션 억제가 정부정책의 최우선 목표중의 하나였음. 금융정책은 신경제모델하의 거시경제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금융부문이 자금잉여부문으로부터 자금부족부문으로 자금이 이동되도록 하는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

○ GDP에서의 비중을 기준으로 총통화는 '89년 19.6%에서 '91년 13.2%로 감소하였음. 통화증가율은 '89년 170%에서 '91년 30.1%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인플레이션율은 68.1%로 증가하였음. 현금통화는 GDP의 비중으로 '88년말 (4.2%)과 '89년말 (6.6%)간에 크게 상승했는데 이는 국내통화의 신용이 증가했음을 나타냄. 가계예금은 '88년 12월 GDP의 0.8%에서 '90년 12월 GDP의 3.4%로 실질적으로 증가하여 국내통화의 사용이 증가했음을 보여줌.

〈표 Ⅱ-16〉 통화지표 추이

분 류	1987	1988	1989	1990	1991
			(십억동, 연도말 잔액)		
총통화(M2)	471	2,569	6,937	10,938	14,228
Dong 유동성	442	2,327	4,857	7,368	9,900
현금통화	205	1,024	2,352	3,744	5,340
동(Dong)예금	237	1,303	2,505	3,624	4,560
가계예금	36	200	1,348	2,151	na
외국통화예금	29	242	2,080	3,570	4,328
국내신용	532	2,633	6,717	9,809	12,071
정 부	80	669	2,600	4,024	4,881
국영기업	376	1,709	3,606	5,211	6,470
비국가부문	76	255	511	574	720
GDP(12월)	4,694	24,358	35,426	62,372	108,188
			(GDP 대비 비중)		
총통화(M2)	10.0	10.5	19.6	17.5	13.2
Dong 유동성	9.4	9.6	13.7	11.8	9.2
현금통화	4.4	4.2	6.6	6.0	4.9
동(Dong)예금	5.0	5.3	7.1	5.8	4.2
가계예금	0.8	0.8	3.8	3.4	na
외국통화예금	0.6	1.0	5.9	5.7	4.0
국내신용	11.3	10.8	19.0	15.7	11.2
정 부	1.7	2.7	7.3	6.5	4.5
국영기업	8.0	7.0	10.2	8.4	6.0
비국가부문	1.6	1.0	1.4	0.9	0.7
			(전년대비 증가율)		
총통화(M2)	-	445.4	170.0	57.7	30.1
Dong 유동성	-	426.5	108.7	51.7	34.4
현금통화	-	399.5	129.7	59.2	42.6
동(Dong)예금	-	449.8	92.2	44.7	25.8
가계예금	-	455.6	574.0	59.6	na
외국통화예금	-	734.5	759.5	71.6	21.2
국내신용	-	394.9	155.1	46.0	23.1
정 부	-	736.3	288.6	54.8	21.3
국영기업	-	354.5	111.0	44.5	24.2
비국가부문	-	235.5	100.5	12.3	25.4
소비자물가지수	-	393.8	34.7	67.5	68.1

4. 경제협력

가. 대외채무

○ 대외채무 총액은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89년말 78억 4백만 달러로 이중 경화표시 외채는 34억 1,600만 달러, 비경화표시 외채는 약 106억 루블(Ruble)로 그중 대소채무가 91억루블 이었음. '90년의 총액은 약 81억 5,100만 달러이며 무역적자로 인해 외채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경화거래기준 '92년 외채잔액은 36억 9천만 달러이며, 외채상환(DSR)은 수출의 신장과 대규모 신규차관의 도입 감소로 11.4% 낮아지고 있음.

○ 외채규모는 '92년 현재 소련에 대한 100억 루블과 달러외채 약 40억 달러라고 정부 당국자는 밝힘. 경화표시외채 중 54%는 공공 차관이고 나머지는 사업차관인데, 알제리, 이라크, 일본, 중국 등이 주요 채권국이며 소련은 '91년부터 100억 루블에 달하는 외채에 대해 달러로 환산하여 상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한편, '90년도분 IMF 차관 이자분 3,600만 달러는 면제됐으나 '91년 IMF, 세계은행 총회시에 미지급된 채무('93년 현재 1억 4천만 달러)에 연계되는 융자와 IMF로부터 새로운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합의를 얻지 못하였음. 미국이 일부 경제제재조치를 해제하는 등 국교정상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세계은행은 미국의 엠바고(Embeargo) 해제와 동시에 향후 5년간에 걸쳐 매년 3억 달러의 차관을, ADB는 2억 5천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함.

○ 중국과 베트남은 '91년 11월 관계정상화 이후, '92년 2월 전기침 중국 외상의 베트남 방문기간 중 '50~'79년 사이의 중국의 대베트남 원조 중 '73~'79년 사이의 원조를 베트남측이 채무로 인정함. 따라서, 그 부채액 약 18억元(당시 환율로 약 1억달러)를 장기에 걸쳐서 중국에 상환하나, '50~'73년 사이의 원조 약 280억元(약 15억 6,000만 달러)에 대해서는 무상원조로 상환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음.

나. 외국인 투자현황 및 환경

1) 외국인 투자법

○ '87년 12월 외국인 투자법(전문 6장 42호)이 국회에서 채택되어 '88년 1월 1일 공포 시행됨. 동법은 전문에서 「국가는 외국의 조직 또는 개인투자 자금의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보증하고, 이들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유리한 조건과 간소한 수속을 제공한다」라고 규정하여, 국유화할 방침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함. '90년 6월에는 이를 부분적으로 개정하였고, '91년 2월에는 외국인투자법 시행령이 효력을 발휘함.

○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회는 민간기업의 외자합작법인 참여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특혜를 골자로하는 외국인 투자 수정법안을 '92년 승인함으로써 베트남은 앞으로 투자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할 방침임. '92년 12월 베트남 의회가 승인한 투자 수정법안에 의하면 합작법인의 운영기한이 종전의 20년에서 50년, 필요한 경우에는 '70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 또한 특수한 경우에는 외국인 합작법인이 해외은행에 구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합작기업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세금 감면혜택을 외국인 단독법인으로까지 확대함.

○ 현행 제도하에서 외국인 합작법인은 설립 초기 2년 동안 15-20%에 해당하는 수익세 면제혜택이 있으며, 그후 2년동안 50%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음.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초로 사회간접자본의 설립에서부터 운영·이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전망이며 투자수정법은 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경우 정부는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2) 외국투자현황

○ 베트남은 '88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경제발전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처로 중요시하고 있음. 베트남의 2000년까지의 경제발전 전략은 현재의 1인당 국민소득을 두 배(1인당 국민소득 400달러)로 끌어올리는 것인데 이를 위해 10년 동안 약 350~5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함. 이 중 국내에서 동원가능한 최대 자본은 약 2,000만 달러에 불과하므로 대부분을 외국에서

동원하여야 할 실정임.

○ '92년 12월말 현재 총 투자인가 누적건수는 555건, 금액은 46.2억 달러에 달함. 민간부문의 직접투자외에도 선진각국의 ODA를 기대하고 있음.

○ 베트남이 외국기업에 대해 투자를 개방한지 5년 만에 대만의 베트남 투자는 승인된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8억 달러를 상회하여 최대 투자국의 자리에 올라있으며 홍콩이 6억 달러, 프랑스가 4억 7,500만 달러로 2,3위를 차지하고 있음. 농업 및 식품가공을 선두로 석유개발, 관광업에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베트남측이 절대로 필요로 하는 공업과 수송 및 통신분야는 외국인의 투자가 아직 미미한 실정임.

〈표 Ⅱ-17〉 **분야별 · 연도별 투자현황('88~'91)**

구 분	프로젝트건수	투자자본금	구 성
		(백만달러)	(%)
분 야 별			
총 계	383	2,762.9	100.0
공 업	126	382.7	13.9
석유개발	13	588.2	21.3
농업 및 식품가공	112	786.2	28.4
관광 및 서비스업	92	707.1	25.6
수송 및 통신	35	292.3	10.6
건 설	5	5.4	0.2
연 도 별			
1988	37	359	13.0
1989	69	513	18.5
1990	108	589	21.3
1991	150	1,185	42.9

주 : 이 수치는 동남아시아 요람(동남아시아조사회, 1992)과 차이가 있음.

○ "동남아시아 요람"에 따르면 외국투자는 '91년 '92년 2년간에 걸쳐 급속한 신장을 보였는데, '91년 1년 동안에 허가된 프로젝트 건수는 총수 149건에 투자총액

12억 3,400만 달러이며, 그중 공업프로젝트는 88건에 6억 6,080만 달러임. '88년 1월 외국투자법 공포이래 '91년말 까지의 프로젝트는 총 363건에 투자총액은 26억 9,200만 달러임. 주요 내역은 공업 201건(8억 8,570만 달러), 호텔건설 94건(7억 200만 달러), 석유개발 13건(5억 8,700만 달러) 이었음. 국별투자건수와 '92년 11월말 현재 누계는 다음과 같음.

〈표 Ⅱ-18〉 **국가별 대베트남 투자현황('92년 11월말 누계)**

(단위 : 백만달러)

국 가	건 수	허가자본금	건당투자금액
		(백만달러)	
대 만	63	789.3	12.5
홍 콩	95	521.9	5.5
프 랑 스	30	306.3	10.2
일 본	28	304.7	10.9
영 국	12	278.3	23.2
네 델 란 드	6	268.9	44.8
호 주	20	186.8	9.3
구 소 련	38	167.5	4.4
한 국	17	149.4	8.8
캐 나 다	10	99.2	9.9
총 계	319	3,072.3	9.6

○ 각료평의회는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나 기술도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출가공지구(Export Processing Zone : EPZ)의 설립과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규칙을 발표하였는데 동 법령에 의하면 수출가공지구는 수출품의 생산과 생산활동에 관해 지원시비스를 제공하는 공업지구임. 특히 EPZ에서는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3) 외국기업의 설립현황('91년 현재)

(1) 자원개발 및 에너지

○ 호주석유회사 BHP(Broken Hill Proprietry Co. Ltd)와 베트남 국영석유회사(Petro Vitnam-PV)는 중부 앞바다 대륙붕 120, 121 광구에서 BHP에 의한 석유와 가스탐색 · 개발계약에 조인하였음. 계약기간은 25년으로 최초의 5년간에 탐사를 실시하여야 함. 석유가 발견될 경우 BHP사의 투자자본은 상환될 수 있으나, 발견되지 못했을 경우는 BHP가 모든 부담을 지는 것으로 이는 '89년 5월이래의 외국과 10번째 석유개발계약임.

○ 영국 CASTROL VIETNAM SAIGON-PETRO사와 호지민시 교외에 윤활유 정제공장 건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국가협력투자위원회는 붕타우 국제여행사와 대만의 파라다이스 개발투자사 간에 합작에 의한 석유회사의 설립을 허가하였음(자본금 9,720만 달러). 한편 말레이지아 국영석유 · 가스회사 PETRONAS와 베트남 국영석유회사는 PETRONAS사가 베트남 대륙붕의 01, 02광구에서 석유 · 가스의 탐사, 채굴을 하는 계약에 조인함. 기간은 25년간으로 자본금 전액은 PETRONAS측의 부담이며 탐사비용은 6,500만달러로 추정됨.

○ 인도네시아의 P.T. VIETMINDO ENERGITAMA는 베트남 구안닌성의 국영 우엉비 석탄회사와 석탄채굴에 2,700만 달러를 투자하는 계약에 조인함(계약기간 30년으로 연간 무연탄 5만톤 생산). 프랑스 차관단이 중부 빈테인성 빈손공장에 3만 3,000Kw급 2기를 공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은 2억 프랑임.

(2) 양잠, 직물, 의복제조

○ 북한과의 합작으로 북한은 구안밍 견사생산회사와 하나무닝성의 뽕나무 재배 및 홍하제사, 양잠기업설립 문서에 조인함. 이는 연산 800톤의 제사공장과 뽕밭 3,000ha를 현존의 시설을 확장해서 건설하는 것임. 자본금 총액은 1,380만 달러이며 그중 자본금 600만달러는 북한이 누에, 설비, 기술, 비료, 제품의 상품화를 베트남측이 뽕나무 재배, 양잠, 제사를 담당함.

(3) 농 · 수산물, 식품가공

○ 대만과의 축산합작회사, 화학조미료 합작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소련의 협동조합 FENIACL과 오렌지쥬스 생산 합작회사를 설립함. 태국과의 어업합작를 맺었으며 대만과는 해산물 가공합작에 동의하였음.

○ 인도네시아와 목재가공합작을 위해 인도네시아의 KORINDO와 베트남의 EASUP 산림농업연합은 목재의 가공·수출합작 기업인 KORESVINA를 설립하여 연산 5만㎥ 규모의 공장을 설립함. EASUP가 건설을 담당하며 KORINDO가 설비를 제공하는데 주요 제품은 합판, 판재, 가구등으로 90%는 수출용임. 한편, 한국 KORINDO사와 베트남 산림부는 합작으로 다구랏구성에 수출용 목재제재를 전문적으로 하는 KORESVIND사를 설립함(자본금 350만 달러이며 용지는 5만㎥임).

(4) 호텔 및 관광업

○ 프랑스와 하노이시의 호텔 개축에 합의했으며, 북구 스칸디나비아 항공(SAS) 국제호텔 투자사와 하노이 관광서비스사가 SAS Hanoi Royal Hotel를 건설하는데 합의함. 대만의 PARADISE 개발투자와 베트남측 국제관광회사는 해안의 휴양도시에 관광센터를 설립하기로 함.

(5) 항만건설

○ 홍콩 INTERNATIONAL TERMINALS사(HIT)와 사이공항은 동 항의 화물취급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1,050만 달러의 합작사업을 개시함. HIT가 60%를 투자하며, 기술자 훈련과 500만달러 상당의 설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함. 동 사업은 연간 310만톤의 컨테이너 하적장을 건설하는 것임.

4) 수출가공구

○ 베트남은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수출가공구를 추진중인데, 북부(하노이, 하이퐁), 중부(다낭), 남부(호지민)등 3개 지역에 협상 혹은 설립중임. 대부분의 수출가공구는 전략적인 마스터플랜만 있는 상태이며 전력, 용수, 도로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미비하여 개발주체가 이들을 건설하여 줄 것을 요망하고 있음.

○ 수출가공구는 상대적으로 베트남 국내경제의 변화로부터 가능한 독립된 지역을 형성하려는 것으로 ①상품수출입에 있어서 치외법권을 누리며, ②외국인 투자자들의 생산과 사업의 요구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중심지역으로서 통일된 경영 및 관리형태를 유지하며, ③ 유리한 하부구조와 서비스를 갖춘 지역임.

○ 한국은 수출가공구의 개발과 운영에 있어 가장 성공적인 나라 중의 하나로 '92년에 최초의 수출가공구를 설립한 베트남은 20년이나 늦은 한국으로부터 개발 및 운영자문은 물론 수출가공구내의 직접투자 등 많은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 현재, 대만은 이 부문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표 Ⅱ-19〉 수출가공구내의 우대조치

구 분	가 공 구	일반지역	비 고
수출입세	면제	수출입관세법에 의거	
법인세	10%	15~25%	제조업
법인세면제기간	이익발생후 4년	이익발생후 2년	서비스업은 2년
송금세	5%	5~10%	
경영허가기간	50년	20년	

(1) 딴 뚜언(Tan Thuan) 수출가공구

○ 호지민시로부터 4㎞ 지점인 사이공강가에 형성된 300ha의 나베지역인 벤게강 주변에 대만과의 합작(70% 투자)으로 설립된 최초의 수출가공구임. 벤게강, 사이공항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으며 북쪽으로는 4번 도로, 남쪽으로는 푸슈안, 나베 및 두엔하이지역으로 이르는 15번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음. 200~300개 중소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됨.

○ 고속도로 건설, 발전소 건설은 공단조성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각기 별도의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건설중임. 고속도로의 경우 7,000만 달러를 투입하여 17㎞를 건설하며, 3억 달러를 투자하여 675,000kw의 전용발전소를 설립하고 있음.

〈표 Ⅱ-20〉 딴 뚜언 수출가공구

구 분	내 용
설립경위	- 1989년 10월, 호지민시 인민위원회 딴 뚜언 수출가공구 설립결정을 발표 - 1991년 3월, 하부구조 건설을 위한 외국 파트너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합의 서명 - 1991년 1월 각료평의회 하부구조 건설에 대한 허가를 승인 - 1991년 2월 각료평의회는 하부구조 건설에 대한 허가를 승인함
규 모	- 1단계 : 60ha, 2단계 : 50ha, 3단계 : 90ha, 4단계 : 100ha 총계 : 300ha
유치분야	- 원목, 대나무 및 비금속재료의 가구제조 - 가공식료품 및 음료 - 가죽제품 - 종이 및 인쇄 -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용기제조 - 잡화품제조 - 기계, 장비, 전자, 및 마이크로전자 제조품 - 운송수단 제작 - 석유 및 가스, 석탁, 화학 및 기초금속
비 용	- 토지임대료 : 연 5만달러/㎡ - 공장 및 사무실 임대료 : 연 40달러/㎡ - 주택임대료 : 1일 0.1달러/㎡ 연 36달러/㎡ - 야외 컨테이너 저장료 : 컨테이너 한개당 3.461달러 - 공공재에 대한 추가 수수료 전기 : 0.005달러/㎡ 수도 : 0.01달러/㎡ 하부구조 수수료 : 연 0.06달러/㎡

주 : 공공재의 추가수수료는 공공재 건설을 위해 운영 합작회사에 지불되는 추가 수수료임. 하부구조수수료는 도로, 울타리, 하수시설 등의 건설에 투자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임대면적에 근거해서 산정하며, 수수료는 토지 임대와 동시에 지불되어야 함. '92년 11월 32ha 조성완료, 85ha 분양완료함.

(2) 사이공 수출가공구(SEPZONE)

○ 사이공 수출가공구(SEPZONE)는 호지민시 도심으로 부터 19㎞, 탄손넛공항으로 부터 21㎞, New Port로 부터 11㎞, 사이공항으로 부터 21㎞ 떨어진 린쭝지역에 설립이 진행중임. 주로 경공업, 부품조립 등 노동집약 유치하며, 수출입관세 면제, 소득세 감면, 송금세 세제상 혜택이 부여됨. 이밖에 최저 임금규정 미적용, 중고기계도입 허용 등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하였으며 토지는 2,000㎡이상 최대 50년 까지 임차가 가능함.

○ 다음은 린 쭝(Linh Trung) 수출가공구의 현황이며, 홍콩기업과 합작으로 조성중이나 개발참여 여건이 양호하지는 않음.

〈표 Ⅱ-21〉 린 쭝 수출가공구 현황

구 분	내 용
설립경위	- '89년 9월 린 쭝 수출가공구의 설립과 같은 가공구내의 하부구조 건설 및 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를 허가함. - '92년 8월, SCCI가 합작계약을 승인
규 모	- 1단계 : 30ha, 2단계 : 30ha 총계 : 60ha 100개의 외국인 투자기업(2개의 한국기업 포함)에 25ha에 등록함
하부구조	- 수도공급 : 하루 8,000㎥ - 전력공급 : 15KW - 운송과 통신 :
주희망기업	- 장비 및 정밀도구, 전자, 광학제품, 금속제품, 고무제품, 목제가구와 용구, 공업제품 및 수제품, 전기제품, 플라스틱제품, 화학제품(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것), 종이제품, 가죽제품, 장난감, 니트웨어 장난감, 의류, 화학장비, 운동장비, 운송장비

(3) 하이퐁시 수출가공구

○ 하이퐁시 중심에서 동쪽으로 약 10㎞ 지점에 면적 1,200ha의 딘부수출가공구가

있음. 모래가 섞인 연약지방인 비포장 제방도로로 육지와 연결된 섬으로서 현재는 주로 양어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철도, 전력, 용수시설이 없으며, 하이퐁항(수심 4m)의 기능취약으로 신항구 건설이 필요하는 등 공단조성 참여여건이 좋지 않음.

○ 하이퐁시 중심에서 남동쪽으로 약 13.8%에 위치한 탄트지역의 14호 도로변 공단 계획지의 면적은 3,000ha임. 철도, 전력, 용수, 항만여건이 좋지 않으나, 도로는 2차선 포장도로인 14번 도로와 연결됨. 홍콩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기업합작으로 경공업공단(140여개 공장)등 개발이 진행중임.

5) 한국과 교역관계

(1) 배 경

○ 한·베 관계는 '83년부터 제4국을 통한 간접교역으로 시작하여 '88년에는 양국간 교역은 간접교역에서 직교역으로 변화하기 시작함. 최근의 양국간 경협일지를 살펴보면 '91년 5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베트남을 방문하는 등 국내 유력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어왔음. '91년 10월에는 베트남 상공회의소 경제협력사절단이 방한하였으며, '92년 2월에는 이에 답하는 형태로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사절단이 베트남을 방문, 양국 상공회의소간 협력에 관한 의정서를 교환함.

○ 한국의 수출가공구의 설립과 개발에 성공한 경험이 있으며 한국 경제인들은 베트남에 대해 이 분야에서 유용한 충고-단기적으로 특정한 수출가공구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베트남에서의 수출가공구 전략 수립을 위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특히 한국과 베트남은 유사한 경제적 출발점과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적 성장은 베트남에게 매우 유용한 교훈이 될 것임.

○ 지난 '92년 12월 22일 베트남 호지민시에서 양국 외무장관은 양국간 대사급 외교관계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75년 구월남의 패망이후 17년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동반자 시대를 개막함. 이와 함께 양국간 이중과세 방지협정 및 투자보장협력의 체결이 맺어지며 양국간의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것임.

(2) 유망분야

① 봉제 · 피혁 · 제화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

인건비가 매우 저렴하고 노동력이 풍부하여 봉제, 피혁, 제화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유리한 편으로 기술수준도 비교적 양호함. 대소 · 동구 우회수출기지로 미 · 베트남 관계가 정상화 될 경우 미국으로부터 GSP 혜택을 받을 것이 확실시 되어 대미우회수출기지로서의 활용도 기대됨. 기타 건설물량이 급증할 것임에 따라 건축자재, 화강암 · 대리석가공(수출용), 전기 · 전자조립생산, 농업기계류, 자동차 소형모터등 기계공업, 비료생산(인회석 이용), 합성수지생산, 조미료, 약품 등의 분야가 유망함.

② 사회간접자본 건설관련분야

사회간접자본이 미비한 관계로 철도, 고속도로, 항만, 발전소 수로 등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수요가 높으나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자본이 투하되어야 하므로 합작자체가 국제금융기관 또는 서방 선진국으로부터의 원조 내지 차관의 도입에 의해 가능함. 한국은 건설장비를 임대하거나, 고속도로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시멘트, 대리석가공 등의 부문에 있어 외국인의 투자를 희망하고 있으며 한국의 한라, 쌍용과도 시멘트 합작투자 관련 상담이 추진중임.

③ 관광분야

풍부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호텔 등 관광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관광관련 합작투자(호텔건설 포함)는 매우 유망함. 관광산업진흥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최소한 10개의 호텔이 건설중에 있음.

④ 무역 · 금융 · 운송분야

베트남과의 교역 및 투자활동이 활발해 질 경우 현지에서 한국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무역 · 금융분야 진출이 유망함. 베트남 정부는 '91년 7월에 은행법을 개정, 외국은행의 지점에 영업허가를 승인하고, 외국무역은행이나 베트남 국립은행과 거리하고 있는 외국은행의 베트남 지점을 통한 해외송금이 가능해짐. 태국, 호주, 프랑스의 은행이 이미 영업을 개시하고 있으며, 호지민에서는 유망호텔 등 10개소에 비자카드에 의한 결제가 시작되고 있음.

⑤ 수송분야

해상수송의 경우 베트남의 경제발전에 따라 수송물량은 급증할 것이 예상되나 베트남 자체의 수송능력은 단기간에 확충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합작사업도 유망함.

(3) 교역현황

○ 직접투자는 우리 정부가 대베트남 투자를 공식 허가한 '92년 1월이후로, 미국의 대베트남 경제제재 조치의 완화와 한 · 베트남 대표부 개설로 하반기 이래에 급증, 제조업 14건, 운수보관업 1건, 호텔업 1건 등 총 16건 US $87백만에 이르고 있음. 한편, '92년 8월말 현재 베트남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우리기업의 대베트남 투자는 총 15건에 자본금이 US $147백만(베트남 SCCI 허가 기준)에 이르며, 이중에는 합작투자가 10건, 단독투자가 3건 그리고 비지니스 협력 2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봉제, 수산물, 가방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

〈표 Ⅱ-22〉 대베트남 투자현황

(단위 : 천달러)

구 분	회 사 명	법정자본금	업 종 및 기 타
합작투자	한남 기계	500	자동차 수리
	세영 국제 상사	3,500	국내소비 · 수출용 담배생산
	세영 국제 상사	960	호텔운영
	세영 국제 상사	35,000	일본 세일로중공업도 참여, 자동차 생산
	한주 통산	668	수출용 의류생산
	보성 플라스틱	1,370	의료 및 플라스틱제품 생산
	보성 양행	1,000	수출용 스포츠백 생산
	한강 종합 건설	6,794	호주업체 참여로 오피스텔 건설
	포항 제철	3,900	함석 생산
	충남 방적	7,456	
100% 단독투자	한국 물산	600	부직포 생산
	한국메가스포츠상사	1,100	스포츠용품 생산
	방림	8,710	직물 생산
비지니스 협력계약	마니아	475	수출용 양말 생산
	한국석유개발공사	74,000	11-2광구 석유 탐사사업

주 : 합작사업의 법정자본금은 베트남측의 제3국 참여로 한국참여분이 차이가 날 수 있음.

○ 베트남내에는 '92년말 현재 32개 국내기업이 우리 정부로부터 지사개설을 승인받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외 장기출장자나 임가공등의 형태로 베트남에 주재원을 두고 있는 기업까지 합하면 진출기업은 모두 80여개 이상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베트남 정부가 허가한 베트남내 한국지 · 상사는 현재 호지민에 16개사, 하노이에 5개사가 있음.

〈표 Ⅱ-23〉 한국지사·상사 설치 허가현황

도 시	회 사 명
호지민(16개사)	삼성, 대우, 현대, 럭키금성, 선경, 코오롱, 효성, 쌍용, 포철, 삼성전자, 두산, 금성사, 수출입은행, 석유개발공사, 고합, 삼환기업
하노이(5개사)	삼성, 대우, 현대, 럭키금성, 포철

주 : 베트남 정부 허가 업체

〈표 Ⅱ-24〉 기타 임의활동 업체

구 분	
봉제임가공업체	협진, 서우, 세계물산, 박상사, 서광, 풍국산업, 삼도어패럴, 콤코, 삼정, 유한섬유, C & N Int'l, 와이케이무역, 정화, 베텔, 다비사, 우남엔지니어링, 신성통상, 순흥무역, 혜민, 비코물산, 우성텍스타일 등
가방, 텐트, 배낭업체	효동기업, 청륜, 클라이머, 비바, 일정 등
원근해 수산	원양수산
기 타	오승특수섬유, 아인, 삼원무역, 국동, I.T.T.Int'l, 한밭, 삼호통상 등

주 : 베트남정부 미허가업체

○ 대베트남 투자정책사업인 석유탐사를 제외하고 포철의 철강과 섬유관련의 한주와 보영 등의 몇 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현재 많은 중소업체가 비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진출을 희망하는 분야는 봉제, 의류, 신발류, 가방, 텐트, 가발 등 노동집약업종과 호텔, 식당, 여행업 그리고 해운, 항공 운송 등 서비스업과 투기성 부동산 관련부문으로 나타나고 있음.

○ 대베트남 진출은 기본적으로 양국간 지속적인 통상증대와 수출경쟁력 확보 및 상호보완가능한 산업분야로의 투자진출을 바탕으로 2천년대 도래할 아시아시대 대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 베트남 정부는 아직 비공식적으로 활동중인 업체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나, 노사문제·환경문제 등을 적용하여 법을 엄격히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출업계의 사전주의가 요망되고 있음.

○ 우리기업의 대베트남 진출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공업단지조성에의 참여, 기간산업 시설에의 참여 즉, 베트남 정부의 전력, 수도, 도로, 철도, 항만, 통신 등 기간산업 확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장기적인 경협기반을 구축하며, 상호 보완협력이 가능한 산업인 광산물 개발·수입, 농·수·임산물 가공분야, 노동 집약적 조립산업 등에 투자를 촉진함이 유력함.

5. 대외무역

가. 현 황

1) 제2차 5개년계획

○ 서구와의 교역은 '75년 5월 미국의 통상제재로 단절되었으며, 중국과는 캄보디아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관계가 악화됨으로써 교역이 중단됨. 통일후 '80년까지의 2차 5개년('76~'80)계획기간중 베트남은 소련 및 동구권에만 의존하게 됨. '78년 7월 중국의 원조가 단절되자 베트남은 동구경제상호원조위원회(CMEA :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에 가입하는 한편 소련과 경제, 과학, 기술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우호조약(25년간 유효)을 체결하였음. 동년 12월에는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으로 중국이 '79년 2월 베트남을 침공하여 북방 6개지방을 파괴하고 10억 달러로 추산되는 피해을 입히므로, 베트남은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함.

○ 2차 5개년계획기간('75~'80년)중 소련의 원조는 25억루블(38억 달러)에 이르렀고 '79년 현재 전력의 25%, 석탁생산의 89%, 주석, 황산, 인회석 생산의 100%가 소련의 원조에 의존하였음. 소련은 '80년부터 원유 및 가스탐사와 함께 고무농장개척에 착수하였으며 농업기계화를 위하여 트랙터 등도 제공함. 서구국가중 프랑스(3.7억 달러)와 스웨덴(1억 달러)은 70년대 후반에도 원조를 제공하였으나 '79년 이후 캄보디아 사태로 인하여 점차 중단하였음.

○ 우리기업의 대베트남 진출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공업단지조성에의 참여, 기간산업 시설에의 참여 즉, 베트남 정부의 전력, 수도, 도로, 철도, 항만, 통신 등 기간산업 확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장기적인 경협기반을 구축하며, 상호 보완협력이 가능한 산업인 광산물 개발·수입, 농·수·임산물 가공분야, 노동 집약적 조립산업 등에 투자를 촉진함이 유력함.

5. 대외무역

가. 현 황

1) 제2차 5개년계획

○ 서구와의 교역은 '75년 5월 미국의 통상제재로 단절되었으며, 중국과는 캄보디아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관계가 악화됨으로써 교역이 중단됨. 통일후 '80년까지의 2차 5개년('76~'80)계획기간중 베트남은 소련 및 동구권에만 의존하게 됨. '78년 7월 중국의 원조가 단절되자 베트남은 동구경제상호원조위원회(CMEA :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에 가입하는 한편 소련과 경제, 과학, 기술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우호조약(25년간 유효)을 체결하였음. 동년 12월에는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으로 중국이 '79년 2월 베트남을 침공하여 북방 6개지방을 파괴하고 10억 달러로 추산되는 피해을 입히므로, 베트남은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함.

○ 2차 5개년계획기간('75~'80년)중 소련의 원조는 25억루블(38억 달러)에 이르렀고 '79년 현재 전력의 25%, 석탁생산의 89%, 주석, 황산, 인회석 생산의 100%가 소련의 원조에 의존하였음. 소련은 '80년부터 원유 및 가스탐사와 함께 고무농장개척에 착수하였으며 농업기계화를 위하여 트랙터 등도 제공함. 서구국가중 프랑스(3.7억 달러)와 스웨덴(1억 달러)은 70년대 후반에도 원조를 제공하였으나 '79년 이후 캄보디아 사태로 인하여 점차 중단하였음.

○ 동 기간중 IMF 자료에 의하면 수출은 25% 감소하였음. 수출품의 내용을 보면, 수공예품의 비중이 '76년의 15.3%에서 '80년에는 23.1%로 증가한 반면 광공업제품의 비중은 68.9%에서 64.1%로 감소하였고, 농산물의 비중도 15.8%에서 12.8%로 감소함. 수입은 2.9% 감소하였는데 자본재의 비중이 '76년의 83.2%에서 '80년에는 76%로 저하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무역대상은 CMEA국가, 특히 소련이 중심이었으며, 대소련 수출비중은 '76년의 59.7%에서 '80년에는 67%로 증가하였고 대소련 수입비중도 '76년의 56.4%에서 '80년에는 57.8%로 약간 증가하였음. 외채는 '80년 9월말 현재 30억불로서 이중 54%가 CMEA에서 도입한 것이며 외채상환부담은 '80년 현재 2억달러로서 총수출의 52.1%에 해당하는 과중한 것이었음.

2) 제3차 5개년계획

○ '80~'85년의 제3차 5개년계획간 동안 소련의 경제원조는 32억루블(49억달러)로 더욱 증가되었으며, 소련과의 교역은 전체무역의 2/3를 점유함. 전력의 35%, 시멘트 생산의 50%, 석탄생산의 95%, 인회석, 인, 황산, 금속절단도구 등에 대한 생산의 100%가 소련의 원조에 의하였으며 5만 ha의 고무농장 확대, 숙련근로자와 기능공 및 과학자 등 과학기술인력 훈련도 소련의 원조로 추진되었음.

○ 소련과 동구권 등으로 부터의 외국원조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2년에는 30.7%에 도달하였는데, 베트남이 서방의 경제봉쇄에도 불구하고 붕괴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었음. 동 기간동안 서방국가로는 스웨덴만 연간, 5,000만 달러 정도의 원조를 제공하였음.

○ '81~'85년간 수출내역을 살펴보면 수공예품 비중이 40.2%에서 33.7%로 감소한 대신 농산물 비중이 30.6%에서 39.3%로 증가하였음. 수출대상은 CMEA제국 특히 소련에 편중되어 '85년에는 대소련수출의 비중이 71.6%에 달함. 수입의 내용도 자본재와 중간재에 더욱 편중되어 '85년에는 전체수입중 자본재의 비중이 85.4%에 달하였고, CMEA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의 81.1%를 점함. '85년

말 외채잔고는 '80년의 두배 이상인 66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수출의 증가로 외채 상환부담은 감소하였음.

3) 제4차 5개년계획

○ '85년 이후 베트남은 소련과 동구권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개방정책을 취하였음. 소련의 원조는 4차 계획기간중 80~90억 루블(117~132억 달러)로 예상되었으나, 소련의 체제개혁에 따른 내부문제 등으로 부진할 수 밖에 없었음. 따라서 공기업 투자 등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자를 영세한 가계저축으로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박과 외자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됨에 따라 수출을 촉진하고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음. 그러나 미국 등 서방국가의 경제제재가 해제되지 않았고, 외채, 인플레이션, 사회간접자본의 취약 등으로 그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었음.

○ '85년 5월에는 수출촉진을 위한 신규칙을 제정하여 무역업무를 확대하고 외자도입의 정부보증 범위를 확장하여 수출목표를 초과한 외화획득분에 대해 자유재량처분을 허용하므로써 수출을 촉진코자 노력 하였음. 또 수출입상품세법을 제정('88년 1월)하여 관세와 조세감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수출입세 감면을 실시('89년 4월)하여 무역을 장려함. 국가협력투자 위원회를 설치하여 투자목록의 작성과 계약·감시·지도 및 규칙의 수정보완을 담당하게 하였음.

○ 한편, '92년까지 50% 완공을 목표로 사이공수출가공구(Saigon Export Processing Zone)의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석유 및 가스탐사도 점차 증가시키기로 하였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87년 원유를 처음으로 수출(일본 3,000만 불)하는 등 수출이 18% 증가하였고 수입도 37.8% 증가하였음. 교역대상도 일본, 호주, 아세안, 홍콩, 대만, 한국 등이 추가되어 점차 소련과 동구권위주에서 탈피하는 양상을 보였음.

○ 주요수출품에는 석탄, 시멘트, 수예, 죽세공품, 직물 등 광공업산품과 원목, 고무, 차, 커피, 땅콩, 오징어 등 농수산물이었고 최근에는 쌀 수출이 늘어나 '86년에는 16만톤에 불과하였으나 '89년에는 140만톤, '90년에는 150만톤에 이르렀음.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트랙터, 금속, 타이어, 화학비료, 면, 섬유, 의약품,

설탕 등이며 식량수입은 '80년에 89만톤이었으나 '86년에는 54만톤, '89년에는 18만톤으로 현저히 감소되고 있음.

○ 외채잔액은 '90년말 현재 GDP의 25%에 해당하는 35.6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데, '81년 이후 외채의 채무불이행 상태로 상환계획변경이 빈번하여 그 연체금이 '90년 말 현재 22.9억 달러에 달함. 그러나 원리금상환비율(경화거래기준)은 수출증가 및 차관도입의 감소로 '88년의 65.2%에서 '90년에는 23.4%로 현저히 저하됨.

○ 수출은 '80~'90년간 6배이상 증가하였는데 수출의 반 이상은 공산권이 대상이었으며, 수출품은 '80년대 초에는 농산품과 수공품이 거의 대부분을 점하였으나 점차 수산물 및 광공업제품의 수출이 증가하여 그 내용이 수공품 및 경공업제품, 농림수산물(고무, 커피, 차), 광산물(석유, 석탄) 등으로 다향화되고 있음.

○ 수입은 '80~'90년간 두 배 증가하였는데 교역상대로서 공산권이 전체 수입액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수입품의 내역은 자본재 수입이 10억 루블/달러에서 23억 루블/달러로 크게 증가하여 총수입중 자본재 수입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소비재는 '80~'90년간 연간수입총액이 평균 3억 루블/달러에 그침. 이러한 자본재수입의 증가추세는 석유, 비료, 철강, 면화 등 기계설비와 원·부자재 등의 급격한 수입증가에 기인한 것임.

○ '76~'80년 계획기간중 수입과 수출의 비율은 4 : 1이였으나, '90년 수입과 수출의 비율은 2 : 1을 밑도는 수준으로 무역수지의 대폭적인 향상을 가져왔으며, 전체 재정수입에서 원조, 차관 형식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도 50%나 감소 하였음. '92년에는 최초로 7천 5백만달러 상당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고, 쌀 수출량은 200만톤에 달함.

나. 수출입 구조

1) 현 황

○ '89년도 베트남의 총무역규모는 약 45억 루블/달러로서 전년대비 18.9%의 대폭증가를 보였으며, '90년 총무역규모는 51.6억 루블/달러로 2년간 크게 증가하였음.

'91년에는 수출 19억 7천만달러, 수입 22억 3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오히려 18.4% 나 감소함. 한편 사회주의국가 위주의 교역에서 최근 교역 다변화정책에 의한 서방국가와의 무역추진으로 구소련, 동구지역과의 교역은 대폭 축소된 반면 아시아 및 서방국가들과의 교역은 급신장하고 있는데, 특히 원유판매에 힘입어 '92년 수출 24억 6천만 달러, 수입 23억 8천만 달러로 처음으로 7,500만 달러 상당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음.

○ 수출은 '85년 7억 루블/달러에서 '90년 총수출은 약 24억 루블/달러로서 전년대비 23.5% 증가했으나, '91년에는 19.7억 루블/달러로서 전년대비 18.7%가 감소됨. 무역적자액은 '87년의 17억 루블/달러에서 '90년 3.4억루블/달러, '91년 2.6억 루블/달러로 무역적자가 호전되었음. 이와 같은 급격한 감소는 주로 ①구소련과의 무역협정의 개정, ②구소련과 동구국가 정세의 급변 및 이들 국가와의 교역이 국제가격에 의한 경화결제 방식으로 전환, ③경제악화로 인한 교역의 축소와 '89년 부터 석유와 쌀이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등장하면서 수출액이 급증하였기 때문임.

〈표 Ⅱ-25〉 베트남의 무역수지 추이

(단위 : 백만루블/달러)

구 분	1980	1985	1988	1989	1990	1991	1992
무역규모	1,652.8	2,555.9	3,795.1	4,511.8	5,156.4	4,209.3	4,835.0
수 출	338.6	698.5	1,038.4	1,946.0	2,404.0	1,970.0	2,455.0
수 입	1,314.2	1,857.4	2,756.7	2,565.8	2,752.4	2,239.3	2,380.0
무역수지	-975.6	-1,158.9	-1,718.3	-619.8	-348.4	-269.3	75.0

주 : 베트남의 무역액 통계의 단위에서는 루블과 달러의 정확한 환산기준이 없어 1 : 1 비율원칙에 따라 루블/달러로 사용하고 있음

2) 상품별 무역구조

○ 베트남의 상품그룹별 교역추이를 보면, 베트남은 아직도 농산물 및 식품, 수산물, 임산물, 광공업제품 등 1차생산품 및 수공예품이 수출의 주종을 이룸. 소비재를 비롯한 기초생필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설비, 기계류, 원·부자재 등이 수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음. 농산물 수출은 '89년도 7억 4천만 루블/달러로 전년대비 112.2% 증가하였는데 이는 쌀 수출이 급증한 데 따른 것임.

○ '91년에는 농산물이 6억 9천만 루블/달러로 떨어졌으나 현재 수출품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경공업 및 수공예품 수출은 5억 7천만 루블/달러로 전년대비 48.9% 증가에 그쳐 '88년 수출 1위에서 '90년에는 2위, '91년에는 4위로 떨어져 2억 2천만 달러에 그침. 수입은 설비, 기계류중 생산수단과 연료 및 자재의 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91년의 수입품목의 구성을 보면 자재 및 연료(부속품 포함)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여 67.9%, 다음으로 공장설비 10%, 기계류 6%, 소비재 16% 등임.

〈표 Ⅱ-26〉 상품그룹별 수출입액 추이

(단위 : 경상가격, 백만루블/달러)

구분	분 야	1980	1989	1990	1991
수출	경공업 및 수공업품	235.5	571.3	635.8	216.7
	농 산 물	274.2	742.2	783.2	689.5
	임 산 물	40.5	86.7	126.5	157.6
	수 산 물	82.6	188.2	239.1	256.1
	중공업품 및 광물	36.9	354.8	617.0	650.1
수입	생 산 재	999.8	2,237.4	2,342.6	1,881.0
	(설 비)	360.1	509.5	439.0	223.9
	(기 계)	187.4	172.5	179.4	134.4
	(부 속 품)	78.5	178.3	134.5	-
	(연료, 자재)	370.6	1,377.2	1,589.6	1,522.7
	소 비 재	315.4	328.4	409.8	358.3

주 : 1991년 자료는 추정치이며, 부속품수치는 연료와 자재수치에 포함됨.

3) 상품별 수출구조

○ 주요 수출품목은 고무 · 쌀 · 황마 · 과일통조림 · 홍차 · 커피 · 땅콩류 등의 농림산물이며, '91년 수출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임. 그외 석탄 · 석유 · 주석 등의 광물자원은 33%, 새우 등의 수산물이 13%, 의류 · 임산제재품 · 수공예품 등의 경공업제품이 11%을 차지함.

○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91년 수출품은 70%을 점하는 주요 품목은 원유, 쌀, 수산물, 석탄, 고무, 커피 등임. 주요 품목별 수출량은 〈표 Ⅱ-27〉과 같으며 그 변화를 살펴볼때, 원유는 '90년 대비 50% 증가하였고 석탄은 45%, 식육제품은 54% 증가되었음. '91년 남 · 북부에서 큰 홍수피해로 수출에 타격을 받은 쌀의 경우 전년대비 39% 감소에도 불구하고 100만톤이 프랑스, 홍콩 등에 주로 수출되었음. '92년에는 200만톤을 수출하였음. 원유는 정제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량 수출되며 수출선은 싱가포르 14%, 일본이 84%를 차지함.

〈표 Ⅱ-27〉 주요 수출상품의 추이

구 분	단 위	1989	1990	1991
석 탄	천 톤	579.0	788.5	1,164.9
원 유	〃	1,514.3	2,616.7	3,930.0
시 멘 트	〃	22.0	-	-
목 재	천㎥	421.2	-	-
고 무	천 톤	57.7	75.9	61.0
자 수 품	백만루블/달러	44.8	50.9	-
수 산 물	〃	188.2	239.1	267.0
등나무 · 대나무	〃	54.4	-	-
섬 유 제 품	백만점	54.9	54.0	54.0
차	천 톤	15.0	16.1	10.0
쌀	〃	1,420.2	1,624.4	1,000.0
커 피	〃	57.4	89.6	80.7
땅 콩	〃	79.6	155.8	159.4

4) 상품별 수입구조

○ 베트남은 산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농·공업생산에 필요한 자본재, 중간재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는 원면, 화학비료, 살충제, 의약품, 휘발유 등의 석유제품, 철강, 트럭, 타이어 등임. '91년 원자재 수입은 석유제품(250만 톤), 철강(12만 톤), 비료(100만 톤), 원사(3만 4천 톤) 등을 중심으로 거의 모든 품목에 걸쳐 수입선은 다양해졌으나 수입량은 감소함.

〈표 Ⅱ-28〉 주요 수입상품의 추이

구 분	단 위	1989	1990	1991
트 랙 터	대	763	1,604	47
화 물 차	〃	3,647	3,726	-
금 속 류	천톤	376.4	324.3	144.3
벤젠·오일류	〃	2,262.3	2,860.8	2,625.3
자동차타이어	천개	151.9	229.3	99.5
화 학 비 료	천톤	1,840.0	2,085.3	1,998.8
면	〃	51.5	58.8	32.8
약 품	백만루불/달러	32.7	35.7	-
직 물	백만m	40.2	30.7	-
설 탕	천톤	66.5	23.8	-
식 품	〃	183.3	161.7	-

5) 국별교역량

○ 국별 무역구조를 살펴보면 구소련과 동구권국가와의 교역은 대폭 감소한 반면, 서방국가들과의 무역은 크게 증가하여 무역상대국중 CMEA국가인 루블무역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함. 구소련과는 '90년 수출입액이 2천만 루블을 넘었지만 '91년에는 500만 루블정도로 감소하였고, 동구지역과의 대외무역도 큰 타격을

받고 격감한 결과 베트남 대외무역 전체로는 대사회주의 국가와는 수출입 모두 전년대비 20% 가까이로 감소됨.

○ '91년 베트남이 거래한 교역액을 국별로 살펴보면 그 순서는 싱가포르, 일본, 구소련, 홍콩, 프랑스, 한국임. 주요국별 '91년 무역액 및 과거 2년간 추이는 다음과 같음.

〈표 Ⅱ-29〉 **국별무역 추이**

(단위 : 백만 루블/달러)

국 가	1990		1991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싱 가 포 르	193.7	498.0	250.0	636.0
일 본	339.4	174.0	520.0	189.0
구 소 련	914.2	1,209.0	198.5	325.0
홍 콩	243.7	196.2	300.0	202.0
프 랑 스	115.0	127.0	95.0	90.0
한 국	25.6	51.5	60.0	65.0
독 일	41.1	118.0	30.0	80.0
대 만	28.1	40.0	45.0	60.0
캄 보 디 아	13.8	7.7	25.0	18.0
인 도	20.3	4.3	12.0	20.0
라 오 스	28.7	3.9	26.0	6.0
체코슬로바키아	49.4	26.3	5.0	12.0
헝 가 리	16.8	54.2	4.0	4.5
불 가 리 아	24.9	6.2	0.5	0.5
합 계	2,404.0	2,752.0	1,970.0	2,130.0

주 : 1991년 무역총액이 통계청의 자료와 차이가 있음.

○ 수출선으로서는 석탄 등의 광물자원을 구입하고 있는 일본, 그 다음은 농산물거래가 많은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 구소련, 프랑스가 뒤를 잇고 있음. 수입선으로

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조달선이 된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고 구소련, 홍콩이 그 다음이며 철광, 살충제를 공급하는 일본, 그리고 프랑스, 독일, 한국, 대만의 순임.

○ 대사회주의권 국가에 대한 '91년 수출액은 8천만 루블로 크게 감소하였고 ('90년 11억 1천만 루블) 수입액도 2억 9천만 루블로 격감하여('90년 1억 5천 루블) 수출입 총액이 모두 '90년 전년대비 16.3%에 불과함. 이는 구소련의 정세변화와 '91년 무역협정 개정으로 청산거래방식을 폐지하고 각 상품의 국제시장가격에 의거한 경화거래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임.

〈표 Ⅱ-30〉 **권역별 수출입 추이**

(단위 : 경상가격, 백만루블/달러)

		1980	1989	1990	1991
수출	총 계	338.6	1,946.0	2,404.0	1,970.0
	국가분류별				
	대사회주의권 (단위 : 백만루블)	225.9	807.4	1,111.5	80.1
	기 타 (단위 : 백만루블)	112.7	1,138.6	1.292.5	1.889.9
수입	총 계	1,314.2	2,565.8	2,752.4	2,239.3
	국가분류별				
	대사회주의권 (단위 : 백만루블)	755.1	1,725.8	1.148.2	289.8
	기 타 (단위 : 백만루블)	559.1	840.0	1.604.2	1,949.5

○ 일본과 베트남간의 전체 교역량은 베트남과 자본주의 국가간의 전체교역량의 1/3을 차지하며 ASEAN국가간의 교역규모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ASEAN국가 중 지난 10년간 싱가포르와의 교역량 증가율은 매년 20%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동기간 비사회주의국가와의 평균 교역증가율 3%를 훨씬 상회하는 것임.

o 비사회주의국가로의 수출은 '89년에는 11억 4천만 달러 '90년은 12억 9천만 달러, '91년은 18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89년에는 11억 4천만 달러 '90년은 12억 9천만 달러, '91년은 18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89년이후 수출량이 급증하고 있음. 수입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90년 16억 달러를, '91년에는 19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o 주요 수출품은 쌀, 수산물, 원유, 고철 및 농산품이며, 수입의 경우 기계류, 비료, 설탕, 섬유, 전자부품 및 부속, 소비재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베트남과의 교역 및 투자에 적극적인 서방국가들로는 프랑스, 호주, 서독, 스웨덴을 들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일본, 태국, 싱가폴, 한국, 대만, 홍콩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베트남과 교역관계를 갖고 있음.

Ⅲ. 부문별 동향

1. 농·축산업

가. 일반개황

○ 베트남은 남쪽의 메콩델타등 농업에 적합한 비옥한 델타지역 및 평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산림자원도 풍부함. 4,100㎞에 달하는 하천과 3,260㎞에 이르는 해안선으로 이루어져 수산자원이 매우 풍부하며 북부지역은 석탄을 비롯한 귀중한 광물자원이 많이 있고, 연안의 대륙붕에는 해저 유전의 매장가능성과 개발가능성이 큼.

○ 베트남은 기타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물적생산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과 공업이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중 농업의 역할은 절대적임. 전체 약 6,900만명의 인구중에서 70%이상의 인구가 농업, 어업, 임업 등 일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국가로 농업은 국민소득의 50% 이상을 창출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소득원의 하나가 되고있음.

○ 농촌은 베트남이 소비하는 대부분의 식량공급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잉여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데 특히 농업과 양식업은 베트남의 주요 외화 획득원의 하나로 현재 농업부문의 성공이 베트남의 국가적 목표인 경제·사회개발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임. 이와 동시에 경제·사회 개발과정에서 농촌인구의 효율적 활용과 농장차원에서의 효과적인 조직체계, 생산장려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원·부자재의 적기적량 공급,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적정기술의 공급이 목표달성의 성패 여부를 좌우함.

1) 개혁정책

○ 농업구조에 있어 북부지역은 '54년부터 변화되었으며, 통일이후 전 국가적 개혁운동이 시작되어 '75년부터는 경작작물의 변화는 물론 구조적 개선 및 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음. '81년 까지는 농업생산모델의 건설에 개혁조치의 촛점이 맞추어져 대규모 집단농장을 건설하여 농업인력을 이 집단농장들에 투입·활용하려고 하였음. '81년 이후 이러한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고 식량 및 기타 농작물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비한 다양한 개혁조치들을 취하여, 이전의 생산방법에 비해 개선된 효과를 가져오기는 하였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함. '88년 4월부터 새로운 대대적인 농촌개혁으로 북부지역의 심각한 식량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농촌경제구조를 다시 개선함.

○ '80~'85년의 3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남부의 농지 38.5만 ha를 재분배 하였는데 '84년 중반부터는 남부지역의 집단화 프로그램을 강행하여 '85년 말 현재 남부농가의 54.4%와 28.5%에 해당하는 39,380개의 생산집단농장과 2,292개의 농업협동조합을 결성함. 그러나 협동조합보다 생산성이 2배나 높은 가계경제를 사회주의 경제의 일부로 수용하여 식량과 수공업품의 생산을 증대코자 노력하였음.

○ 조합의 운영방식은 최종산물계약제도를 확대하였는데 이 제도는 생산책임을 협동조합에서 생산팀으로 이전하고 가족에게 분담시켜 결국 가족이 직접 생산에 관련된 모든 생산활동과 관리 및 수확 책임을 지게 됨. 반면 조합은 협동농장을 통하여 부차적인 지원책으로 경운, 관개, 종묘·비료·농약의 준비 등을 맡는 것이 보통임. 보상방식으로는 만일 생산이 목표에 미달될 때는 다음 해에 결손을 보충하되 잉여 산물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성과급 보상제도를 도입한 결과 농업생산성은 현저히 증대되었음.

○ 그러나 '83년부터 최종산물계약제도에 대해 농민들이 의욕을 잃고 그 대신 사유지 경영에 노력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그 이유는 농업세율이 공업세나 상업세율의 2배 이상이나 되어 농업소득이 산출의 16~17%에 그쳤을 뿐 아니라 50일 이상 근로의무와 그 외의 준조세 등 조세의 부담이 과중하였기 때문임. 또한 공산물가격은 5~10배 상승한 반면 농산물가격은 정체상태에 있어 교역조건이 악화되었으며, 수매가도 3개월씩이나 연불 지급되어 영농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었기 때문임. 최종산물계약제도를 도입한데 힘입어 '81~'85년간 쌀생산은 27.8%

나 증가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인구증가율 9%를 훨씬 상회한 것임. 이에 베트남 정부는 '83년부터 식량의 자급자족을 선언하였으나 식량수입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음.

○ '85년부터는 농산물거래에 있어 매매당사자인 국가와 농민간 상호동의에 근거한 상업적 거래형태가 장려되었음. '87년 12월에는 토지법이 통과되어 토지는 전인민이 소유하며 국가경영아래 농인다는 원칙아래 장·단기 사용권을 임대하되 토지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기하고 이를 외국기업 및 기구에도 적용함. 한편, 최종산물계약제도를 강화하여 농민이 직접 수확직전의 총산출과 분배율이 얼마인지를 미리 알게 되는 순산출계약제도를 도입하였고 '88년 말부터는 농가를 농업생산의 주역으로 장려함.

○ '86년 농업투자는 전체의 24.5%에 불과하였으며 비료의 공급은 수요의 30%에도 미치지 못함. 반면 농업세는 평균 13~14%로서 공업세에 비하여 3배나 과중하게 책정되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분배몫은 산출물의 13~14%밖에 되지 않았고 공산품에 비하여 불리한 교역조건 등으로 인하여 생산의욕이 더 떨어졌음. 이런 농민들의 사기저하와 함께 '87년에는 벼농사 감소로 1인당 주식생산량이 '86년의 300.8㎏에서 280.0㎏으로 감소됨으로 북부지방에는 기근이 발생하였음.

○ '88년 4월에는 농지관리를 쇄신하여 개별영농체제로 전환한 결과 토지분쟁이 표면화되었으나 집중적인 투자, 자유판매의 허용, 곡물거래의 자유화 조치 등에 힘입어 쌀생산이 급증하고 '89년에는 150만톤의 식량을 수출함으로써 세계 3위의 쌀 수출국이 됨. 그러나 인구의 70% 이상이 농민이며 농지면적이 1,000ha, 경지면적이 700만ha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성과는 아직도 미흡하며 생산성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였음.

○ '88년 집단 및 농업협동조합이 전체농가의 94%, 전국 경지의 80% 이상을 점유하므로써 개별영농체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 이러한 저생산성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사기업 형태의 가정경제 장려와 개별농가의 자유로운 영농으로 쌀생

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92년에는 쌀 200만톤 수출을 달성하였음.

2) 기후 · 토양 및 농업지역

○ 북으로는 위도 24° 남으로는 위도 9° 사이에 위치하며 기후는 대체적으로 열대 몬순기후이지만 고도와 지형에 따라 지역적 기후변화가 있어 북쪽지방은 겨울에는 서늘하고 여름에는 덥고 습기가 많음. 태풍의 위협은 7월과 9월 사이에 있으며 홍수가 나기도 하는데 차가운 날씨와 태풍으로 인해 북쪽의 농업 특히 쌀농사가 많은 위협을 받고 있음. 남쪽지역은 보다 양호한 기후조건과 태풍의 위협이 츄안하이 남쪽부터 없어지는 까닭에 베트남의 주요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음.

○ '91년 조사에 의하면 전체 국토의 21%가 농경지로 농지면적은 740만ha이며, 이는 인구 1인당 1000㎡ 정도로서 매우 영세한 규모임. 산림의 벌채, 경작지의 산성화, 지력약화등의 문제로 논농사는 위협을 받고 있으며, 델타지대 경작지대 약 300만 ha가 염분 또는 산 · 황산의 피해를 입고 있음. 메콩델타와 홍하델타의 두 곡창지대가 남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두 곳을 연결하는 교통이 매우 취약하여 이로 인해 상품의 교환 및 원 · 부자재의 배분이 어려운 실정임.

○ 지형학적으로 길게 늘어져 국토는 열대 및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기에 적합하나 농업은 쌀 생산이 주류를 이루며 주곡생산이 85% 이상을 차지함. 주곡생산은 총농업생산의 거의 50%를 점유하며 기타 작물로는 옥수수, 감자, 고구마 및 카사바가 있고 산업용작물 및 축산은 각각 총 농업생산의 24% 및 25%를 차지하고 있음.

○ 북쪽의 산악지역 및 내륙지역에서는 대부분 척박한 토양으로 산림의 황폐화와 토양의 부식화 현상이 심각해서 매년 ha당 240~300톤의 토양이 유실되고 있음. 북쪽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토양인 내륙지방의 충적토 26만 ha 및 홍하델타의 6만 ha는 인구밀집지역으로서 이미 그 생산량이 한계에 달했고 일부 토양은 적절한 지력의 보충없이 계속되는 집약적인 작물재배로 인해 피폐되고 있음. 내륙의 구릉지역은 산업용작물 생산에 적합한데, 과일재배와 축산업개발 또는 경제적 ·

생태적측면에서 장려되고 있음.

○ 중북부 해안지역 혹은 구 제4지구(Thanh Hoa, Nghe Tinh, Quang Binh, Quang Tri 및 Thua Thien)는 510만 ha로 80%가 고원 또는 산악지역이고, 나머지 20%가 좁은 해안델타, 사구 및 만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 지역은 태풍의 경로에 위치하고 있어 강한 바람 및 호우로 인해 여름철 우기에는 벼농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사구지역의 경우는 침식이 문제되고 있음. 이 지역의 북부는 태풍의 피해와 침식이외에도 염분의 증가 및 토양의 알칼리성으로 인해 1년에 1회 이상의 경작이 어려운 상태임.

○ 중앙의 중남부 해안지역은 쾅남에서 츄안하이성 끝까지 걸쳐 있으며 총 450만 ha로 지형학적인 특성은 제4지구와 비슷하나 저지대의 평야지대가 약 10% 정도 더 많음. 츄안하이성은 베트남에서 강우량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 연간 800㎜에 불과함. 서부의 중남부 고원지역은 기아라이-콤툼 및 람동성으로 쌀 재배지역은 약 14.3만 ha로서 이중 11.6만 ha가 천수답임. 고원지역은 산업용작물 경작에 매우 유리한데 이용가능한 경작지 100만 ha중 단지 12만 ha가 개발되었으며 이중 7만 ha가 커피생산에 이용되고 있음. 고원지대의 농업잠재력은 대단히 크지만 무질서한 산림 개발 및 농경지 확장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

○ 동부의 남보(메콩델타의 동북쪽에 위치)에는 77만 ha의 경작지가 있는데 이중 26.7만ha 가 벼농사에 이용되나 전쟁피해와 토양의 황폐화가 커다란 문제임. 메콩델타는 쌀의 최대 곡창지로서 '90년 쌀을 포함한 전체 식량생산량 2,148만톤의 45%를 차지하는 961만 톤을 생산함. 토질과 용수문제만 해결된다면 무한한 개발가능성이 있는데 현재의 200만 ha를 240만 ha로 늘릴예정임. 매년 약 100~120만 ha지역이 2~4개월동안 침수되며, 메콩델타중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베트남 지역의 약 40%가 산의 피해를 입고 있음. 감토지대인 약 70만 ha는 해수염분의 피해를 받는데 만약 바닷물의 침투만 막을 수 있다면 비옥한 농토로 전환시킬 수 있고, 동시에 염분의 침투로 인한 토양의 산성화를 억제함으로써 새우의 최대 서식지로 양식에도 유리한 지역이될 것임.

나. 주요 작물 경작지 현황

○ 총 농업경작지 면적은 거의 900만 ha에 달하며 (표Ⅲ-1 참조), '91년 현재 식량생산을 위한 경작지면적은 740.3만 ha로 '76년의 619만 ha에 비해 약 121만 ha가 늘어나 전 국토의 22.3%를 차지함. 그러나 상당량의 농경지가 산림벌채와 토양침식 등으로 훼손되고 있어 총 농경지면적의 50% 정도만이 실제로 경작가능하고, 그 중 관개시설이 완비된 곳은 100만 ha에 불과한 실정임.

○ 일년생과 다년생 작물로 나누어 보면 일년작은 재배면적이 거의 90%를 차지하는데 일년생 작물중에서도 '91년 쌀생산 경작지면적은 629만ha로 전체 경작면적의 약 85.1%임. 쌀 생산이 일년생 작물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5%이고 식량생산을 위한 총경작지 면적의 85.1%를 차지하며, 그 구성비율은 '76년 이후 연 평균 0.8%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Ⅲ-1〉 농작물 재배면적

(단위 : 천ha)

구 분	1988	1989	1990	1991
총 계	8,883.5	8,978.2	8,983.3	9,326.2
1년생작물	7,999.4	8,052.8	8,101.5	8,391.8
식량	6,967.8	7,089.6	7,110.9	7,402.7
야채콩류	401.2	419.5	426.1	448.9
산업작물	601.0	543.7	542.0	550.1
기타	29.4	-	-	-
다년생 작물	884.1	925.4	906.8	950.2
산업작물	611.9	625.1	657.3	667.8
과일	272.2	281.7	281.2	282.4
기타	0	-	-	-

〈표 Ⅲ-2〉 식량작물 경작지면적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천 ha, %)

	면 적			구 성 비		
	총 계	종 류 별		총 계	종 류 별	
		쌀	기타곡물		쌀	기타곡물
1985	6,833.6	5,703.9	1,129.7	100.0	83.5	16.5
1988	6,967.8	5,726.4	1,241.4	100.0	82.2	17.8
1989	7,089.6	5,895.8	1,193.8	100.0	83.3	16.7
1990	7,110.9	6,027.7	1,083.2	100.0	84.7	15.3
1991	7,392.8	6,295.0	1,097.8	100.0	85.1	14.9

○ 1인당 경작지규모는 극히 작으며 지역적으로도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홍하델타의 경우 농민 1인당 경작지는 2,397㎡이고 메콩델타의 경우 농민 1인당 경작지는 4,627㎡임.

〈표 Ⅲ-3〉 지역별 토지이용 현황('89년)

구 분	일인당 경작지 (㎡)	농부 1인당 경작지 (㎡)
전 체	1,073	4,056
북부 베트남	861	3,369
북부산간지역	1,206	4,373
홍하델타지역	591	2,397
중북부해안지역	882	3,591
남부 베트남	1,329	4,696
중남부해안지역	797	3,160
중남부고원지역	1,545	6,444
남부내륙, 해안지역	988	6,236
메콩델타 지역	1,729	4,627

다. 생산 동향

1) 생산 구조

○ 농업생산의 구성을 보면 작물재배의 비중은 '90년 농업총생산의 구성에서 75.4%이고 가축사육은 24.6%를 차지함. 특히 가축 사육의 경우 '80년에는 전체의 8%에 불과하였으나 '86년 이후부터는 14%를 넘어 증가추세를 보임. 메콩델타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식량증산 활동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88년 이후 농업부문에 대한 개혁조치로 인해 축산업을 포함한 농업이 큰 발전을 이룸.

○ 농업총생산에서 식량생산 비중을 보면 '80년에 57%, '87년 49.5%로 계속 감소되었고, 산업작물비중은 '80년 10.3%에서 '87에는 11.6%로 조금씩 증가되고 있어 농업경영의 다각화와 함께 농업생산구성에 변화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88년과 '89년에는 미곡생산증가가 농업생산 증가를 주도하여 식량작물비중은 '89년에 54.6%로 증가하였으며 산업작물은 10% 이하로 떨어졌음.

〈표 Ⅲ-4〉 농업총생산의 항목별 구성('82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 %)

구 분	1980	1987	1988	1989	1990	1991
작 물 재 배	80.1	73.3	75.5	75.7	75.4	74.5
식 량 생 산	57.0	49.5	49.5	54.6	-	-
야채 · 콩류	3.5	3.5	3.5	3.1	-	-
산 업 작 물	10.3	11.6	11.6	9.9	-	-
과 일	5.1	6.1	6.1	5.0	-	-
동 물 사 육	19.9	26.7	26.7	24.3	24.6	25.2
가 축	8.1	16.0	16.0	14.7	-	-
가 금	3.7	3.3	3.3	3.4	-	-
기타생산(알, 털등)	1.9	4.1	4.1	3.5	-	-
양 어	4.2	1.8	1.8	1.7	-	-

2) 생산 동향

○ 통일 이후 농업부문의 식량생산은 베트남 정부의 주요관심사로 현재 농업 총생산구성에서 식량생산이 50% 이상을 차지하듯이 베트남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음. '87년에는 자연재난과 투입재 부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1인당 식량생산량이 281㎏을 기록함으로써 식량자급 체제가 붕괴되어 북부에서는 기아가 발생하기도 했음. 그러나 '89년에는 식량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1인당 생산량이 300㎏이 넘는 2,150만 톤이 생산되어 쌀 142만 톤이 수출되었으며, '91년에도 2,171만톤을 수확하여 식량자급자족을 이룸과 함께 수출이 가능케 되었음. '92년 역시 200만톤을 수출하여 세계 3위 쌀 수출국가로 부상되었으나 태국과 쌀 수출로 인한 미묘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양국 정부간의 대화를 통하여 수출물량 및 가격조정을 하고 있음.

〈표 Ⅲ-5〉 1인당 식량곡물 생산량 추이

(단위 : ㎏)

연도	총계	종류별	
		쌀	기타곡물
1976	274.4	340.6	33.8
1980	268.2	216.8	51.4
1985	304.0	265.1	38.9
1986	300.8	261.9	38.9
1987	281.2	241.8	39.4
1988	307.3	266.8	40.5
1989	332.2	293.3	38.9
1990	324.4	290.3	34.1
1991	320.8	287.0	33.8

○ 한편, 베트남의 농업경제 지대를 7개 지역으로 나누어 보면 베트남의 대표적인 미작지대는 메콩강 삼각주와 홍하델타지대임. 메콩강델타는 광대한 평야로 인해 일찍이 대지주제가 형성되었고 오늘날 베트남의 곡창을 이루고 있으며 북부 홍하지대와 중부지역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농토가 더 좁기 때문에 남부보다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마을공동체를 이루고 있음. 북부의 경우 중국에서 전래된 전통적인 농업기술을 사용하여 쌀과 기타 곡물을 재배하였으나 남부는 완전히 쌀이 농업의 중심이었음.

○ 메콩델타의 인구는 약 1,417만명으로 전체의 22%에 불과하지만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43% 및 49%가 이 지역에서 생산되므로 베트남 쌀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임. 이는 인구 일인당 생산량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메콩델타의 일인당 쌀생산량은 '90년 현재 669㎏으로 전국평균의 297㎏에 비해 2.2배 이상을 생산하고 있음. 그러나 메콩델타의 농지가 농업에 완전히 이용되는 것은 아닌데 이는 관개시설의 미비로 일정 농지가 계속침수되어 있기 때문임. 따라서 장래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생산량은 더욱 증대될 수 있음.

○ 홍하델타 지역은 전 국토면적의 5.8%에 불과하지만 쌀생산량은 18.8%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지생산성도 평균을 상회하는 주요한 쌀 생산지임. 미작농업으로 적당하지 않은 지역은 중북부해안과 중남부 고원지대로서 1인당 쌀 생산량이 200㎏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 지역은 베트남에서도 가장 소득이 낮은 지역이기도 함. 인구 1인당 쌀생산은 남부의 북동지역도 극히 작은데 여기는 호지민시를 포함하는 도시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보조식량작물로는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이 있으며 쌀생산이 저조한 경우 이들 작물의 생산증가로 부족한 식량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여 왔음. 그외 사탕수수의 생산량도 증가하여 산업작물 전체가 농업 총생산가치에서 이들이 주요작물의 생산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열대작물재배도 가능하여 바나나, Cashew Nuts, 계피, 망고스틴, 파인애플, 오렌지 등 열대 및 아열대성 작물의 재배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표 Ⅲ-6〉 주요작물 생산량 추이

(단위 : 천 톤)

항 목	1988	1989	1990	1991
식량작물	19,583.1	21,515.6	21,488.6	21,717.6
쌀	17,000.0	18,996.3	19,225.1	19,427.6
봄추수	6,974.1	7,539.3	7,845.8	6,788.3
가을추수	3,378.7	4,063.2	4,110.4	4,767.7
겨울추수	6,647.2	7,393.8	7,269.9	7,871.6
보조작물	2,583.1	2,519.3	2,263.5	2,290.0
옥수수	814.8	837.9	671.0	651.6
고구마	1,901.8	1,909.2	1,929.0	2,104.5
카사바	2,839.3	2,585.4	2,275.8	2,389.9
부식작물				
야채	2,909.2	3,135.4	3,204.1	3,416.8
콩	95.0	102.1	106.3	109.4
1년생 산업용작물				
면마	4.2	3.3	2.8	2.9
황마	36.8	34.3	23.8	26.7
등심초	83.7	81.2	63.3	70.8
사탕수수	5,700.4	5,344.6	5,397.7	5,939.8
땅콩	213.9	205.8	213.1	211.7
콩	85.3	82.0	86.6	98.7
담배	35.5	23.9	21.8	28.7
뽕나무	45.7	56.9	100.2	97.9
다년생 산업용 작물				
차	29.7	30.2	32.2	34.3
커피	31.3	40.8	64.1	59.6
후추	6.2	7.1	8.6	-
고무	49.7	50.6	57.9	59.7
코코넛	856.7	922.1	894.4	1,038.5

3) 쌀 생산과 유통

○ 쌀 생산은 농업생산의 50% 정도를 차지하며 동시에 식량생산의 약 90% 이상을 점유하여 왔음. 이는 자연조건이 미작농업에 적합하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미작 단일농업이 고착된 것은 프랑스의 식민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임. 쌀 생산은 홍하 델타, 중부해안 델타, 중부의 평야, 산간지역 및 고원지역에서는 자체 소비와 지역적 수요로만 충당되나 메콩델타는 좋은 자연조건으로 지역내 소비량 이외의 쌀을 상품으로서 생산 수출하고 있음.

○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쌀의 경작지면적, 생산성, 수확고는 차츰 증가하고 있음. 생산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80년에 ha당 2천㎏을 생산하던 것이 '90년에는 3천㎏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생산성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이는 아시아의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떨어지는 수준임.

○ 안정적인 쌀의 공급과 유통을 위해서는 국내소비를 기본으로 한 식량 정책에 의거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가격유지 정책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함. 이를 위한 통계체제의 확립과 수급통제가 필요하며, 국내 소비시장과 수출시장의 안정적인 확보, 정확한 소비량 예측에 위한 적정한 가격설정등이 필요함. 다음은 '76년부터 '91년까지 쌀의 수출입 현황임.

〈표 Ⅲ-7〉 쌀의 수출입 현황

(단위 : 만톤)

수입연도	수입량	수출연도	수출량
1976	633	-	-
1980	890	1989	142
1986	528	1990	162
1988	400	1991	100

4) 보조식량 및 주요 산업작물

○ 보조식량 작물로 옥수수, 카사바, 콩종류가 생산되며, 이것들은 식량작물중에 포함되어 2모작이 이루어지는데 식량부족 해결때문에 특히 옥수수를 중심으로 생산 증대를 꾀하고 있으나 주식대용(보조식량) 작물이 식량 총생산에서 차지하

는 비율은 13% 전후임. 보조식량작물의 생산량은 '8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이들 작물의 대부분은 급증하는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었음. 그러나, '87년이후 자연재해와 기타 여건으로 쌀농사가 흉작인 경우 식량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옥수수와 감자의 생산이 증가하였음.

○ 옥수수의 경우 '89년에는 51만 ha로 생산량이 84만톤 이었으나 '91년에는 쌀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단지 65만톤을 생산하였으며 경작지 면적도 줄어 들었음. 고구마 역시 식량이 부족할 때 주요 보조작물로서 '91년 210만톤이 생산되었으며 경작지면적도 '91년에는 약 35만 ha로 증가하였으나 '80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카사바의 경우도 '80년 재배면적이 한때 44만 ha에서 '91년에는 26만 ha로 줄어들었으며 생산량도 332만톤에서 210만톤으로 크게 줄어들었음.

〈표 Ⅲ-8〉 주요작물의 경작지면적 추이

(단위 : 천ha)

구 분	1989	1990	1991
일년생 작물	8,502.8	8,502.8	8,391.8
식량작물	7,089.6	7,110.9	7,392.8
쌀	5,895.8	6,027,7	6,295.0
봄	1,992.3	2,073,6	2,159.7
가을	1,140.3	1,215.6	1,370.5
겨울	2,763.2	2,738.5	2,764.8
보조작물	1,193.8	1,083.2	1,097.8
옥수수	509.4	431.8	432.9
고구마	327.3	321.1	348.4
카사바	284.6	256.8	267.2
식료작물	419.5	426.1	448.9
야 채	252.0	262.1	279.3
콩	167.4	165.0	1,639.6

○ 산업용 가공원료에 사용되는 산업작물로서는 목화, 땅콩, 사탕수수, 차, 커피, 카카오, 담배, 고무, 황마, 등심초, 후추, 과일등 기타 열대성 농작물이 생산되

며, 증산에 노력하고 있으나 기대만큼 효과를 얻지 못함. 고무농장은 주로 남쪽 지역에 있으며 특히 구소련이 고무농장의 건설·확대에 협력해 왔음. 커피 재배는 소련, 동독, 불가리아, 체코등 각국과 합작기업 형태로 중부고원 지대에 재배지가 개발되어 왔음.

○ 다년생 작물인 차, 커피, 고무 등은 농산물교역의 주요 상품으로서 외화수입원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차, 커피, 고무, 코코넛 등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경지면적도 늘고있음. '91년 현재 차재배지는 6만 ha, 커피는 11.5만 ha, 고무재배지는 21.8만 ha이며, 차생산량은 3만 4천톤, 커피와 고무 생산량은 각각 6만톤을 기록하였음. 이런 사실은 경제발전을 위해 외화획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베트남의 농업이 수출상품의 개발과 함께 상당한 품종 다변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의미함.

〈표 Ⅲ-9〉 주요다년생 산업작물 경작지면적 추이

(단위 : 천 ha)

구 분	차	커 피	후 추	고 무	코코넛
1986	58.1	65.6	3.9	202.0	157.7
1987	59.2	92.3	5.9	203.7	199.3
1988	59.1	111.9	7.6	210.5	210.6
1989	58.3	123.1	8.0	215.6	206.3
1990	59.9	119.3	9.2	221.7	212.3
1991	61.2	114.8	-	218.0	-

○ 일년생 산업작물의 경작지 면적은 전반적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황마의 경우 '87년 3.2만 ha에서 '91년에는 1만 ha로 줄어들었고 등심초, 땅콩, 담배도 경작지 면적도 감소하는 실정임. 그러나 뽕나무, 사탕수수, 콩의 경우 그 재배면적이 증가 하였음. 〈표 Ⅲ-10〉은 일년생 산업작물의 경작치 면적의 추이를 나타내고, 〈표 Ⅲ-11〉은 농업경제구와 각 지역의 주요 생산작물 현황임.

〈표 Ⅲ-10〉 주요 일년생 산업작물 경작지면적 추이

(단위 : 천 ha)

구 분	황 마	등심초	뽕나무	사탕수수	땅 콩	콩	담 배
1986	26.1	16.9	6.7	125.2	224.5	106.5	36.2
1987	32.0	17.0	6.7	136.9	237.8	118.1	38.8
1988	17.1	17.5	7	142.1	224.4	103.0	39.5
1989	15.7	14.4	6.5	131.3	208.6	100.2	28.0
1990	13.0	12.6	11.0	135.0	210.0	105.0	22.0
1991	10.4	-	-	141.1	196.2	115.4	30.8

〈표 Ⅲ-11〉 농업경제구와 주요 생산작물

구분	성	주요산물
북부산간지역	Ha Tuyen, Cao Bng, Lang Son, Lai Chau, Hoang Lien Son, Bac Thai, Son La, Vinh Phu, Ha Bac, Quang Ninh	쌀, 옥수수, 차, 유성작물, 과일, 물소, 젖소, 돼지, 기타 가축
홍하델타	Hanoi, Haiphong, Ha Son Binh, Hai Hung, Thai Binh, Ha Nagm Ninh	쌀, 잡곡, 감자류, 사탕수수 황마, 등심초, 돼지, 가축, 물소, 소
중북부해안지역	Thanh Hoa, Ninh Tinh, Binh Dinh	쌀, 고구마, 땅콩, 과일, 후추, 돼지, 물소, 소, 가축
중남부해안지역	Quang Nam-da Nang, Phu Khanh, Thuan hai	쌀, 잡곡, 감자류, 면화, 코코넛, 사탕수수, 과일, 소, 물소, 돼지, 가축
중남부고원지역	Gia Lai-Con Tum, Dac Lac, Lam Dong	쌀, 잡곡, 감자류, 사탕수수, 고무, 커피, 차, 양잠, 면화 과일, 우유
남부내륙 및 해안지역	Ho Chi Minh, Song Be, Tay Ninh, Dong Nai, Vung Tau Con Dao	쌀, 옥수수, 대두, 사탕수수, 고무, 과일, 소, 물소, 돼지, 가축
메콩델타지역	Long An, Dong Thap, An Giang, Tien Giang, Ben Tre, Cuu Long Hau Giang, Minh hai	쌀, 옥수수, 대두, 황마, 등심초, 과일, 돼지, 가축

라. 경영구조

1) 국영농장

○ 현재 베트남에서는 국영농장과 협동조합농장 그리고 개인농지등 3개 유형의 경영형태가 있음. 국영농장의 비중은 경작면적이나 생산량에서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그 기능도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사실상 베트남의 농업은 협동조합 농장에 의해 경영되고 있음. 주로 차, 고무, 커피등의 산업용작물의 생산이 국영농장에 할당되었으며 '91년말 현재 전국 국영농장수는 49개로 경작면적은 50만ha임.

○ 국영농장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작물을 도입하였을 때 시험적재배를 위하여 신개간지에 주로 만들어지며, 중앙정부가 할당해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산업용작물재배에 중점을 둠. 국영부문의 식량생산 비중은 단지 0.7%만을 차지하고 있으나, 다년생 산업작물생산에서는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표 Ⅱ-12〉에서 알수 있음.

〈표 Ⅲ-12〉 경영주체별 경작지면적('89)

(단위 : 천 ha)

구 분	총 계	경영주체		
		국영부문	집단부문	사경제부문
식량	6,967.8	51.6	4,952.5	1,963.7
쌀	5,726.4	41.7	4,522.3	1,162.4
봄추수	1,882.1	9.3	1,700.4	172.4
가을추수	994.3	8.2	859.3	126.8
겨울추수	2,850.0	24.2	1,962.5	863.3
보조작물	1,241.4	9.9	430.2	801.3
옥수수	510.5	7.4	430.2	273.0
고구마	336.2	0.7	107.2	228.3
카사바	317.7	1.8	84.9	231.0
감자	37.8	-	5.2	32.6
식료작물	401.2	1.9	62.5	336.8
야채	242.8	0.6	33.2	209.0
콩	158.4	1.3	29.3	127.8
1년생산업용작물	601.0	22.2	229.6	349.2
면화	12.3	0.5	0.9	10.9
황마	17.1	1.0	12.8	3.3
등심초	17.5	1.0	11.8	4.7
사탕수수	142.1	13.5	29.6	99.0
땅콩	224.4	2.9	101.2	120.3
담배	39.5	0.6	17.9	21.0
다년생산업용작물	611.9	274.7	5.7	331.5
차	59.1	20.5	2.6	36.0
커피	111.9	35.8	0.8	75.3
고무	210.5	208.8	0.1	1.6

○ UNDP('90년) 자료에 의하면 국영농장은 전체 농지면적의 4%를 점하는데 사회적 생산단위의 모델로 알려져 있으며 농업식품공업부, 국방부, 고무 · 차 · 커피 공사 등 여러 기관의 조정 및 통제를 받고 있음. 이 중 50% 정도는 성 정부의 작업 지휘 감독을 받고 있음. 국영농장의 경우 성공적으로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고, 농지를 개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르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최근 국영농장에서 사용하는 자원의 효율성이 심각하게 의문시 되어 국영농장의 역할을 새로운 농경지 개간으로 한정시키고 있음.

○ 그러나 국영농장에 보다 더 많은 자율권이 주어지고, 보다 효율적인 경영관리, 시장경제원리에 기초를 둔 비용회계 제도의 개발, 개선된 기술의 이용 등이 국영농장의 성패를 좌우함. 만약 민간부문의 다각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영농장과 민간부문 사이에는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 장래에는 국영농장의 기능이 계속 존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함.

2) 협동조합 및 집단농장

○ 통일 후 2차 5개년 계획기간('76~'80)동안 강제적으로 집단농장화를 추진하고, '신경제지구'를 조성하여 '76년 이후 12년간 32만 명을 이주시켰음. 이 이주정책은 남쪽에서 전쟁중에 난민으로 팽창한 도시인구와 도시실업자를 줄이고, 국가경제건설에 기여하기 위해 미개간지를 개척하여 신경제지구를 설치하고, 농촌출신자의 귀향이나 도시주민의 이주 등의 형식으로 잉여인구를 이곳에 이주시켜, 농업생산에 종사시키는 것이었음.

○ 신경제지구로의 이주는 남 베트남 지구내 뿐만 아니라 북베트남 지구의 평원, 도심부의 인구과밀 지구로부터 이주시켜, 남쪽의 신경제지구에 정착시키려 했으나 식량부족, 건축자재공급난등으로 계획대로 진전되지 못하였음. 신경제지구로의 이주와 병행해서 산악지의 소수민족의 이주와 정착사업도 실시하고 있음.

○ 남부의 집단화는 3개의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신경제구, 협동조합 그리고 기초농촌단위였던 읍을 개조하여 여기에 경제적 성격을 강화한 것이었음. 이중에서 특

히 농업협동조합은 30~50호의 가구를 합쳐 사유지를 30~50ha정도의 공유경작지화한 것으로 농민들은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자기가 한 노동일수와 정치사상 학습태도에 따라 그 수확의 일부를 지급받게 된 것임.

○ 협동조합의 목적은 농업생산의 건전한 관리와 효율적인 조정에 있었으나 점점 사회-정치적 역할과 기능까지 담당하게 되었음. 특히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이용했는데 이는 협동조합활동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며 협동조합과 관련한 평등주의적 소득분배시스템은 조합원들의 인센티브와 의욕을 떨어뜨리게 했음. 협동조합은 소속 농민에게 고도의 직업적 만족이나 바람직한 생활수준을 제공하는데 실패하였으며, 그 결과 협동조합이 별로 매력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음.

○ '81년말 최종생산물 계약제도가 도입되어 토지를 구획으로 나누어 개별농민에게 분배하고 파종, 이앙, 수확과 같이 농업활동의 유형에 따라 토지들을 경작할 수 있게함. 납부물량이 계산되어 각 농민에게 할당되는데 과거 3년간의 각 구획의 평균수확량에 기반을 두고 설정되었는데 이러한 제도변경은 기존시스템이 갖고있는 고유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음. 이는 사실상 협동농장의 몰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개별농민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최종 수입이 달라질 수 있게 됨으로써 기존의 협동조합 농장이 가졌던 평등주의는 거의 사라지게 되고 협동조합은 공공서비스조합으로 변모하였음.

○ 농업협동조합체제가 도입된 남쪽의 경우 북부 베트남보다 곡물생산증가가 낮았으나 '84년 중반부터는 남부지역의 집단화 프로그램을 강행하였음. '88년까지 전국 농가의 94%, 전국 경지의 80%가 집단 농업생산에 참가하였음. 그러나 '87년과 '88년사이에 식량파동이 일어나자 '88년 4월 농업생산의 확대를 위해 집단화에 재동을 걸고 개개의 농가에 15~20년 기간으로 토지를 대여하여 생산활동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

〈표 Ⅲ-13〉 경영주체별 작물생산량('88년)

(단위 : 천톤)

	총 계	경영주체별		
		국영부문	집단부문	사경제부문
식 량	19,583.1	127.1	19,456.0	
쌀	17,000.0	108.1	13,944.3	2,947.6
봄추수	6,974.1	32.0	6,353.0	589.1
가을추수	3,378.7	27.0	2,911.0	439.8
겨울추수	6,647.2	49.1	4,680.3	1,917.8
보조작물	2,583.1	19.0	2,564.1	
옥수수	814.8	12.5	362.4	439.9
고구마	1,901.8	2.9	570.6	1,328.3
카사바	2,839.3	16.3	747.3	2,075.7
감 자	346.7	-	44.5	302.2
식료작물				
야 채	2,909.2	5.3	351.2	2,552.7
콩	95.0	0.7	18.6	75.7
1년생산업작물				
면 화	4.2	0.2	0.5	3.5
황 마	36.8	1.4	29.4	6.0
등심초	83.7	4.0	63.5	16.2
사탕수수	5,700.4	495.8	1,065.7	4,138.9
땅 콩	213.9	2.5	95.6	115.8
담 배	35.5	0.6	15.4	19.5
다년생산업작물				
차	29.7	13.7	-	16.0
커 피	31.3	6.6	-	24.7
후 추	6.2	0.9	-	5.3
고무	49.7	49.3	-	0.4

○ 일반가구의 협동조합 참여현황은 남북간에 현저히 다른 참여율을 보였는데 메콩델타 지역에서는 아주 저조한 협동조합 참여율을 나타냈음.

〈표 Ⅲ-14〉 협동농장 참여현황('88)

구 분	협동농장 수	협동농장참여 가구수(천명)	참여율 (%)
북부	14,672	4,957	-
산악지역 및 중부지역	7,857	1,268	90.0
홍하델타	3,037	2,352	99.4
구제4지구	3,760	1,337	98.2
남부	2,657	1,203	-
중부해안지역	1,282	817	91.1
중부고원지역	512	143	47.8
동부의 남보	422	100	19.8
메콩델타	444	143	6.9
총계	17,335	6,158	69.2

3) 개별농가부문

○ '81년 시행된 최종생산물계약제도로 인해 할당된 농가의 생산물은 협동조합의 산출량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88년의 개혁으로 농가별생산은 농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본격적으로 담당하게 됨. 즉 협동조합보다 생산성이 2배나 높은 가계경제를 사회주의 경제의 일부로 수용하여 식량생산을 증대코자 하였음. UNDP(1990) 자료에 의하면 '88년 개혁이전에도 개별농가 생산은 농업총생산의 48%, 축산의 95%, 과일생산의 93%를 점하였음. 경제부문별 주요 작물생산현황을 보면, 개별농가는 전체 식량보조작물과 채소류의 90%정도를 생산하였음.

○ '88년의 개혁으로 각 농가는 자원 할당에 있어 자율권을 부여 받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농가, 특히 북쪽의 농가는 투여할 자원이 노동력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산업화 및 환경보존과 동시에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광범위한 계획과 농촌여신제도가 요구되는데, 남

부 베트남의 경우 자원의 공급과 손쉬운 시장참여라는 면에서 북부지역 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음.

마. 축 산 업

○ 농업과 축산업을 모두 포괄하는 전체의 농업은 '91년 현재 사회총생산의 42.9%, 국민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부문의 성과가 어떤가에 따라 베트남 경제는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임.

○ 농업을 전통 농업인 작물생산과 축산으로 이분하면 작물생산의 비중은 '89년 현재 약 76% 정도임. '80년 이후 작물생산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80년대의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며 작물생산의 비중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임.

○ 그러나 '86년이후 만을 살펴보면 양쪽의 비중은 비슷하여 전체적으로 농업에서의 구조변화는 현저하지 않으며 농업소득의 70% 이상은 작물생산으로 부터 나온 것임. 축산업의 비중은 24%선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86년 4.6%에서 '89년 14.5%까지 증가하였는데 이는 '80년대 후반에 취해진 일련의 농업계획에서 축산업도 동시에 중요하게 여기며 발전하였기 때문임.

〈표 Ⅲ-15〉 육류생산 및 가축의 현황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5
물소(천마리)	2657.6	2752.7	2806.8	2871.3	2854.1	2858.7	3375
소 (천마리)	2783.5	2979.1	3126.6	3201.7	3120.8	3135.6	4375
돼지(천마리)	11795.9	12050.8	11642.6	12217.3	12260.5	12194.4	16100
말 (천마리)	136.6	136.0	132.6	143.0	141.3	133.7	-
가금류 (백만마리)	99.9	96.0	96.3	104.8	107.0	108.9	120
육류생산 (1000톤)	833.2	897.8	896.6	987.5	1007.9	1015.2	1308

주 : 1995년은 예상치임

바. 과제 및 개선방안

○ 베트남의 농업은 전체 고용인구의 70% 이상을 흡수하고 있으며 사회총생산의 4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나,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정부의 투자지출에서 농업부문의 몫은 약 20%로서 공업부문의 비중 약 40~50%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농업생산성은 아직 아시아 평균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비료, 농약, 농기계, 연료 등의 농업투입재의 공급과 가격의 안정, 우량품종의 확산등이 중요함. 이를 위해 농업관련 여러부문의 발전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인데 이는 농업부문의 안정이 경제사회 발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임. 다음은 최근 3개년간의 농업부문 국가투자지출 현황임.

〈표 Ⅲ-16〉 농업부문 국가투자지출 추이

구 성	금액(백만 동)			구성비(%)		
	1988	1989	1990	1988	1989	1990
총 액	128,398.8	238,252	409,165	100.0	100.0	100.0
경 작	49,877.9	43,129.1	92,396	38.8	18.1	22.6
토지개간*	6,737.6	12,185.8	29,473	5.2	5.1	7.2
국영농장	41,094.1	29,016.1	55,599	32.0	12.2	13.6
고무농장	19,691.3	6,424.5	20,789	15.3	2.7	5.1
차농장	1,848.8	629.8	906	1.4	0.3	0.2
커피농장	988.1	5,800.2	2,599	7.7	2.4	0.6
수확서비스	2,046.2	1,927.2	7,324	1.6	0.8	1.8
가축양육	13,315.9	16,054.5	16,903	10.4	6.7	4.1
트 랙 터	281.5	-	36	0.2	-	0.0
수자원관리	64,923.5	179,068.8	299,830	50,6	75.2	73.3

주 : * 신경제구건설 포함.

○ 정부는 농업과 관련 직접적인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중·단기적으로 ①기존 시설의

최대한 활용, ②기존시설을 중소규모로 확장, ③기존의 관개시설 및 배수시설의 운용 개선, ④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완성으로 빠른 시일내에 생산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4가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음. 구체적으로 '95년까지의 목표는 ①이모작 또는 삼모작의 확대로 관개지역의 수확량 20% 증가, ②28~30만 ha에 이르는 침수지역에 수로개설, ③장기적으로 메콩 및 홍하델타 지역을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임.

○ 베트남은 쌀의 증산과 다양한 농업구조의 뒷받침을 위해 물의 공급 및 배수로 시설 설치에 중점을 두고 있음. 수리부, 농업 · 식품공업부는 농민들이 보조식량작물이나 새우 또는 양식업을 할때 ①물과 기간시설의 공급, ②토지의 산성화 방지, ③어느 정도 산성토양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작물재배 및 조림수종개량, ④수산양식에 필요한 기술습득 및 정보제공을 위해 연구 노력하고 있음.

○ 토지와 기타 희소한 농업자원이 수익성에 관계없이 주로 쌀생산에 투입되었는데 남부지방에서는 높은 상업적 가치를 갖는 산업용작물이 경제적 가치는 낮지만 식량 가치가 높은 품목들로 대체되었음. 그러나 '88년에는 종합적인 식량전략이 생태학적 보전과 기초적인 농업 확대사이의 상관관계를 포함하는 식량생산 기술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축산을 포함한 혼합작물 경작과, 산업용 · 식료용 작물을 동시에 생산하는 농업과 산업의 혼합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이들 사이의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음.

○ 영농자금과 소비신용의 확대가 필요하고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며 분권화된 농업제도의 개발, 중앙부처에서 가장 하급단위의 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모든 면에서 지원하는 실용적인 농업정책을 택하면 총농업생산은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임.

2. 임　　업

가. 개 황

○ 농업과 임업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임업은 농업의 일부분으로 산업용작물인 커피, 차, 고무, 코코넛 등 수출용 상품생산과 함께 목재 생산을 담당하여 왔음. 베트남은 소나무, 자단, 흑단, 모과나무등 고급목재의 공급지였으며, 현재 풍부한 산림자원을 가진 임업국임.

○ '91년 현재 임업이 사회총생산(GS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이고, 국민소득(NI)의 4.1%를 차지하며 목재는 건축자재의 공급원으로 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연간 2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수입원이 되고 있어, 개발에 의해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임.

○ 〈표 Ⅲ-17〉은 임업부문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줌. 〈표 Ⅲ-18〉은 임업소득의 구성요소로 조림비는 원목벌채시 관련 업자로 부터 인공조림을 위해 징수하는 것이며, 판매세, 수익세는 임업관련 상행위로 부터 거두는 세금임.

〈표 Ⅲ-17〉 국민소득의 구성 추이

(단위 : 10억동, '82년 경상가격)

부　　문	1986	1987	1988	1989
농　　업	85	82	85	91
공　　업	48	54	56	54
건　　설	5.0	5.3	3.1	4.9
임　　업	1.4 (0.8%)*	1.5 (0.8%)	3.0 (1.6%)	3.2 (1.7%)
기　　타	30	32	33	35
총　　계	170	174	184	188

주　: *임업부문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표 Ⅲ-18〉 임업소득의 구성요소 추이

(단위 : 백만동, '90년 기준)

연도	조림비(RF)			판매세 (ST)	합계 (RF+ST)	수익세	총 계
	총이윤	중앙	지방				
1986	55,000	14,000	41,000	6,240	61,240	2,360	63,600
1987	62,000	16,000	46,000	4,480	66,480	2,600	69,080
1988	60,700	15,600	45,100	2,100	62,800	2,000	64,800
1989	33,000	8,500	24,500	3,570	36,570	2,500	39,070
1990	42,900	11,000	31,900	4,000	46,900	2,000	48,900

나. 산림자원

1) 현 황

○ 총 산림면적은 1,995만 ha이고, 전국토 면적의 60% 정도를 차지하나, 벌채 이외에도 화전경작이나 산불 등으로 매년 많은 산림면적이 소실되고 있어 현재 실제로 임목이 존재하는 임지는 총 산림면적의 약 50%에 해당하는 900만 ha정도에 불과한 상태에 있음. 이는 화전, 혹은 재래식 농업을 위한 벌채 등이 '43년까지 계속되어 산림면적이 1,995만 ha에서 1,430만 ha로 줄어들었음.

○ '43년이래 500만 ha이상의 산림이 파괴되었으며 '75년 통일전까지는 전쟁에 의한 고의적인 파괴까지 겹쳐서 840만 ha로 줄어들었음. 통일후 계속된 정부의 조림계획과 수자원이용에 대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산림손실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연간 16만~20만 ha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음. 따라서, 현재 국토의 약 20~28%가 산림지역으로 남아 있는 실정임.

○ 베트남은 아열대 몬순지대에 속하여 산림자원이 풍부하였으며,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수종만도 1,000여종으로 알려져 있음. 산림은 북부에서 안남산맥에 걸친 낙엽수림과 북부에서 중부 저지대에 이르는 혼효림으로 해안지역은 산림파괴로

이루어진 초원지대, 홍하와 메콩강 유역의 하구 연안지대는 홍수림지대로 나눌수 있음. 델타지대의 내륙지에는 습지림이 분포하며 안남산맥 서부의 내륙저지대에는 건조 낙엽수림대가 구성되어 있음.

〈표 Ⅲ-19〉 산림면적 구성

(단위 : 만ha)

산 림 이 용	면 적	구 성 비
산림총면적	1,995	100.0
임 업 용 지	1,340	67.2
자 연 석	1,340	64.8
회 귀 석	28	1.4
대 나 무	147	7.4
인 공 림	48	2.4
임업가능지	655	32.8

〈표 Ⅲ-20〉 산림 황폐화의 원인

산림황폐화의 원인	ha/년
국가계획위원회 추정	
경지조성을 위한 정리	65,000
농업생산을 위한 정리	60,000
무계획적 벌채	35,000
지역주민에 의한 벌채	30,000
총 면 적	160,000

2) 산림의 유형

○ 산림은 크게 천연림, 보호림 및 특수림, 인공조림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110만 ha의 특별이용림, 600만 ha의 보안림, 1,210만 ha의 생산림 및 기타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음. 산림지대는 북부 국경지역에서부터 남부의 동쪽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지만 면적당 산림이 많은 지역은 중부고원지대와 중부의 동쪽지역임.

〈표 Ⅲ-21〉 지역별 산림의 분포

지 역	산림지역 점유율(%)
북부 산간지역	8.6
중부 중앙지역	26.0
북동쪽 고원지역	23.9
중북부 해안지역	33.6
중남부 해안지역	19.3
중남부 고원지역	58.7
동남부 지역	20.9

(1) 천연림

○ 천연림은 중부고원지역에 잘 발달되어 있는데 총 자연림의 40%가 이곳에 분포되어 있고, 전국 원목생산의 47%를 차지하며 연간 2억 7천만 ㎥을 생산함. 중부 해안지역에서의 생산까지 합치면 중부지방에서의 원목생산은 베트남 총원목생산의 80%를 차지함. 대나무는 총 57억 그루가 자라고 있는데 이것도 대부분 중부고원지대(27억 그루)와 중북부 해안지대(13억 그루)에서 생장하고 있음.

(2) 인공 조림지

○ 전쟁과 연료 확보 및 외화획득을 위한 무리한 벌채로 산림이 크게 훼손되어 최근 인공조림을 적극 시행하고 있음. 인공조림지는 주로 중북부 및 북부 해안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규모는 총조림면적의 55%에 해당함. 이곳에서의 조림은 안남산맥으로 인해 바다와 급경사를 이루는 중북부 해안지역에서의 토양유실 방지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음.

○ 1908년에 티크 인공조림이 시작된 이래 '45년과 '61년에 대규모 조림사업을 실시하였고, '75년 이후에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65~'80년 사이에 약 130만 ha의 지역에 조림이 이루어 졌으나, 그 중 약 32%만 살아남아 고사율이

68%에 달해 조림녹화사업은 부분적으로 실패했음을 알 수 있음. '80년 이래 조림 실적은 매년 6~14만 ha의 수준(평균 연 12만 ha정도)을 유지하였으며 그 생존율은 46%에 달함.

〈표 Ⅲ-22〉 조림실적

(단위 : ha)

연 도	실 적
1982	60,000
1983	75,000
1984	80,000
1985	n,a.
1986	166,000
1987	140,000

- 조림수종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긴급한 산림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칼립투스, 아카시아, 메루구시등 소나무류 등의 기본수종을 식재하여 왔음. '88년에 「신토지법」이 제정된 결과 토지를 개인에게 대여하고 이와 더불어 종자, 묘목을 공급함으로써 토지 임대자에 의한 조림과 그후의 경영관리를 담당케하는 형태의 사업이 주체가 되어왔음. 이런 형태의 사업에 있어서 정부는 기술지도 및 실시방법에 대한 지시를 하지만 생산물 모두는 조림자의 것으로 자유로이 이용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종이·펄프의 원료인 소나무는 '76년에 7,000ha, '78년 6,000ha, '80년 9,000ha에 이르는 조림이 이루어졌으며, 주로 비에트 트리 및 바이방 제지공장에 공급되고 있음. 이외에 토지비옥도가 낮은 중부 베트남에서는 유칼립투스류가 해안사구지에는 모크마오가 조성되어 있음. 근년에 FAO에 인한 인공조림 프로젝트가 실시되었음.

○ 조림은 집약적 조림과 분산적 조림으로 나눌수 있는데 전자는 나지조림과 조림목 벌채후의 재조림, 조림이 실패된 곳에 조림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면적의 벌채지, 미림목지에 행하는 일반적인 조림임. 분산적 조림은 일반주민에게 종자나 묘목을 배부하여 집주변과 혹은 농지의 주변에 심는 것으로 이 사업에 의한 조림면적은 집중적 조림면적 보다도 많아서 '87~'88년의 3년간에 약 63만 ha의 조림이 이루어졌음(연평균 20만 ha이상).

〈표 Ⅲ-23〉 집약적 조림 추이

(단위 : ha)

기 간	인공조림면적	연평균
1975~1979	214,069	43,000
1980~1985	310,066	52,000
1986~1989	499,294	125,000
총 계	1,023,429	68,000

3) 보호림과 특수림

○ 베트남은 110만 ha의 산림지역을 특별임업자원지역(공원, 야생동물보호구역, 관광지역), 570만 ha를 보호수종지역(보호 수종 및 목재생산지역), 1,210만 ha를 생산임지지역(임목생산을 위한 재조림이 필요한 지역)으로 구분하였음.

○ 특별보호구역 110만 ha중에는 총 13만 5,000ha에 달하는 7개의 지정공원, 66만 6,000 ha에 이르는 49개의 자연보호구역, 각 지역의 역사·문화·환경적 보호가치가 있는 임업지역 등 총 87개의 지역이 있음. 보호·특수림은 전국적으로 87개이며 북부에 27개, 중부에 44군데, 남부에 16군데가 있음. 대부분이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문화와 역사 유적의 보존 및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곳도 29군데나 됨.

○ 중부고원지대에는 다랏이라는 유명한 국립산악공원이 있고 중부해안지역에는 20㎞에 달하는 하이반 협곡이 장관을 이루고 있어 관광지역으로서의 잠재력도 상당히 풍부함. 베트남의 산림은 임산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다. 임산업

1) 목재생산

○ 산림축적은 천연림 5억 9,300만 ㎥로 추정되며 천연림 중에서 3억 7,000만 ㎥가 양질의 목재이고, 인공조림 녹화지역은 약 600만 ㎥로 추정되며 대나무는 500만 ㎥에 달함.

○ 대부분이 천연림이고 인공조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간생장량은 단지 1,000만 ㎥에 불과한 실정임. 원목 및 연료용 벌채는 매년 약 3,500~4,500만㎥에 달하고있어 산림황폐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일반에서 소비하는 연료의 약 90%가 목재임). 주요 벌채지역은 현재 중부와 남부의 기야빈성, 지아라이콘툼성, 다랏성, 송베성 등임.

〈표 Ⅲ-24〉 연도별 원목벌채량 추이

(단위 : ㎥)

연 도	벌 채 량
1980	1,577,000
1985	1,411,000
1986	1,463,000
1987	1,488,000

○ 목재가공업은 소규모공장이 많고 벌채량의 대부분이 원목중심의 국내소비용이기

때문에 초보적 단계임. 정부는 목재 및 임산물의 수출을 증대시킬 계획이며 외화 획득으로 임산업을 현대화 시키고자 함. 주요 임산물 소비량은 〈표 Ⅲ-25〉는 베트남의 '89년 주요 임산물 소비량임.

〈표 Ⅲ-25〉 주요 임산물 소비량('89)

품 목	단 위	소 비 량
제재목	㎥	607,000
합판	㎥	32,000
단판	㎥	1,273,000
지류	㎥	90,000
제재용 원목	㎥	3,115,000
펄프제	㎥	177,000
갱목	㎥	41,000

2) 원목생산 및 수출

○ '81년에서 '85년사이에 원목생산은 금액기준으로 매년 4,3%의 증가를 보였으나 '86년에 동 성장률은 0.65%의 감소세를 보이다가 '90년에는 연간 1.3%로 회복되었음. 베트남은 목재 및 임산물의 수출을 증대시킬 계획이며 가득외화로 임산업을 현대화시키고자 함.

〈표 Ⅲ-26〉 원목 수확 및 평균소득

(1990년 가격)

연도	원목생산량 (1000㎥)	대체조림비 징수(RF) (동/㎥)	합계 (RF+ST) (동/㎥)	총평균소득 (동/㎥)
1986	3,388	16,200	18,100	18,800
1987	3,703	17,700	18,000	18,700
1988	3,356	18,100	18,700	19,300
1989	3,157	10,500	11,600	12,400
1990	3,246	13,200	14,400	15,100

주 : ST=매출세(Sales Tax)

○ '86년-'90년 사이에 수출은 연간 약 2억 달러 정도이며, '91-'95년 사이에는 매년 약 2억 8,500만 달러 정도로 증가시킬 계획임. 소련이 최대의 수출시장이었으나 최근에는 국내외 정세 변화로 원목수출은 현상태만 유지하고 가공목재의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원목수출분은 현재 국내소비의 10%에도 미치지 못함. 그러나, '92년 6월에는 미가공된 원목수출을 전면 금지 시켜 향후 전망은 밝지 않은 실정임.

〈표 Ⅲ-27〉 주요 임산물 수출량 추이

(단위 : ㎥, 천달러)

연 도	원 목		제 재 목		합 판	
	수출량	금 액	수출량	금 액	수출량	금 액
1985	19,800	1,265.8	20,421	2,668.6	1,671	519
1986	20,175	1,143.2	16,094	2,080.4	2,007	635
1987	20,076	1,205.5	14,278	1,908.1	2,011	637
1988	19,876	1,238.9	11,645	1,415.3	1,974	624.5
1989	19,988	1,180.5	7,009	831.7	2,045	645

○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제재 및 임산가공업자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음. 대만은 수출용으로 임업제품을 이용하기 위해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수백만달러를 투자한 최초의 아시아국가가 되었으며, 일본의 니쇼이와이는 베트남의 제 2 Naforimex (베트남 국립 임산물 수출입 생산공사)와 합작을 하여 제지용 조림회사를 설립하였음. 이 합작회사는 꽝남~다낭의 중앙해안에 11.5만ha의 산림을 조성할 것인데 투자자본은 헥타르당 650달러임. 이 산림을 이용하여 나중에 수출용목재가공공장도 건설될 것인데 니쇼이와이사는 이미 송베주에도 1만ha의 산림을 조성중임.

3) 목재산업

○ 92만 명이 목재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약 400개의 국영임업회사가 조림 및 생산에 관여하고, 연간 150만㎥를 가공할 수 있는 158개의 임업가공회사가 있음. 5개의 국영임업회사가 셸랙(Shellac), 테레빈(Turpentine) 및 라탄(Rattan), 아니스(Anise)를 생산하고 있음.

○ 약 9,821㎞에 달하는 목재운반용 도로가 있고 이중 3,086㎞의 도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임. 산림부 추정에 따르면 대형트럭이 1,700대, 1톤 트럭 17,000대 정도가 임업분야에 활용되고 있음.

○ 〈표 Ⅲ-28〉은 임업분야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한 연 종사인원의 추이를 나타냄. 시간제노동자가 근무시간의 25%를 임업분야에 종사 했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임업부문에 종사한 숫자는 4백만명으로 추정됨.

〈표 Ⅲ-28〉 임업노동자 추이

(연인원 : 100만명)

구 분	1980	1986	1987	1988	1989
총노동인구	21.6	27.4	28.0	28.9	28.7
임업부문	1.13 (5.2%)	1.25 (4.6%)	1.21 (4.3%)	1.16 (4.0%)	1.12 (3.9%)
상근노동자	0.16	0.18	0.17	0.18	0.14
시간제노동자	0.19	1.07	1.04	0.98	0.98

4) 목재유통

○ 비엔호아 지방의 목재는 로구닌, 타이닌, 비엔호아, 트란반, 추단, 동나이강 일대, 토로다토, 쟈리이, 키얀로크, 다라이, 쥬린, 한치에트, 바리아 등에 집하되어 호지민시로 운송되며 주요취급목재는 야오, 이엔 이엔 및 기타 잡목임.

○ 빈 지방의 목재는 빈시장및 하노이시로 출하되며 가장 양질의 목재가 생산되고 있음. 집적지는 빈, 비치이, 유에, 다낭, 하노이 등이고, 취급목재는 이엔이엔, 사오, 센, 타우, 캄, 림 등의 우량재임. 홍하, 타오강, 다강유역의 목재는 그 합류점인 비치이에 집적되어 하노이로 운반됨. 다랏 지방은 유일한 침엽수림지대이고, 대부분이 소나무로서 보통 다랏송이라고 불리는데 다랏철도로 운반됨.

5) 연료림

○ 가정에서 조리나 난방을 위해 소비하는 연료의 약 90%가 목재이며, 그외 블럭이나 기타 건축자재와 같은 경공업제품 생산시에 목재원료, 주로 목탄(숯)으로 사용되고 있음. 산림을 훼손시키지 않고 토양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용가능한 목재는 연간 8,000만 톤이상으로 추정되는데 현재의 소비는 대략 3,000-3,500만 톤으로 추정됨.

○ 체계적인 통제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목재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산림의 황폐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벌목이 전혀 통제를 받지않은채 시장부근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임. 다음은 세계은행이 추정한 연료재의 수요현황과 공급의 예상치임. 2000년대에 이르러도 약 1,300만톤의 연료재가 부족한데 만약 벌채지에서 연료재도 매년 9백만톤이 생산된다면 조금 완화될 것으로 추정됨.

〈표 Ⅲ-29〉 세계은행의 연료재 수요공급 추정안

연도	수요 (백만톤)	벌채면적 (천ha)	연료재생산량 (8년째/백만톤)	공급 (백만톤/연도)	부족량
1989	38.3	-	-	25.2	13.7
1990	39.6	-	-	25.2	14.4
1991	40.3	-	-	25.2	15.1
1992	41.0	-	-	25.2	15.8
1993	41.7	-	-	25.2	16.5
1994	42.4	-	-	25.2	17.2
1995	43.1	-	-	25.2	17.9
1996	43.9	-	-	25.2	18.7
1997	44.6	-	-	25.2	19.4
1998	45.4	-	-	25.2	20.4
1999	46.2	460	9.0	34.2	12.0
2000	47.0	460	9.0	34.2	12.8
2001	47.8	460	9.0	34.2	13.6
2002	48.6	460	9.0	34.2	14.4
2003	49.4	460	9.0	34.2	15.2

라. 외국원조

○ 비사회주의 국가로 부터의 농업부문에 대한 원조액수는 '87년에 1,700백만 달러, '88년에는 1,800백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 액수는 이들 국가로부터 원조 총액수중 약 12%에 해당함. 농업부문에 대한 총원조 액수중 25%는 양자간 원조에 의해서 65%, 그리고 나머지 10%는 NGO에 의해 제공되었으며, 이중 많은 부분이 산림분야에 사용되었음.

○ 지난 10년간 산림부는 UNDP/FAO, World Food Programme, 스웨덴으로부터 주로 원조를 받아왔음. 그외 호주, 뉴질랜드, 구소련, 메콩위원회를 비롯한 NGO가 산림분야 원조에 기여를 해왔음. UNDP/FAO 프로젝트는 주로 3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 제도구축에 중점을 두며 프로젝트당 평균 150만 달러를 제공하였음. '91년 현재 진행중인 UNDP/FAO 프로젝트 목록은 다음과 같음.

〈표 Ⅲ-30〉 UNDP/FAO 프로젝트 목록

구 분	주 요 내 용	연 도	금 액
VIE/86/026	수목종자 생산능력 및 공급강화	'89.6 (3년)	110만 달러
VIE/86/027	생태계 특성에 따른 연료림 조성	'89.6 (3년)	110만 달러
VIE/86/028	산불과 병충해 방제 및 관리	'89.6 (3년)	110만 달러
GCP/VIE/012/AUL	베트남 임과대학 교수진 훈련(호주 지원)	'89.8 (30개월)	17만 달러
WEP	세계식량계획(WFP) 매년 평균 700만 달러치의 식량원조를 실시하여 왔음.		
Project 2780	중부지방의 조림녹화사업 (호주가 식료품 이외의 물품지원)	'86~ '90.2	1,500만 달러
Project 3352	북부지방의 조림녹화사업 (호주와 스웨덴이 식료품이 아닌 물품지원)	'90.7 부터 (4년간)	1,700만 달러
Project 4304	13개 해안성의 조림녹화사업(4년간실시)	'90	2,500만 달러

마. 산림정책

○ 총인구의 약 12%(700만에서 800만명)가 산림지역이나 한때 산림지역이었던 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총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약 1,800만명이 산림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소수민족(모두 약700만 명으로 추정)은 그 생계와 문화의 유지를 산림지역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중 약 200만명, 34만 세대가 화전이동 경작을 행하고 있음.

○ 베트남 정부는 '68년 이래 이들 민족의 정착화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토지의 대여(1가족당 5ha, 그중 1ha는 식량 생산용, 3ha는 산림용), 도로, 학교, 병원, 간이수도등의 제공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사업실시를 위해 세계식량계획(WFP)과 스웨덴(SIDA)이 지원하며 왔는데 1가족당 800~1,000달러(오지의 경우는 2,000달러)를 필요로 하나 자금부족에 의하여 충분한 실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75년 이후 델타지역에의 인구편중 현상을 막기 위해 약 50만명의 인구가 이주계획에 의거, 산림지역으로 생활근거지를 옮겼음. 2000년 까지는 추가로 약 100만명을 더 이주시킬 예정임.

○ 베트남의 중장기 산림정책의 목표는 산림면적을 현재의 20~28%에서 35~40%로 끌어 올리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50%가 목표임. 동 정책에 의하면 고산지대에서는 산림지역을 약 70%로 만드는 것이며 해안지역은 10%를 유지하는 것임.

1) 산림보호정책

○ 산림보호법과 규정이 1972년에 입법화되고 산림부에는 산림보호국이 신설되었으며 , 각 성에도 신설되었음. 중앙정부 및 성 차원에서 약 6,000명이 산림보호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도 약 6,000명이 종사함. 화재나 병충해로 부터 산림을 보호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산림보호센터가 3곳이나 있어 이러한 기술이

지역별로 보급되고 있음.

o '72년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농사를 짓기 위해 허가없이 벌채하는 행위를 처벌하게 되어 있음. 경미한 범법행위는 지역단위에서 처리되며, 중대한 범법행위는 처벌을 받음. 그러나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토지에 정착하여 농업이나 임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서류를 갖추어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여 그들의 토지에 대한 투자를 보호해줌.

o 산림의 황폐화가 계속되자 정부는 산림사용에 따른 보다 효과적인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84년과 '88년에 정부토지 이용권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였음. 성과 구는 구토지 사용권을 국영산림회사 및 개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성은 20,000~30,000ha까지 단일회사에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구는 단지 1,000ha만 양도하도록 되었음. 경사가 완만하고 지질이 좋으며, 시장과 근접한 토지는 개인에게 양도되었는데 이는 농업 및 임업에 적절하기 때문이었음.

o 약 400만ha가 10ha 정도의 작은 단위로 분할되어 개인에 이양되었고 400만ha중 약 20%인 80만ha가 '89년 중반에 양도되었음. 토지를 양도받는 개인에게는 토지사용을 통한 일정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적절한 서류등록과 함께 토지사용권이 주어졌음. 경사가 급하고 토양이 좋지 않으며 시장과 멀리 떨어져있는 토지는 회사로 이양되었음.

o 약 400개의 국영임업회사가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정부지원이 폐지되기 전 성 및 구에서 관리하던 곳으로 20,000ha까지 이양 받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약 600만ha가 국영임업회사에 양도된 걸로 추정됨.

o 개인의 토지 사용기간은 개별조건에 따라 다름. 양도규칙(가장 중요한 것은 첫 수확부터 정부에 납부해야하는 지분의 양)은 수혜자의 상황(경제적 지위, 인종적으로 소수민족인지 아닌지의 여부, 국내회사인지 외국투자회사인지의 여부), 그

리고 양도되는 토지의 특성(이양시 산림의 질, 지세, 생산성 및 시장과의 거리) 및 성차원에서의 재조림 계획(심을 나무의 종류)등에 따라 결정됨.

○ 이양조건이 다양한 것은 산림부가 추구하는 목적(목재 및 연료생산, 유역관리, 소수민족 거주지, 야생동물 보호)이 복합적이기 때문이며 사용권은 적어도 한번의 벌채기는 보장되는데 보통은 약 30~40년(3번의 벌채기)에 달함. 국영산림공사의 이양기간은 원래의 토지와 산림의 질에 따라 다르며 국영산림공사의 경우 정부는 현재 산림의 추정가치에 의거하여 세금 또는 연간 임대료를 책정하는데, 산림부는 산림의 사용에 따른 세금을 징수함.

○ 연료재 채취, 화전 이동경작 및 산림화재, 농지로 전환, 베트남 전쟁중의 폭격 및 고엽제 사용으로 산림자원의 감소는 토지생산량의 감소, 하천의 토사누적, 홍수의 발생,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종의 상실등 여러가지 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조림을 포함한 산림회복에 힘써야 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정책의 하나가 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2,000년까지 500만 ha의 조림을 실시할 목표가 설정된 이외에도 산림법의 국회상정, 산림장관, 재무장관외에 주요 5장관으로 구성된 「국토녹화위원회」가 설립되었고, 또 FAO와 국제연합개발협회(UNDP)의 지원에 의한 열대림행동계획(TFAP : Tropical Forestry Action Programme)이 완성되어 집행되고 있음.

○ TFAP라 함은 산림의 적절한 보전, 개발을 위한 체제와 설정,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 각국 및 원조기관의 효율적 지원이 수행 되도록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책정하는 것임. 세계은행은 베트남이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하고 TFAP에 따라 환경보전과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차관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는 TFAP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2) 임업정책

○ 정부는 전반적인 경제구조 조정작업에 따르는 산림정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산림

정책 및 산림부와 민간의 역할을 수정해 나가고 있으며, 산림부 및 각 성은 조림 녹화사업을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차로 산림기업 운영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축소시키고 있음.

○ 약 1,995만ha에 달하는 산림총면적 중 국가는 1,200만ha를 기업 및 개인에게 양도하도록 지정하였음. 산림부는 산림운용에 있어 그 영역을 점차 축소해 나가고 있는데 산림생산의 지속성(보속성)과 사회개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준비중임. 이러한 정책변화 중 가장 중요한 대책은 다음과 같음. ① 각 개인과 기업이 허가받은 산림지역을 목재수확의 제1 벌채기부터 약 4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제공, ② 각 지역에서 조림 및 육림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감시·통제할 체제 구축, ③ 임산물시장을 개발, ④ 국내외 기업의 산림분야 투자 유치, ⑤국영임업회사를 계약제로 변경, ⑥ 시장에 출하된 제품의 가격 또는 종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정부소유 토지에 대한 소득을 올리는 것 등임.

3. 수산업

가. 개황

○ 북위 8°~24°에 걸쳐 길게 뻗어 있는 베트남은 3,260㎞에 달하는 긴 해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산업 및 어업이 발달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 수많은 작거나 큰 항구가 해안가에, 내륙지방에는 포구가 있음. 주요한 강과 해안을 제외하고도 내수면어업에 적당한 300,000ha의 수면을 가지고 있음.

○ 남서 몬순기(여름철 4~9월)는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여 중부, 북부해역이 양호한 어장이 되며 북동 몬순기(10~3월)에는 수온이 낮아 남부해역이 중요어장을 이룸.

정책 및 산림부와 민간의 역할을 수정해 나가고 있으며, 산림부 및 각 성은 조림 녹화사업을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차로 산림기업 운영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축소시키고 있음.

○ 약 1,995만ha에 달하는 산림총면적 중 국가는 1,200만ha를 기업 및 개인에게 양도하도록 지정하였음. 산림부는 산림운용에 있어 그 영역을 점차 축소해 나가고 있는데 산림생산의 지속성(보속성)과 사회개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준비중임. 이러한 정책변화 중 가장 중요한 대책은 다음과 같음. ① 각 개인과 기업이 허가받은 산림지역을 목재수확의 제1 벌채기부터 약 4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제공, ② 각 지역에서 조림 및 육림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감시·통제할 체제 구축, ③ 임산물시장을 개발, ④ 국내외 기업의 산림분야 투자 유치, ⑤국영임업회사를 계약제로 변경, ⑥ 시장에 출하된 제품의 가격 또는 종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정부소유 토지에 대한 소득을 올리는 것 등임.

3. 수산업

가. 개황

○ 북위 8°~24°에 걸쳐 길게 뻗어 있는 베트남은 3,260㎞에 달하는 긴 해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산업 및 어업이 발달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 수많은 작거나 큰 항구가 해안가에, 내륙지방에는 포구가 있음. 주요한 강과 해안을 제외하고도 내수면어업에 적당한 300,000ha의 수면을 가지고 있음.

○ 남서 몬순기(여름철 4~9월)는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여 중부, 북부해역이 양호한 어장이 되며 북동 몬순기(10~3월)에는 수온이 낮아 남부해역이 중요어장을 이룸.

어업형태는 전근대적으로 10~20해리, 수심은 20~30미터까지가 주어장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조업은 하루나 이틀, 길어봐야 5일 정도로 원양어업은 거의 없는 실정임. 시장개방정책에 의해 베트남의 어업은 반제품에서 최종소비자에 대한 제품의 제조까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설비의 노후화, 기술의 낙후, 정보부족, 위생상 문제 등으로 아직 선진국 제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더 많은 투자와 시설개선등이 필요함.

○ 현재 100여종의 물고기가 경제적 가치가 큰것으로 알려져 있고, 20여종의 귀한 새우(총 70여종), 3㎏이 넘는 게를 포함한 50여종의 게, 650종류의 해초류등 풍부한 수자원이 있음. 그러나 수출유망 품목인 새우, 오징어, 미역 등 고급 수산품의 실제생산량은 65~70만톤에 불과하며 호주, 태국 등 외국과의 합작으로 수산품가공을 위한 시설투자가 해안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새우외에도 정어리, 참치, 고등어, 가다랭이등이 국내소비용으로 잡히고 있으며 대부분의 어획고는 근해의 얕은 바다에서 나오고 있음. 만약 20~100미터 깊이의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할 수 있다면 연간 약 15~20만톤의 어획고를 추가로 기록할 수 있을 것임.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국의 참여를 통해 현존 장비 뿐만 아니라 어선의 능력을 향상시켜 1995년까지는 7억달러, 그리고 2000년까지는 약 10억달러를 수출할 계획임.

○ 현재 전개하고 있는 식생활 개선운동으로 수산품생산은 더욱 증가될 것이며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수산식품에 대한 국내수요는 계속 늘어나 상당부분의 쌀수요를 대체할 전망임. 한편,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 10여년간 베트남 연안에서 소련의 무절제한 남획으로 새우를 비롯한 일부 어자원이 거의 고갈된 상태임.

○ 수산업분야는 연안어업외에 국내에서는 다수의 양식장을 설립해 왔음. 외국과의 합작에의해 국제적으로 상품등록이 되고 있을 정도로 품질이 양호한 새우양식이나

어업개발이 '88년 이후 진행되고 있고, 수출용 가공회사도 설립되었음. '91년현재 새우(115개의 새우양식장), 양어식용(375개 어류양식장) 담수면적은 50만ha, 그중 새우가 16만 ha임(VNA '92년 3월).

○ '90년의 총어획량은 해수와 내수어획량을 합쳐 102만톤으로서 해수면 어획량이 71만톤, 내수면어획량이 31만톤이었음.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9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어선척수는 6만5천척이고 이 중 동력선은 3만 6,500척 그리고 무동력선은 2만 8,500척임. 비교적 대형어선(50~100톤)을 소유한 국영회사도 다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어선의 규모가 아주 작은데, 10톤 이상의 어선은 3,700척에 불과해 대부분이 10톤 미만의 소형선으로 가내어업형태임.

나. 생산 및 수출

○ 정확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없으나 박보만에서는 일년에 약 20만톤의 어획고를 보이고 있으며, 중부해안가의 1,350㎞에 달하는 연안에서는 매년 40만톤의 물고기가 잡히고 이와 동시에 원양어업에 의해 10만톤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음. 남보근처의 동해지역에서는 심해에서 45만 톤, 연안에서 35만 톤등 총 80만 톤 어획고를 기록함. 샴만에서는 35만 톤의 물고기가 심해에서, 20만 톤의 어획고를 연안에서 올리고 있음.

○ 수산물수출입공사(SEAPRODEX : Sea Products Export Import Corp.) 산하와 28개 도시 및 성이 소유하고 있는 약 130여 기업이 하루에 500톤의 해산물을 생산하며, SEAPRODEX는 약 300톤 이상의 건오징어를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에 매년 수출하고 있음.

○ 수출용 새우양식이 가장 성행하여 모든 역량을 기울여 투자하고 있으며 대일본 수산품수출 중에서 새우수출은 54%('86년), 43%('87년), 41%('88년)를 차지하고 있

음. '95년에 6만톤의 새우를 수출할 계획으로 생산시설의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데 현재 새우용 양식수역 및 자연어장의 총면적은 12만 4천ha에 이르며 그중 10만 ha가 빈치티엔성 이남에 있음. 주요지역은 밍하이성(4만ha), 하우자앙성(1만9, 300ha), 쿠롱성과 안쟝성(1만2천ha), 호지민(1만ha), 벤치에성(9, 400ha), 롱안성(2, 500ha), 티젠지앙성(2, 800ha)이고, 밍하이성은 중앙·민간자금 40억 동을 갹출하여 2개의 양식센터를 건설하였음.

○ '90년도의 수출용 새우 생산성이 가장 높았던 메콩델타지역의 각 성은 수산업에 집중투자하여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양식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였으며 1ha당 100~150㎏의 생산성이 일반적임. 집적양식방법을 통해 300~500㎏으로 3배 이상의 생산성 증가가 가능하나, 자금(중앙으로부터의 투자는 수요의 약1/3수준) 및 사료부족때문에 양식업 발전에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

○ 수산물 수출에 의한 외화획득고는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85년에는 8천 260만 루블/달러, '88년에는 1억 7, 800만 루블/달러, '89년에는 1억 8, 820만 루블/달러의 외화획득고를 올렸음. '90년에는 새우, 오징어 등을 중심으로 약 2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석유 등과 함께 주요한 외화획득 분야가 되고 있음. '91년의 경우 해산물수출은 2억 5천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92년의 해산물수출은 2억 8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사이공해방지는 보도함.

4. 광 업

가. 개 황

○ 베트남은 기술과 자본부족으로 풍부한 광산자원을 개발하지 못하였으나 부존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89년 광산자원의 개발, 보호, 관리등을 위한 포괄적인

음. '95년에 6만톤의 새우를 수출할 계획으로 생산시설의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데 현재 새우용 양식수역 및 자연어장의 총면적은 12만 4천ha에 이르며 그중 10만 ha가 빈치티엔성 이남에 있음. 주요지역은 밍하이성(4만ha), 하우자앙성(1만9, 300ha), 쿠롱성과 안쟝성(1만2천ha), 호지민(1만ha), 벤치에성(9, 400ha), 롱안성(2, 500ha), 티젠지앙성(2, 800ha)이고, 밍하이성은 중앙·민간자금 40억 동을 갹출하여 2개의 양식센터를 건설하였음.

○ '90년도의 수출용 새우 생산성이 가장 높았던 메콩델타지역의 각 성은 수산업에 집중투자하여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양식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였으며 1ha당 100~150㎏의 생산성이 일반적임. 집적양식방법을 통해 300~500㎏으로 3배 이상의 생산성 증가가 가능하나, 자금(중앙으로부터의 투자는 수요의 약1/3수준) 및 사료부족때문에 양식업 발전에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

○ 수산물 수출에 의한 외화획득고는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85년에는 8천 260만 루블/달러, '88년에는 1억 7, 800만 루블/달러, '89년에는 1억 8, 820만 루블/달러의 외화획득고를 올렸음. '90년에는 새우, 오징어 등을 중심으로 약 2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석유 등과 함께 주요한 외화획득 분야가 되고 있음. '91년의 경우 해산물수출은 2억 5천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92년의 해산물수출은 2억 8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사이공해방지는 보도함.

4. 광 업

가. 개 황

○ 베트남은 기술과 자본부족으로 풍부한 광산자원을 개발하지 못하였으나 부존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89년 광산자원의 개발, 보호, 관리등을 위한 포괄적인

광산자원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였음. 이 법령과 외국인 투자법에 준하여 외국의 개인 또는 기업은 베트남내 광산자원과 해저석유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당수의 외국기업이 베트남의 광산자원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 한편, 자원평가나 매장량 측정이 구소련 및 동구국가에 의해 사회주의 방식에 따라 행해졌으며 매장량에 대한 추정치만 있어 경제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분야에서 보다 세부적인 작업이 필요함. 동시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 및 행정처리 방식도 개선되야 하며 탐사에서 발굴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많은 시간을 고려하면 개별 프로젝트에 투자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경제개발과 함께 석탄, 금, 주석 광산 등은 경영 및 관리개선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영 및 기술, 자금, 시설, 생산기술, 시장성 등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대화를 위해 정부는 외국기업과의 합작등을 통한 기술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임.

○ 베트남에는 두가지 형태의 광업기업이 있는데 구소련형의 대규모 비영리 국영기업과 소규모 기업으로서 생산량이 기록조차 되지않는 기업이 있음. 베트남의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현대화된 기술을 수용하여 광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려면 다수의 중소기업이 필요함.

○ 300여개의 광산에서 50여종의 광물자원이 산출되고 있는데, 석유, 석탄, 철, 금, 알루미늄, 주석, 인회석등 주요광물 대부분(90%)이 북부에 매장되어 있음. 〈표 Ⅲ-31〉은 주요 광물자원의 개략적인 추정 매장현황을 나타냄.

〈표 Ⅲ-31〉 주요광물자원의 매장현황

(단위 : 톤)

자 원	추정 총매장량	주요 매장지역 및 광구
원 유	50억	박호, 다이홍 유전
석 탄	200억	쾅 닌省, 랑옌, 판메, 투옌랑
철 광 석	7억	탁 케, 쿠이샤
주 석	7만	피아오악, 탐다오
구 리	69만	다江유역, 신쿠옌, 반푹
크 롬	1,000만	탄노아, 누이누아
보오크사이트	30억	중국국경지대, 호치민 북동부지역
인 회 석	10억	라오카이
석 회 석	350억	호앙탁, 빔손

주 : 이 수치는 인용되는 자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베트남의 주요 광산자원의 현황 및 생산추이는 다음과 같음.

① 석탄 : 무연탄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가 매장되어 있으나 대부분 연료탄으로, 총매장량은 200억톤에 달하며 최대의 탄전은 북부의 쾅닌지역에 분포하며 주요 탄전으로는 홍게이 탄전과 캄파탄전이고 대부분 노천채굴임.

② 철광 : 대부분의 산지는 북부에 있으며 대표적인 광산은 매장량 5억 4,400만톤의 탁 케 광산과 총매장량 1억 1,900만톤의 큐이샤광산이 있음.

③ 티타늄광 : 주로 해안선을 따라 광산이 분포되어 있으며 Ti광물의 총매장량은 1,100만톤이며 이중 1,060만톤은 티탄철석이 차지함.

④ 크롬광 : 경제성이 있는 크롬광산은 탄호아성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총매장량은 2,080만톤이며 이중 누이누아산 주변에 매장된 것이 65%를 차지함.

⑤ 이외에 망간, 동, 니켈, 납, 아연, 주석, 텅스텐, 금 등 다양한 광물과 남부 붕타우 남단 해저에 대규모의 석유매장이 확인되었음.

〈표 Ⅲ-32〉 주요 광물자원 생산추이

구 분	1980	1986	1988	1989	1990	1991
석 탄(백만톤)	5.2	6,4	6,8	3.9	4.6	4.3
철 강(천 톤)	60.3	64.4	74.1	84.5	101.5	130.0
크 롬(천 톤)	9.1	3.2	2.6	4.0	4.6	6.2

○ 광업분야 외국인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원유탐사 및 개발사업에는 프랑스, 소련, 호주,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인도 등의 대기업이 베트남측 Petrovietnam을 파트너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일부는 개발에 성공하였음. 금, 티타늄, 동, 니켈혼합광, 고령토, 건축자재 등 자원개발에는 호주, 뉴질랜드, 폴란드, 태국, 일본, 한국 등이 참여중이나 규모는 작은 편임.

〈표 Ⅲ-33〉 광업분야 외국인 투자 현황

부 문 별	사업수	총투자금액(백만 $)	점유율(%)
석유·가스	13	598	26.0
석 탄	1	7	0.3
광물개발 및 가공	6	20	0.9
건축자재	10	11	0.5
총 투 자	282	2,295	27.7

주 : 외국인투자법 시행이후 1991년 9월 현재 진행중인 외국인 투자사업

나. 자원개발현황

1) 석 탄

○ 석탄은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생산이 활발하며 매장량은 무연탄, 역청탄, 갈탄을 포함하여 약 200억 톤으로 추정되나 확인된 매장량은 35~50억톤이며, 그 대부분은 북부 쾅닌성에 분포되어 있음. 홍가이, 쾅 옌, 판메, 투옌 쾅 등 세계적인 수준의 탄광이 있으며 특히 홍가이 · 쿠앙 옌 지구는 세계에서도 우수한 품질과 매장량을 갖는 산지로 동 구내의 홍게이, 캄파탄광의 20개 노천탄광에서 질좋은 무연탄이 생산됨.

○ 대부분의 탄광은 프랑스 식민지하에서 최초로 개발되어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베트남전쟁 이후 정체상태에 있었으며 경제개발정책과 함께 활기를 띠기 시작함. 석탄생산은 '89년과 '90년에 각각 390만톤, 460만톤을 기록하였고, '91년에는 430만톤으로 생산량이 약간 감소되었으나 '95년에는 850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음.

○ '95년까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재처리, 석탄보관, 운송수단 및 하역을 위한 새로운 석탄전용 부두를 포함한 항구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임. 3~4개의 주요 탄광 및 부대설비에 소요되는 총 투자수요는 향후 5년동안에 약 2억 5천만달러에서 3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석탄산업 생산성은 매우 낮은데, 그 원인은 주로 낙후된 시설, 특히 탄광의 채광, 처리, 운송시설의 노후화와 전근대적인 경영상태에 기인함. 석탄생산의 부진은 곧 전력생산 및 산업생산에 큰 차질을 초래하므로 석탄산업의 현대화가 요구됨. 특히 철도운송차량이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하거나 구식이어서 많은 문제가 있으며, 시설노후화로 인해 생산제품의 질이 떨어지고 이로 인하여 수출이 감소되기도 하였음.

○ 석탄은 외화획득의 주요 원천이 되기도 하는데, 국내수요를 충당하고도 남아 석탄

수출은 '90년 약 79만 톤이며 '91년에는 116만 톤을 기록하였음. 석탄의 수출비율은 '87년을 기점으로 상승추세로 일본, 한국, 프랑스, 기타 유럽국가로 수출됨.

○ 광산들은 지리적으로 바다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수출에는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 고급 무연탄으로 석탄수출의 전망은 매우 밝음. 특히 장기계약을 통하여 수출을 150만톤까지 증가시키려는 협의를 여러나라와 진행하고 있음. 다음은 베트남의 연도별 석탄생산량과 수출량의 연도별 추이와 아국의 무연탄 수입 현황임.

〈표 Ⅲ-34〉 석탄 생산량과 수출량 추이

(단위 : 백만톤)

구분 \ 연도	1980	1987	1988	1989	1990	1991
생산량	5.2	6.8	6.9	3.9	4.6	4.3
수출량	0.65	0.23	0.35	0.58	0.79	1.16
수출비율(%)	12.7	3.4	5.1	15.3	17.2	27.0

〈표 Ⅲ-35〉 한국의 대베트남 무연탄 수입현황

구 분	1978	1980	1981	1984	1986	1988	1990	1991
수입량 (천 톤)	181	41	624	223	581	211	229	237
수입단가 (CIF : $)	55.88	62.05	68.95	56.39	47.34	42.04	44.70	51.85
수입금액 (만달러)	1,011	254	4,302	1,257	2,750	897	1,023	1,230

2) 석유 및 천연가스

○ 베트남의 석유개발은 '68년부터 시작된 대륙붕 석유탐사에서 대규모 석유매장이 확인됨에 따라 서방기업의 개발참여로 시작되었으나 '75년 공산화에 따른 서방기업의 철수로 채굴작업은 일시 중단되었음. 그후 서독, 이탈리아, 캐나다, 영국등의 석유메이저들은 베트남이 '77년에 제정한 외자도입법에 따라 다시 석유개발에

참여하였으나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에 대한 국제비난 여론으로 다시 철수하고 말았음.

○ 석유자원으로서는 남지나해 붕타우 앞 연안에 박호해저유전이 개발되어 생산을 하고있으며, 남지나해의 남사군도 주변해역, 북부 통킹만 앞바다에 유전개발이 시작되었음. 국내에서는 북부 홍하델타 지역의 차우토(Chau Tho), 남부 메콩델타지구가 유망시 되어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원유매장량은 총 50억톤으로 추정됨.

○ 베트남의 석유개발은 크게 5개의 대륙붕지구(북부의 통킹만 지구, 하노이 홍하델타지구, 남부의 붕타우 지구, 남 콘손 지구, 중부의 후에 지구)로 나뉘어 개발되고 있음. 하와이의 East-West Center Energy Program은 베트남의 5개 대륙붕 지구의 석유매장량을 10억~25억 배럴로 추정하고 있으며, 생산량도 2005년에는 일산 5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5개 대륙붕 지구중 유망한 지역은 Vietsovpetro사가 관할하고 있는 붕타우 지구로 동 지구내에는 박호, 다이홍, 롱등 3개의 유전이 있으며 이들 3개 유전의 잠재 매장량은 약 5.8억~10.5억 배럴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표 Ⅲ-36〉 석유산업 현황

유 전	생산량(만 b/d)			매장량	정제능력(1990)
	1989년	1990년	1991년(e)	(백만배럴)	(b/d)
박 호	3.2	9.0	100.0	175~300	800
다이홍	-	-	5.0	300~600	-
롱	-	-	-	100~150	-
합 계	3.2	9.0	15.0	575~1050	800

○ 소련은 '80년 7월 남부 대륙붕의 석유·천연가스조사 개발협정에 조인하여 옛 사이공 정권하에서 MOBIL석유가 시굴한 붕타우 앞바다 박호 광구에서 개발을

시작하였음. '81년 6월 베트남·소 석유·천연가스 조사개발합작기업(VIETSOVPETRO) 설립 협정을 맺었으며 '84년 5월 유전을 훈타오해안으로부터 약 120㎞ 떨어진 원해에서 발견함.

○ '86년 6월부터 동광구에서 석유가 생산되기 시작한 이래로 이후 베트남 석유생산량은 '86년 4만톤, '88년 68만톤, '89년 150만 톤, '90년 270만톤, '92년에는 540만톤으로 크게 늘어남. '91년 롱 광구에서 대규모 유전이 동 합작 기업에 의해서 발견되었으나 '90년 이후의 소련국내 정세의 변화와 '91년의 소련연방 붕괴에 따라 소련은 이들 2광구의 개발에서는 철수함.

○ '91년-'95년까지의 원유생산계획은 총 2,000-2,300만톤이고 '95년까지는 연간 생산량이 7백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전체 생산량중 500-600만톤은 베트남과 소련의 합작기업이 맡게될 것이고 나머지 100-200만 톤은 현재 탐사가 진행중인 새로운 광구에서 생산되게될 것임. 오는 2000년까지는 연간 생산량 1,200-1,500만톤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베트남과 '88년초 부터 베트남석유회사(Petrovietnam)는 외국회사들과 생산분배계약을 체결하고 탐사권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 분배방식은 다음과 같음.

① 유전이 발견된 경우 외국회사는 발견된 유전의 상업적 생산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세금이나 다른 로열티를 납부하지 않음.

② 탐사 3년후 개발을 포기하거나 3년을 연장할 수 있음.

③ 상업적 생산이 가능할 경우 배당을 생산량의 40%까지 보장하여 탐사비용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함.

④ 탐사비용이 회수된 후 생산물 분배비율은 생산량의 30~35%임. 그러나 생산물이 감소되거나 생산량이 적을 경우에 생산량이 많은 경우보다 외국투자자가 더 높은 배당비율을 보장받음(표 Ⅲ-37참조).

⑤ 생산계약은 5년간의 탐사기간을 포함하여 25년간 유효하며 국유화되지 않음.

〈표 Ⅲ-37〉 생산분배 비율(프랑스 Total사의 경우)

1일 생산량	Total사/베트남정부 분배비율(%)
0~3.0만 배럴	35/65
3.0~5.0만 배럴	30/70
5.0~7.5만 배럴	25/75
7.5만 배럴 이상	20/80

주 : 탐사비용 회수후의 생산분배비율로 대부분의 분배비율은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 지나 Total사의 경우와 비슷한 비율이 될 것임.

o '87년 1월 인도는 양국간에 석유·천연가스 조사개발 협정을 조인하고, '88년 5월 인도의 2개 석유회사에 의한 붕타우 앞바다 박호 광구에 가까운 광구에서의 석유개발계약(기간 25년, 최초 6년간에 5,000만 달러 투자)을 국영 베트남 석유회사와 (Petrovietnam)맺고 해저유전개발에 진출하고 있음.

o 일본의 경우 베트남 석유개발사업에 아라비아 석유-데이코쿠 석유연합체, 쇼와셸, 미쓰비시 석유, 이토추 영국기업연합체 등 4개 그룹이 남부해역에서 미데미쓰 홍산이 북부해역에서 각각 개발권을 취득하였음. 그외 국영 베트남 석유회사와 서방측 석유회사간에 다음과 같은 주요 석유개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기간은 보통 25년임.

〈표 Ⅲ-38〉 베트남의 석유개발분야 외국인 투자현황

계약일	투자국	투자액/기간/투자기업	투자지역
'88. 6	네덜란드 영 국 벨 기 에	7,000만달러 5년간 Royal Dutch Shell(66.7%) Pertrofina(33.3%)	후에(112, 114, 116)
'88.11	프 랑 스 영 국 프 랑 스	Total cie Francaise des Petroles(50%) London & Scottish Marine oil(25%) Repsol Exploracion SA(25%)	Hanoi/Red River (102, 106, 107, 108)
'88. 2	영 국	British Petroleum(100%)	다낭 앞바다(117, 118, 119)
'89. 4	영 국 프 랑 스	6,000만 달러 5년간 Enterprise Oil(70%) Compagnie Europeene des Petroles(30%)	붕타우(17, 21)
'90. 2	영 국 스 위 스 스 웨 덴 영 국	Clyde Petroleum plc.(25%) International Petroleum Ltd.(40.5%) Swedish Expl. Cons AB(24.5%) Cairn Energy Plc.(10%)	남단 CONSON섬 앞바다(22)
'90. 2	영 국 스 위 스 스 웨 덴 대 만	Clyde Petroleum plc.(25%) International Petroleum Ltd.(40.5%) Swedish Expl. Cons AB(24.5%) Overseas Petr. & Invest. Corp.(20%)	후에(115)
'90. 5	캐 나 다	Clyde Petroleum plc.(27%)	구안빙섬 앞바다(111)

계약일	투자국	투자액/기간/투자기업	투자지역
'90. 5	캐 나 다 캐 나 다 쿠웨이트	Petro-Canada Exploration Inc(50%) Husky International Inc(25%) Kuwait Foreign Petr, Expl. Co(25%)	남단 CONSON섬 (3, 12, 20)
'90. 8	벨 기 에	Petrofina(100%) 1년반	붕타우(45, 46, 49, 50, 51, 53, 54, 55)
'90. 8	대 만 스 위 스 스 웨 덴 영 국	중국석유공단 스위스 석유 SECAB CRIDEXPRO 3, 800달러 5년간	후에 앞바다
'91. 1	호 주	BHP사, 최초 5년간 3, 800만달러	후에(120, 121, 122)
'91. 9	말레이시 아	6, 500만 달러 PETRONAS(100%)	대륙붕(01, 02)
'92. 4	네덜란드	Royal Dutch Shell(100%)	남부대륙붕(10)

주 : ( )은 비율 및 광구번호임

- 현재 원유매장량은 상당한 데 비해 정유시설은 크게 부족한 형편으로 '88년 7월 최초로 소규모의 정유시설이 건립되었지만, 베트남은 연간 4만톤의 정유능력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연간 300만톤의 생산능력을 가진 거대한 연안시설과 가공설비를 건설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음. 이것이 완공되면 석유 화학 산업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약 200㎞의 해저파이프라인이 필요한 시설의 개발에 적어도 5억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정제시설을 건립하는 문제는 그 경제성으로 인해, 원유의 추가 생산분의 처리능력이 있는 지역에 계속 수출하는 대안을 대신 검토하고 있음.

○ 석유탐사과정에서 가스매장이 확인되었지만(1천억㎥～5천억㎥) 상업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많은 양의 가스가 그냥 연소되고 있는 실정임. 매장된 가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파이프라인의 가설이 필요하거나 바로 수출할 수 있도록 액화시킬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함.

○ 남부지역의 도시와 농촌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은 2,000년 이전에 완료시킬 계획이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나므로 액화공장 및 LPG저장 터미날을 건설하고 전국적으로 벌크 및 용기포장이 된 LPG 판매망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구상중임. 하노이 북쪽 타이빈성에 소규모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어 가스를 압축시키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고, 소형가스 발전소가 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현재 수리가 진행중이며 그 이외에도 일부가스는 암모니아 생산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베트남의 연간 석유·석유제품 필요량은 약 300만 톤으로 소련으로부터 매년 250만톤의 석유제품을 수입하고 있음. 소비는 매일 5만배럴 상당이며, Vietpetro 합작기업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많은 양이 일본과 싱가포르로 수출되고, 그곳에서 다시 가공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실정임. 2000년에 가면 국내석유제품 소비는 하루 7.5～10만 배럴이 될 것으로 전망됨.

〈표 Ⅲ-39〉 국내 석유제품 소비량

(단위 : 십만톤)

연 도	소 비 량
1980	25
1985	29
1986	30
1987	30
1989	50

3) 금속광물

(1) 철광석

○ 베트남에는 240개의 철광산지와 광산이 발달되어 있으며 대부분 북부지역에 분포되어 있음. 철광석 매장량은 약 7억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 약 5.5억 톤이(80%) 탁케에 있는 한 광산에 매장되어 있음. 매장량중 철 함유량은 약 60%에 달하나 생산은 매우 저조한 상태이지만 정부는 채광을 확대할 계획임. 북부의 타이우엔, 옌바이, 탄호아 등의 지역이 주된 산지로서 고품질의 광석이 산출되고 있으며 타이우엔 지역의 랑힛, 차이카우 광산의 매장량은 각각 2,000만 톤 정도로 알려지고 있고 중부의 캄란만 부근에 철분함유율 50%, 추정매장량 4,000톤의 광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79년의 철 생산은 10만톤에 달했으나 중국과의 국경분쟁으로 인해 대규모 제철소가 파괴된 이후 '80년의 생산량은 6만톤에 불과하였으나 '90년에는 10.1만톤, '91년에는 13만톤까지 증가하였음. 철생산의 목표는 약 20만톤의 생산설비를 가지고 있는 2개의 기존설비를 복구하여 '95년까지는 15만~17만톤까지 그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나 경제하부구조의 미비, 특히 전력의 부족으로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 베트남의 연간 철 수입량은 40만톤에 달함.

○ 우리나라는 '91년 베트남으로부터 철강스크랩을 23,406톤 수입하였는데 현재 해외에서 철강스크랩을 수입하는 20개 국가중 베트남은 6위권에 해당됨. 이는 베트남의 철강스크랩 수출가격이 독일, 미국, 구소련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임.

(2) 주석

○ 주석 생산의 대부분은 피아오악지방과 탐다오지방에서 이루어지며 피아오악지방의 주석 매장량은 7만 톤 가량으로 질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주석개발에 대한 잠재력은 상당히 크나 자본부족과 시설 노후화로 인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음.

○ 사석(주석의 원광)이 충적토지대에서 연간 500~2,000톤 가량 생산되나 상당량

이 정부의 통제권 밖에서 생산되므로 정확한 생산량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주석의 수출량은 계속 증가되어 '80년 298톤에서 '91년에는 2,331톤으로 7.8배 증가하였음. '95년까지의 연간 생산목표는 3개의 기존 광산을 개발하고 설비를 보수하여 일산 1,000 톤을 생산하는 것임.

(3) 구리

○ 구리는 프랑스 식민지시대부터 개발되어 왔는데 추정매장량은 60만톤으로 알려져 있고 주로 다강 유역에서 생산되며, 광산규모는 우수한 편임(구리함유량이 10~15%). 최근 하노이 북쪽 신쿠옌 지방과 반푹지방에서 구리광산이 새롭게 발견되었는데, 두 광산 모두 매장량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나, 아직 구체적인 생산활동은 없음. 구리광산을 개발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고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계획은 없음.

(4) 크롬

○ 크롬의 총 매장량은 1천 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질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탄노아지방의 누이누아 광산에서 주로 생산됨. 이곳은 '30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63년에는 3만 6천 톤으로 생산이 최고에 달했으나 베트남 전쟁후부터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 '80년부터는 불과 연간 3,500~4,000톤 수준으로 침체되었음. 그러나, '90년에는 4,600톤, '91년에는 6,200톤을 기록하여 점진적으로 생산량이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와 같은 증가추세를 유지하여 연간 크롬생산능력을 15,000~20,000톤으로 확장하려고 함.

(5) 보오크사이트

○ 보오크사이트는 매장량이 100만 톤 정도로 추정되며 하이퐁성의 로손, 카오방성의 동당 등지에서 비교적 양질의 원광을 채굴하고 있음(알루미늄 함유율 50~60%, 규산 함유율 3~11%). 특히 로손 광산은 추정매장량이 약 60만 톤으로 노천채굴이 가능함. 베트남은 연간 10만 톤에서 15만 톤의 생산설비를 갖춘 알루미늄 공장을 외국인 투자 재원으로 건설하기를 원하나 동 프로젝트의 소요경비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6) 기타 금속

○ 베트남에는 상업적으로 채굴이 가능한 기타 다른 금속들 아연, 흑연, 니켈, 망간, 티타늄 및 금 등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됨. 금을 포함하여 일부 광물은 채광이 시작되고 있으나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상업적 단계로까지 발전되지는 않았으나 점차 금채광에 대한 외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망간은 주로 옌쿠 광산에서 생산되는데 매장량은 250만 톤으로 질도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알려짐. 호앙리엔손 지방에는 무진장한 희토가 매장되어 있으나 시장을 찾지 못해 생산이 부진한데 한국은 희토의 개발과 판매에 대한 경험이 풍부함으로, 베트남은 이 분야에서 한국투자를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4) 산업용 광물

(1) 인 회 석

○ 인회석 총 매장량은 약 10억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약 7,000만톤이 양질의 것으로 알려짐. 주요광산은 라오카이, 남팟, 빈 팃등으로 홍하동부에 위치한 라오카이 인산광산은 구소련의 도움으로 건설되었는데, 이곳에서는 연간 약 30만 톤이 생산되며 인산의 질은 35%로 고급에 속함.

○ 이 인산광물은 철도로 람 타오와 빈푸지방으로 옮겨져 이곳에서 인산비료의 원료로 재가공됨. 농업생산력 제고를 위해 인산비료의 생산증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95년까지 연간 100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석회석·규사 및 기타

○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의 매장량은 약 350만 톤이며 석회석의 주산지는 남부 베트남 및 중부고원지역인 키엔지앙, 차우독, 투아티엔 등지임. 호앙탁과 빈손지방이 주요 석회석산지임. 이곳에 있는 대규모 국영 시멘트공장은 경영 및 관리미숙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나, 소규모 시멘트공장에서는 경영개선노력으로 효율적인 생산을 어느 정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실정임.

○ 규사의 주요 생산지는 중부의 캄란만 부근으로 규산 함유율 99.7%의 규사가 2억 5,000만 톤 이상 매장되어 있으며 북부의 쾅닌성의 차방도 및 카오로도에서는 양질의 규사가 채굴되고 있음.

○ 흑연은 다낭 남부지역과 호앙리엔손 지방의 두 곳에서 주로 생산되는데 특히 옌바이 지방에서 산출되는 흑연(연간 600톤)의 90%는 내수용으로 주로 전극생산에 쓰임. 호앙리엔손 지방에서는 질 좋은 고령토도 산출되고 있고, 기타 고급질의 석영도 생산되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음.

5. 전력 및 에너지

가. 개황

○ 베트남은 에너지 생산이 낮은 나라로 에너지 공급원은 석유, 석탄, 수력발전 및 연료재(숯)이며, 나무와 숯은 도시와 농촌의 주 연료임. 산업화 과정에서 석탄은 주 에너지 공급원이었으며, '75년 이래 공업화를 위하여 정부는 전력생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도 상당한 투자가 진행중임.

○ 북동쪽의 쾅닌에 위치한 대규모 석탄매장지역, 남동해안 약 200㎞ 부근의 유전 및 가스부존층, 하노이 80㎞ 남쪽의 타이빈성 부근의 확인되지 않은 가스 매장지역, 수력자원, 그리고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연료재가 장래 주 에너지 공급원이 될 것임.

○ 쾅닌에서 생산되는 석탄중 약 300만톤은 화력발전에 이용되고 있으나, 남부 유전지역의 석유나 가스는 아직 전력 생산에 활용되지 않고 있음. 타이빈 가스 매장지역에서 생산되는 가스는 전력 생산에 이용되어 왔으나 방대한 수력자원은 거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대규모 수력발전소는 전국에 걸쳐 산재해 있는데 주로 관개작업에 이용되고 있음.

○ 규사의 주요 생산지는 중부의 캄란만 부근으로 규산 함유율 99.7%의 규사가 2억 5,000만 톤 이상 매장되어 있으며 북부의 쾅닌성의 차방도 및 카오로도에서는 양질의 규사가 채굴되고 있음.

○ 흑연은 다낭 남부지역과 호앙리엔손 지방의 두 곳에서 주로 생산되는데 특히 옌바이 지방에서 산출되는 흑연(연간 600톤)의 90%는 내수용으로 주로 전극생산에 쓰임. 호앙리엔손 지방에서는 질 좋은 고령토도 산출되고 있고, 기타 고급질의 석영도 생산되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음.

5. 전력 및 에너지

가. 개황

○ 베트남은 에너지 생산이 낮은 나라로 에너지 공급원은 석유, 석탄, 수력발전 및 연료재(숯)이며, 나무와 숯은 도시와 농촌의 주 연료임. 산업화 과정에서 석탄은 주 에너지 공급원이었으며, '75년 이래 공업화를 위하여 정부는 전력생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도 상당한 투자가 진행중임.

○ 북동쪽의 쾅닌에 위치한 대규모 석탄매장지역, 남동해안 약 200㎞ 부근의 유전 및 가스부존층, 하노이 80㎞ 남쪽의 타이빈성 부근의 확인되지 않은 가스 매장지역, 수력자원, 그리고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연료재가 장래 주 에너지 공급원이 될 것임.

○ 쾅닌에서 생산되는 석탄중 약 300만톤은 화력발전에 이용되고 있으나, 남부 유전지역의 석유나 가스는 아직 전력 생산에 활용되지 않고 있음. 타이빈 가스 매장지역에서 생산되는 가스는 전력 생산에 이용되어 왔으나 방대한 수력자원은 거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대규모 수력발전소는 전국에 걸쳐 산재해 있는데 주로 관개작업에 이용되고 있음.

○ '91년의 발전량은 91억 9,200만 kwh로 '90년 대비(총88억kwh : 제1 전력발전공사 49억 kwh, 제2 전력발전공사 35억kwh, 제3 전력발전공사 4억kwh) 15.6% 증가했는데 이는 북쪽의 호아빈 수력발전소의 제3기, 제4호 발전기 가동에 의한 것임. 그러나 남쪽에서는 여전히 전력부족이 계속되고 있어 세번째로 큰 수력발전소의 건설이 개시되었음.

○ 전력생산량의 연평균성장율은 '91~'95년사이에 9.2%, '96~2,000년에는 9.5%로 목표를 정함. 이에 따르면 '95년에는 70~82.8%의 전력소비량수요를, 2000년 사이에는 75~91.6%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나. 전력 및 에너지 현황

1) 연료재

○ 가정연료로 장작, 숯, 잡목, 볏짚 및 기타 농업 부식물 등 식물성연료가 90%를 차지하며, 벽돌 및 건자재를 생산하는 경공업 부문에도 주로 숯이 사용되고 있음. 산림부에 따르면 '95년 1인당 식물성연료 사용량은 연간 0.53톤으로 총 3,700만톤이 예상되며, 경공업부문에서는 매년 40만톤이 추가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함. 연료림의 벌채는 매년 약 3,000만톤에 이르며 이중 2/3는 북쪽 지역에서 벌채가 이루어짐.

○ 연료로써 연료재, 잡목, 초지, 정원수 및 농업부산물 등으로 부터 매년 8,000만톤이 넘는 양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공급잠재력은 '95년까지의 예상 수요량의 2배가 넘으나, 벌채는 산림의 황폐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로 인한 국제적 압력이 예상되는 바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새로운 가정용 에너지 개발이 시급한 실정임.

2) 전력

(1) 생산현황

○ 전력생산의 연평균성장율은 '81~'85년 사이에는 7.6%, '86~'90년 11.1%로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필요한 충분한 양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음. '90년의 전력생산은 90억 kwh로서 '85년에 비해 72.5% 증가했으며 이중 화력발전이 약 68%, 수력이 22%, 그리고 나머지는 디젤발전에 의한 것임.

○ 북쪽, 남쪽 그리고 베트남의 중부지역에 각각 제1, 2, 3 발전공사가 있으며 에너지부가 이들의 총괄 관리를 맡지만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자율권이 부여되어 각 발전소는 개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및 고객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이 3개 발전소를 연결하는 전국적인 송전시스템은 아직 없고 220v와 110v가 겸용으로 사용되는데, 그 체계의 질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

○ '90년도말 현재 발전 생산용량은 2,7000MW이나 실제로 생산되는 전력은 약 50%를 약간 넘는 실정임. 현재 추진중인 하노이 남쪽 호아빈 수력발전소의 설비 확충이 끝나고 기타 소규모 발전소의 건설이 완공되면 '95년까지는 4,500MW의 생산설비를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됨. '89년의 전력소비는 80억 kwh인데 '91년에는 105억kwh, '95년에는 140억kwh로 2000년에는 200억kwh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계획하고 있음.

(2) 전력발전공사

① 북부지역 : 제1전력발전공사

○ 북부지역은 수력발전의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최근 수력발전 투자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성에 전기가 공급되고 있음. 북쪽 지역의 전력소비는 연간 1인당 134kw이나 하노이 지역은 약간 높아 250kw이며 소비는 '80년대 이후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발전용량은 약 1,200MW로 이중 700MW는 화력발전(석탄), 360MW는 수력발전, 100MW는 유류 및 천연가스발전, 그리고 소규모 디젤발전에 의해 생산되나, 실제 생산전력량은 60%에 불과

함.

○ 현재 수력발전은 480MW 발전설비의 호아빈 발전소와 120MW 용량의 재래식 발전소로 구성되어 있음. 정부는 북쪽 지역의 수력발전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터빈엔진 8기를 설치하여 각각 240MW의 발전용량을 갖춘 1,920MW인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시켰음.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호아빈 프로젝트로서 관개 및 홍수조절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인데, 소련과의 합작으로 건설되고 있는데 총 건설비용은 미화 15억 달러임.

○ 호아빈 상류지역에도 추가로 발전소 건립계획이 추진되고 있음. 이계획은 북부의 손라(Son La)주에 적어도 2,400kw 규모의 수력발전을 5년에 걸쳐 건설한다는 내용으로 지역은 다강이며 호아빈 발전소의 상류에 입지할 것임. 이 예정된 발전소에는 약 200㎢에 달하는 저수지가 조성될 것인데, 이는 상당한 지역을 침수시키게 될 것이고 또 한 몬순에 의한 홍수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됨.

○ 100MW 용량의 4개의 터빈을 갖춘 석탄화력 발전소가 소련의 지원으로 완공되었으며, 기타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발전용량이 250MW임. 석탄화력발전은 연료의 운송, 하역설비 및 기술상의 문제가 있음. 현재의 화력발전소는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일부 지방에서 생산되는 석탄은 유황함유량이 높아 주변을 오염시키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함.

○ 따라서 발전소 가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기간 시설확충문제 및 환경오염을 해결하려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함. 이와 동시에 가스터빈 및 디젤시설을 개선해야 하나, 석탄, 가스 및 디젤설비를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7,500만 달러로 추정되므로 재원 조달이 커다란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

○ 기존의 송·배전망은 제한적이며 운영상태가 부실하므로 호아빈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송전체제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발전·송전 및 배전 과정에서의 손실량은 총 생산량의 25%로 추정됨.

○ '92년 4월 전력이 부족한 남부지역에 북쪽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 건설이 시작되었음. 이는 하노이의 남서 30㎞에 있는 호아빈수력발전소에 중부 다낭을 거쳐 호치민을 잇는 송전선으로 1,462㎞의 500kv 송전선은 약 3억 4천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동남아 최대의 송전선 건설공사임. 그외 변전소, 송전선의 신규 가설을 통하여 송전 및 배전 시스템을 개선하고 2,000년까지는 기존 전력망의 절반 이상을 수리할 계획임.

② 남부 지역 : 제2전력발전공사

○ 2호 발전소는 메콩델타 및 호지민시를 포함한 인구 2,400만 이상의 남부 16개 성 및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생산설비는 990MW로 이중 화력이 228MW, 수력이 475MW, 가스터빈이 37MW, 디젤이 250MW임. '88년의 전력생산은 26억 kwh인데 1인당 사용량은 약 100kw이었음. 1인당 사용량이 낮은 이유는 남부지역의 전력생산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서 오는 극심한 공급부족에 기인함.

○ '91년도 베트남의 전력발전량은 전국적으로 92억kwh로서 이중 남부에서의 전력발전량은 38억kwh였으며, 20억kwh가 호지민시에 공급되었음. '92년도 남부에서의 전력발전 목표는 42억kwh였으나 4억kwh의 전력생산이 목표 미달되었으며, 가뭄으로 수력발전소를 완전 가동치 못하여 호지민시는 전력난을 겪었음. 특히 호지민시는 1일 120만kwh가 부족하여 제한 송전으로 생산공장이 완전 가동되지 못하여 방직업계의 경우 생산이 14~30% 감소되고 있으며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음.

○ 〈표 Ⅲ-40〉은 남부지역의 각 발전소의 '76년과 '90년도의 설계상과 가용량 사이의 전력생산량의 비교치를 보여줌.

〈표 Ⅲ-40〉 전력 생산량 비교

(단위 : MW)

구 분	1976년도		1990년도	
	설 계	가용량	설 계	가용량
1. 수력발전소	163.1	142.7	563.7	563.3
Da Nhim	160	140	160	160
Tri An	-	-	400	400
Suoi Vang	3.1	2.7	3.1	2.7
Loc Phat	-	-	0.6	0.6
2. 화력발전소	233	193	233	193
Thu Duc	165	150	165	150
Can Tho	33	33	33	33
Cho Quan	35	10	35	10
Gas turbine	27	20	55	40
Tue Duc	27	20	27	20
Can Tho	-	-	28	20
Diesel	348	237.5	147	45
제2전력회사	771.1	593.2MW	998.7	841.3MW

○ 남부지방의 현 전력 생산구조(수력발전 70%, 화력발전 30%)로는 건기중 강우량이 부족할 때는 수력발전이 제한되므로, 화력발전소 건설이 필요함. 이 지역에서는 '95년까지 1인당 전력소비를 300kw, 2,000년까지는 500kw로 증가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남부의 수력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하천별 잠재력은 〈표 Ⅲ-41〉와 같음.

〈표 Ⅲ-41〉 수력발전소 건설 잠재력

수력발전소 건설/강	총생산(발전)량	비 고
○Song Dong Nai (Dong Nai 강)	1,610MW	9개 발전소 : Da Dung Thoung, Bon-Ron 발전소 Dong Nai 3, 4, 5, 6, 7, 8 Tri An 발전소
○Song La Nga (La Nag 강)	644MW	4개 발전소 : Bao Loc, Ham Thuan, Dami 발전소 La Nga 3 발전소
○Song Be (Be 강)	233MW	3개 발전소 : Thac Mo, Can Don, Sroc Dong 발전소

○ 한편, 트리안 수력발전소가 완공이 되면 4개의 105MW 터빈을 보유하게 되는데 현재 3개가 가동 중으로 완공시의 총 생산능력은 17억kwh에 달하게 되며, 이 지역의 전력공급은 80%의 증가를 보이게 될 것임. 트리안은 다목적 발전소로서 전력생산 이외에도 관개, 배수, 염수의 침투방지, 관광용으로 사용될 예정임. 다님 수력발전소는 160MW의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2,000년까지는 4개의 새로운 수력발전소가 건설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총 1,250MW의 전력이 추가로 생산될 것임.

○ 2,000년까지 남부지역에 계획된 신규발전소 건설 소요비용은 미화 약 20억 달러 내외인데 이중 화력발전소에 약 12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임. 투자비용 조달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세계은행이 베트남의 에너지 문제를 우선사업으로 정하였기때문에 재원조달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 북부 지역과 같이 송·배전망이 좋지 못하므로 이 분야 개발이 필요한데 이는 경제작물 생산을 위해 메콩델타, 리드평야, 동부의 고원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배전망을 확충·보급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 특히 메콩델타의 농업 잠재

력을 감안하면 소규모 관개사업, 기계사용 등에 따른 전력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임.

③ 중부 지역 : 제3전력발전공사

○ 중부 지역은 전력공급이 가장 미흡한 지역으로 통합송전망이 없고, 전력망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지역단위 체제로 이루어져 있음. 서로 다른 종류의 재래식 발전기가 전력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으나 부품조달등 모든 상황이 어려운 실정임. 생산 능력은 160MW에서 200MW정도이나 실제 생산되는 전력은 절반도 되지 않으며 1인당 연간 소비량은 40kw에 불과한 데 이는 전력공급이 원활치 못한 데다 시설확충 및 개·보수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 아직 수력발전소를 개발할 여지가 많으며 2,000년까지는 400MW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3개 수력발전소의 건설계획이 추진중임. 빈손에 '91년 9월 출력 6만 6천kw의 수력발전소의 건설을 시작하였는데 프랑스가 건설비 6,000억 프랑 등 설비를 공급하였음(3,400만 달러 상당). 제1호 발전기는 '93년 말까지, 제2호 발전기는'94년에 조업을 개시할 예정임. 이외에도 제2전력발전공사와 함께 약 3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300MW용량의 수력발전소를 얄리에 건설할 계획임.

○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는 약 2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디젤발전소 개·보수와 배전체계에 있어 중요한 문제인 중부의 주요 해안도시를 연결하는 배전망 가설과 북부 및 남부지역의 전력망과 연결시키는 것임.

(3) 전력계량과 요율

○ 전력요율은 사용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데 가정용 및 산업용은 1kwh에 80~120동을 지불해야 하는 반면 무역, 서비스, 외국회사용 및 기업용 240~360동을 내야 함. 중부지역은 과거부터 사용량에 따라 30kwh 미만, 31~60kwh 사이, 60kwh 이상 등 3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왔음. '89년에 책정된 신규 요율은 투자경비의 회수기준에서 마련되었으나 발전소의 발전기간에 따른 생산 및 송전체제, 서로

다른 투자금액 조달방법 등의 복잡한 문제를 고려하여 볼 때 가격구조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음.

○ 3개지역 모두 요금징수에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이는 전력계량기 부족으로 일부에서는 계량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전기요금 계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계량기를 많이 공급하여 요금을 정확하게 산정·징수하면 그만큼 외부의 지원을 감소시킬수 있을 것임.

○ '91년 12월 호지민시 전력공사는 통고문 3360호로 외화수입이 있는 수출상품생산업체에 대하여 '92년부터 전기요금을 달러로 납부하도록 통고 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수출상품을 생산, 외화로 대금수입이 있는 국내 생산업체는 수출상품 생산을 위한 전력사용 지표의 20%와 전력사용 지표의 초과분에 대한 50%를 0.08달러/kwh의 가격으로 납부, ②베트남에 직접 생산 투자한 외국회사, 개인 또는 베트남의 조직, 개인과 합작한 외국회사, 개인는 사용전력 100%를 0.08달러/kwh의 가격으로 납부, ③외국인과 내국인이 이용하는 외화수입이 있는 상점, 호텔, 서비스업소(미니호텔 포함)의 사용량에 대한 전력요금 부과비율은 양측 합의로 하되 전력사용 지표의 20%이상, 초과사용분의 50%를 외화로 납부하여야 함. 아직까지는 요금 계산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것 외에도 수시로 정책이 일관성이 없이 바뀔 우려가 있음.

다. 과제 및 개선방안

○ '95년까지 전국적인 송전망을 구축하여 전력공급율을 90%로 끌어 올리려는데 이러한 계획의 일단계는 북쪽 지역의 220KV 송전망을 후에 지역까지 남쪽으로 연결시키고, 남쪽지역의 220KV 송전망을 북쪽의 냐짱까지 연결하는 것임. 단기적 개발목표는 기존의 100KV 전기를 모든 성에 공급해야 하는데, 특히 중부지역의 안정적 전기 공급을 위해 디젤발전소를 수리하는 것과 그외 인설레이터, 컨덕터, 케이블, 절연재, 전압기, 스위치기어 등의 송·배전설비를 생산하는 공장의 장비를 확충 및 현대화 시켜야 함.

○ 중기 계획은 석탄 처리 및 변환시설의 개발과 3개지역 모두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공급은 물론 관개 및 홍수 조절능력을 갖추며 송·배전망을 확충하는 것임. 지역별로는 남부지역에는 다목적 수력발전소를 완공하며, 중부에서는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임.

○ 국가계획위원회는 2,000년까지 전력생산을 계획대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되는 총 비용을 약 4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우선 긴급한 사업만 추진하는 데에도 약 1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하므로 이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외국의 지원이나 투자를 필요로 함.

○ 무연탄 화력발전소는 석탄재 및 이산화유황을 내뿜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건설된 발전소는 오염방지시설이 매우 미흡한 상태로 대기오염 이외에도 석탄 쓰레기 및 버너에서 나오는 재를 처리할 시설이 없어, 오염영향권 내에서는 여러가지 질병발생이 타지역보다 대단히 높음. 따라서 굴뚝을 더 높여야 되며, 정전기를 이용한 침전기나 세정기의 설치등 기타 오염의 방지시설에 투자가 필요한 실정임.

○ 기존의 수력발전소나 건설 계획중인 발전소로 인해 토양침식이 일어나고 침식된 토양은 저수지에 쌓여 발전용량을 떨어뜨리며 홍수조절능력 및 관개능력을 감소시키므로 대규모 수력발전소 주위에 적절한 조림을 실시하여 침전속도를 완화시키며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함.

6. 공　　업

가. 개황

○ 통일 이후 베트남은 농업보다는 공업, 경공업보다는 중공업에 치중하였으며 특히 기계, 에너지, 금속, 화학산업에 중점을 두었음. 산업 및 유통부문의 사회주의를 추진하여 '77년 7월 산업 및 유통개혁위원회를 발족하여 개인기업과 상업을 국유화하여 1,500개의 제조업체가 국영기업으로 변하였으며, 자본재 및 중공업제품의

○ 중기 계획은 석탄 처리 및 변환시설의 개발과 3개지역 모두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공급은 물론 관개 및 홍수 조절능력을 갖추며 송·배전망을 확충하는 것임. 지역별로는 남부지역에는 다목적 수력발전소를 완공하며, 중부에서는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임.

○ 국가계획위원회는 2,000년까지 전력생산을 계획대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되는 총 비용을 약 4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우선 긴급한 사업만 추진하는 데에도 약 1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하므로 이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외국의 지원이나 투자를 필요로 함.

○ 무연탄 화력발전소는 석탄재 및 이산화유황을 내뿜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건설된 발전소는 오염방지시설이 매우 미흡한 상태로 대기오염 이외에도 석탄 쓰레기 및 버너에서 나오는 재를 처리할 시설이 없어, 오염영향권 내에서는 여러가지 질병발생이 타지역보다 대단히 높음. 따라서 굴뚝을 더 높여야 되며, 정전기를 이용한 침전기나 세정기의 설치등 기타 오염의 방지시설에 투자가 필요한 실정임.

○ 기존의 수력발전소나 건설 계획중인 발전소로 인해 토양침식이 일어나고 침식된 토양은 저수지에 쌓여 발전용량을 떨어뜨리며 홍수조절능력 및 관개능력을 감소시키므로 대규모 수력발전소 주위에 적절한 조림을 실시하여 침전속도를 완화시키며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함.

6. 공　　업

가. 개황

○ 통일 이후 베트남은 농업보다는 공업, 경공업보다는 중공업에 치중하였으며 특히 기계, 에너지, 금속, 화학산업에 중점을 두었음. 산업 및 유통부문의 사회주의를 추진하여 '77년 7월 산업 및 유통개혁위원회를 발족하여 개인기업과 상업을 국유화하여 1,500개의 제조업체가 국영기업으로 변하였으며, 자본재 및 중공업제품의

국내생산에 역점을 두며 중앙통제방식을 통해 기업이 필요한 원·부자재와 자본재를 공급하고 생산량을 할당하였음.

○ 도이모이 정책에 의해서 여러 경영형태로 공업건설과 발전이 시작되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함. 개혁정책하에서는 경제활동에 활로를 찾기 위해 국영기업체의 자주·독립적인 경영을 촉진하며 사기업형태의 생산, 영업을 장려하기위해 '88년 1월에는 외국투자법을 공포하고 외국자본과의 합작 혹은 100% 외국자본에 의한 공장건설에 박차를 가함.

○ 국영기업체(총수 약1만5,000)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조에 의존치 않고 자주독립경영을 하도록 권장하며, 적자파산 상태에 있는 기업은 도산시키며, 민영화가 가능한 것은 주식회사형태를 새로 발족케 하려고 함. 단, 에너지 산업과 주요 중공업등 기간산업은 국영을 유지하도록 되어있음. 이는 경제개혁정책의 근간은 국영경제부문이 궁극적으로 경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다하도록 발전 시킨다는 것임.

○ 과거 20여년 동안 농업보다 훨씬 빨리 성공한 공업은 현재 베트남 국민소득의 1/3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업을 중공업과 경공업으로 나누면 중공업은 철강, 시멘트, 농기구, 엔진 그리고 트럭 및 기타 운반구 제조업, 비료화학 등으로서 대부분이 북부에 위치하고 있음. 반면 섬유, 신발, 의류 및 기타 가정용품등 경공업은 주로 남부에 공장이 세워져 있으며 수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주로 해안에 공장이 세워져 있음.

○ 기업은 임금과 고용의 결정, 원부자재 확보, 자금조달, 제품의 시장판매 등에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부품의 부족, 수입원자재 및 전력부족, 취약한 운송체계로 인해 가용자원의 활용에 제한을 받고 있음. 최근에는 많은 기업이 시장의 변화에 보다 탄력적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출시장개발에 적극적이며 자체의 구조조정 및 합리화 작업도 진행중임.

○ 공업부문의 생산성 증가추세는 중공업보다는 경공업 그리고 중앙통제기업 보다는 지방정부 운영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문별로는 식품, 섬유류 등의 경공업과 기계, 철강, 시멘트, 화학비료 등의 중공업이 개발되고있음. 그러나 '88년

부터 시작된 원유개발과 제조업부문의 외국인 투자증대에 힘입어 앞으로 공업생산은 계속적으로 증대될 전망이며 '91년 공업총생산은 '82년 불변가격으로 약 5.7%정도 성장하였음.

○ 전반적인 전력, 부품, 원료부족으로 제공장의 가동율은 낮은데 공업생산은 '82년 가격으로 '90년에는 1,375억 동이며 그중 국영기업체 805억동 기타 민간업등 569억 동임. '91년에는 1,448억동으로 그 내역은 891억동과 556억동이며, 경공업·수공업 생산부문은 공업총생산의 약 40%를 점하고 있음.

〈표 Ⅲ-42〉 베트남의 공업현황 추이

구 분	1989	1990	1991
총생산(년 억동)	1,333	1,375	1,448
-중공업(%)	30.4	34.9	37.4
-경공업(%)	69.6	65.1	62.6
-국영기업(%)	57.0	58.6	61.6
-조합, 민간(%)	43.0	41.4	38.4
종업원(천명)	2,531	2,251	2,115
-중공업	682	622	571
-경공업	1,849	1,629	1,544
-국영기업	782	744	716
-조합, 민간	1,749	1,507	1,399
국영기업수	3,020	2,762	2,512
-중공업	1,459	1,384	1,252
-경공업	1,565	1,378	1,260
-중 앙	666	589	592
-지 방	2,354	2,173	1,920
총투자(10억동)	5,662	-	-
중 앙	4,458	-	-
지 방	1,204	-	-

나. 생산현황

1) 공업생산

○ 평균국민소득 증가율은 제5차 5개년 계획기간('76~'80)에는 0.4%, 제3차 계획기간('81-'85년)중에는 6.4%, 그리고 4차 경제개발기간('86-'89년)에는 3.9%를 기록하였고, 공업생산의 증가율은 각각 0.6%, 9.5%, 5.9%를 나타내었음. 한편,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공업생산의 비율은 '83년의 39.5%에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88년 이후에는 축소되어 '91년에는 34,3%를 차지함.

〈표 Ⅲ-43〉 부문별 성장율 추이

(단위 : %)

항 목	연평균 성장율			'90년 대비 '91년 성장율
	'76~'80	'81~'85	'86~'90	
국가경제부문별 노동력	2.8	3.8	3.1	2.6
사회총생산(GSP)*	1.4	7.3	4.8	3.2
국민소득(NI) **	0.4	6.4	3.9	2.5
공업총생산(GPI)	0.6	9.5	5.9	5.3

주 : * 1982년도 비교가격기준
** 1982년도 불변가격기준

○ 지역별 공업 개발현황을 보면, 철강을 포함한 중공업, 화학제품, 시멘트, 비료, 엔진, 자동차, 농기계 등이 북쪽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경공업은 국가전역에 걸쳐 분포해 있으나 주로 남쪽지역에 많으며, 남쪽지역의 공업생산은 북쪽의 약 2배이며 민간부문에서의 생산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2) 주요생산물 현황

○ 베트남의 공업생산을 〈표 Ⅲ-44〉와 같이 19개 업종으로 나누어 비율로 표시해 보면 '91년 식료품, 직물, 그리고 화학·비료·고무 등의 비중이 10% 이상을 각각 차지하고 있음. 식료품공업과 섬유공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식과 관계있기 때문인데 이는 다른 측면으로 보면 공업구조의 낙후를 나타내는 것임.

○ 비중의 변화에서는 연료, 임산가공품이 큰데 전자는 석유생산의 증가로 비중이 증가하였고 후자의 경우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때문에 급격히 감소하였음. 공업의 발달에 따라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계기기, 전자기기, 금속공업의 비중이 극히 낮아 베트남의 공업기반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표 Ⅲ-44〉에서 보면, 산업의 부문별 비중(가치기준)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경공업분야의 식품가공과 직물산업분야로 이 부문의 생산가치의 비율은 '80년 39.7%, '89년 43.5%, '90년 39.1%로 '80년이후 40%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량은 전체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자전거, 유리제품, 간장, 밀가루 등 주요 소비재의 생산은 여전히 낮아 경공업부문의 두드러진 성장은 주로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부문의 생산확대에 의해 이루어짐. 중공업부문은 철강생산과 시멘트 및 화학비료의 생산비중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기계나 화학산업의 비중은 '80년에 비하여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나 양적인 면에서는 아직 성장이 불충분함.

〈표 Ⅲ-44〉 산업총생산의 부문별 비중 및 추이

(단위 : %)

구 분	1980	1985	1988	1989	1990	1991
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력생산	4.4	4.5	4.2	4.9	5.4	5.4
연 료	1.9	1.2	1.4	3.5	5.6	7.2
철 금 속	2.2	1.3	1.0	1.5	1.0	1.1
비철금속	0.4	-	0.5	-	0.7	0.7
기계 · 장비	8.2	8.3	9.7	8.2	7.7	7.4
전기 · 전자	1.2	1.6	2.4	2.4	3.1	3.1
금속제품생산	4.2	4.1	5.2	4.9	4.4	4.1
화학, 비료, 고무	9.5	10.6	9.4	9.2	9.9	10.2
건축자재	7.8	6.5	6.4	6.3	6.9	7.3
임산가공품	11.0	8.5	6.6	5.7	5.6	5.2
종 이 류	3.0	3.4	3.3	2.6	2.9	3.1
유리, 도기류	2.0	1.7	1.5	1.3	1.3	1.0
식 품	3.8	3.3	3.5	4.7	4.2	3.8
식품가공	21.0	24.2	23.1	24.0	22.0	22.3
직 물	12.2	13.8	12.5	11.9	11.3	10.9
봉 제	2.7	2.1	2.9	2.9	2.7	2.1
가죽제품	1.0	1.0	1.6	1.7	1.5	1.2
출 판	0.4	0.4	0.6	0.5	0.6	0.6
기 타	3.5	3.5	4.2	3.8	3.4	3.3

○ '80년대의 산업총생산의 구성추이를 보면 다른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았던 전력, 연료, 전기, 전자, 기타 금속제품생산 등의 생산가치비중이 증가한 반면 야금, 기계 · 장비, 임산가공품, 유리제품 등은 그 비중이 감소하였음. 전력생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광물자원 중 석탄생산은 정체되어 있으나 주석은 지난 5년사이에 4배의 생산증가를 기록하였음.

○ 선풍기, 자전거, 유리제품 등의 생산은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반면에 철강, TV, 시멘트의 생산 등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섬유, 화학비료, 직물 등의 생산은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들은 최근 베트남의 주수입품으로 등장하였음. 이는 새로 수요가 창출되고 공급능력이 달려 수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생산시설을 완전히 가동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요의 급증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 것임.

〈표 Ⅲ-45〉 주요 공업제품 생산추이

항 목	단 위	1980	1989	1990	1991
전 력	백만kwh	3,627.2	7,948.4	8,789.9	9,288.0
석 탄	백만 톤	5.2	3.8	4.6	4.3
철 강	천 톤	60.3	84.5	101.4	130.0
크 롬	〃	9.1	4.0	4.6	6.0
주 석	〃	503.0*	658.0	1,602.0	2,130.0
야금기계	대	987	928	894	850
트 랙 터	〃	1,600	330	1,700	2,100
전기모타	천 대	15.1	11.9	10.5	11.1
펌 프	〃	1,496	1,357	430	400
탈 곡 기	〃	476	1,043	1,013	1,000
화학비료	천 톤	360.3	373.0	345.0	434.0
살 충 제	〃	8.2	4.8	9.1	10.0
황 산	〃	6.9	10.4	7.7	7.5
소 다	〃	3.7	3.1	7.8	7.5
시 멘 트	〃	632.9	2,087.6	2.534.2	3,177.0
선 풍 기	천 대	137.6	217.9	287.4	--
TV	〃	--	65	141	116
벽 돌	백만 개	2,297.2	3,518.7	3,476.0	3,825.0
자 전 거	천 대	137.1	114.9	88.7	87.0
자전거타이어	천 개	4,925.0	7,589.0	9,238.0	9,805.0
유리·유리제품	천 톤	40.9	51.3	39.1	27.7
성 냥	백만 갑	251.3	57.6	94.2	151.0
종 이	천 톤	48.5	65.8	78.8	103.0
소 금	〃	477.5	644.6	593.3	596.1
수산가공	〃	398.7	683.2	615.8	677.0
설 탕	〃	166.9	375.5	323.5	344.0
맥 주	백만 리터	60.6	89.3	100.0	177.3
담 배	백만 갑	395.8	1,164.4	1,249.5	1,275.2
차	천 톤	19.2	24.5	24.2	23.0
간 장	백만 리터	83.3	158.6	131.3	134.1
섬유, 직물	백만㎡	179.2	336.4	318.0	277.0
비 누	천 톤	22.4	40.0	54.0	58.0

주 : * 주석은 '86년도 수치임.

3) 생산 주체별 생산현황

○ 공업부문의 성장은 중공업보다는 경공업 그리고 중앙정부 소속기업보다는 지방정부 운영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개혁이후 국영기업 중 중앙정부에 소속된 기업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에너지, 원·부자재, 부품, 수송수단 등의 부족으로 가동율이 40-50%의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임. 국영기업의 80%가 경영미숙, 노후시설, 자본부족 등으로 심각한 재정문제를 초래하여 생산의 주체가 되기는 커녕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되었음. '89년에는 무역자유화 및 외국상품과의 상대가격 재조정에 따라 국영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악화되어 생산력은 마이너스 성장(-3.6%)를 기록함.

○ '75년 이후 중공업의 성장이 두드러져 '76-'80년간 중공업은 29%나 성장한 반면, 경공업은 급속한 사회주의화 정책으로 인한 중공업 우선 전략으로 동기간 동안 9% 감소하였음. 그러나 '85년 기준으로 '88년의 경우 36.2%나 생산이 급속히 성장하는 등 '86-'89년까지는 소비재중심의 경공업부문의 성장이 중공업(생산재) 부문의 성장을 압도하면서 비교적 높은 성장율을 보였음. 그러나 '90년부터 시작하여 '91년에는 중공업 부문은 67.3%의 높은 성장율을 보인 반면, 경공업분야는 27.9%로 그 추세가 둔화되고 있음.

〈표 Ⅲ-46〉 공업 총생산 지수 추이

(단위 : %)

연도	총계	부문별		소유형태별		관리형태별	
		중공업	경공업	국영	조합및개인	중앙	지방
197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88	210.9	210.4	211.1	173.8	291.9	154.0	255.9
1989	204.0	206.8	202.8	169.5	279.3	263.0	236.4
1990	210.4	244.6	195.8	179.8	277.2	188.0	228.2
1991	221.6	-	-	198.8	271.4	217.9	219.8

○ 공업을 경영주체별로 분류하였을 때 사기업부문(비국영부문)의 성장은 개혁조치

에 의하여 '88년의 경우 공업지수가 290까지 증대되었으나 '91년 271.4로 떨어짐. 공업생산에 있어서 국영기업의 비중은 '76-'80년간 68.6%에서 60.2%로 감소하였으나 '80-'90년간은 55-56% 수준을 유지하다 '91년에 이르러 61.6%로 다시 증가하였음. 이는 '80년대 후반에 시작된 개혁과정에서 정부가 민간부문의 역할을 증대하려 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생산만을 보면 별로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국영기업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국영기업은 중공업측에 더 많기 때문에 그동안 경공업 보다 중공업의 발전이 더 빨랐다는 사실에 연유하는 것임.

○ 공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중공업의 비율은 '80년의 37.8%에서 '88년에는 30%로 떨어졌으나 '91년 다시 37.4%로 증가하였음. 경공업은 '88년에 70%에 달했으나 '91년 62.6%로 감소해 소비재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공업의 비중이 증대하였으나 '90년대에 중공업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중공업의 성장율이 경공업의 성장율 보다 더 빨랐음을 의미함. 성 및 지방의 공업은 중앙정부소속의 기업보다 빠르게 성장했으나('85년 66%) '90년에 들어 다시 60%로 감소하였음.

〈표 Ⅲ-47〉 공업 총생산구성의 추이

(단위 : %)

연도	부문별		소유형태별		관리형태별	
	중공업	경공업	국영	조합및 개인	중앙	지방
1980	37.8	62.2	60.2	39.8	36.5	63.5
1986	30.7	69.3	56.3	43.7	33.8	66.2
1987	30.9	69.1	56.0	44.0	32.8	67.2
1988	30.0	70.0	56.5	43.5	32.2	67.8
1989	30.4	69.6	57.0	43.0	35.3	64.7
1990	34.9	65.1	58.6	41.4	39.4	60.6
1991	37.4	62.6	61.6	38.4	-	-

○ 베트남의 시장구조가 변함에 따라 국영기업들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영기업중 36%가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있고 중·경공업 부문 주요기업의

25%는 계속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함. 국영기업은 국가자산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생산의 35%, 국가 수익의 26%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비생산성을 보이는데 이는 기업들의 생산비용의 증가로 기업의 수익성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임.

○ 주요 요인들은 ①정부가 이들 기업에게 고정산을 1.7배, 운영자본을 1.2배까지 증가시키도록 요구함에 따라 무리하게 생산을 확대해 생산비용의 증가, ②감가상각 계산 문제로서 기계, 설비 등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계산시 실질적인 환율을 적용함에 따라 실제 생산비용의 증가, ③새로운 금융정책의 시행으로 예금 이자율은 내려가고 대출 이자율은 올라감에 따른 기업의 금융비용 증가와 이로 인한 심각한 자금난, ④'92년초에 비해 2배나 전력요금이 올라 생산비용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임. 이런 요소들은 평균 15%의 생산비용의 증가를 가져왔으나 상품가격은 이에 훨씬 못미쳐 결과적으로 많은 상품이 재고로 남아 창고에 쌓여 있기 때문임.

다. 공업부문의 고용현황

○ '88년 이후의 공업생산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부부문의 인원은 큰 감소를 보이지 않은 반면 민간과 조합의 종업원은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가 있었기 때문이고 시장의 가격기능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공업이 더 빨리 성장한 것 때문임.

○ 공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91년 현재 211만명 정도임. 중공업분야에 57만명, 그리고 경공업분야에 약 154만명이 종사하고 있음. 국영기업에는 71만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조합과 민간기업에 약 140만명이 일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고용구조는 '80년대와 비교해 보면 공업부문 고용이 가장 많았던 때는 '88년으로서 '86년 이후 이때까지 공업분야 고용은 증가하였으나 3년동안 고용이 28%정도 감소되어 '91년에는 84만명이 줄어들었음.

〈표 Ⅲ-48〉 공업부문별 노동력

(단위 : 천명)

	1980	1986	1988	1989	1990	1991
총 계	2,248.1	2,587.0	2,945.0	2,531.4	2,251.0	2,115.0
국영부분	643.5	776.5	843.9	782.0	743.8	714.3
중공업	369.7	395.7	410.1	382.8	346.0	-
경공업	273.8	380.8	433.8	399.2	397.9	-
〈관리 유형별〉						
중 앙	343.2	405.9	432.5	406.3	400.3	388.2
지 방	300.3	370.9	411.4	375.7	343.6	1,726.8
조합 및 개인부문	1,604.6	1,810.5	2101.1	1,749.4	1,507.1	1,400.7

○ 한편 국영기업은 중앙정부소속이냐 지방소속이냐 그리고 중공업이냐 경공업이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 '88년 국영기업의 종업원은 84만명이었으나 '91년 약 72만명으로 줄어들었음. 한편 내부적으로는 중앙정부의 국영기업보다 지방정부가 관할하는 기업의 고용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업종별로 나눌때에도 경공업부문의 고용증가율이 중공업부문 보다 훨씬 높아졌음. 이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비해 경공업에 특화되어 있고 동시에 자기 지방의 발전을 위해 기업을 많이 설립했다는 것을 의미하여 이러한 기업설립은 오늘날 와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국영기업수는 '86년 3,141개에서 '91년 2,512개로 대폭 감소하였는데 중공업과 경공업 양부문에서 동시에 기업수가 줄어들었고 중앙과 지방 역시 동일하게 줄어들었음. 그러나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앙정부의 경우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 들었는데 예를 들면 '86년 중앙정부소속 국영기업은 687개로 이중 200인 미만 기업은 342개로 약 50%였으나 '91년에는 592개에 190개사에 불과하게 되었음. 따라서 종업원 200인 이상의 기업은 오히려 증가한 것임.

○ 조합, 민간기업, 가계기업 및 국·민영합작회사들은 소규모 형태지만 그 중요성

이 더욱 커지고 있음. 동기업들은 공업생산 및 수출의 주요부문을 담당하고 있는데 '91년 현재 140만명의 종업원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 고용기회 창출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소규모 기업인 민간기업은 노동집약적인 기술 활용에 용이하고 제품생산이 신속하기 때문에 작은 도시나 농촌에 설립되어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라. 경공업

1) 개황

○ 경공업부문은 경공업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영기업과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국영기업, 협동조합, 사기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공업부는 섬유, 의류, 피혁 및 제화, 제지, 유리 및 도자기, 플리스틱, 음료, 담배, 우유가공, 식물성 유지 가공 등의 경제부문을 관할하고 있음. 경공업부는 지방기업에 총자본의 관리를 위임하고, 연간 생산계획을 통보해 주며 주요 투자계획에 동의하는 등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함. 경공업분야는 많은 소규모의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80년 총생산의 62%를 차지했으며 '91년에도 비슷한 수준인 62.6%의 비중을 차지함.

○ 2000년까지 베트남 사회·경제개발전략의 주목표는 농업과 임업, 어업의 개발을 지속하면서 공업의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는 것으로 이 계획은 다음 세가지 영역에 개발의 초점을 맞추어, ①핵심적인 소비상품의 제조, ②수출상품 제조, ③에너지 개발인데 이중 ①, ②사항은 대부분 경공업에 속함. 경공업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바, 베트남의 경공업은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임금수준을 기반으로 큰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베트남 정부는 국내외 기업가들이 수출상품 생산분야 특히 경공업분야에 투자하도록 장려하는 한편, 몇몇 기업의 사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 경공업 개발방향은 국내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광범위한 국제협력으로

상품의 질을 높이고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것임. 섬유산업에서의 방적 및 마무리 영역과 같은 고급기술과 많은 투자자본을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부문 및 제지, 식료, 연초산업 등 대규모 현대 기업들을 정부 관할하에 두고 있음. 수출용 상품과 소비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노이, 남딘, 하이퐁, 호지민시, 냐쟝, 칸토 등 몇몇 지역을 수공업 중심지로 개발할 예정임.

2) 업종별 현황

(1) 섬유산업

○ 섬유산업은 경공업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총공업생산의 8.7%를 차지하고 있음. 약 500개의 기업이 있으며 제조업 부가가치생산의 약 15%를 차지함. 섬유공업은 전통적이며 가내공업적 성격의 섬유를 제외하면 현재 의류가 중심임. 과거 원면을 구소련에서 도입하였으낭 현재 도입이 중단되었으며, 정부는 남부의 동서지역을 중심으로 약 25,000ha에서 면화를 재배하고 있음.

○ 기술수준은 대부분은 낙후되어 있으며 방적설비의 33%, 방직설비의 65%, 편물설비의 40% 그리고 마무리 설비의 63%가 20년 이상 되었음. 따라서 실제 생산량은 생산계획량의 40%~45%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80년 이후 현재까지의 섬유품목의 구조는 세계의 일반적 구조와 다른데 베트남에서는 면사가 98%를 차지하고, combed사는 10%밖에 차지하지 못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각각 75%와 15%를 차지한 것에 비하면 크게 뒤져 있음. 섬유품목은 양에서 풍부하지 못하고 질에서도 뛰어나지 못하며, 좁은 폭을 가진 직물이 85%를 차지하고 있음. '85년 이후 신투자의 결과, 섬유상품의 질은 좋아졌음.

○ 대부분의 원료, 설비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연간 3,000만톤에 달하는 국내 면생산은 수요의 5%밖에 충족시키지 못함. 비단은 전통적인 산물이며, 높은 수출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고급기술의 결핍으로 개발속도가 느려 비단생산은 연간 200MT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합성섬유와 인공섬유를

생산할 능력이 없어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13개의 방적공장이 있으며 이중 5개 공장이 혼성사를 생산하며 모든 방적생산은 국영기업에서 관할함. 국영기업에는 11,000대 이상의 다양한 종류의 방직기가 있으며 지방에 산재한 250개 이상의 협동조합에는 20,000대의 직기가 있음.

○ 증가하는 국내섬유 수요(7천만명에 가까운 내수시장)에 맞춰 생산량을 높이고 수출을 위해 생산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고설비의 개량으로 설비를 개선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개량할 수 없는 신기계는 수입하고 있음. 방적라인과 마무리 라인의 완성을 위해 신설비의 보충 또한 서두르고 있으며, 2000년까지 섬유공업의 생산목표는 다음과 같음.

〈표 Ⅲ-49〉 섬유공업 생산목표

	섬유생산 (백만미터)	내수용 (백만미터)	외수용 (백만미터)	실수요 (톤)
1992~1995	500	350	150	90,000
1인당	7.15	5		
1996~2000	1,000	650	350	180,000
1인당	13.33	8.66		

○ '92~'95년사이 대부분의 투자는 오래된 설비의 대체와 기존의 불완전한 기기보충에 집중되는데 이 기간에 필요한 투자자본은 총 7억 달러에 달함. 또한 '93~'95년간 생산증대를 위한 투자자본은 총 2억 7천만 달러를 필요로 하고 있음.

(2) 목재가공, 펄프 및 제지산업

○ 펄프와 제지산업은 경공업부가 직접 운영하는 10개 기업과 전국에 산재한 90개의 지방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총 계획생산량은 연간 약

19만톤의 종이와 16.5만 톤의 펄프이며, 그 중 중앙국영기업이 종이 총생산량의 81%에 해당하는 15.4만톤의 생산과 펄프 총생산량의 84%에 해당하는 14만톤의 생산을 담당함.

o 베트남에서는 유일하게 빈푸(Vinh Phu)펄프 및 제지공장이 설페이트 방법(황하처리방법)을 사용하고 펄프생산과정에서 알카리를 재생함. 그러나, 대부분의 제지공장은 염화나트륨으로 원료를 녹여서 펄프를 만드나 재생장비가 부족한 관계로 많은 양의 화학약품을 소비함. 한편 펄프표백공장은 빈푸와 동나이 단 2군데뿐이고, '75년 이후 경공업부는 남부의 펄프 생산량을 증대시켜 왔으나, 부진한 상태이며 펄프는 계속 수입하고 있음.

o 빈푸와 탄마이 제지공장만이 고속의 대규모 제지기계를 갖추고 있으며 남부의 몇몇 제지공장은 '60년대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1.5만톤에서 2만톤을 생산하는 '40년대 설비도 현재 이용되고 있음. 북부의 대부분 설비들은 중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생산능력이 작고 오래되었으며, 모든 기계 및 설비들은 오랜 전쟁과 부품의 부족으로 질이 떨어져 종이의 질도 좋지 못한 편임. 일반적인 국내의 종이수요는 학생들의 문방구 수요와 인쇄 및 포장용 수요이며, 인쇄, 시멘트 포장 및 기타 용도에 필요한 고품질 종이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o 자체 화학 플랜트를 갖춘 빈푸 제지공장과 TMP(Thomer-mechanic Process)를 사용하는 탄마이 제지공장을 제외한 모든 제지공장은 화학약품을 수입하고 있음. 빈푸제지공장만이 펄프확보를 위한 6.9만 ha의 특별산림구역을 가지고 있고, 이외에 남부에 3,000ha 히에우 리엠 조림농장과 2,000ha의 트리안 조림농장이 계획중임. 람동에는 11만ha의 소나무림대가 있으며, 이 지역에서 450만㎥ 이상의 소나무가 공급될 예정임.

○ 원료생산의 확대, 설비의 현대화 그리고 새로운 기계의 구입을 통해 생산량을 증대시켜 2000년까지 1인당 종이 소비를 4㎏에서 5㎏까지, 종이생산을 연 30만톤에서 40만톤까지 늘릴 예정임. 이를 위한 투자계획은 기존 제지공장의 개선, 원료확보를 위한 조림, 펄프 및 종이생산, 화학약품의 생산 및 재생을 포괄하는 4개의 새로운 종합공장건설(이 계획은 5억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며, 연5만톤의 종이 생산능력을 갖출 예정)등임. 시멘트 포장지를 생산하는 계획은 대나무가 풍부한 중북부지역이나 중부고원의 소나무림 지대에서 추진될 예정임.

마. 중소기업과 개인기업

○ 소규모기업은 협동농장, 민영기업, 가계기업 및 국·민영합작회사를 의미하는데 이전에는 소규모기업은 국영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뜻하였으나 현재 많은 민영기업이 수백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대규모(예 : 의류, 가구제조, 카펫트나 가방을 생산하는 수공예공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분류는 의미가 없게 됨. 소규모 및 수공예 기업은 베트남의 경제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

○ 정부의 추산에 의하면, 소규모 기업에서는 하나의 고용기회를 창출하는데 미화 약 500달러가 드는데 정부는 '91년에서 '95년 사이에 소규모기업 및 수공예 부문에서 약 200만의 추가 직업이 창출되리라 기대하나 이에 따르는 투자재원인 미화 10억 달러는 외국의 지원이 없이는 조달하기가 어려운 상태임. 정부의 소규모기업 진흥책은 ①산업자문 서비스의 지원, ②기업가, 관리자 및 자문요원의 교육, ③산업분야 연구지원, ④개발자금지원, ⑤공장부지, 건설 및 부대시설 지원, ⑥원자재 및 기계 구입 지원, ⑦마켓팅 지원 및 노동관계 서비스 등임.

○ 소규모 및 민간부문에서의 성장잠재력은 과거의 정책잘못으로 인해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으나 비국영경제부문(Non-State Economic Sector)에 관한 새로운 결의안(결의안 16조, '88년 7월)은 비국영경제주체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이 국가경제의 주요 구성원이 되도록 표명하였음. 동 결의안 16조는 비국영 생산주체에 대해 ①국가 계획경제 밖에서 운용, ②원자재 및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독점국영기업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③원자재 및 부품 자체 구매, ④국영기업과 동등한 위치에서 기계 및 설비 구입, ⑤수출품 생산기업은 가득외화를 사용하여 외국으로부터 기계 및 설비를 수입할 수 있으며 자체적인 판매망 구축, ⑥수출기업은 외국과 판매계약 직접 협상, ⑦자체 개발품에 대한 특허 및 지적자산소유권을 가질수 있다는 원칙이 들어있음.

바. 과제 및 개선방안

○ 통일후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초기 산업화는 중공업활동을 위한 자본재의 생산을 위해 중앙의 계획과 관리하에 추진된 공업화였음. 모든 생산요소가 국가소유였기 때문에 국가는 계획위원회와 자본의 소요와 생산목표를 결정하는 기타 국가기관이 기안한 계획에 따라 생산요소를 분배하여왔음. 이러한 공업화는 사회주의 체제가 우선시하는 자립경제화와 연결되어 있었음.

○ 수년간 활발한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많은 제약이 산업분야에 현존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내·외 신규자본의 유입과 기술적지원이 필요함. 기계장비가 낙후되어 생산성과 품질에 큰 문제가 나타나 외국과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임. 대부분 기업들은 부품과 수입원료의 부족에 시달리는데 이는 낡은 기계장비 때문에 부품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를 원활하게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또 소련과 원조와 무역이 중단되므로 과거 원조물자로 돌아가던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임. 원료의 부족 때문에 외국과 합작하려는

기업이 많은 것도 이 때문임.

○ 전력 등 에너지의 공급부족은 공업외부에서 오는 문제로 원료가 충분하고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어도 전력부족 때문에 공장은 완전히 가동할 수 없는 상태임.

○ 공업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야인데 이에 반해 농업은 장기적으로 고용을 방출하는 분야이므로 공업부문이 이를 적절하게 흡수하지 않으면 실업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고 이는 체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됨.

○ 경화의 조달과 그 분배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데 경화통용 지역에 수출을 독려하는 지원조항과 내수용 시장에만 판매하는 기업간의 외화배분에 균형이 있어야만 내수용 기업이 생산설비를 현대화시킬 수 있으므로 외화의 합리적 분배는 5개년계획의 특정 및 일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인이 될 것임.

○ 산업발전의 지역적 차이가 우려될 정도인데 남부지역의 일반적 사업환경은 신규사업의 개발, 국내 · 외 교역거래의 가능성, 소비재산업부문의 성장등이 다른 지역보다 용이하므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 우려되는 바 보다 적극적인 지역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균형있는 지역발전이 필요함. 수입대체품을 생산하는 많은 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이는 비효과적인 기업보호 정책보다는 베트남의 제품이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 및 품질로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해결되어야함.

○ 연구개발부문의 투자가 미흡한 상태로 정부는 기존의 전문연구기관이나 대학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지식 및 기술의 확산이 미흡하고 비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정책이 취해져 라이센스나 직접투자를 통해 유입된 외국 정보기술이 효과적으로 확산되어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7. 수송 및 교통

가. 개 황

○ 수송체계는 베트남 경제의 가장 취약한 상태로 대대적인 개·보수가 단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빈약한 사회기간시설이 더욱 악화되고 이로 인해 많은 분야의 발전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도로, 철도, 교량이 우선 급한 분야로 특히 도로운송차량 및 철도의 기관차는 여객 및 화물수송에 적절하지 못한 실정이며 많은 장비가 재래식임.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남과 북,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통합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현재의 수송체계로는 늘어나는 물동량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국제무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항구 및 해운분야의 발전이 시급한 실정임.

○ 주요 운송체계의 중심지는 호지민시와 하노이며 이 2개 대도시에 산업생산 및 소비가 집중되어 있음. 호지민시 및 그 외곽은 국가 산업총생산의 38%를 점유하고 있으며 하노이는 22%를 차지하고 있음. 홍하 및 메콩델타는 주곡 특히 쌀의 주생산지로 메콩델타는 현재 농산품의 수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중앙평원 및 해안지역은 고무, 커피, 차, 과일 및 냉동어류 수출품의 주생산지이며, 석탄 탄광은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하이퐁과 사이공 항이 수출물동량의 80% 이상을 처리하고 있음.

○ 생산품의 종류, 원산지 및 선적지에 따라 베트남 경제의 주요 운송로는 다음과 같이 5개로 나누어질 수 있음.

① 주곡 수송로 : 메콩델타에서 호지민시로 쌀이 이동되며, 그외 메콩델타에서 식량이 부족한 지역인 중부 베트남, 홍하에서 하노이와 하이퐁으로 수송되고 있음. 메콩델타에서 북부지역, 특히 홍하델타에서 생산된 것 중 부족한 식량은 하노이로 이동됨.

② 수출농산물 : 생산된 수출농산물은 주로 중부고원에서 사이공항으로 이송되는데 이는 다낭항이 지리적으로 보다 쉽게 이용될 수 있는 항구이지만 적절한 상업 및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항구시설도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임.

③ 석탄이동 : 하이퐁 북동지역으로 50㎞에 위치한 쾅닌의 탄광, 파라이, 우옹비 및 닌빈의 발전소간에 대규모 이동이 있으며, 또한 산업용으로 호지민시로도 운송됨.

④ 국내생산 및 제조품의 이동 : 호지민시 및 하노이시로부터 각각의 메콩 및 홍하델타 지방간에 대규모 이동이 있음.

⑤ 수입품 수송 : 하이퐁을 경유하며 호지민시로 대규모의 수입품 이동이 있으며 일부 국제무역은 조그만 규모의 외항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메콩델타 상류의 항구에서 직접 이루어짐. 캄보디아 국경지대(타일랜드로부터의 수입품을 포함하여)와 중국국경지대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음.

○ 베트남의 수송시설은 약 105,500㎞의 도로, 2,600㎞의 철도, 19,500㎞의 내륙수로(약 7,000㎞는 주요 수로임), 7개의 주요 항구, 3개의 국제공항 및 몇개의 소규모 국내공항으로 이루어져 있음. 화물 1톤이 움직인 거리로 나타내지는 평균 운송거리는 해상이 가장 길고 그 다음이 철도, 수로, 도로 순임.

〈표 Ⅲ-50〉 수송수단별 수송량('89)

수송수단	화물			승객		
	수송량 (백만톤)	수송거리 (백만㎞)	평균수송 거리(㎞)	수송인원 (백만원)	수송거리 (백만㎞)	평균거리 거리(㎞)
도 로	23.7	1,396.2	59	300.8	8,028.3	27
철 도	2.4	743.4	310	11.7	2,098.2	179
수 로	13.2	1,832.4	139	36.2	1,013.7	28
해 상	4.1	8,786.2	2,143	0.3	49.5	165
계	43.4	12,758.2	202	349.0	11,369.7	33

○ 〈표 Ⅲ-51〉은 수송수단별 여객수송 및 화물수송량의 추이를 나타내는데 '90년의 경우 도로와 하천을 이용한 수송이 전체 여객수송의 97.5%를 차지하며, 화물수송량의 94.3%를 차지하고 있어 수송에서 도로와 수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실정임.

〈표 Ⅲ-51〉 수송 수단별 여객 및 화물수송량과 구성비

구 분	1987	1988	1989	1990
여 객 (백만명)				
철 도	24(5.7)	18(4.2)	12(3.2)	11(2.3)
도 로	357(84.5)	365(86.3)	326(87.5)	443(89.5)
수 로	41(9.7)	40(9.4)	35(9.3)	40(8.0)
해 운	0.1(0.0)	0.1(0.0)	0.1(0.0)	0.4(0.1)
항 공	0.3(0.1)	0.3(0.1)	0.3(0.1)	0.4(0.1)
총 계	422	423	373	495
화 물 (백만톤)				
철 도	4.0(7.4)	4.0(6.7)	2.5(5.7)	2.4(4,8)
도 로	32.1(59.0)	35.2(59.1)	26.4(60.1)	31.5(64.3)
수 로	15.8(29.1)	19.4(32.6)	14.5(33.1)	14.7(30.0)
해 운	2.4(4.5)	0.9(1.5)	0.5(1.1)	0.5(0.9)
총 계	54.4	59.6	44.0	49.0

○ 수송부문의 인프라 정비는 종래 계획경제 가운데 들어 있어 정부가 그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권한도 최근에는 분권화하고 있으며 보조금에 기대지 않는 자율경영을 강요받고 있음. 정부로서는 따라서 수송부문의 인프라정비를 위한 투자계획을 갖고 있지만 현재는 외자에 기대하는 경향이 더 강함.

○ 〈표 Ⅲ-52〉는 '91년~'95년 5개년간 수송분야 투자계획안을 y타내는데 정부는 도로 부문에 50%이상의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며, 그외 철도부문에 20%를 투자하여 철도의 현대화와 시설 및 장비의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표 Ⅲ-52〉 '91~'95년 수송분야 투자계획(안)

구 분	5년간		연 평 균	
	(10억동)	(백만달러)	(10억동)	(백만달러)
(1안)				
도 로	1426	219	285	44
철 도	538	83	108	17
항만·해운	269	41	54	8
항 공	322	50	64	10
기 타	135	21	27	4
총 계	2690	414	538	83
(2안)				
도 로	2096	322	419	64
철 도	790	122	158	24
항만·해운	395	61	79	12
항 공	474	73	95	15
기 타	209	30	39	6
총 계	3964	608	790	122

주 : 2안은 1번국도 개·보수를 위해 World Bank와 ADB로부터 차관도입할 예정.

나. 육상수송

1) 도 로

○ 남북을 종단하는 호지민~하노이간 제1호 국도(1,710㎞)를 포함하여 국도 제21호까지에 이르는 주요 간선도로는 약 3만 5천㎞이며, 차량이 운행가능한 도로의 길이는 '91년 현재 10만 5천㎞임. 전쟁에 의해 파괴된 북부의 도로와 교량은

'76년이후 복구되기 시작하였고, 트럭과 버스는 주로 구소련제이며, 일부 일본으로 부터 중고차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연료나 차부품의 절대량 부족으로 수요에 못미치고 있어 도로수송의 비중은 낮은 실정임. 제1호 국도를 통해서 수도 하노이와 남쪽의 호지민시를 잇는 버스노선과 그외 기타 버스노선이 있음.

○ 베트남 정부는 도로, 철도, 항만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경제발전이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최근 그 일환으로 주무부처인 교통·통신부는 우선 낙후된 도로 및 교량의 개·보수, 유지 및 신축을 위한 7개년 프로그램을 제시함. 동 프로그램은 향후 7년동안 연간 4천억동을 투입하여 총도로의 15%를 매년 개·보수할 예정이며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동차와 오토바이 소유주에게 도로통행료를 부과하여 소요자금의 60-70%를 충당하고 또한 국영 및 개인기업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음. 투입될 건설자금에 대한 상환방법으로 참여기업들에게 건설구간에서 일정기간동안 도로통행료를 징수할 권리를 부여할 방침임.

○ 그러나 베트남의 자금사정과 도로통행료 부과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앞서 언급한 동 프로그램의 성공여부는 쉽게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나, 미국의 대베트남 경제제재조치 해제와 이에 따른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원조자금 규모('95년까지 14억 달러의 차관 도입)가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교통·통신부는 동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하노이-호지민시간, 하노이-중부의 빈간, 호지민-푸카인성의 냐짱간, 호지민-메콩델타지역 칸토간, 비엔호이-붕타우간의 도로 개·보수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음.

○ '91년 현재 베트남의 총연장도로는 10만 5천㎞로 포장율은 약 10% 정도이며, 도로망은 국도, 성도, 군도, 농도 등으로 구분됨. 교량의 수는 약 8,000개이고 총연장은 17만5천m에 이르고 있는데 도로의 40%, 교량의 50%가 시급히 개·보

수되어야 할 실정임. 산간지역, 중부고원지역, 국경지역, 메콩강유역에는 도로망이 거의 전무하고 도로의 대부분이 평지와 도시근교에 집중되어 있음. 국도가운데 4,000㎞는 폭이 6m이상이지만, 5,000㎞는 폭이 4-6m이고, 나머지 1,700㎞는 4m 미만인 협도임.

〈표 Ⅲ-53〉 도로 현황

(단위 : ㎞)

구 분	길 이	다리(백만톤)
국 도	10,629	2,698
지 방 도	15,300	2,930
군 도	25,300	2,533
농 도	46,200	2,571
시 내 도	2,570	-
특 정 도	5,450	-
합 계	105,620	10,723

○ 베트남의 도로사정이 불량한 이유는, 베트남 전쟁 이후 거의 개·보수가 안되었으며,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무역규모가 증대하면서 과적트럭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임. 약 8,500㎞만이 도로포장이 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경량차량에만 견딜수 있도록 되어 있어 중량차량이 많이 다니게 된 현재는 그나마도 절반가량은 매우 손상돼 있는 상태임. 약 3,500㎞정도만이 아스팔트/콘크리트로 포장되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남쪽지역에 편중돼 있음.

〈표 Ⅲ-54〉 도로포장 상태

(단위 : ㎞)

구 분	아스팔트	쇄 석	시멘트	자 갈	비포장	총 계
국 도	3,250	3,600	55	1,400	2,500	10,805
지방도	115	2,650	-	2,330	10,200	15,295
군 도	60	1,200	-	4,430	19,600	25,290
총 계	3,425	7,450	55	8,160	32,300	51,390

○ 자동차의 보급율은 대단히 낮으며, '89년 중반 자동차 대수는 7만 4천대로 추정되며, 인구 1,000명당 1대를 약간 넘는 정도임. 따라서 호지민이나 하노이 등 주요 도시에서는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오토바이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도 이용되고 있음. '92년 10월 현재 100가구당 오토바이 보유대수는 8대이나 '95년에는 16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도로부문에 대한 투자는 매우 저조하고 관리도 허술한 편인데, '90년 전체 개발예산 중 약 18%정도가 도로 및 자동차부문에 투입됐으나, 예산이 제대로 필요한 부문에 집행되지 못했다고 함. 정부는 1번 국도의 폭을 7-7.5㎙로 넓히고 10톤가량의 무게에도 견딜 수 있도록 도로를 보수하기 위한 10개년 계획을 세워 놓고 외국의 투자를 기다리고 있음.

2) 철 도

○ 베트남 국철인 Duong Sat Vietnam은 1881년에서 1936년 사이에 건설 되었으며, 이 철도의 총연장은 간선과 지선을 모두 합쳐 2,633㎞임. 이중 일부는 1,435㎜의 표준궤도이지만 1㎙의 협궤도 일부 존재함. 대부분의 철도는 프랑스 지배하에 건설되어 낙후되어 있으며, 전쟁 중 피해때문에 전후 복구와 보수작업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못함.

○ 철도노선이 표준궤도와 협궤가 혼재하고 있어 근대화에 어려움을 주는데 북쪽지방

은 전쟁으로 인해 350㎞ 이상의 궤도, 90%의 역, 그리고 1만m 이상의 철교가 파괴되었음. 표준궤도와 협궤가 혼재되어 있어 복선화가 곤란하고 철도의 운행도 비효율적이어서 적재중량이나 평균속도가 극히 낮음.

○ 운송상의 병목현상도 일부는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하노이와 호지민을 연결하는 남북종단철도는 단선 밖에 부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에 최대한으로 12대의 열차 밖에 운행할 수 없는 실정임. 차량은 낡은 것이 많은데, 전동차는 약 20%가 증기기관차이며 나머지는 디젤기관차임. 수리를 위한 부품, 시설도 부족하여, 객차 및 화차 공히 시속 20-30㎞ 정도의 속도를 내고 있음.

〈표 Ⅲ-55〉 여객수송 추이

구 분	1988	1989	1990	1991
여행객수(1000명)	17,749	11,768	10,443	9,500
총여객수송거리(백만 ㎞)	3,506	2,109	1,913	1,775
평균여행거리(㎞)	197.5	179.2	183.2	487
평균객차량수	12	9.8	9.0	-
여객용열차 평균속도(㎞/h)	20.9	22.9	25.2	-

〈표 Ⅲ-56〉 화물수송 추이

구 분	1988	1989	1990	1991
총수송화물량(천톤)	3,927	2,431	2,340	2,600
총수송거리(백만톤-㎞)	1,015	743	847	1,095
일일평균운행화물차량수	1,187	3,083	2,980	-

○ 주요철도 노선은 협궤철도로 하노이~호지민시를 연결하는 통일철도(전장 약1,730㎞)를 기간철도로, 그외에 지선철도가 있어 '91년 현재 전국의 철도 총연장은 3,219㎞임. 지선철도로서는 북쪽에 하노이~라오가이, 겟푸~우엉비(탄전지구를 잇는 석탄수송철도), 카우삿도~다이초아, 구아로항과 남북 종단철도를 잇는 철도 등의 노선이 있음.

○ '91년 6월 북부 박타이성 성도 다이구엥과 동성 누이홍탄광을 연결하는 전장 35㎞의 철도가(석탄, 광석, 기타 상품수송이 주목적)개통되었음. 중월관계 개선으로 하노이~동당철도의 최종부분인 단송~동당 20㎞의 복구가 '92년 3월 완료되고 '92년 4월 국경검문소가 재개됨. 라오가이성 바오단과 중국 국경의 뽀모이간 37㎞의 철도 복구공사도 시작되었음.

〈표 Ⅲ-57〉 주요 철도노선

노 선	길 이(㎞)
Hanoi-Ho Chi Minh City	1,730
Hanoi-Haiphong	104
Hanoi-Lao Cai	283
Hanoi-Lang Son	148
Hanoi-Thai Nguyen	75
Thai Nguyen-Bai Chay	166
총 계	2,506

○ 베트남 정부는 현재 철도체계의 개선과 관련 3가지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음. 첫째는 완전히 파손된 철도노선과 하노이-호지민 노선을 포함한 모든 기존 노선뿐만 아니라 교량 · 역사 등을 재건축 하며, 두번째는 1㎜짜리 협궤를 1.435㎜짜

리 표준궤도로 교체한다는 것이며, 세째는 라오스로 연결되는 철로를 신설하고 중부고원지대에 콩하농과 부나지방에서 채광된 보크사이트를 호지민으로 수송하기 위한 철도를 새로 건설하는 것 등임.

다. 해 운

1) 현 황

○ 북쪽에는 홍하(Red River : 손홍), 흑하(Black River : 손다), 남쪽에서는 메콩강을 주요 하천으로 수천의 하천, 운하가 있음. 하천의 총연장은 4만 천㎞이고 운하의 총연장은 3,100㎞임. 수로의 총연장은 1만 783㎞, 연안 해상수송로는 2,737㎞ 정도임. 전장 3,260㎞의 해안선에는 많은 천연항구가 있으며, '90년 8월 현재 해안가의 8개의 주요 항구와 하천에 19개의 주요 항구가 있으나 대부분의 항만이 국제항으로서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해 수출입에 큰 애로를 겪고 있음.

○ 주된 해운항구로서는 북쪽의 통킹만 연안에 바이챠이(2만톤급 선박 출입가능), 홍가이, 칸호, 쿠이농(석탄 적재항으로서 1만톤급 선박 출입가능), 하이퐁(3만톤급), 벤도우이(6,000톤급), 구아로(5,000톤급), 동호이(800톤급), 다낭(1만톤급), 캄란(1만톤급), 붕타우 및 사이공 항구 등이 있고, 기타 다수의 작은 항구가 있음. 이중 하이퐁항과 사이공항구는 베트남의 2대항이며 캄란항은 세계 최고의 천연항중의 하나임.

〈표 Ⅲ-58〉 주요항구의 특성

항 구	물동량	선 석	부두총길이	직원수
	(1990, 천톤)	(m)	(m)	('89)
사이공	4,347	8~13	1,865	4,083
하이퐁	2,546	3~18.7	2,366	6,777
다 낭	430	3~10	1,570	1,709
퀴 논	300	8	348	559
냐 쟝	221	6	177	524
쾅 닌	298	4~5	160	830

○ 붕타우 연안의 석유생산에 따라 '87년 7월 붕타우항은 베트남의 8번째 국제항으로 국가평의회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동 항은 3개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중 하나는 석유·가스수출입기지로 되었음. '91년 5월 교통·통신부는 계앙성 구아로항을 국제항으로 결정하였음.

○ 한편 호지민시는 사이공항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지류의 벵게항의 확장공사를 실시하였고(제1기공사 완료로 연화물 30만톤 처리), 제2기공사 1만 8,000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150m의 부두를 건설할 계획임. 주된 조선소, 선박수리소로는 하이퐁시 바구당조선소, 환즈선박수리소(하이퐁시 바구당해안에 핀란드 원조로 건설되어, 1만 2,000톤급까지 수리가능), 하롱조선소(폴란드 원조로 구앙성에 건설되어 3,000톤급까지 수리), 5월 1일 조선소(하나무닝성), 바송(호지민시) 등이 있음.

2) 해상교통

○ 최근 경제개발의 일환으로 대외무역증진과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나, 항만시설이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설도 낙후되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 통일후 해상수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북부의 주요항인

하이퐁, 빈, 홍가이, 깡후아 등은 모두 전쟁 중 피해를 크게 입었고 복구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증대하는 수송수요에 부응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항만은 국제항으로서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부두, 창고, 하역시설, 내륙으로의 수송 등의 항만설비는 모든 것이 불충분하여 화물이 적체되는 등 매우 혼잡한 실정임.

o 항만시설의 부족으로 쌀, 채소, 석탄 등 전략수출상품의 수출이 한계에 부닥치고 있으며, 수입한 기계설비, 소비재 등도 제때에 소비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산업생산의 지역적 불균형, 즉 농업생산의 80%는 남부, 광업생산의 80%는 북부에 편중되어 남북을 연결하는 국내운송에 대한 수요도 매우 큰 실정임. 이는 육상운송이 매우 낙후된 관계로 해상운송이 상대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항만시설은 경제개발 속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

o 베트남의 항만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음. ① 해운항만서비스연맹(UMNS)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다낭, 하이퐁, 냐쟝, 쾅닌, 퀴논, 사이공 등의 항만이며 사이공과 하이퐁항은 전체 수출입물량의 80%를 다룸. ② 중공업부의 관할하에 있는 석탄항으로서 쿠아홍과 홍가이항이 있음. ③ 무역부에 속하는 석유항은 쾅닌의 B-12, 다낭의 마이케, 사이공의 니베항 등임. ④ 각 지방정부가 관장하는 독립항으로 붕타우, 벵게(사이공), 하도안(하이퐁), 동하이(쾅닌)항 등이 있음.

o 현재 8개의 주요 항구가 있는데, 북부지역에는 하이퐁항과 석탄을 주로 수출하는 2개의 소규모항이 있고, 중부지역에는 원목과 열대성 작물을 주로 취급하는 다낭항과 2개의 소규모 항, 그리고 남부지역에는 베트남 최대의 상업항인 사이공과 원유수출항인 붕타우항 등이 있음. 남부의 사이공, 다낭항은 전쟁으로부터 큰 손상을 입지 않은 상태이며 깜란, 냐쟝, 쿠이뇽항 등은 모두 호지민시와 고속도로로 연결됨.

o 베트남 항만의 문제점은 항만입구의 수로에 진흙 등이 퇴적돼 큰 선박의 접근이 어려우며 화물처리가 늦다는 것임. 정부는 항만입구의 준설작업에는 매년 평균 150만 달러를 투입해야 하며, 향후 2000년까지 1,800m의 추가적인 도크와 5만

6,300㎡의 창고, 11만 6,000㎡의 저장시설이 건설돼야 한다고 밝힘.

(1) 북부지역

○ 최대항구는 하노이의 관문인 하이퐁항(78,000㎢의 면적)으로서 수출되는 주요 품목은 철강, 석탄, 시멘트, 카페트, 수공예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기계, 소비재, 그리고 남부에서 생산되는 쌀 등임. 이 항구는 국제무역항, 국내상업항, 그리고 여객항 등 세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간조시 수심은 4m이고 강폭은 10m로 수심이 얕은 실정임.

○ 하이퐁 항구지역은 12㎞에 달하는데 3개의 큰 항구와 하롱의 운송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간 하역량은 300~400만 톤이며, 4개의 부두가 있음. 츄아 베 항구는 두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츄아 베와 도안 싸는 3개의 5,000㎡ 용량의 정박창고와 32,000㎡의 운송면적을 가지고 있음. 도안 싸는 330㎡의 하역면적과 10,000㎡의 컨테이너 저장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철도와 연결되어 있음. 바트 까익항구에는 작은 선박과 특별 페리(LASH)를 위한 200m의 정박지가 하나 있으며 운송페리를 위한 61m 길이의 정박지도 두개 있고, 그외 석탄 및 다른 농업재료를 위한 5개의 터미널이 있음. 혼 호트 하롱 항구는 주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짐을 일부 내림으로써 대형 선박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 하이퐁항은 하노이로 연결되는 도로 및 철도시설이 열악하고 운송수단이 부족하여, 화물수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부두에는 16톤급 크레인이 설치된 일반화물선 선석이 19개나 있으며 총길이는 2,500m에 달하나 선석근처의 갯벌로 수심이 4m밖에 되지않아 대형선박의 접안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약 700만㎡가량의 갯벌을 준설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됨. 80~100톤급 기중기선은 하루 60톤정도 밖에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3~5톤 포크리프트도 60여개 있으나 모두 낡았음. 모빌크레인과 트랙터 같은 부두작업설비도 부족한 실정이며 30개의 창고가 있으나 관리부족으로 불량한 상태임. '90년말 현재 컨테이너 처리능력은 4,000TEU이며 '93년은 6만TEU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하이퐁항의 처리능력이 한계에 달하자 북동쪽 60㎞에 위치한 카이란만에 170m의

선석을 갖춘 신항(수심 10m)을 건설중이며, 근처에 수출자유지역도 건립할 예정임. 새로운 항구의 건설 및 항만시설의 현대화는 북부 경제개발에 있어 선결할 과제임. 하이퐁항의 북동부에는 석탄 수출항인 캄파항과 홍가이항이 있는데, 각각 12,000톤급과 5,000~7,000톤급 선박이 출입할 수 있음.

(2) 중부지역

○ 다낭항은 중부 고원지대에서 생산되는 원목을 비롯한 타피오카, 자단, 계피 등 열대성 작물의 수출과 라오스와의 대외교역항구로 이용되고 있음. 원목수출은 연간 3,000톤에 달하며 총취급물량은 연간 100만톤에 이름. 다낭항은 국제항, 국내항 그리고 군항 등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 국제항은 총 500m에 달하는 2개의 선석(8m)이 있으며 5,000톤 이상의 선박도 정박할 수 있으나 부두 및 하역시설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국제항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음.

○ 중부지역에는 다낭항 이외에 퀴논항과 냐장항이 있는데, 이 두 항구는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작은 항구들로서 각각 2개의 선석을 가지고 있음. 이외에 석탄수출을 위한 특수항이 광린지역에 건설되어 있는데, 연간 2만톤의 물량밖에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부지역의 석탄수출증진에 큰 애로를 겪고 있음.

(3) 남부지역

○ 사이공항은 카인호이, 탄투안, 나롱 등 3개의 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카인호이가 주요항으로서 12개의 도크와 대규모 창고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사이공항의 부두시설, 하역시설, 보관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편임. 사이공항까지 입항하기 위해서는 롱떠우강의 좁고 굴곡이 심한 수로를 거쳐야 하므로 2만톤급 이상의 대형선박의 입항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나 5만톤급 이상의 선박도 정박가능하며 최근 입항선이나 화물처리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사이공항은 남부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역을 해외와 연결시켜 주는 가장 큰 관문으로 부두의 총길이는 2,300m임. 컨테이너 야적장의 면적은 11,000㎡이고 창고는 매우 크며, 포크리프트와 같은 현대식 장비를 갖추고 있어 작업시설이 비교적 좋은 편임. 그러나 컨테이너 작업설비, 고가이동 기중기, 해상기중기 등의 최신

장비들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고 운송시설도 상당히 불량하며, 기차역도 2㎞나 떨어져 있어 화물운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90년말 현재 컨테이너 처리능력은 5,000TEU이며 오는 '93년 까지는 12만TEU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사이공 항구에는 최고 2만5천톤급의 선박도 출입이 가능한데 연간 처리물량은 '87년 270만톤에서 '90년 약 600만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물량이 수출물량보다 2배정도 많음. 주요 수입품목은 비료, 기계설비, 운송장비 및 소비재 등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고무, 과일, 채소, 쌀 등의 농산품, 목재가공품, 냉동수산품, 고철, 의류 등임. 북부 및 중부와의 국내교역물량도 상당하여 연간 50만톤에 달하며 주요 품목은 북부로부터 수송되는 석탄, 시멘트와 북부 및 중부로 수송되는 쌀, 비료 등임.

○ 현재 출입선박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향후 몇년 내에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므로, 기존 설비의 현대화, 최신장비의 도입 및 컨테이너 터미널건설 등으로 화물처리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이에 정부는 호지민 동남부 해안에 위치한 붕타우항과 티바이항에 최고 6만톤급의 선박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할 예정으로 있음. 티바이항 주변에는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며, 붕타우항은 주로 원유 취급항구로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라. 항 공

○ 항공운송은 베트남 민간항공총국 관리하에 베트남 항공(VN)이 담당하고 있음. 전국에 20개의 공항이 있고 국제공항으로서는 하노이의 노이바이공항, 중부 다낭공항('91년 확장 및 보수공사 실시), 호지민의 탄손넛공항('90년 1월 새로운 터미널이 완성 되었으나 개선·확장할 계획임)이 있음. 국내공항은 하노이~호지민시외에, 하노이와 호지민시에서 지방주요도시사이에 정기 항공노선이 개설되어 있음.

○ '93년 현재 베트남 항공은 외국 항공회사와 22개의 수송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베트남과 국제항공노선을 개설하고 운행하는 국가로 러시아, 체코, 프랑스, 독일,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캐나다, 홍콩, 한국 등이 호지민시, 혹은 하노이와 호지민시에 취항하고 있음.

○ '92년 3월 중국과 민간항공 운수협정이 조인되어 '92년 5월부터 광주~호지민시간에 항공로가 개설되었음. 한편 대만은 '91년 7월말부터 호지민시에 정기항공편 취항을 계획하고 있으나, 베트남측의 요구로 연기되어 아직 취항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표 Ⅲ-59〉 국내항공 이용 현황('90년)

도 시	운항횟수	취급여행자수
호 지 민	3,952	251,301
하 노 이	3,880	230,812
다 낭	834	51,514
총 계	8,666	533,627

〈표 Ⅲ-60〉 국제항공 이용 현황('90년)

도 시	운항횟수	취급여행자수
호 지 민	5,392	358,397
하 노 이	4,558	221,007
다 낭	60	1,333
총 계	8,666	533,627

8. 통 신

가. 개 황

○ 베트남 통신서비스는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모두 현재 베트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에 미흡하나 외국인 투자유치가 시작된 이후 서방세계의 통신위성에 힘입어 통신상황은 상당히 개선되어 현재 전화, 팩시밀리 등을 통한 국제교신이 가능함. 그러나, 통신의 속도와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 국제간 통신에는 텔렉스가 선호되고

○ '92년 3월 중국과 민간항공 운수협정이 조인되어 '92년 5월부터 광주~호지민시간에 항공로가 개설되었음. 한편 대만은 '91년 7월말부터 호지민시에 정기항공편 취항을 계획하고 있으나, 베트남측의 요구로 연기되어 아직 취항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표 Ⅲ-59〉 국내항공 이용 현황('90년)

도 시	운항횟수	취급여행자수
호 지 민	3,952	251,301
하 노 이	3,880	230,812
다 낭	834	51,514
총 계	8,666	533,627

〈표 Ⅲ-60〉 국제항공 이용 현황('90년)

도 시	운항횟수	취급여행자수
호 지 민	5,392	358,397
하 노 이	4,558	221,007
다 낭	60	1,333
총 계	8,666	533,627

8. 통 신

가. 개 황

○ 베트남 통신서비스는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모두 현재 베트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에 미흡하나 외국인 투자유치가 시작된 이후 서방세계의 통신위성에 힘입어 통신상황은 상당히 개선되어 현재 전화, 팩시밀리 등을 통한 국제교신이 가능함. 그러나, 통신의 속도와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 국제간 통신에는 텔렉스가 선호되고

있음. 호텔 등에서는 국제전화 혹은 팩시밀리 이용 등은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이며 한국과 1통화시(3분) 약 17달러 정도를 부과하고 있음.

〈표 Ⅲ-61〉 통신망 현황

기존서비스	현 황
전화서비스	· 수요충당 미흡 · 전화망 부실로 양질의 신뢰성있는 서비스를 제공못함
전화교환	· 가입자의 40%가 수동식 방법이며 통신망 취약 · 30%는 수동서비스임.
국가트렁크시스템 161,000㎞의 open wire	· 구식이고 믿을 수 없으며, 수리비가 많이 듬. · 태풍의 위험이 있으며 회선이 충분치 못함. · 305㎞의 Sysmmetrical coaxial 케이블 및 Symmetrical 트렁크 케이블 Coaxial 케이블은 양호한 상태
국제망연계 (Lotus 1 및 2 인터스프트니크)	· CMEA와의 26개 전화 및 26개 전보회선은 양호한 상태이며 양질의 서비스 제공기대
Vista 지구중계소 (인텔세트)	· 시드니를 경유 28개의 전화선과 9개의 전보선공급 (용량이 큰 Standard A 및 Standard B로 대체예정)
국 가 전 보	· 이용이 많음. · 대도시는 기계식 전보, 농촌은 표준 fax(bureaufax)로 대체중
Bureaufax 및 텔리팩스	· 13개의 우체국에 설치 · 일부 텔리팩스 서비스가 가동중이나 비효과적임.

o '90년 현재 전화보급대수는 14~15만대로 전화보급율은 인구 100명당 0.32대로(약 300명당 한대꼴) 전화의 보급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경제개발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현재의 베트남 경제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최소 4배의 전화보급망

증대가 필요함. 전화망의 부족으로 인해 기존의 전화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며 적어도 기존회선의 10배의 증설이 필요한 실정임. 그외 충분치 못한 질, 설비부족으로 인한 단선, 수동교환 연결시간대 및 서비스의 제한 등으로 통신시설이 부족하며 특히, 공중전화 시설이 부족하여 개인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o '87년 이후 호주는 위성지구국을 설치하는 등 통신망 확충사업에 크게 기여하여 호텔에서도 직접 혹은 신청을 통해 수분안에 국제전화를 할 수 있게 됨. 국내전화는 미터기로 측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내요금은 하노이에서 약 500동을 부과하고 있으나, 호텔에서 이용시 시내전화의 경우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요금체계는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나. 개발정책

o 정보 및 자료의 교환 개선여부에 경제분야의 개발이 좌우되는 것으로 통신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함. 국내외 교역, 대규모 공공사업관리, 천연자원의 이용, 은행경영, 항만 운영, 항공화물의 수송 등의 여러분야가 모두 보다 개선된 통신으로 인해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문임.

o 우정 · 통신국(The General Directorate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 GDPT)은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네트웍의 확충 및 개선작업을 하고 있으며 가득외화는 최신장비 도입을 위해 적립하고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가용투자재원(특히 외화)은 꼭 필요한 것만 단편적으로만 구입하는 실정임. 현대식 자본재장비 구입에 외국의 도움과 새로운 기술을 소화하기 위해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 · 지식 이전을 필요로 함.

o 특히, 다음 분야에서 외국의 원조를 기대함. ①GDPT 디지탈 연구소가 현대적 디지탈 기술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기술 습득을 가능하도록 하는 추가적 지원,

②기술요원들을 교육시키는 것 이외에 GDPT 기술 교육원이 새로운 기술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기반 마련, ③통신기획 기술을 개발하고 통신종합계획 및 사업전략을 준비할 수 있도록 GDPT를 도와주는 것 등임.

○ 통신증대전략은 자본집약적인 사업이면서도 이 분야에 종사하는 기존 인력이 감소되는 일이 없으므로 노동집약적인 프로젝트(광섬유 케이블 매설 등) 분야에 관련요원들을 보강시키고, 통신서비스 부문 및 공급산업을 구축하는 분야에서 외국의 단독투자 또는 GDPT와의 합자사업으로 통신프로그램을 전개하려고 함.

○ 통신부문의 투자는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하노이 및 호지민시에서는 인텔세트를 이용하여 시드니를 연결시키는 2개의 송신소를 호주의 도움으로 설치함. 서비스 개시후 투자자본이 1년내 회수되고 외화까지 벌어들이므로, 정부는 향후 10년동안에 걸쳐 각 전화국에 국제전화 교환시설을 설치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총투자 금액 미화 2,000만 달러)을 마련하고 외국의 원조를 기대하고 있음.

〈표 Ⅲ-62〉 통신개발 내역과 계획('90년)

지 명	서 비 스 내 용
하노이 호지민	· 인텔세트 스탠다드 A 지상중계소 설치로 국제통신망과의 연계 · 신 텔렉스 교환시설 · 국제통신과 자동연결되는 새로운 디지탈 전화게이트웨이 교환대 · 디지탈광화이버 또는 디지탈 라디오 Backbone 트렁크
다 낭	· 인텔세트 스탠다드 B 지상중계소 설치로 국제통신망과의 연계
하이퐁	· 신 텔렉스 교환시설
주요지방도시	· 점진적인 디지탈 전화교환기의 설치

○ 2005년까지의 목표는 ①인구 100명당 2~3대의 전화공급, ②모든 도시에 양질의 통합 디지탈네트웍(IDN) 서비스 제공, ③양질의 국제전화 연계, ④대도시에 텔렉스 서비스의 충분한 공급, ⑤전국의 우체국 및 요청하는 전화가입자에 텔렉스 서비스제공, ①전국적인 데이터 전송네트웍 구축 및 국제망과의 연계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9. 건 설 업

가. 개 황

○ 오랜 전쟁과 재원부족으로 건설시장 규모는 매우 협소하나 '91년도 기준, 건설시장(건축, 토목에 한함) 규모는 GDP의 4.4%를 구성하는 6.3억 달러 수준임.

〈표 Ⅲ-63〉 GDP와 건설시장 규모

(단위 : 억달러)

구 분	1989	1990	1991
GDP	133.8	137.0	140.4
GDP 구성비	4.0	4.7	4.4
건설업	-	6.4	6.3

주 : 경상가격으로 산출, 1990년도 $ 1=5,200동

○ 현재까지 건설부문의 비중은 낮으나, 미국의 대베트남 금수조치가 해제될 경우 주요 도로, 항만 등 낙후되어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 개발과 원유, 석탄 등 천연자원 개발이 외국의 원조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됨. 베트남 정부는 건설분야 투자 및 유망 사업으로 ①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인 통신망 구축과 국제공항 및 항만건설,

○ 2005년까지의 목표는 ①인구 100명당 2~3대의 전화공급, ②모든 도시에 양질의 통합 디지탈네트웍(IDN) 서비스 제공, ③양질의 국제전화 연계, ④대도시에 텔렉스 서비스의 충분한 공급, ⑤전국의 우체국 및 요청하는 전화가입자에 텔렉스 서비스제공, ①전국적인 데이터 전송네트웍 구축 및 국제망과의 연계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9. 건 설 업

가. 개 황

○ 오랜 전쟁과 재원부족으로 건설시장 규모는 매우 협소하나 '91년도 기준, 건설시장(건축, 토목에 한함) 규모는 GDP의 4.4%를 구성하는 6.3억 달러 수준임.

〈표 Ⅲ-63〉 GDP와 건설시장 규모

(단위 : 억달러)

구 분	1989	1990	1991
GDP	133.8	137.0	140.4
GDP 구성비	4.0	4.7	4.4
건설업	-	6.4	6.3

주 : 경상가격으로 산출, 1990년도 $ 1=5,200동

○ 현재까지 건설부문의 비중은 낮으나, 미국의 대베트남 금수조치가 해제될 경우 주요 도로, 항만 등 낙후되어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 개발과 원유, 석탄 등 천연자원 개발이 외국의 원조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됨. 베트남 정부는 건설분야 투자 및 유망 사업으로 ①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인 통신망 구축과 국제공항 및 항만건설,

②대리석, 화강암 채굴 및 가공, 벽돌, 유리, 시멘트 생산 등 건설자재 생산, ③호텔건설 등 관광산업, ④석유탐사 및 개발, 석유화학, 전력 생산 등 에너지 분야의 건설을 설정하고 외국투자자를 유치하고 있음.

○ 건설관련 정부 부처는 건설부, 무역관광부, 통신·교통부, 노동부, 중공업부, 에너지부 등이 있음. 양질의 노동자를 확보하기가 용이하나 관리자와 기술자는 부족상태이며 베트남 정부는 외국기업이 현지인에게 지급한 임금의 70%를 정부가 회수함. 인력고용 방법은 현지노동국이 소개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근로자 공급회사 또는 투자서비스 회사에 모집을 위임시켜 고용할 수 있음.

○ 베트남 정부가 인가한 외국계 기업과 합작경영자가 베트남 역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 수면 및 해면을 이용하려 할 경우 SCCI와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최장 임차계약 기간은 20-50년이며, 기간 만료후 연장이 가능함. 기업은 토지, 수면, 해면에 대한 임차신청을 늦어도 사용개시 한달전에 관계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다시 신청하여야 함.

나. 현지 및 외국업체 활동 현황

○ 현지 건설업체는 과거 수년간 지방에 많은 주택을 건설하여 상당히 발달되어 있으며, 건설업체는 지방정부의 자금으로 조직되어 있음. 외국업체의 진출현황은 호텔 개조 및 건설의 38개 사업에 총 4억 1,300만 달러를, 수송·통신분야의 31개 사업에 2억 5,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음. 프랑스, 카나다,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자원개발과 무역센타, 호텔 건설 등 관광·서비스 분야의 대규모 투자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만, 홍콩 등 아시아 국가는 소규모 프로젝트에 진출하고 있음.

〈표 Ⅲ-64〉 외국인 투자현황('91년 9월 현재)

부 문	사업수	총투자금액	점유비(%)
		(백만달러)	
호텔개조 및 건설	38	413	18.0
건설자재	10	11	0.5
석유·가스	13	598	26.0
수송	28	164	7.1
통신	3	87	3.8
무역, 무역센타	7	66	2.9
기타	183	956	41.7
합계	282	2,295	100.0

○ 한국업체로는 '66년 1월 대림산업이 라짱항만 공사를 85만 1천달러에 최초 수주한 이래 총 142건 공사를 8,331만 4천달러에 수주하여 시공한 바 있으나, '75년 4월 월남패망 이후는 수주가 없었으나, 현재 여러 업체가 수주 중임.

○ 한편, 국제정세에 따른 장애요인인 서방국가의 대베트남 경제제재조치로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관 도입이 지연되는 등 진출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였으나 최근의 국제정치의 변화로 세계은행은 연간 3억달러를 3~5년에 걸쳐 지원할 예정으로 있음. 국제금융기구는 중점지원 분야로 항만과 도로 건설 및 개·보수, 전력사업을 정하고 집중 투자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사회주의 체제의 장기간 지속으로 경제거래 관행 및 법령이 다른나라와 상이하여 건설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경직된 행정체제로 각종 인허가시 장기간 소요되는 등 체계 및 관행의 상이점이 큼. 따라서, 정보 및 경험의 부족, 경화부족으로 인한 재원부족, 숙련된 기술인력이 부족하므로 현지하도급시 하청업체 선정과 공사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

다. 건설환경 및 프로젝트 현황

1) 제도 및 환경

○ 베트남은 현재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을 비롯한 각종 공사에 참여하는 방법 등 각종 건설제도와 관련된 법규의 정비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짐. 건설업계의 시공능력은 상당한 수준이나, 설계, 감리 등 기술적인 분야와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능력이 부족하여 선진 외국 기술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

○ 건설부문 종사원은 약 31만명이며 공무원 및 국영 기업직원이 1만명, 건설분야 종사자 30만명임. 건설부는 도시, 주택, 건설사업, 건설기술, 건설자재, 시공관리제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수자원부는 관개, 배수 등 주로 농업용수자원 개발계획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음. 전력수급계획, 발전소 건설계획 수립 및 집행은 에너지부에서, 교통통신부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관련 건설업무를 담당함.

2) 메콩강 개발계획

○ 메콩강 개발계획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57년 UN 주도하에 UN 메콩강 위원회가 설립되었으나 '75년 인도차이나 반도 적화이후 태국의 참여계획이 백지화됨. '80년도에 들어서는 캄보디아 문제로 관계국간 긴장상태 지속으로 계획추진이 지지부진하였으며 UN 메콩강 위원회가 UN 메콩강 잠정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

○ 캄보디아 사태의 평화적 해결가능성 확대로 관계국의 개발계획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중국, 미얀마, 캄보디아 등의 참여의사 표명으로 전망은 밝음. 개발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UNDP 주관으로 이미 완료되어 90개 프로젝트가 마련되어,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가 '93년 후반기에 해제될시 각종 개발자금의 대규모 유입이 예상됨. 다음은 이 계획의 주요 내용임.

〈표 Ⅲ-65〉 메콩강 개발계획 개요

구 분	내 용
관련국가	베트남,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6개국)
사업내용	메콩강 본류 및 6개 지류에 80여개의 댐을 건설하여 관개면적을 30만 ha에서 200만 ha로 확충
기대효과	메콩강 수량조절 능력확보로 자연환경보호, 경작지 확대, 전기공급을 통한 공업단지 조성 및 수로교통지 확보
기 타	메콩강은 총연장 4,305㎞, 유역면적 79만㎢

3) 기타 개발계획

○ 대부분의 사회간접자본 건설계획은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나, 정부관계자들이 거론하고 있는 운송망 구축관련 프로젝트와 베트남정부가 IBRD, ADB등 국제기관에 신청한 차관사업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자금으로 교량, 도로, 건축물의 복구공사를 추진할 경우 건설시장 규모는 1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임.

○ 베트남이 '95년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14억 달러의 자금조달을 계획하고 있음. 이중 세계은행의 프로젝트 융자 가운데 간선도로정비(하노이-빈시, 호지민-칸트시, 2구역 1억4천만 달러) 사업은 사전조사를 마쳐 융자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ADB로부터는 간선도로정비(호지민-냐짱시, 9,700만 달러), 사이공항 개수(3,600만 달러), 북부에서의 수리시설 정비(6천만 달러)등 5개 안건, 총액 3억7,300만 달러의 조달을 예정하고 있음.

〈표 Ⅲ-66〉 운송망 구축관련 프로젝트 현황

구 분	내 용
고속도로 보수	· 호지민과 붕타우간 70㎞의 도로 확장 · 개수 · 하이퐁과 하노이간의 106㎞에 달하는 5번 고속도로의 보수 · 남과 북을 연결하는 1,700㎞의 1번 고속도로의 보수
교량건설	· 메콩강의 주요 지류인 티엔사강의 교량건설
공항건설	· 붕타우 근교에 새로운 공항건설

〈표 Ⅲ-67〉 국제금융기구에 신청중인 프로젝트 현황

구 분	내 용
IBRD	· 하노이 : 하노이 · 호지민시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300㎞, 7천만달러 · 호지민 : 칸토간 도로확장 · 개선공사, 200㎞, 5천만달러 · 호지민 : 냐쟝간 도로공사, 440㎞, 9천 5백만달러 · 하노이 : 하이퐁 도로포장공사, 100㎞ · 홍가이 : 항만 개발 · 붕타우 : 호지민간 도로 · 하노이 : 노이바이공항간 도로, 14㎞
A D B	· 홍하델타 지역 개발사업 · 호지민 항만개발 사업 · 호지민시 상수도 공사 · 호지민시 전기공사 · 철도공사 · 교량공사

Ⅳ. 개 발 원 조

1. 원조 현황

가. 배경

○ '75년 남북통일 이후 서방측의 원조는 미국측이 주도하는 금수조치로 상당히 제한되어 왔음. 이에 베트남은 '78년 6월 구소련을 중심으로한 공산권 경제상호원조위원회(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cstance : CMEA) 가맹국가간 경제협력체제를 유지하여 왔음. '78년말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침공으로 스웨덴, 핀란드, 인도등을 제외한 서방국가와 중국으로부터의 차관도입 중지 및 원조 중단 때문에 경제원조·협력을 전적으로 소련에 의존해 왔음. 따라서, '80년대는 공산권국가들로 부터 원조를 받아왔는데 '88년과 '89년에 약 16억루블의 차관이 주로 구소련으로부터 제공되었음. '87년 이후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국가와 IMF로부터의 원조·차관이 재개되었음.

○ '89년이후 동구권국가의 몰락과 소연방 붕괴에 의해서 소련원조는 사실상 '90년에 중단되었고 동구제국과의 협력관계도 약화되었으며, '92년에는 이 모든 원조가 급격히 줄어들었음. CMEA를 제외하고는 각종 UN기관, 스웨덴, 핀란드, 호주, NGO 등이 주로 원조를 제공했으며, 최근에는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호주, 한국, 일본이 양국간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를 재개하였음. 중국 및 ASEAN 국가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제한적이나마 원조를 다시 시작하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o 자본과 외환이 부족하여 대규모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자 '88년 1월 1일부로 외국투자법을 공포, 외국자본의 도입과 합작기업의 설립을 통하여 외국과의 새로운 경제협력관계의 발전에 노력하여 왔음.

o 베트남에 대한 외국의 총괄적인 원조조정 작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계획위원회 (State Planning Committe : SPC)는 2000년까지 향후 10년간 경제 사회개발을 위해 약 400~50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필요로 한다고 밝힘. 정부는 이 금액중 50%(200~250억달러)는 국내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50%는 외국인의 직접투자와 정부개발원조(ODA) 형태의 외국원조를 기대하고 있음.

o 이를 위해 베트남 정부가 사용하려는 투자재원 조달방법은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첫째, 석유개발 등 자원개발부문을 외국에 개방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빅 베어유전과 같은 프로젝트에 외국기업의 경쟁을 유도하여 일정한 외화유입을 기대하고 있음. 둘째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를 통한 재원조달로 이는 베트남의 중요한 경제문제인 실업율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 셋째, 선진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스웨덴, 핀란드, 네델란드, 덴마크, 일본 및 선발개도국인 한국의 정부개발원조를 기대하고 있음. 넷째는 대외무역을 통한 외화조달로 농업과 공업, 석유산업의 발전을 통해 수출을 증가시켜 서방세계와 교역 확대로 외화 획득, 다섯째, 국제금융기관을 통한 차입으로 IMF, IBRD 및 ADB 등으로부터 '95년까지 14억 달러의 자급조달 계획을 세우고 있음.

o '92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2억 달러의 외국원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향후 5년간 연간 7억~10억 달러의 외국원조를 바라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미국의 경제제재조치 완전해제와 동시에 국제금융기관의 차관이 확대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임.

o 세계은행(World Bank)은 대외여건이 허락되면 '93년도 부터 5년간 매년 3~5억 달러를 항만 및 도로건설, 에너지 등의 분야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음. 세계은행은 이를 위해 경제 · 사회 및 각 분야의 기초조사를 이미 끝내고, 투자 우선순위 선정과 분야별 원조액수를 정하고 있음. 특히, '93년(11월) 파리에서 개최되는 Donor's Conference인 베트남 지원그룹회의(CGM : Consultative Group Meeting)를 UNDP, SPC와 함께 개최할 예정이며, 동회의에 제출할 프로젝트 목록을 UNDP가 작성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93년 8월중 발간될 예정임.

o UNDP의 권고로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통합된 원조조정 기구인 SPC로 하여금 외국 원조기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조가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이를위해, SPC가 중요한 역활을 하여 왔으나, 현재는 수상실(Government Office)이 국가 발전에 중요한 원조회의 혹은 프로젝트에 직접 관여하여 SPC의 활동과 진척여부를 감독하고 있음.

o 외국원조와 관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 MOF)와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 MOFA)등 관련부처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으며 SPC의 위상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베트남은 '93년 11월 파리에서 개최될 첫 원조회의에서 외국원조기관들이 베트남측이 제시한 프로젝트를 선정 · 추진하므로써, 중복투자 혹은 우선순위가 낮은 분야 투자를 억제할 방침임.

o 이로 인해 농업식품공업부, 산림부 및 교육부 등 우선 순위가 밀리는 부처에서는 각국의 원조기관이 프로젝트지원 혹은 원조에 관하여 직접 담당부서와 회의를 갖고 원조국이 직접 공여하여 주기를 원함. 호주, 스웨덴, 프랑스 등은 원조효과가 널리 파급될 수 있는 교육, 문화, 산림, 환경, 농업분야에 대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통일후 베트남을 떠나는 선상난민(Boat People)이 초기에는 문제가 되었으나, '78년경 부터 시작된 경제난민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음. 경제난민의 유출은 선상난민의 귀국이 진행되는 가운데 '91년도에는 홍콩으로의 유입이 계속 급증하였는데, 이는 유입한 난민중에 자발적 귀국난민에게 주어지는 현금을 겨냥 재차 홍콩에 유입한 자도 있기 때문임. 이는 EC의 자금지원으로 귀국자 정착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귀국자에게 일정액의 금액을 지불했기 때문임. 귀국자들은 주로 하이퐁을 비롯 구안닝, 호지민, 하노이, 구룽에 정착했으며, 북유럽 원조국가는 이들의 정착을 위해 130만 달러를 베트남에 원조하였음.

나. 현황

○ 서방선진국은 첫 대베트남 원조회의를 '93년 11월 파리에서 개최하기로 했음. 세계은행, UNDP가 주최하는 이 회의에는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10여개 선진국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의 참가여부는 아직 미정임. 이 원조회의에서는 국제금융기관과 주요 선진국의 협조융자, 법제도의 정비와 노하우 제공 등을 논의할 예정임.

○ '76년부터 '91년까지 비사회주의국가에 의한 양자간, NGO에 의한 원조총액은 약 64억달러 였으며, '90년 현재 UN기관의 총 원조액수는 7천 5백만 달러임. ODA 공여액은 '92년에는 약 2억 달러 상당인 것으로 알려짐. 다음은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대베트남 ODA 공여액 추이('76-'91)와 '90년 현재 UN기관의 원조현황임.

〈표 Ⅳ-1〉 서방 선진국의 ODA 공여액 추이

년 도	총 ODA 액수(백만달러)
1976	185.6
1977	247.6
1978	369.5
1979	336.4
1980	228.5
1981	242.4
1982	135.5
1983	105.9
1984	108.8
1985	114.0
1986	146.0
1987	111.0
1988	148.0
1989	128.0
1990	164.0
1991	218.0
1992(1-11)	200.0

〈표 Ⅳ-2〉 UN기관의 원조현황('90년 현재)

기 관	원조금액(백만달러)
UNDP	32.6
UNICEF	11.6
WEP	11.5
UNHCR	10.6
UNFPA	5.6
WHO	2.5
FAO	0.9
총 계	75.3

○ '91년에는 UN, NGO를 비롯한 서방 각국에서 개발원조로 3억 1,600만 달러를 베트남에 공여하였음. 그중 73%는 양자간 원조(구소련,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에 의해서 24%는 다자간원조, 3%는 NGO에의해 제공되었음.

○ 구소련(CIS)은 '75년 베트남의 통일이후 가장 많은 원조를 제공하였으며, 원조액수는 사회주의국가 원조의 70~80%를 차지하였음. '75년~'88년 사이에 구소련은 총원조금액 276억 달러중 46.6%인 128억 5,500만 달러를 원조하여 왔으며 '85년 이후에는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여 베트남 경제·재정을 지탱시켜 왔음. 그외 동독·체코·폴란드를 비롯한 동구권 국가는 '75년부터 '88년까지 22억 7,800만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였음. 다음은 연도별 원조현황임.

〈표 Ⅳ-3〉 소련 및 동구권 국가의 원조추이

(단위 : 백만달러)

년 도	소 련		동구권 국가	
	베트남원조	원조총액	베트남원조	원조총액
1975	500	1,185	120	125
1976	500	1,200	142	192
1977	500	1,200	142	152
1978	500	1,225	142	152
1979	750	1,490	142	152
1980	458	1,552	150	310
1981	900	2,071	150	330
1982	950	2,112	180	370
1983	901	2,114	180	370
1984	914	2,190	180	370
1985	1,056	2,261	180	370
1986	1,457	2,695	190	391
1987	1,811	3,271	190	391
1988	1,658	3,036	190	391
총 계	12,855	27,602	2,278	4,066

주 : 동구권 국가는 주로 동독, 폴란드, 체코 등임.

○ 다음은 '75년 남북통일 이후 주요 국가의 연도별 대베트남 원조를 정리한 것임.

〈표 Ⅳ-4〉 주요 국가의 원조내역 및 지원규모

국 가	시 기	주요 지원계획 및 지원규모
스 웨 덴	'76년 이후	-매년 원조를 실시하였으며 원조액은 3억크로나 전후임. 제지공장 건설과 운영, 소아과 및 종합병원 건설, 상품수입 대금 지원 및 도즉크 화력발전소 보수, SIDA를 통한 의료, 교육 부문지원 및 산림 녹화와 소수산악민족 이주정착지원
	'90년	-'90~'91년 회계연도 3억 크로나 원조 -'90~'92년 양국협정에 조인함. 6억크로나 상당의 무상원조 추가
	'91년	-'91~'96년 사이에 양국간 임업협력계획에 따라 매년 1억 크로나씩 원조
핀 란 드	'74년이후	-후안즈 선박수리소 건설과 하노이와 하이퐁의 상수도 건설 및 수송부문 개선에 차관과 원조공여
	'86년까지	-원조총액 4억 마르크
	'91년	-하노이 상수도 공급계획 협정 -'92~'95년사이에 개발원조공여 2억8천만 마르크 상당
프 랑 스	'77년	-개발계획에 필요한 재원공여 시멘트, 제지, 방적, 제당, 제재산업 등 프로젝트 지원 6억7천만 프랑의 유·무상원조
	'81년	-섬유, 제당, 보일러 공장등 부품제공 및 자본재 수입 2억 프랑 차관
	'87년	-농업프로젝트에 2천만 프랑 원조공여
	'88년	-밀 무상원조('88년~'90년)
	'89년	-농업용 무상공여 500만 프랑
	'90년	-4,500만 프랑 무상원조
	'91년	-산업, 상수도 프로젝트와 콘크리트 수도관 생산 및 재정분야 인력연수 9,500만 프랑
	'92년	-베트남의 상수도, 전화, 교통, 통신시설 등 약20개의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 프로젝트 1억 5,800만 프랑(3,000만 달러)의 원조제공 약속
네덜란드	'91년	-농업생산에 양자간 원조 850만 길러 -FAO를 통한 다자간 원조 450만 길러 -채무 260만 길러(약150만 달러)면제 -비료·농산물 구입용 700만 달러 상당의 차관공여

〈표 Ⅳ-4〉에서 계속됨.

이탈리아	'89년 말	-'90~'92년 3개년간 협력협정에 조인 1억 4,400만 달러(1/4은 무상원조)공여 -양국경제합동회의에서 3년간('92~'94년) 경제협력계획에 합의 -유·무상원조 및 기술협력 자금을 포함 약 8,500만 달러 지원 합의
덴 마 크	'91년	-6개 원조 프로젝트의 예비부품 구입용 1,000만달러 공여 각서 조인
독 일	'90년 '91년	-기술개발분야에 700만 마르크 상당의 원조 -도즉크 기술훈련 전문학교 지원 -1,000만 마르크 원조공여 의정서에 조인
호 주	'87년이후 '90년 '91년 4월	-INTELSAT 위성통신 지상국 건설원조 -국제통신망 개발원조 계약지원 2억800만 달러 -석유제품, 의류, 상하수도, 교육, 기술훈련 부문 4년간 1억 달러의 직접원조 합의
미 국	'91년 3월	-연간 300만 달러 이상의 인도적 원조 약속
일 본	'92년 7월 '92년11월	-베트남 지방당국의 홍수조절과 농업개선지원 608만엔(50,200달러)의 첫 원조 제공 -455억엔(3억 6,900만 달러)의 장기개발 차관제공 결정, 이전에 제공된 차관의 상환과 일본산 제품수입에 사용. 차관조건은 10년거치 30년분할상환, 이자율은 연 1%임. -일본내 6개 은행도 235억 엔에 달하는 단기차관 제공을 계획중.
대 만	'91년 7월 '91년 8월	-베트남 중소기업 지원목적 해외경제협력개발기금(OECDF) 1,000만달러의 차관을 베트남 중앙은행에 제공할 것을 대만경제부가 승인 -베트남의 도로건설 및 소규모 민간기업 육성 4,000~4,500만 달러의 저리차관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중 국	'91년12월	-1,400만 달러의 차관제공 합의

2. 국제기구에 의한 원조

가.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은 '78년 하노이에 사무소를 개설하였으며, 이어서 베트남 현지인으로 구성된 연락대표부도 호지민에 설치하였음. UNDP는 현재 4차에 걸쳐 Country Programme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원조를 집행하여 왔으며 〈표 Ⅳ-5〉는 프로그램의 주요 사업 내용임.

〈표 Ⅳ-5〉 UNDP의 베트남 프로그램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금 액	내 용
'75~'76	6.7	-기초 지원
제1차 국별프로그램 '77~'81	44.0	-기초 및 응용과학기술 배양 및 연구소지원 · 국립농업계획 및 예측 연구소 · 임업과학연구소 · 수력발전연구소
제2차 국별프로그램 '82~'86	64.9	-과학정보망 형성 · 민간항공 훈련센타 · 수문기상학연구소 -발명특허정보센터 개발 -표준화 및 QC(Quality Control)개선 · 해외기술, 경영관리교육 및 훈련실시 : 6,000명 국내세미나, 워크샵, 현장직업교육 실시 : 100,000명
제3차 국별프로그램 '87~'91	113.5	-제도구축 · 과학 및 기술의 응용, 인력 및 경제개발 · 식량생산 및 기본 생필품 충족 · 천연자원 부존현황 및 이용실태 파악 · 산업 및 기타투자 효율성 제고 · 국제무역 개발 -산업분야별 조사 및 종합계획안 작성 · 농업, 교육, 관광, 메콩델타 종합계획, 임업, 통신, 우편, 홍하델타 종합계획, 공업, 수송, 민간항공, 에너지
제4차 국별프로그램 '92~'96	86.6 ('92.6 현재 추가 재원 확보 노력 중)	-지방분산 및 시장경제 원리도입 · 경제구조 개혁지원 · 경제성과 · 강화 · 주요 인력개발분야 지원 ·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도심으로 부터 내륙이주 및 산악 소수민족의 이주정착 산업

o 구체적인 원조로 베트남의 금융제도 및 체제의 개선 ·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에 조인하였음. 동 프로젝트는 IMF에 의해 작성되어 베트남 재무부와 국가은행이 공동으로 실시하되 UNDP가 191만 7,750달러를 출자하고 베트남 정부는 1억 8,1200만동을 출연함. 이 프로젝트는 자유화된 거시경제의 틀안에서 주요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활동을 강화하므로서 정부의 경제개혁계획을 지원할 목적으로 하고 있음. 활동 분야는 은행제도의 개선, 예산 및 세입 · 세출관리(국고운영의 제도 포함), 재정 · 금융통계, 국영기업의 재무감독, 부채관리, 재정정책의 운용과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o 하이퐁의 소규모 경공업과 수공업의 기술원조 개발에 관한 프로젝트를 조인하였음. 외국무역전략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프로젝트 VIE/89/024를 조인하여 다양화하며 확대일로에 있는 국제무역을 고려한 베트남 경제개혁을 위한 계획에 기술협력지원을 제공함. 이 조사의 결과와 권고는 베트남 외교무역 전략의 근거로 제공될 예정임. 또한 UNDP는 베트남 노동정책을 다루는 프로젝트에 17만달러를 원조(18개월간)하였는데 이 프로젝트는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에 의해 실시되고 있음.

o UNDP는 에너지 프로젝트에 1년 기간으로 세계은행의 전문가를 베트남에 파견하여 베트남측 전문가와 함께 에너지 분야의 협력투자 전략을 연구할 에너지투자 프로젝트와 우편 · 통신분야 관련된 두개의 프로젝트를 조인하였음. 그외 국가관리하에 있는 시장경제계획에 대한 국가계획위원회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고자 국가계획위원회와 기술원조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음. 〈표 Ⅳ-6〉은 최근 UNDP와 베트남측간의 분야별 프로그램 현황임.

〈표 Ⅳ-6〉 UNDP 주관하의 분야별 프로그램 추이

프로그램	실시기관	기관 및 현황
농업부문검토서	FAO, World Bank	'89년 착수 '91년 정부에 의해 승인됨
메콩델타 종합계획	World Bank, 메콩강위원회	'90년, '91년 11월 초안검토 '92년 11월 최종안 확정
홍하델타 종합계획	WB	'92년 승인, 3년간에 걸쳐 시행됨
산림분야 검토서	FAO, SIDA, NZ (WB, ADB, AIDAB, USSR 컨설팅참여)	'89년 시작 '92년 9월 확정
국가환경 실행계획	UNDP/UNEP, SIDA, WWF	'91년 8월 국가환경 실행계획이 확정됨
광업분야	UNIDO, WB	'88년 제조분야 기초연구가 실시되고 '91년 UNIDO의 최종 리포트 완성 '92년 WB의 공업분야 보고서 완성
수송분야 조사	UNDTCD, WB	'90년 10월 시작 최종 보고서 '92년 8월 제출
민간항공종합계획	ICAO	'92년 11월 최종보고서 완성
에너지 분야 검토보고서	WB, UNDTCD	'91년 7월 시작 '92년 8월 종료
예비 대외무역 전략안 (국제부역)	ITC	'91년 3월 시작 '92년 6월 완료
무역확대 프로그램	WB	'91년 12월 승인 '92년 9월 현지답사
관광종합계획	WTO	'92년 6월 정부검토중
우편분야검토서	UPU	'92년 6월 시작
통신분야검토서	ITU	'91년 9월 협정조인, '92년 10월 시작
도시상수공급	WB, UNICEP	'89년 시작, 초안완료
교 육	UNESCO	'91년 조사시작
이주정착	UNCHS, WB	'89년 시작, 사업종료

나. 기타

○ 국제연합안보이사회 제재위원회는 각국이 기술 및 재정적 원조를 베트남에 제공할 것을 주장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베트남에 금융원조를 고려하도록 세계금융기관(World Bank, IMF)과 지역은행(ADB)을 포함한 국제기구, 그리고 국제연합전문기구에 협조를 요청함.

○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 대표단은 베트남을 방문하여 호지민시에서 열린 베트남투자 포럼에 참석하여 UNIDO가 향후 베트남에 대한 협력과 원조를 계속 강화할 것을 밝힘.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은 베트남정부의 '91년~'95년 행동계획의 의료보건, 교육, 모자보건, 환경위생 등 분야에 5,500만 달러 상당의 원조를 약속함. 국제연합인구기금(UNFPA)은 '92년~'95년 사이에 대베트남 원조액을 3,600만 달러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음.

○ EC집행위는 '93년 7월 베트남수상의 브뤼셀방문시 양자간 협력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對베트남 관계개선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EC · 베트남간 협력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EC는 '90년 11월 베트남과 국교정상화 이후 꾸준히 관계개선을 확대, '92년 섬유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93년 초에는 베트남의 시장경제전환을 위한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EC는 베트남에 대한 경협지원도 확대해 '91년 1,650만 ECU, '92년 2,760만 ECU를 각각 제공하였음.

○ 베트남은 '95년까지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14억 달러의 자금조달을 계획하고 있음. 그 내역은 ① 국제통화기금(IMF) 4억 4천만 달러 ② 세계은행 5억 5천만 달러 ③ 아시아개발은행(ADB) 3억 7,300만 달러 ④ 석유수출기구(OPEC) 국제개발기금 4,300만 달러임. 그러나, 국제금융기관의 융자재개는 베트남이 INF에 지고 있는 1억 SDR(IMF 특별인출권, ISDR=약US$1.4) 연체채무의 변제가 전제조건인데 그동안 미국은 지금까지 대베트남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IMF채무변제를 위한 연체금 상환 추가융자에 반대해 왔음. '93년 7월 미국은 베트남의 IMF에대한 연체금사환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힘. 이로 인해 베트남은 국제금융기관과의 관계 정상화 뿐만

아니라 경제상황이 크게 개선될 전망임.

o 각 국제금융기관에서 조달을 상정하고 있는 자금의 내역은 IMF가 Standby credit 1억 1천만 달러와 확대구조조정융자 3억 3천만 달러(3년간), 세계은행은 구조조정융자 1억 1천만 달러와 프로젝트융자 4개 안건에 대한 4억 4천만 달러로 돼 있음. 세계은행의 프로젝트융자 가운데 ① 농업개발(1억 4천만 달러) ② 간선도로정비(하노이시-빈시, 호지민시-칸트시, 2구역 1억 1,400만 달러) ③ 초등교육확충(7천만 달러) 등 3개 안건은 사전조사를 마쳐 융자를 얻을 수 있게된 상태임. ADB로부터는 ① 간선도로정비(호지민-냐쨩시, 9,700만 달러) ② 사이공항 개수(3,600만 달러) ③ 북부에서의 수리시설 정비(6천만 달러) 등 5개 안건, 총액 3억 7,300만 달러의 차관을 예정하고 있음.

3. 서방국가의 원조

가. 미국

o '75년 월남이 패망한 후 대베트남 경제제재조치를 유지하여 왔으나, '87년 8월이후 민간차원에서의 인도적 원조를 실시하였으며 그 액수는 '91년까지 약 600만 달러에 달함. '92년 1월 태풍재난 구호원조를 위하여 2만 5,000달러를 공여하였고, 3월에는 솔로몬차관보 방베시 300만달러 공적인도원조의 공여를 약속함(의료, 의족, 고아구제, 풀브라이트 장학금 공여등 7개부문).

o 인도주의적 원조를 위해 미정부 당국자는 '91년 7월 베트남을 방문하여 100만달러 상당의 의족연구사업 실시에 관해서 협의하였음. 이 원조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에서 두개의 NGO(인도적 원조기관)를 통해 집행하였음. '91년 12월 하와이에서 World Vision과 베트남 노동·전상자·사회부 사이에 장애인 재활사업과 성형외과 원조계획에 관한 각서에 조인하였음. 이에 따르면, 빈, 다낭, 구안닝, 칸토에 성형외과와 재활센터 등 민간단체에 의한 병원 건설과, 다이호안, 구안가

아니라 경제상황이 크게 개선될 전망임.

o 각 국제금융기관에서 조달을 상정하고 있는 자금의 내역은 IMF가 Standby credit 1억 1천만 달러와 확대구조조정융자 3억 3천만 달러(3년간), 세계은행은 구조조정융자 1억 1천만 달러와 프로젝트융자 4개 안건에 대한 4억 4천만 달러로 돼 있음. 세계은행의 프로젝트융자 가운데 ① 농업개발(1억 4천만 달러) ② 간선도로정비(하노이시-빈시, 호지민시-칸트시, 2구역 1억 1,400만 달러) ③ 초등교육확충(7천만 달러) 등 3개 안건은 사전조사를 마쳐 융자를 얻을 수 있게된 상태임. ADB로부터는 ① 간선도로정비(호지민-냐쨩시, 9,700만 달러) ② 사이공항 개수(3,600만 달러) ③ 북부에서의 수리시설 정비(6천만 달러) 등 5개 안건, 총액 3억 7,300만 달러의 차관을 예정하고 있음.

3. 서방국가의 원조

가. 미국

o '75년 월남이 패망한 후 대베트남 경제제재조치를 유지하여 왔으나, '87년 8월이후 민간차원에서의 인도적 원조를 실시하였으며 그 액수는 '91년까지 약 600만 달러에 달함. '92년 1월 태풍재난 구호원조를 위하여 2만 5,000달러를 공여하였고, 3월에는 솔로몬차관보 방베시 300만달러 공적인도원조의 공여를 약속함(의료, 의족, 고아구제, 풀브라이트 장학금 공여등 7개부문).

o 인도주의적 원조를 위해 미정부 당국자는 '91년 7월 베트남을 방문하여 100만달러 상당의 의족연구사업 실시에 관해서 협의하였음. 이 원조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에서 두개의 NGO(인도적 원조기관)를 통해 집행하였음. '91년 12월 하와이에서 World Vision과 베트남 노동·전상자·사회부 사이에 장애인 재활사업과 성형외과 원조계획에 관한 각서에 조인하였음. 이에 따르면, 빈, 다낭, 구안닝, 칸토에 성형외과와 재활센터 등 민간단체에 의한 병원 건설과, 다이호안, 구안가

이, 후에에 지부를 설치하여 의족생산을 촉진시키는 것임.

○ 합법적으로 베트남을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82년부터 출국 계획이 시작된 이래 총 30만 2,691명이 출국하였는데 출국자중 10만 9,738명이 미국으로 향하였음. 이들 중 미국계 미국으로 혼혈아 4만 7,352명은 이미 미국으로 이주하여 혼혈아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음. '92년말까지 혼혈아의 출국계획을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21세 이상의 혼혈아를 받아 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있음.

○ 미국측이 '91년 4월 제시한 국교정상화 4단계 전략에 따라 수교가 추진 중으로 '92년 12월 미국정부는 미국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및 계약체결을 허가하였음. 정식 수교는 '93년중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USAID에 의한 유·무상 개발원조 및 각종 협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양국의 관계개선의 장애였던 베트남전쟁에서 행방불명된 미군병사(MIA) 수색문제가 베트남측의 협력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MIA 문제해결을 위해 미국관리가 하노이에 주재하게 됨에 따라 향후 경제 제재조치의 본격 해제나 미·베트남 국교정상화에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관측됨.

나. 일본

○ '75년~'78년 사이에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시까지 무상 90억엔 및 엔차관 100억엔을 제공하였음. '78년 4월 일본은 구월남 정부에 공여한 엔차관을 둘러싼 채권, 채무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78년부터 4년간에 걸쳐 160억엔의 무상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78~'79년간 200억엔의 저리 정부차관의 공여를 결정하고, '78년도분 140억엔(무상원조 40억엔, 상품차관 100억엔)의 공여가 실시되었으나, '79년도분(140억엔) 부터는 캄보디아 침공문제로 보류·동결상태를 유지하여 왔음. 그러나 '78년 이후 태풍재해와 병원, 대학 등에 대한 인도적 원조는 계속 실시하여 약 5억엔을 제공하였음.

○ 일본정부는 '91년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방침을 '91년 6월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대 일본연구센타를 베트남에 신설하였고 동시에 국비 유학생 및 연구생을 받아 드리는 연수생 초청사업의 확대를 통한 지적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외무성은 베트남과의 전문가 교류를 통하여 방치되어 있는 19세기초 구옌조의 고문서, 식민지시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정청의 고문서, 사이공 정부('65~'75년)의 고문서 등 3종류(80만-90만점) 보존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나까야마외상은 '91년 10월 캄보디아 평화협정에 조인한 후, 베트남이 안고 있는 대일 채무문제가 해결되면 경제협력을 재개하며, 개혁·개발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적·기술적 분야에서의 원조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표명하였음.

○ 베트남측은 일본기업에 대해 발전소의 신·증설계획에 자금 및 기술 등 광범위한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정부개발원조(ODA)와 민간경제협력에 의한 대베트남 경제원조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음. 특히, 베트남은 '2000년 GDP배가 계획' 필요자금중 일본측이 30~50억 달러를 조달해 주길 피력하였는데, 일본도 민간기업 진출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ODA공여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음.

○ 한편 일본의 ODA추진전망은 단기적으로 ①원조수용체제 정비 및 현대적인 제도구축(institutional building)을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한 연수생초청사업, ②국가개발계획 작성협력, ③태국에서의 3국연수실시 등(라오스, 캄보디아 포함) 인도적 차원의 무상 기술협력을 실시할 것임.

○ 장기적으로 미국의 대베트남 경제제재 조치해제이후 예상되는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 의한 융자가 개시될 경우 본격적 엔차관공여로 개발원조 및 유·무상원조를 실시할 것으로 보임. 여기에는 연간 2~6억불 수준의 ODA를 공여하여 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이를 통한 민간기업의 진출 유도에 쓰일 것으로 예상됨. 보 반 키엣트 수상의 '93년 3월 방일시 일본은 약 5억 달러 상당의 원조를 베트남에 제공키로 잠정 합의하였음.

○ '92년 11월 ODA제개 이후 일본 정부는 약 440억엔 차관을 전액 베트남의 경제구조 조정에 직접 기여하는 상품차관으로 결정하였음. 베트남은 현재 일본정부에 대해 약 220억엔의 ODA 채무를 안고 있는데 외화부족으로 상환이 어려운 상황임. 일본정부가 신규 엔차관을 공여하는 경우 베트남이 연체하고 있는 채무상환이 기본전제임.

○ 이 엔차관은 신규차관분 220억엔과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되는 220억엔으로 구성돼 있음. 이번에 제공되는 상품차관(United Loan)은 무기등을 제외하고 경제회복에 필요한 상품을 베트남측이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는 유상자금으로서, 자금의 상환기간은 통산 70년 거치, 25~30년에 걸쳐 지불하는 것임.

○ 다음은 '91년 이전의 베트남에 대한 무상협력(교환공문 base) 및 기술협력현황임.

〈표 Ⅳ-7〉 일본의 베트남 경제협력(무상)현황

(단위 : 천달러)

체 결 일	안 건 명	금 액
75.10.11	경제부흥개발용 기자재	8,500
	통일 베트남 :	
75. 9.14	경제부흥개발용 기자재	5,000
78. 4.28	경제부흥계획(섬유산업 등)	4,000
	(문화무상협력)	
84. 1.30	하노이 외국무역대학 일본어 교육기자재	20
88. 5.14	문화성 비디오 기자재	24
90.10.27	TV 프로제작, 편집기자재	23
90.12. 5	베·일 클럽에 대한 시청각 교재	18
	(KR 식량원조)	

〈표 Ⅳ-8〉 기술협력('91.3월말 현재)

(단위 : 명)

	사업기관	88년도 실적	89년도 실적	90년도 실적	89년도 말누계	주요분야
연수생 초청	JICA	6	9	20	739	보건의료, 행정, 농업
	APO	-	-	-	79	경영관리, 기술, 행정
	UNIDO	-	1	-	2	공업
	AOTS	3	5	3	654	식품, 산업기계, 화학
	OISCA	-	-	-	5	농업
	ILO	-	-	-	2	전기
	ACCU	1	1	1	19	출판
전문가 파견	JICA 전문가	1	1	-	183	보건의료, 농업, 인적자원
	조사단	-	-	29	161	농업, 공익사업, 운수교통
	APO	-	-	-	5	농업, 공업서비스

○ 다음은 JICA의 원조현황과 '92년 ODA 재개 이후의 일본의 발빠른 경제협력을 나타냄.

〈표 Ⅳ-9〉 JICA의 원조현황('91년 현재)

구분	분야	총계	행정및계획		방송및통신	의료및보건	사회사업	기타	비용(천엔)
			개발계획	행정					
연수생 초청	'90년 시작	12		2	2	7	1		21,028
	'89년부터 계속	-		-	-	-	-		
	총 계	12		2	2	7	1		
전문가 파견	단 기	-		-	-				31
	장 기	-		-	-				
타당성 조사단 파견	'90년 시작	29		6	-	23			25,827
	'89년부터 계속	-		-	-	-			
	총 계	29		6	-	23			
무상원조		1		기초 설계조사					-

〈표 Ⅳ-10〉 최근 일본 경제협력관계 일지('92년 11월 ODA 재개 발표 이후)

날 짜	내 용
11.6	ODA로 455억엔의 상품차관(연 1%로 10년거치 30년 상환)
11.8	재무성, 일본은행의 베트남내 주재사무소 설치허용검토
11.13-15	마쓰시타전기, 호지민시에서 가전제품 전시회 개최 베트남측, 전기전자제품·사무기기 생산 판매계획 표명
11.13	대외경제협력기금(OECF)회장이 이끄는 사절단 하노이 방문하여 '93년 개발자금규모, 개발투자 우선 프로젝트 및 지역, 일본 무상원조규모 및 제공방식 등을 협의.
11.25	나고야 상공회의소가 베트남 투자환경 조사목적으로 '93년 2월 사절단을 파견하겠다고 발표.
12.7	일본정부, 중부지역 수재민을 돕기 위해 150백만엔의 의연금 제공.
12.8	미쯔이그룹의 자금차입(3천 540만달러)으로 각 75MW 전력용량 가스터빈 발전기 3기 구입, '93년 1월부터 남부에 전력공급.
12.10	NEC는 통신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하노이 지역에 설치할 17,000회선 디지탈 전자교환시스템 〈NEAX 61〉과 관리유지요원 연수교육의 무상제공을 약속함.

○ IMF의 대베트남 융자재개 결정이후 JICA는 운수 및 교통분야에서 사전조사를 시작한데 이어 외무성 및 해외경제협력기금(OECF)도 프로젝트차관의 대상안건 선정단계에 있음.

○ JICA는 베트남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조사인 '베트남북부지역교통시스템계획조사'에서 하노이市를 중심으로 한 도로·철도·항만 현황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음. 특히 긴급 사업으로서 요청을 받은 하이퐁항의 개수계획과 관련,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였음.

○ 일본은 베트남에 대한 프로젝트 차관과 관련, 개수안건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기반정비에 중점을 둘 방침이며 도로분야에선 북부의 중요 간선도로인 국도 2·5·11호선, 발전소에서는 함 토우안수력(46만킬로와트), 파라이화력(60만킬로와트), 후미

화력(60만킬로와트)등이 예상후보로 선정되었음.

○ 구체적인 인프라관련 사업은 베트남 북부에 있는 카이란항의 확장,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간선이 되는 종단철도개수(일부 신설), 하노이市의 배수 및 하수정비와 관련,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일본 외무성은 향후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 같은 수준으로 원조할 방침이어서 원조액은 장차 800억~1천억엔 규모가 될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1단계로 400억~500억엔 규모의 프로젝트차관이 공여될 것으로 예상됨.

다. 스웨덴

○ 대베트남 최대의 ODA 공여국으로 '76~'80년사이에 매년 1억 달러의 무상원조를 실시하여 왔음. '81~'82회계년도(7~8월)에 무상원조 3억 크로나, '82~'83 회계년도에 3억 4,500만 크로나의 무상원조와 1,200만 크로나의 긴급원조를 집행하였음. '83~'84년 개발협정을 체결하고 7억 3,000만 크로나, '84~'85년에 3억 6,500만 크로나의 무상원조를 제공하였으며, '83~'85년도에 합동 의료프로젝트에 1억1,000만 크로나를 원조하였음. '85~'86년도 이후 매년 3억 크로나를 원조하였는데, 그 내역은 바이반 제지공장의 건설과 운영원조, 하노이 소아과병원과 우언비 종합병원의 건설, 상품수입대금 및 도즉크 화력발전소의 보수 등에 사용되었으며 SIDA를 통해 의료, 교육부문을 지원하였음.

○ '스웨덴은 '90~'91년 회계년도의 3억 크로나 외에 '90년 6월에 '90~'92년 양국협정에 조인함으로 6억 크로나 상당의 무상원조를 추가 약속하였음. 양국간 세무협력에 관한 협정을 '91년에 맺었으며, 양국간 에너지분야 협력협정과 '91~'96년간에 1억 크로나에 상당하는 양국 임업협력 계획에 조인함.

〈표 Ⅳ-11〉 ODA중 대베트남 원조 추이

년 도	비 율	총 ODA 액수
	(%)	(백만달러)
1979	9.1	854.8
1980	8.7	941
1981	8.0	830
1983	7.5	749
1987	3.2	1462
1988	2.7	1671
1989	2.3	1907
1990	2.7	2062

라. 핀란드

○ '74년 이후 차관과 원조공여를 통하여 후 안즈 선박수리소의 건설('84년 3월 완성), 하노이와 하이퐁의 상수도건설, 수송부문개선 분야에 지원을 해왔으며 '86년까지의 원조총액은 4억 마르카(Markka)임. '91년 핀란드측의 자금공여에 의한 하노이 상수도 공급계획 제3단계에 관한 협정과 '92-'95년 사이에 2억 8,000만 마르카(Marrka)에 상당하는 개발원조를 실행하는 협정을 맺었음.

〈표 Ⅳ-12〉 ODA중 대베트남 원조 추이

년 도	비 율	총 ODA 액수
	(%)	(백만달러)
1979	7.9	90.5
1980	8.7	123.0
1981	8.0	125.0
1983	3.6	166.0
1987	2.3	521.0
1988	1.8	658.0
1990	1.9	891.0

마. 프랑스

○ 프랑스는 베트남이 개혁,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세계 각국과의 관계 다변화에 노력함에 따라 베트남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베트남의 통일이후 '77년 4월 6억 7,000만프랑의 유·무상원조(1/3 전후 복구 무상원조, 1/3 장기저리차관, 1/3 정부보증 민간융자)를 개발계획에 필요한 재원으로 공여하여 시멘트(하테인 시멘트공장), 제지, 방적, 제당, 자전거제조, 제재산업, 항만건설 등 주요 원조프로젝트를 지원하였음.

○ 캄보디아 침공이후 원조를 중단했으나 '81년말 원조를 재개하여 2억 프랑의 차관을 제공했으며, 이중 1억 6,000만 프랑은 하노이의 섬유공장, 제당공장, 보일러, 홍하 델타지구의 양수장, 전력설비의 건설, 직물공장 부품의 제공 및 자본재 수입에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과거 베트남에서 가동중인 기업의 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음.

○ '87년 농업프로젝트를 비롯한 기타 사업에 2,000만 프랑을 제공하였으며 '89년에는 500만 프랑의 농업용 무상공여와 '90년 6월에는 4,500만 프랑의 무상원조를 실시하여 양국간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이와 동시에 '88~'90년 사이에는 쌀생산의 감축으로 인한 기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밀을 원조하였음.

○ 경제공업협력합동위원회, 문화과학기술합동위원회 등을 통하여 양국간의 협력관계를 유지·촉진시키고 있음. '91년 11월 듀마외상이 베트남 공식방문을 하여 양국의 관계강화와 새로운 차원으로의 협력증진을 표명하였으며, 문화·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예산을 24% 증액하여 '91년도 대베트남 무상원조로 9,500만 프랑을 공여한다고 밝힘. 프랑스는 '91년도 무상공여액 9,500만 프랑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5,000만 프랑은 산업 프로젝트에, 2,500만 프랑은 상수도프로젝트와 콘크리트 수도관 생산에, 나머지는 재정분야 인력연수 및 양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계약서를 체결하였음.

〈표 Ⅳ-13〉 ODA중 대베트남 원조 추이

년 도	비 율	총 ODA 액수
	(%)	(백만달러)
1979	9.1	854.8
1980	8.7	941
1981	8.0	830
1983	7.5	749
1987	3.2	1,462
1988	2.7	1,671
1989	2.3	1,907
1990	2.7	2,062

바. 기타

1) 독일

○ 동·서독일 통일후 구동독을 대신해 원조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며, '90~'91년 협력계획을 맺고, '90년 700만 마르크(Mark)를 제공하여 기술개발분야에 대한 원조를 실시하였음. '91년에는 경제·기술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은 방베시 도즉크 기술훈련 전문학교에 1,000만 마르크의 원조를 제공하였으며 경제협력차관이 이끄는 대표단은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원조를 약속하고 과거 동독이 조인한 프로젝트들을 계속 실행할 것을 밝힘.

2) 호주

○ 호주정부의 대베트남 정책은 경제결속에 중점을 두고 있음. 민간부문에서는 석유산업, 광물개발, 통신, 식품 가공분야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동산 부문에도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93년에는 5,000만 호주달러를 원조할 예정임.

○ 호주의 베트남 원조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1975년 부터 시작 되었음. '76~'79년 회계년도(3년) 사이에 US 4,700만 달러를 공여하였으나, '79년 캄보디

아 침공으로 중단되었음. 그러나 호주는 비정부기구(NGO), UNDP, FAO, WFP(세계식량계획), UNICEF등 다자간 기구를 통하여 '87~'88년에 약 600만 달러를 지원 하였음.

○ '87년 이후 INTELSAT 위성통신지상국건설 원조를 제공하였으며, '90년 8월에는 베트남의 국제통신망 개발원조계약에 2억 800만 달러 상당을 제공하였음. 베트남 측은 호주가 광물개발, 석유탐사, 농산물가공, 무역간부 양성 등의 분야에 협력해 줄 것을 피력하였음.

○ 호주는 대베트남 원조 재개결정을 '91년 10월 발표하였으며 무역·해외개발장관이 이끄는 호주무역 대표단은 베트남을 방문하여 외무부, 국가계획위원회, 국가협력 투자위원회 등과 실무회담을 갖고 양국은 통신, 수송, 체신부문에서 협력할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며, 베트남은 연간 밀 10만톤을 호주로부터 매입하는 5개년 협정을 체결하였음.

3) 이탈리아

○ 이탈리아는 '89년말에 '90~92년사이의 3개년 협력협정에 조인하고 1억 4,400만 달러(이중 4분의 1은 무상원조)를 공여하였으며, '92년 1월에는 동 협력계획을 확대하여 '93~'94년 신규 프로젝트에 700~800억 리라(6,000~6,500만 달러)의 원조 공여를 약속하였음.

○ '91년에는 민간기업 대표단이 방문하여 농업·식품공업 및 경공업 당국자와 투자 및 중소규모 산업협력 가능성을 토의하였으며, 공공사업장관은 기업대표단을 이끌고 베트남측과 수송, 통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해 협의하였음. '80년에는 전체 ODA중 0.3%인 214만 달러, '81년에는 0.7%인 5백만 달러 정도를 원조하였음.

4) 캐나다

○ 캐나다의 개발원조 목적은 베트남의 지속적인 개발을 지원하며, 양국의 민간 및 공공 연구기관사이의 상호호혜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임. 최근 2개년간의 원조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93년도 예산도 비슷한 수준임.

〈표 Ⅳ-14〉 캐나다의 원조내역 및 원조금액

(단위 : 백만달러)

항 목	1990/91	1991/92	Total
정부간 원조	0.033	0.229	0.262
Canada Fund	0.025	0.200	0.225
NGOs	0.046	0.055	0.101
공업협력	0.311	2.173	2,484
제도협력	—	0.287	0.287
경영개선	—	0.240	0.240
국제인권원조	1.000	1.050	2.050
식량원조	5.414	6.103	11.517
국제개발연구센타	—	—	1.402
장학금지원	0.019	0.139	0.158
총 계	6.848	10.476	18.726

5) 네덜란드

○ 네덜란드 정부는 '91년 한해 동안 ①베트남 농업생산에 양자간원조로 850만 길더(Guilder), ②FAO를 통한 다자간원조에 450만 길더의 원조공여, ③'91년 네덜란드에 지불할 채무 260만 길더(약 150만달러)의 면제, ④'91년도 비료·농산물 구입용으로 700만 달러 상당의 차관공여를 결정하였음. '79년에는 ODA의 9.1%인 7,700만 달러, '80년에는 0.7%인 약 1,100만 달러, '81년에는 1%인 1,400만 달러를 원조로 제공하였음.

6) 벨기움

○ '91년 무역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은 양국간 투자보호협정에 조인하였으며 항만준설, 해운,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협력확대에 합의함. '80년도에 ODA의 0.4%인 236만 달러를 지원 하였음.

7) 덴마크

○ 외무부 대표단은 '91년 베트남 방문시 덴마크가 원조하고 있는 6개 프로젝트의 예비부품 구입용 1,000만 달러 공여 각서에 조인하였으며, 덴마크 농촌개발계획 대표단은 베트남 농촌의 교통상태를 조사하였음. 덴마크는 '79년과 '80년에 각각 ODA의 3.3%(약 1,300만 달러), 1%(약 680만 달러)를 원조하였음.

8) 인도

○ '77년 식량공급, 벼농사 및 기타 농업분야 연구에 원조를 실시하였고, 베트남 적십자를 통해서 물소 200마리를 증여하였음. '78년 철도설비 구입에 공적원조 1억루피(Rupee)와 상업차관으로 3억루피, 가축을 포함한 물자구입에 4억 루피의 차관을 공여하였으며, 그외 밀 30만톤을 대여하였음. '80년에는 2억루피의 장기차관과 무이자 식량차관(쌀 5만톤)을 공여함. '81년에는 철도개선을 위한 원조와 화차 90량과 객차 1,000량을 인도하였으며, 상품수입용으로 1억 루피를 공여하였음.

○ '82년에는 1억 루피의 차관공여, '83년에 1억 루피의 차관공여, '83년 방적공장건설 및 근대화에 원조를 실시하였음. '85년에는 1억 5,000만 루피, '89년과 '90년에 각각 1억 루피의 차관공여를 통하여, 수송설비의 개선(남북 종단철도의 재건), 방적산업의 근대화 등에 원조를 제공하였으며, 남부 붕타우 연안 석유개발에도 협력하고 있음. '91년 인도정부는 희토화합물과 인산나트륨 생산을 위해 12만 5,000달러의 모나자이트 가공시험공장을 베트남에 공여하였으며, 인도 석유·천연가스장관은 대륙붕과 육지에서의 석유·천연가스의 탐사, 기술협의, 프로젝트관리에 관해 양국간 협력강화와 경제협력관계 유지를 표명함.

9) 태국

○ 지리적 근접성과 메콩강을 공유한다는 잇점을 무기로 베트남 경협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메콩강 유역 개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대 ASEAN 경제협력시 종주국 행세를 하려고 함. '88년 8월이후 "인도차이나를 시장으로"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92년 1월에는 1억 5,000만 바트(Baht)의 장기 저리의 차관공여를 약속하였음.

○ 한편 태국은 ①이전부터 캄보디아를 통한 베트남과의 밀무역 경험 및 인지반도 등 인근국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 추진, ②제3국 연수(일본의 원조로 실시)에 의한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의 인적자원 육성 계획 추진, ③국경공업단지구상 등 「바트경제권」 발전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92년 12월에는 약 600만 달러의 상품차관을 제공키로 결정하였음.

10) 대만

○ '90년 10월부터 대만 정부는 대베트남 투자를 공식 인정하였으며, 대만 관련업계 호텔, 오피스빌딩, 농업 및 중소생산업종에 주로 투자하고 있음. 약 50만에 달하는 호지민시 거주 중국계 베트남인의 강력한 지원을 기반으로 특히 내수시장 진출에 주력하고 있음.

○ '91년 경제차관이 이끄는 대표단은 무역사무소 상호 설치와 투자보호협정 조인에 합의함. 대만은 베트남내의 화교세력과 자국의 자금력을 바탕으로하여 베트남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베트남을 구상무역에 의한 원자재 공급국으로 이용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음. '93년도 4월 현재 전체 외국투자실적중 내만이 77건에 11억 1,465만 달러로 1위를 차지 하였음.

○ 베트남이 향후 개발전략으로 삼는 농업육성에의한 농업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의한 공업발전의 모델이 되고 있음. 초우 엔 대만 국제경제협력개발기금 이사장은 '92년 베트남의 도로건설 및 소형민간기업 육성자금으로 4,000~4,500만 달러의 저리차관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4.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

가. 구소련

○ 사회주의 국가의 종주국으로 오래전부터 실질적인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55년부터 '90년까지의 35년간의 총경제원조액(차관포함)은 200억 루블로 추정됨. 전력 · 광공업 · 기계 · 농업 · 교통 · 수송 · 교육 · 방송 · 보건등 모든 분야에 걸쳐 원조를 실시하였는데 '55년 이래 300여개의 대규모 프로젝트 건설사업을 실시하였음.

○ '89년이후 소련 및 동구정세의 변화에 따라 소련원조(무이자 차관)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89년에는 전년 대비 25% 감소, '90년에는 11% 감소하였음.

10) 대만

○ '90년 10월부터 대만 정부는 대베트남 투자를 공식 인정하였으며, 대만 관련업계 호텔, 오피스빌딩, 농업 및 중소생산업종에 주로 투자하고 있음. 약 50만에 달하는 호지민시 거주 중국계 베트남인의 강력한 지원을 기반으로 특히 내수시장 진출에 주력하고 있음.

○ '91년 경제차관이 이끄는 대표단은 무역사무소 상호 설치와 투자보호협정 조인에 합의함. 대만은 베트남내의 화교세력과 자국의 자금력을 바탕으로하여 베트남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베트남을 구상무역에 의한 원자재 공급국으로 이용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음. '93년도 4월 현재 전체 외국투자실적중 내만이 77건에 11억 1,465만 달러로 1위를 차지 하였음.

○ 베트남이 향후 개발전략으로 삼는 농업육성에의한 농업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의한 공업발전의 모델이 되고 있음. 초우 엔 대만 국제경제협력개발기금 이사장은 '92년 베트남의 도로건설 및 소형민간기업 육성자금으로 4,000~4,500만 달러의 저리차관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4.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

가. 구소련

○ 사회주의 국가의 종주국으로 오래전부터 실질적인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55년부터 '90년까지의 35년간의 총경제원조액(차관포함)은 200억 루블로 추정됨. 전력 · 광공업 · 기계 · 농업 · 교통 · 수송 · 교육 · 방송 · 보건등 모든 분야에 걸쳐 원조를 실시하였는데 '55년 이래 300여개의 대규모 프로젝트 건설사업을 실시하였음.

○ '89년이후 소련 및 동구정세의 변화에 따라 소련원조(무이자 차관)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89년에는 전년 대비 25% 감소, '90년에는 11% 감소하였음.

'91년에는 호아빈 수력발전소 등 건설이 진행중인 중요한 사업의 수행에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 경화방식으로 필요한 차관을 계속 공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소연방 붕괴에 따라 이 모든 것을 러시아공화국에 이관하였음.

○ '91년 1월 구소련 대표단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양국간의 경제·무역협정과 협력관계를 새로운 메카니즘(Mechanism)으로 이행시키는 협정에 조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대 베트남 원조는 한층 감소되었으며 양국 무역액은 10억불 상당에 이름. 주소대사관에 의하면 '91년 소련의 베트남 원조는 장기차관 1억불, 무상원조 1,000만달러로 감소되었는데 과거 10년간 소련원조는 연간 20억불 이었음. 한편, 구 소련 대표단은 베트남 정부와 베트남의 채무와 관련하여 소련이 필요로 하는 물자의 공급을 통하여 상환한다는 원칙적인 문제를 토의함.

○ '91년 3월 제18회 베트남·소련 에너지협력회의(하노이)에서 호아빈 수력발전소, 찌안수력발전소에 110-220KV의 송전망 개발의 협력에 관해 토의하였고, 출판·보도·인쇄 및 서적유통분야 협력에 관한 제6회 베트남·소련합동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협력각서에 조인함. 동년 7월에는 양국간 전기 및 에너지 협력문서에 조인하여 '93년까지 소련측은 호아빈 수력발전소의 건설을 완료하고 남쪽발전소 2개의 발전효율을 높이며, 남북으로 연결될 500KV의 전선을 가설하기로 하였음.

○ 베트남 종합상사와 소련 고무생산연합은 7ha에 달하는 고무나무 조림을 위한 원조에 '91~'95년에 연간 500만 달러의 차관 공여를 계속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나 이행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임. 한편, 러시아측은 휘발유, 화학비료, 강철, 타이어 등 공업제품을 베트남측의 쌀, 육류, 의료품, 신발 및 기타의 제품과 교환하는 양국간 구상무역에 합의하였으며 그 액수는 '91년도에 1억 5천만 달러에 한함.

나. 중국

○ 중국과 베트남은 '91년 11월의 관계 정상화 이후, '92년 2월의 전기침 중국외상이 베트남을 방문한 결과 '50~'79년의 중국의 대베트남 원조중 '73~'79년 사이의 원조를 베트남측이 채무로 인정하고 그 부채액 약 18억元(당시 환율로 약 1억달

러)을 장기에 걸쳐서 중국에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50~'73년 사이의 원조 약280억원(약 15억 6,000만달러)에 대해서는 무상원조로 상환을 면제하기로 합의함.

○ 중국은 베트남 보다 다소 앞선 개방화의 경험을 갖고 있고 같은 사회주의 노선국가이기 때문에 베트남정부는 중국을 경제개발의 모델로 삼고 있음. 또한 한국이 소극적일때 중국의 수출공단 및 개발경험을 배우려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베트남은 중국의 생필품, 경공업 제품이 저렴하므로 중국 국경지역등에서 적극적인 교역추진을 통한 제품의 구입처로써, 그외 소련·동구를 비롯한 구사회주의국가를 대체할 기계설비, 원자재 공급국으로써 중국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 '91년 12월 1,400만 달러 차관제공에 합의였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으며, 구체적인 내용도 알려진 것이 없음.

다. 북한

○ 레스안 진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 방북('91년 2월)하여 '91~'95년 사이의 양국 경제무역협력 의정서에 조인하였으며 북한은 무이자 장기차관으로 베트남에 출력 6만 6,000KW급 수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원조를 결정함. 계형순 기계공업상이 이끄는 경제대표단이 방베('91년 11월)하여 수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경제·기술협력 협정에 조인하였으며, 베트남 상업·관광부 대표단은 방북('91년 12월)시 5년간 무역·지불 협정에 관해 조인하였음.

라. 기타

○ 동독, 체코,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CMEA 국가는 '75년부터 '88년까지 약 40억 달러의 원조를 실시하여 왔음. 특히 이들의 '76~'80년 원조 총액수는 약 8억 달러로서 기계, 방적, 건설자재, 식품 및 기타 경공업, 병원건설, 농업, 축산, 기술훈련등에 원조를 실시해 왔음. '89년 동독은 약국간 원조 유대관계를 새로이 하고 4,250만 마르크를 공여하였음. 체코는 '89년 베트남·체코우호병원에 9,300만 코루나(koruna)를 제공하였음.

V. 한-베트남 협력

1. 한-베트남 협력현황

가. 한-베트남 관계

1) 정치 및 외교

○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92년 12월 22일자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양국 연락 대표부를 대사관으로 승격하였음. 이를 통해 '75년 국교단절 이후 미래지향적인 경제·사회협력증진의 기반을 구축하게 됨. 레 둑 안 대통령 등 정부 고위인사들은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표명하였음.

○ '90년대초 한국이 중점을 두어 온 북방외교가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를 거두어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러시아, 동구권 국가, 중국 등으로 넓어진 우리의 경제발전 영역이 이제는 정치·외교·경제적으로도 더욱 중요한 남방외교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하였음.

○ 한국으로서는 베트남과의 협력을 통해 인도지나 반도로까지 아국의 정치·경제·외교활동 영역을 확산시켜 현재의 경제난을 타개하고 우리 경제가 명실공히 아·태 경제권의 중추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으로 기대됨.

○ 베트남의 대외경제정책은 아시아 주변국가와의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 경제협력의 대상국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86년이래 베트남은 대외경제정책인 도이도이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60년대 이래 경제개발을 추진하여 성공한 국가로 여기고 있음. 특히, 베트남은 한국을 경제개발 추진의 모델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입각한 산업육성정책 자문 등에서의 협력은 향후 베트남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임. 무역, 조세, 금융, 경제개발 분야에 있어서 장기 정책개발 및 입안시 전문가를

파견하여 우리의 경험을 전수하는 것이 향후 베트남 경협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

2) 교역 및 투자

○ 베트남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철광 등 양질의 풍부한 부존자원과 숙련된 많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베트남측이 부족한 자본, 기술, 경영노하우 및 경제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쌍방이 상호 보완적인 요소를 잘 살려 경제협력을 해나가면 양국의 경제는 지속적인 확대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천연자원이 풍부한 베트남의 자원개발사업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자원 도입선 다변화와 자원의 안정적 공급선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

○ 최근에 양국의 관계개선과 함께 한국기업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베트남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삼성, 현대, 대우, 선경 등의 대기업들은 하노이와 호지민시에 지사를 설치하고 베트남과의 무역 및 투자를 직접 실시함. '92년 한국과 베트남간의 교역량은 4억 5천만 달러를 넘었고, 철스크랩, 원목, 규사, 석탄, 과일, 커피, 비단 등의 베트남 상품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있음. 베트남의 소비자들은 삼성, 럭키금성의 전자제품, 대우와 기아의 자동차, 한국회사들로부터 비료, 석유화학제품, 유선통신기기, 의약품, 의류 및 신발을 접할 수 있게 되었음.

〈표 V-1〉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출입현황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1990	증 감 율	1991	증 감 율	1992	증 감 율
총 액	150.1	72.9	239.8	59.7	493	105.4
수 출	116.8	160.1	198.8	70.2	436	119.2
수 입	33.3	-25.4	41.0	23.0	57	39.3
수 지	83.5	2,683.3	157.8	88.9	379	240.2

○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92년초에는 투자자본 면에서 대만과 홍콩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음. 한국은 의료제조, 강판제조, 자동차 조립 및 수리, 가구가공, 석유 및 가스, 호텔 건설 등의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몇몇 기업들은 공업단지내에서의 시멘트 공장건설이나 전자제품 생산의 기회를 찾고 있음.

나. 협력 현황

○ 대베트남 기술협력 실적을 살펴보면 '92년 현재 연수생초청사업에 의해 51명의 베트남 기술자가 한국을 방문하여 기술을 습득하였으며, '88년에 1명의 전문가가 베트남에 파견되었음. '93년에는 연수생초청사업에 의해 15개 과정에 43명을 교육시키며 3개 분야에 5명의 전문가를 파견할 예정임.

〈표 V-2〉 연도별 기술협력실적

(단위 : 명)

구 분	'86	'87	'88	'89	'90	'91	'92	계
연수생초청	7	1	3	4	8	6	22	51
전문가파견	-	-	1	-	-	-	-	1

○ 인력협력방안의 하나인 청년해외봉사단 파견 관련 협정은 현재 미체결된 상태로 베트남의 한국봉사단 수용태세 및 여건은 확인되어 있지 않으나, UNV를 제외하고는 양국간 체결에 의한 자원봉사자 파견사례는 없다고 베트남 외무성 관리는 밝힘.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봉사단 파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94 청년봉사단 파견을 위한 사전답사 실시와 그에 따른 협정체결등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한국은 '94년도에 봉사단원을 파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92년에는 기자재공여(운송 및 통신, 15만 달러)와 재해원조(폭우피해 구호금 5만 달러 지원)에 20만 달러를 지원하

였음. '93년에는 프로젝트형사업(미정)에 50만 달러, 하노이 및 호지민시의 기존 직업훈련원 개량,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 개발조사사업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은 한·베트남 공동광물자원 탐사가 양국간의 상호 보완적인 자원협력관계 구축과 함께 한국의 에너지 및 주요 원료광물의 장기 안정적 기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조사단을 '92년 11월 광물부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안케지역 및 홍손지역에 파견하였음. 사전조사 결과 안케지역이 조사여건이 유리하고 금을 주 개발대상으로 하고 있어 베트남 광물개발조사사업 대상지로 더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어 '93년 현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93년 4월에는 18번도로의 국도개량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전조사팀을 파견하였음. 베트남 정부는 하노이-하이퐁-꽝닌을 연결하는 삼각지대를 북부 베트남의 경제개발 중심지대로 개발중에 있으나 이 지역 기존의 국제 무역항인 하이퐁항은 수용 능력이 포화상태에 있으며 또한 입지적 여건으로 확장도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따라 베트남 정부는 인접지역인 꽝닌의 카이란항을 이지역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심해항으로 개발중이며 또한 카이란항 입구해안이 세계 유수의 비경인 다도해지역인 점을 감안,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함과 동시 동항구와 하노이 수도권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의 개선을 위해 N-18 국도확장·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조사단은 수도 Hanoi 북방 31㎞지점에 위치한 N-18국도의 Bac Ninh - Tien Yen간 206㎞중 Bac Ninh - Cai Lan(Hong Gai)구간 81㎞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음.

○ 표〈V-3〉은 한국국제협력단의 대베트남 협력현황임.

〈표 V-3〉 한국국제협력단의 대베트남 협력현황

연 도	구 분		과 정 및 내 용	인 원 / 금 액
'91년	연수생 초 청	일반	행정능력개발 1	1 명
		특별	잠업 2, TV 프로그램 1, 간척지 이용	5 명
		소계	4개과정	6 명
'92년	연수생초청		행정능력개발 2, 중소기업육성 1, TV 프로그램 1, 직업훈련 2, 한국어 교육 2, 건설기술자 2, 국가표준 1, 자동차정비 2, 전자제품 수리 2, 국토개발계획 1, 가족계획 2, 식품발효 1, 잠업 2, 비파괴검사 1	22 명 (14개 과정)
	기자재공여		컴퓨터 8대, 복사기 6대, 미니버스 10대, 난민구호금 5만불 현금지원	20만불 (153,533 천원)
	개 발 조 사		광물자원개발(사전조사) 사업요청서 베트남 제출('92. 4) 사전조사실시('92. 11) 안케지역선정 TOR접수('92. 12)	1 건
'93년 계획	연수생초청		미곡생산(1), 거시경제기획(1), 시장경제 관리(1), 기초직업훈련(1), 직업훈련교사 양성(25), 전자제품수리(1), 잠업(1), 산업재산권제도(1), 광물자원탐사(1), 국가 표준(1), 작물생산(2), 가족계획(2), 한국어(2), 행정능력개발(2), 수출진흥(2)	43 명 (15 과정)
	전문가파견		경제개발계획(2), 행정근대화(2), 경영능력개선(1)	5 명 (3 분야)
	기자재공여		프로젝트형사업(사업명 미정)	50 만불
	개 발 조 사		광물자원조사 : MOU 체결('93.2) 본사업 착수 (안케지역) — 사업시행기관 : 대한광업진흥공사 — 사 업 기 간 : '93 ~ '96 (4개년) — 총 사 업 비 : 100만불 도로건설 타당성 조사 : N-18 개량사업	25 만불 100만불 예정
	직업훈련원		하노이 및 호지민시의 기존 훈련원 2곳 개량·개선(베측제안)	500 만불

2. 대베트남 협력 방향

가. 기본 방향

o '90년대의 개발협력에 관해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높은 인구증가율, 증가하는 절대빈곤, 만연한 영양실조, 문맹 및 날로 더 심해지는 환경 악화와 결부된 저개발의 악순환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지탱가능한 지속적인 개발(Environmentally Sound Sustainable Development : ESSD)촉진, 낮은 인구성장율, 공평한 소득 분배와 경제개발을 가능케하는 수원국의 종합적인 경제개발 전략 및 정책 등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힘. 특히, 개도국 자신의 개발은 궁극적으로 스스로의 책임이며, 개도국 자체의 정책 및 제도의 효율성이 개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하였듯이 개발협력의 향후 방향은 베트남과 한국측(KOICA)간에 끊임없는 정책대화(Policy Dialogue)를 통해 모색·발굴 되어야 할 것임.

o 베트남은 한국의 지원을 열망하고 있으며 아직 일본 등의 여타세력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나라로 한국으로서는 본격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적절한 정부개발원조(ODA) 규모로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 해야함. 이를위해 국별계획 혹은 부문별 조사등 지속적인 연구조사사업을 통하여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도적 입장에서도 한국인 고아와 전쟁의 패해등 그동안의 상처를 치유하는데도 많은 기여를 해야할 것으로 여겨짐.

o 경제협력의 방향에 대해서는 먼저 한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면을 고려하며 선진국의 실패를 거울삼아야 함. 따라서 대규모 소비적인 물량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베트남이 경제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중 아국이 타국과 비교하여 우위에 있으며 가시적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이는 국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데 중요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나. 추진 방향

○ 한국국제협력단의 주요사업중 실시가능한 사업 및 각 사업별 기능은 다음과 같음.

- 기술협력사업 : 한국의 경제개발경험과 산업기술을 베트남에 이전함으로써 베트남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한국이 우위에 있는 기술분야에 대한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사업
- 인력협력사업 : 현지 주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베트남 경제·사회·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 사회복지 분야등에 봉사단원을 파견하는 청년해외봉사단 사업과 고엽제 문제와 관련하여 베트남 의료진과 치료경험을 나누거나 공동연구 실시로 의학분야에서의 협력증진 혹은 상호우호 증진을 위한 의료단 파견사업.
- 개발협력사업 : 장기적으로 베트남의 경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자재공여사업, 프로젝트형사업, 자연재해 발생시 재난구호를 위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활동, 한국인 고아 및 베트남 노동자에게 기술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 개발조사사업 : 개도국의 장기적 경제발전에의 지원을 목적으로 국토개발, 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 제조업등의 분야에서 개발조사사업 발굴 및 개발조사 실시

○ 단기적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의 지원보다는 인적자원 양성 및 경제·법률적 제도 구축에의 지적인 원조제공과 기타 산업분야에서 인적·기술적 지원으로 베트남의 경제 사회구조를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그들의 정책 수립과정에 깊이 관여하여 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함. 장기적으로는 직업훈련원 건설 등 프로젝트형사업 실시, 경제개발계획시 세계은행 등의 융자와 직결될 수 있는 개발조사(항만, 도로, 철도, 자원개발) 사업수행 및 국제기구(UNDP, FAO)와의 공동협력사업으로 협력규모를 확대하여야 함. 특히 아국 민간기업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며 KOICA의 사업이 EDCF와 연계되도록 유도해야 함.

1) 기술협력사업

- 베트남 경제는 낙후된 기술수준으로 생산성을 제고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기술협력이 긴요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베트남이 필요로 하는 기술 수준은 선진국이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이 아니라, 노동집약적 산업기술이므로 우리나라의 기술원조가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연수생 초청 사업으로 베트남 시장경제개발 계획의 수립 및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하고 한국형 경제개발전략 및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 국가계획위원회의 중견 관리자와 국영 및 민간기업체 관리자를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이로인해, 아국은 베트남의 경제개발 계획의 핵심에 참여할 수 있고,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고위 레벨에서의 인적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음.

- 전문가 파견사업은 경제개발계획의 수립·집행분야, 금융·조세·무역분야, 일반 행정 및 경영 근대화분야에 전문가를 파견함으로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분야와 대상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 산업기술, 농림·수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을 것임.

〈표 V-4〉 제도 및 정책 연수과정(안)

연 수 과 정	연 수 기 관
외환 및 국제금융 서비스	외환은행
개발계획(정책)분야	KDI의 IDEP
금융제도 및 정책분야	한국은행 조사부 또는 금융연수원
개발금융분야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세제개혁분야	국세청
무역분야	무역협회

2) 인력협력사업

○ 베트남 제반환경은 여러면에서 열악한 편이나 청년봉사단 사업의 목적이 그러한 환경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오히려 다양한 사업추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음. 자원봉사자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인식이 바뀌고 있으며 현지 한국상사들의 활동등을 고려할 때 단원들이 활동기반을 구축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베트남에는 UNV를 제외한 타국 봉사단의 활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KYV의 활동의 가시적 성과와 그 파급효과가 클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캄보디아, 라오스 진출에도 교두보 역할을 하는 잇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베트남은 인도지나 3국중 실질적으로 첫 파견국이 되는 점을 감안 시범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는 다음 사항을 전제로 함이 필요함.

- 파견단원은 하노이와 호지민시 및 그 근교지역으로 국한함.
- 코디네이터(KOICA 직원)는 경험이 풍부한 자를 별도 선정함.

○ 파견인원은 10~15명 정도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 파견할 수 있을 것임.

- 한국어교육 : 2명
- 컴퓨터 : 하드웨어 1~2명, 소프트웨어 1명
- 조림 및 사방 : 2~3명
- 농업경영·경제 : 1~2명
- 전기·전자 및 자동차 정비 : 3~5명

○ 의료단 및 태권도 사범 파견도 상호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특히, 고엽제 문제와 관련하여 의약품 제공 및 기자재 공여와 동시에 의료진을 파견하여 치료방법에 대하여 공동연구를 실시

할 수 있음.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얻고 있는 베트남의 경험 및 의료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것임.

3) 개발 협력

○ 기자재 공여사업은 베트남에 비해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전기·통신 등 최첨단 산업, 농기계·농약·비료·살충제 등 농업분야, 건설분야에서 아국이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아국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지속적인 물품을 공여하도록 하여야 함. 전산업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농림·수산업분야에의 지원과 정부의 행정망 전산화 사업 등 전기 및 전자분야를 지원함으로 기대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특히 교육분야에서 학습교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교육용 기자재공여, 혹은 직업훈련원을 설립하여 토목, 건설, 전기, 전자, 전신, 목공, 봉제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이를 통해 베트남의 한국인 고아들을 우선적으로 교육 시킬수 있으며, 아국의 기진출한 민간기업에도 간접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기본욕구 충족분야인 공중의료 및 보건부문, 교육분야의 유치원과 학교의 건축, 상하수도 시설개수, 영양공급사업, 가족계획 사업 등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4) 개발조사사업

○ 베트남측은 개발 우선분야를 농업, 인프라 개선, 소비상품 및 경공업 분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의 ODA 자금은 인프라 개선, 자원개발분야에 할당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협상에 임하고 있음. KOICA에서는 동 분야와 관련된 타당성조사 등 베트남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망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경공업 등 소비재

생산분야는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음. 농수산, 환경분야(조림 및 사방사업)는 한국이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림수산자원의 확보라는 면에서 추진시 그 성과가 클것으로 예상됨.

○ 개발조사사업은 초기에는 타당성 조사를 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설계조사로 이행해야 하는데 전력 및 에너지, 광물자원, 수자원개발, 조림 및 환경개선, 도로 및 항만건설, 공단조성 타당성조사 등 분야에 치중해야 할 것임.

○ 예를 들면, 베트남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북부의 항만시설 부족은 타당성조사 등을 통하여 항만시설의 확장 개발계획서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향후 동사업 추진시 아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 이와 연계하여 기술·인력협력을 통한 효율적 항만 이용과 관리기법을 전수함으로 무역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민간기업의 진출로 국내 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다. 분야별 협력

2) 수원국의 원조 방향

○ 베트남 경제개혁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활수준을 제고하자는 것이며 장기계획 또한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제기반 강화, 노동집약적공업의 육성, 농업생산력 증대 등과 같은 부문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베트남 정부가 희망하는 개발원조 대상분야는 전력생산과 송전, 수송, 관개수리, 석탄개발, 통신, 우편, 서비스, 학교, 병원, 지방 및 도시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도로, 철도, 항구, 공항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형성분야임.

o 베트남의 경제개발계획은 최근 새로운 경제관리체제를 도입하여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0년대로 향한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였음. 베트남 정부는 한정된 자원을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기간시설 개발, 에너지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ODA를 이용하여 2000년까지의 개발중점 분야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 석유·천연가스 개발 및 2개 석유정제 공장, 부산물 처리공장 설립
- 전력공급과 송전망 건설, 광물자원개발 및 시멘트 생산능력 확충
- 수출지향산업의 현대화와 국내·국제통신망 확충
- 호지민, 하이퐁, 다낭, 하노이에 수출가공구 및 공업단지 건설
- 하노이, 호지민, 하이퐁, 다낭에 현대적 수송시설 확보
- 도로망 연결 및 1번국도 개·보수(하노이-하이퐁, 하노이-황닌, 호지민-봉타우)
- 하노이·호지민간 철도망 및 교량, 심해항 건설(북부의 카이란, 남쪽의 Thirai)
- 공항시설개선(하노이 노이바이 공항, 호지민시 탄손넛, 다낭)
- 홍하 및 메콩델타와 중부지역의 관개 및 수자원관리 기본시설 개선
- 하노이와 호지민시 주택문제, 쓰레기 처리 및 위생체계개선, 농촌지역 식수공급
- 교육 및 직업훈련의 강화, 의료 및 보건시설의 개선과 가족계획 실시
- 사방사업 및 조림을 통한 녹화사업

o 이를 좀더 구체화하여 '92년 6월 베트남은 '92~'95년동안 정부가 원하는 외국인투자 유치 프로젝트 548개 목록을 발표했는데 이에 의하면 베트남

은 높은 성장 가능성과 투자효율이 높은 핵심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원하고 있음. 즉 호텔, 주택, 도로, 공항, 항구 등의 건설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임. 몇가지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하노이-하이퐁간 고속도로와 쾅닌성 카일란항의 건설, 쾅닌에서 하노이를 연결하는 도로의 개·보수 등을 들 수 있음. 이는 경제활동 및 관광의 중심지인 하노이와 하이퐁 항구도시, 그리고 쾅닌을 연결하는 삼각지대를 베트남 북부에 형성, 개발하려고 하는 것임.

○ 이와 동시에 베트남은 유전에 관련된 시추, 탐사, 개발, 정유 및 천연가스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원하고 있는데 석유와 가스분야외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석탄, 철, 구리, 주석, 아연, 희토, 보오크사이트 등 광물자원의 개발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또한 대규모 시멘트 공장은 국내 및 국외 건설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보다 많은 외국의 기술 및 자본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음.

2) 분야별 협력 가능성

○ KOICA의 국제협력 이념은 세계평화 증진과 인류복진 향상 기여로 함께 잘사는 인류사회를 건설하는 것임. 따라서 인도적 원조와 경제·사회협력이 모두 중요시 되므로 이 두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KOICA가 제공할 수 있는 분야에 한정하되 EDCF와 연계시켜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도록 하여야 함. 아국의 원조능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및 EC 등 서방선진국들과 같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회산접자본부문 등 각종 기초부문에 걸쳐 지원을 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작은 규모로 최대한 개발효과를 낼 수 있도록 수원국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 및 훈련분야, 자원개발 및 건설 관련 타당성조사, 전문가파견에 의한 경제, 경영, 환경 분야의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다음은 분야별 베트남의 현상 분석과 KOICA의 협력가능성을 간단히 제시하였음.

① 농업

○ 경제발전상 필수적인 외환창출을 위해 유망 수출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불가결한 바, 이러한 유망 수출산업 분야 가운데 하나가 농업부문이므로, 농업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함. 농업 생산성이 아직 아시아 평균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비료, 농약, 농기계, 연료 등 농업 투입재의 공급과 농산물 가격의 안정, 우량 품종의 보급이 이 분야의 발전을 좌우하므로 이를 위해 농업관련 부문 지원이 필수적임. 현재 베트남은 미작중심의 단작농업에서 수출작물 중심의 다작농업으로의 전환과 수출의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으므로 국내 및 국제농산물시장의 장기적 수요·공급분석 및 수확 후 저장과 수송 등의 유통부문(곡물생산의 25%가 수확후 손실되고 있음)과 무역구조의 개선책을 필요로 함.

○ 농촌인구가 대다수를 점하는 베트남에서 인구증가, 노동력 증가, 도시화, 실업증가 절대빈곤의 상속이라는 일련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베트남의 농업부문에 대한 경제협력은 매우 중요함. 부존자원 면에서 농업부문이 잠재적 비교우위를 가진 베트남에서는 농업부문의 개발은 지역개발과 함께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소하는 열쇠가 됨. 특히 노동집약적 농업기술의 도입은 농업부문의 고용증대와 공산품에 대한 농촌의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고, 도시로의 인구이동 압력을 약화시킬 것임.

○ 농업부문 발전의 애로점은 하부구조가 취약한 관개와 배수분야임. 관개수리의 경우 용수공급과 올바른 배수, 염분의 제거, 물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물리적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함. 관개와 배수시설의 미비는 베트남 농업부문의 개발을 제한하는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다모작이 어려워지고, 새로운 종자를 재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취약한 배수시설 때문에 반건조 지역에서는 염분증가와 잔류수가 유발되고 열대지역에서는 다른 작물과 쌀의 원활한 윤작이 어려운 형편임.

○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표수의 관개와 한발에 대비한 지하수 개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베트남에 대한 경제협력 프로젝트로서 관개지역의 확장, 더욱 효율적인 내수의 활용, 배수통제, 홍수통제, 보조 우물의 개발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화학비료의 부족으로 농업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바, 비료는 생산시설을 갖추는데 막대한 자본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며, 사용하는데 특별한 기구나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음. 적절히 사용하기만 하면 신속하고 가시적인 농업생산성 증대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농민에게 비료의 가치를 이해시키고 비료에 대한 기본지식과 사용법을 가르치는 기술인력협력과 비료공장의 설계, 건설, 그리고 최초의 가동을 위한 기술협력 및 비료제조를 위한 시설에 필요한 프로젝트사업 등을 고려할 만함.

○ 농업부문에 대한 원조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성의 증대가 필요한 데 이를 위해, 농업에 관한 의사결정의 분산, 기술훈련, 관개시설의 확충, 품종개량, 화학비료, 병충해 방지, 그리고 다양한 품종의 농산물 경작을 위한 현대화된 농기구사용 등 다양한 면에서 종합적 접근을 필요로 함. 동시에 베트남의 농업부문이 농촌소득 증대와 고용기회 창출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원배분, 효율적인 가격정책, 판로개척 시스템의 확충, 토지제도의 개혁, 신농업기술에 관한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KOICA에서는 한국이 인도적 원조와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아국이 우위에 있는 여러 분야에서 기술·인력협력 및 기자재 공여와 개발조사 등을 제공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는 농업개발에 필요한 각종 농기계 및 비료·살충제 지원, 환경영향평가실시에 필요한 기자재 공여 및 개발조사·기술인력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 특히, KOICA 예산의 규모를 생각하면 각종 농업 및 환경 관련 대학과 연구소 및 기타 유관단체를 이용하여 연수생 초청사업, 전문가 파견 및 KYV 파견 등 기술·인력협력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 이는 KOICA의 원조자금이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는가를 향후 국제원조기관 및 국제사회(OECD 등)에 알리어 KOICA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② 수자원이용

○ '80년대의 수자원의 개발은 주로 식량생산(쌀생산)과 수력발전 생산에 집중되어 왔으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으로 수자원활동에 대한 결정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메콩델타 지역에서는 양식업이 매력있는 산업으로 부상하여 농업과 수자원관리가 새로운 여건에 맞게 전환되는 중임. 수자원 이용에 대해 운송수단으로 수로를 활용하자는 측, 농업개발에 이용하자는 측, 양식업에 사용하자는 측간에 이해가 상치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어종보호구역과 수로통제시설의 건설간에 갈등이 생겨나고 있음. 수자원이용에 대해 기술·인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나, 예상되는 환경 문제와 지역 주민간의 갈등과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베트남이 수산물 수출국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KOICA는 수산양식과 원양어업기술 등 국내 연구소와 훈련기관을 활용하여 기술·인력협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정책대화(Policy Dialogue)의 일환으로 베트남 정부의 수산장기개발계획 수립 정책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동시에 각종 어군탐지기 등 기자재 공여와 더불어 국내조선기업과 연계하여

어선 관리 및 수리에 관한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할 수 있을 것임.

③ 임업

o 임업은 베트남의 미래 개발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목재는 건축 및 건설의 원자재로써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외화수입원으로 성장잠재력이 대단히 큼. 리우환경회담이후 열대림의 감소문제가 지구의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림의 파괴를 어떻게 막으며, 산림자원을 증가시키고, 환경과 개발사이에 조화를 이루며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가 되고 있음.

o 아국은 현재 목재수요의 약 85%를 전 세계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고 시베리아 및 열대지방에서 원목 벌채로 환경을 훼손하며 열대림을 파괴한다고 세계환경단체와 서방 선진국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며, 현재 열대지방의 원목도입도 어려운 실정에 있음. 한국은 지난 30년간 조림녹화에 성공한 경험이 있으며 화전민정리와 산림이용과 열대림 벌채에 관한 많은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으므로 산림개발조사사업, 기술·인력협력사업, 기자재공여 사업 등을 통해 임업분야 협력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o '93년부터 시작된 해외조림사업은 정부의 재정 지원하에 민간기업의 주도로 베트남을 비롯한 열대지방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한 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서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경제·외교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음. 이는 국제적으로는 아국이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리고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정부개발원조가 지구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아국의 자원확보에도

도움을 준다는 인식을 심을 수 있음.

④ 자원개발

○ 광물자원은 풍부할 뿐만 아니라, 품질도 우수하고 대부분 미개발된 채로 남아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진출전망은 상당히 밝으며, 투자 유망 광물자원은 원유, 석탄, 철, 보석 등임. 그러나 자원평가가 주로 소련 및 동구권 국가에 의해 행해져, 신뢰도에 의문점이 많으므로 베트남 광물자원 개발에 참여하기에 앞서 자원조사가 완료되어야 함. KOICA는 한·베 양국간에 상호 도움이 되는 분야에 대한 자원조사의 일환으로 개발조사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 생산기술 및 경영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광업의 현대화와 개발조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타당성조사 이후 민간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EDCF를 이용한 중소규모의 기업수준) 자원개발을 촉진시켜야 함. KOICA로서는 현재 진행중인 개발조사 사업(안케지역 광물조사)의 성공을 위해 중간평가와 전문가를 활용하여 시범적인 프로젝트가 되게 하고 이와 동시에 철저한 환경영향 평가를 통하여 예상되는 환경문제를 최소화 해야 함.

⑤ 수력개발 및 에너지

○ 발전용량은 '95년에는 140억kwh가 생산될 예정이나 약 30억kwh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베트남은 수력개발 잠재력이 많지만 2000년까지 전력생산 증가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미화 약 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SPC에 따르면 우선 긴급한 사업만 추진하는데도 1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러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외국의 지원이나 투자가 필수적임.

○ 단기적 개발 목표는 송·배전 설비 생산공장의 확충 및 장비를 현대화

시키는 것이며, 중기 계획은 석탄 처리 및 변환시설의 개발, 그리고 전국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공급은 물론 관개 및 홍수조절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임. 이외에 송·배전망 확충, 남부지역의 다목적 수력발전소 완공 및 중부지역에서의 화력발전소 건설이 포함되어 있음.

○ 기존의 수력발전소나 건설 계획중인 발전소로 인해 산림황폐와 토양침식이 이루어져 저수지에 토양이 쌓여 홍수조절 능력 및 관개능력을 감소시키고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수력발전소 주위에 적절한 조림이 이뤄져야 할것임. 장래의 전력수요량은 수력발전만 개발하여도 충당할 수 있으므로 KOICA로서는 전력 및 에너지 수요조사, 수력발전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경영기법과 최신의 기술을 제공하는 인력·기술협력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임. 동시에 개발조사의 일환으로서의 타당성조사사업 및 기자재공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프로젝트 참여시 주변환경에 대한 면밀한 환경영향 평가가 있어야 함.

⑥ 수송

○ 수송분야에 있어서 정부의 중장기적인 투자 우선순위는 ① 도로의 전면적 보수 및 건설, ② 구식장비 및 기관차의 교체, ③ 장비 및 사회기간시설의 수리 및 정비 등임. 철도는 ① 하노이-호지민시와 하노이-라오차이간의 300㎞에 이르는 철도의 보수 및 정비를 비롯한 20,000여개에 이르는 교량의 보수 및 터널의 건설을 포함, ② 디젤기관차, 증기기관차 정비·수리시설을 갖춘 작업장 설치 및 차량구입임. 육상운송의 경우는 ① 자갈길(1,200㎞) 아스팔트포장, ② 기존 10,500㎞의 아스팔트 도로 전면 보수, ③ 신규다리 건설 및 기존 다리의 보수, ④ 버스 구입 등임.

○ 항만은 ① 하이펑지역 7백만㎡ 준설작업과 준설선 구입, ② 하역 크레인

구입, ③ 창고에서 화물처리를 개설시킬 수 있는 장비 구입, ④ 컨테이너 처리가 가능한 컨테이너 항구건설(츄아베), ⑤ 1만~3만톤의 선박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항구건설, ⑥ 부두수리 및 창고건설 그리고 하역장비, 수로안내 보트, 예인선 및 통신장비 교체를 포함한 사이공항구의 수리 및 전면적 보수 등임.

o 이런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계획수립·협상·수행에 이르기까지 오랜시간(보통 3~4년)이 걸림으로 우선 급한 곳을 처리하는 단기계획과 운송부문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정책연구기구를 신설하고 사업타당성조사를 진행시키는 것이 필요함.

o 현재 18번도로 개량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한국측이 검토하고 있음. 따라서 KOICA에서는 이런분야에서 한정된 작은 규모의 자원을 이용하여 타당성 조사, 기술·인력 협력사업 및 기자재공여 등을 행하는 한편 운송부문 개발 정책·연구·집행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임.

⑦ 통신

o 통신서비스는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 모두 현재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에 미흡하며 특히 대부분의 기존 통신시설이 낡고 구식으로 정비가 어려우며 비용이 많이 들고 있음. 게다가 통신서비스가 빈약하고 신뢰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효율적인 통신망의 확장을 위해 가급적 빨리 구식장비를 교체해야 함.

o 베트남의 전화교환기 시장규모는 현재 18만회선에 머물고 있지만 적극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노력에 힘입어 오는 2천년 300만회선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동분야의 지원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o 베트남 정부는 향후 10년동안에 걸쳐 각 전화국에 국제전화교환시설을 설치하는 총 투자금액 미화 2,000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외국의 원조를 기대하고 있는바, KOICA로서는 연수생 초청 사업을 통한 기술이전과 한국이 필요로 하지 않는 기자재 및 설비 등을 원조하는 방안등을 고려할 수 있음.

⑧ 건설

o 베트남은 하노이-하이퐁간 도로보수사업을 비롯 도로, 공항, 발전소건설과 시멘트, 비료, 석유화학 공장 건설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있어 앞으로 베트남 건설진출 전망은 밝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o 베트남측이 제안한 24개 프로젝트는 하노이~하이퐁간 도로보수공사(연장 1백6㎞, 1억3천만 달러 규모), 하노이~빈 도로보수공사(4백50㎞, 1억2천만 달러 규모)등 전후복구공사와 얄리 수력발전소 건설(7백MW, 6억 달러 규모), 호앙마이 시멘트공장 건설(연산 2백만t, 2억5천만 달러 규모)등 사회기반시설 공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일본은 JICA, OECF자금을 앞세워 활발한 투자활동을 펼치고 있음. KOICA에서는 협력사업이 민간기업 혹은 대외경제협력기금 등과 연결될 경우 국내적으로 KOICA 위상 제고면에서도 건설분야 협력사업은 고려해 볼만함.

o 한국의 입장에서는 해외유휴장비('91년도 말 1,854대, 9천 884만 달러) 활용이라는 측면과 베트남의 경제개발에 실질적인 협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남방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음. 이를 위해 한·베트남간 경협을 상징하는 Pilot Project를 추진하되 베트남의 경제개발 관점에서 가장 실리적이고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투자효율이 높은 프로젝트를 선정 실시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특히 아국은 베트남의 경제개발에 수반되는 건설사업에 필요한 우리의 축적된 기술과 경영자문 등의 각종 협력을(전문가파견, 연수생 초청사업 및 직업훈련센타 설립 혹은 타다엉조사) 제공하므로서 양국 건설업의 실질적인 협력을 유도하며, 원조의 실질적 혜택을 받는다는 한국형 원조이념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

- 베트남 자원개발과 공단조성 및 제조업 등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건설공사에도 아국기업이 적극 진출하여 경험을 쌓도록 민간업계와 함께 경협의 성과를 제고토록 해야 함. 그외 국제금융기관인 IBRD, ADB 등과 함께 협력하여 이들로부터 지원되는 개발자금으로 발주될 도로, 항만 등 각종 건설지원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메콩강 개발계획 등 각종 건설지원사업에 KOICA가 활발히 참여 해야할 것임.

〈참 고 문 헌〉

국제민간경제협의회, 1990.6. 동구 · 베트남담당 실무자 WORKSHOP 자료 및 결과보고

——, 1991.9. 북방국가 편람

——, 1991.11. 북방국가별 주요통계

——, 1991.11. 한 · 베트남 경제협력 방안

——, IPECK 북방경제, 각호

김학수, 1992.1. 한국의 대베트남 경제협력 추진방안, KIEP

대한무역진흥공사, 1990.10. 베트남

동서문제연구원, 1992. 베트남 · 캄보디아 · 라오스, 법문사

북방지역센터, CNAS 북방경제, 각호

——, 1992. 베트남 편람

산업연구원, 1990. 베트남

——, 1990.2. 공산권 국별편람 : 베트남

삼성경제연구소, 1992.5.10. 세계경제

안희완, 1991. 베트남의 경제개발전략과 외국인투자환경, 산업연구원

——, 1991~92. 베트남 경제동향 1~12집

유인선, 1988. 베트남사, 민음사

이범준외, 1992. 동남아공산권연구, 박영사

이선환외, 1991.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경제협력 정책방향,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한국무역협회, 1991.11. 대베트남 교역 및 투자환경

——, 1991. 동남아 투자환경조사단 결과보고 (베트남, 미얀마)

——, 일간무역 각호

한국수출입은행, 1992. 2. 베트남

——, 1992. 수은업무편람

ADB, 1991. Asian Development Outlook 1991

——, 1992. Asian Development Outlook 1992

EIU, 1991~92. Country Report : Indochina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1. Asia 1991 Yearbook, Hongkong

General Statistical Office, 1992. Industrial Statistics Data in Vietnam 1986~1991 : allocation, structure, scale and efficiency

——, 1991. Statistical Data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1976~1990

——, 1992. Statistical Data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1986~1991

——, 1992. The Statistical Data of Vietnam's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1976~1991

——, 1991. Vietnam-Economy and Finance of Vietnam 1986~1990

General Statistical Office Trade Information Center, 1991. Economy & Trade of Vietnam 1986~1990, Hanoi

Ministry of Forestry, 1991. Vietnam : Forestry Sector Review, Tropical Forestry Action Programme

Nguyen Trong Dieu, 1990. Geography of Vietnam.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1. Indochina : Vietnam, Laos & Cambodia Country Report, No. 1

The World Bank, 1991. World Development Report 1990, Oxford University Press

——, 1991. Viet Nam : Restructuring Public Finance and Public Enterprises

UNDP, 1990. Report on the Economy of Vietnam

——, 1992. Report of the Viet Nam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Sector Analysis

——, 1993. Vietnam : Country Programme Management Plan

——, 1993. Development Co-Operation : Vietnam

Vo Dai Luoc, 1992. Curving inflation and the process of economic renovation in Vietnam. Institstute of World Economy Vietnam National Centre for Social Sciences, Social Sciences Publishing House, Hanoi

일본무역진흥회, 1990.6.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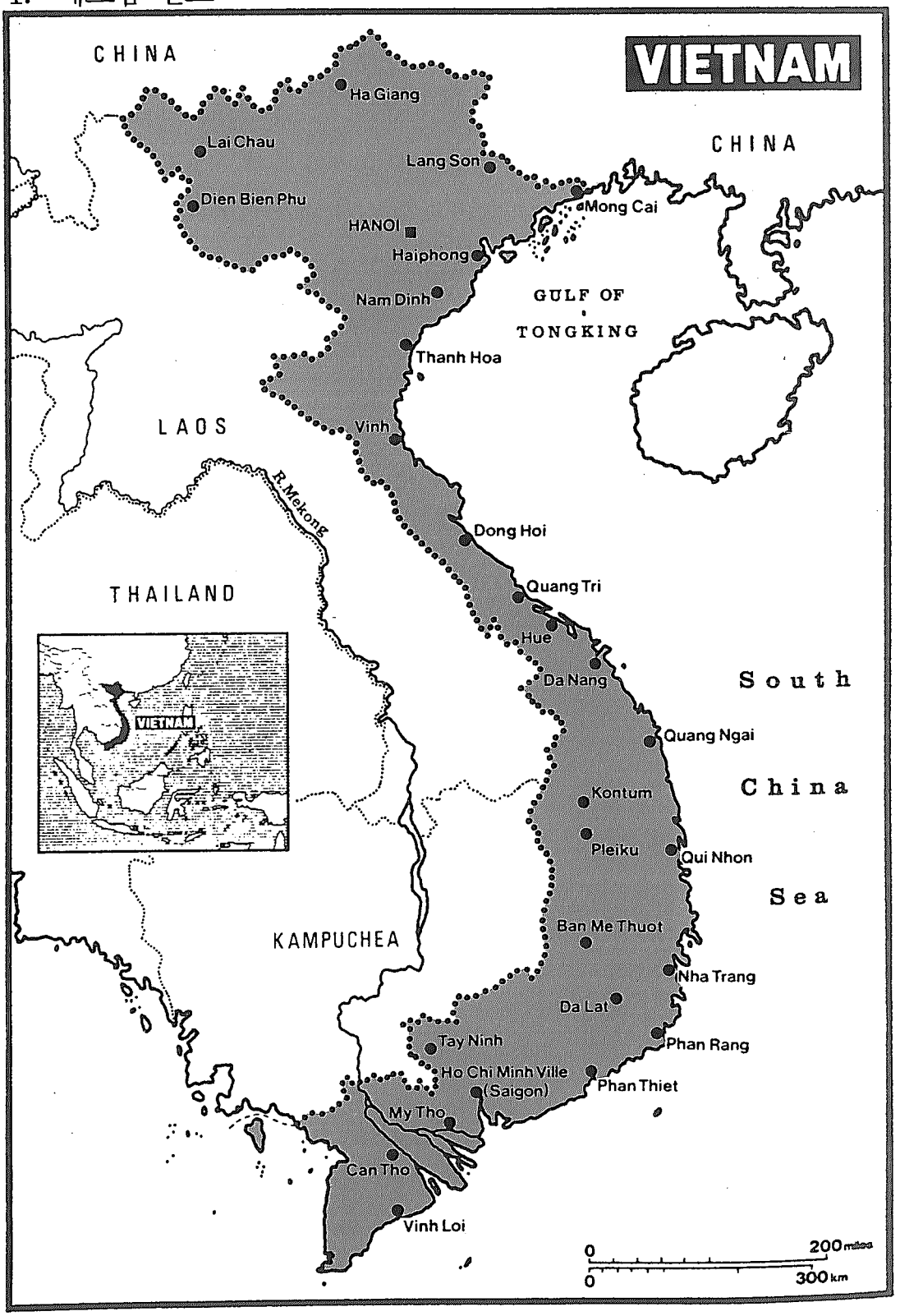
——, 1992.4.4 통상홍보

베트남경제연구소, 1992. 베트남 경제동향, No. 8.

〈부 록〉

1. 베트남 전도
2.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요약
3. 원조 현황
4. 지역별 베트남 수출 동향
5. 원조에 의한 수입액 추이
6. 베트남 역대 국회 현황
7. 한 · 베트남 주요인사 교류 및 일지
8. '91/'92 주요 일지
9. NGOs in Vietnam

1. 베트남 전도


VIETNAM
CHINA
CHINA
Ha Giang
Lai Chau
Lang Son
Dien Bien Phu
Mong Cai
HANOI
Haiphong
Nam Dinh
GULF OF
TONGKING
Thanh Hoa
LAOS
Vinh
R. Mekong
Dong Hoi
THAILAND
Quang Tri
Hue
Da Nang
South
China
Sea
Quang Ngai
Kontum
Pleiku
Qui Nhon
Ban Me Thuot
KAMPUCHEA
Nha Trang
Da Lat
Tay Ninh
Phan Rang
Ho Chi Minh Ville
(Saigon)
Phan Thiet
My Tho
Can Tho
Vinh Loi
0
200 miles
0
300 km

2.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요약

Ⅰ. 일 반

1. 위 치 : 인도지나반도 동부
2. 기 후 : 고온다습, 열대성 기후
3. 면 적 : 329,566㎢(한반도의 1.5배)
4. 인 구 : 6,927만명('92년, 1월 14일 현재) 인구밀도 205명/㎢
5. 인구증가율 : 2.17%('91년)
6. 수 도 : 하노이, 주요도시 : 호지민시(다낭, 붕타우)
7. 주요민족 : 베트남인(88%), 타이, 므엉, 메오, 모이족 등 54개 소수민족(12%)
8. 주요언어 : 베트남어
9. 종 교 : 불교, 카톨릭
10. 교 육 : 의무교육 12년
11. 영 해 : 12해리('77년 5월 선포) 및 전관경제수역 200해리
12. 영 공 : 영공선언('84년 6월)

Ⅱ. 정 치

1. 독 립 일 : 1945.9.2 국경일 : 9.2(건국기념일)
2. 정 체 : 사회주의공화국
3. 원 수 : 국가평의회회의장
4. 의 회 : 국회
5. 서 기 장 : 도 무오이
6. 국가평의회의장(대통령) : 레 둑 안, 각료평의회의장(수상) : 보 반 키에트
7. 주요정당 : 베트남 공산당
8. 국제기구가입 : UN('77.9), FAO, UNESCO, WHO, IBRD, IMF, ITU, IFC, UPU, WMO, 비동맹국제회의, COMECON

Ⅲ. 경 제

1. 국민총생산량 : $160억(1인당 $210)
2. 화 폐 단 위 : Dong($1=10,000 Dong;'93.4 현재)
3. 무 역('92) : 수출 $25.0억불, 수입 $24.5억불
4. 외 채 : '92 총 $146억(추정치)

주 요 경 제 지 표

구 분	단 위	1989	1990	1991
G D P	억 달 러	133.8	137.0	140.4
실질GDP성장율	%	5.5	2.4	2.5
통화량증가율	%	188.9	53.1	75.0
소매물가상승율	%	39.0	85.0	60.0
재 정 수 지	백만달러	-590	-333.0	-
외 채 총 액	억 달 러	78.4	81.5	-
경 상 수 지	백만달러	-320	-610	-200
수 출	백만달러	1,455	1,729	1,900
수 입	백만달러	1,517	1,874	1,800
주 요 수 출 상 품		농산물, 경공업제품, 광물, 중공업제품		
주 요 수 입 상 품		원료, 원자재, 기계 · 설비, 소비재		
주 요 수 출 대 상 국		소련,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체코		
주 요 수 입 대 상 국		소련, 일본, 홍콩, 프랑스, 호주, 스웨덴		

Ⅳ. 우리나라와의 관계

구 분	한 국	비 고(북한)
외교 관계수립일	'92. 12. 22	'50. 1. 30
상주 공관설치일	'92. 12. 22	'50. 10. 25

주요협정체결	경제기술협력협정 ('92), 무역협정 · 투자보장협정 항공협정 ('93)			
교 역 현 황	1990	1991	1992	주요품목
수출(백만달러)	117	199	436	섬유, 시멘트, 전자제품
수입(〃)	33	41	57	무연탄, 원목
투 자 실 적	('92년 말 현재):18건, 88,304천 달러 (제조업,운수보관업)			

3. 원조현황 : 공여국별 원조추이(Ⅰ)

(1,000 달러)

DONOR	1988	% CHANGE 1988-1989	1989	% CHANGE 1989-1990	1990	% CHANGE 1990-1991	1991	1992 (planned)
1. MULTILATERAL								
1.1 UNITED NATIONS SYSTEM								
ESCAP	2	-	62	-83.9	10	20.0	12	
FAO	218	131.2	504	77.4	894	-44.2	499	245
IAEA	226	50.0	339	287.9	1,315	-48.1	682	990
ILO		-	11	418.2	57	-		
IMF		-		-	40	285.0	154	
IMO		-		-		-	1	
TCDC		-	1	-		-		
UNCDF		-		-		-	736	5,840
UNDP	21,220	-7.0	19,744	76.5	34,857	-26.2	25,727	25,263
UNEP		-	36	-5.6	34	-		
UNESCO		-	44	138.6	105	129.5	241	
UNFPA	2,209	261.3	7,981	-29.2	5,649	-7.6	5,220	4,700
UNHCR		-	2,016	424.8	10,579	-8.8	9,646	12,413
UNICEF	4,666	61.7	7,545	59.4	12,023	-4.4	11,495	14,768
UNIDO	67	50.7	101	108.9	211	-78.2	46	
UNIFEM		-	27	140.7	65	310.8	267	
UNV		-		-	23	-		
UPU		-	2	550.0	13	-		
WFP	13,781	-70.9	4,008	184.0	11,383	34.4	15,299	12,165
WHO		-		-	1,645	115.6	3,545	36
WMO		-	4	-		-		
TOTAL	42,389	.1	42,425	86.0	78,903	-6.8	73,570	76,420
1.2 NON-UNITED NATIONS SYSTEM								
EC		-	945	-		-	1,535	
TOTAL		-	945	-		-	1,535	
2. BILATERAL								
ALGERIA		-		-		-	11	
AUSTRALIA	4,326	-57.9	1,823	201.4	5,494	-42.5	3,160	159
AUSTRIA		-		-	137	40.1	192	
BELGIUM		-		-	245	44.1	353	100
CANADA		-		-	30	390.0	147	
CHINA		-		-		-	2	
CZECHOSLOVAKIA		-		-		-	850	
DENMARK		-		-	205	116.6	444	
EGYPT		-	38	-		-		
FINLAND	6,800	67.3	11,375	4.8	11,925	11.8	13,337	18,621
FRANCE		-	4	-		-	12,172	15,953
GERMANY		-	8	-50.0	4	23.0	96	
ITALY		-		-	61	-		514
JAPAN	2	750.0	17	594.1	118	-1.7	116	121
NETHERLANDS		-	10	-	906	812.1	8,264	802
NORWAY		-	7	885.7	69	10.4	790	
NEW ZEALAND		-		-	37	300.0	148	
REPUBLIC OF KOREA		-		-	3	133.3	7	
SWEDEN	28,329	.3	28,401	37.0	38,904	-22.5	30,152	44,905
SWITZERLAND	112	283.9	430	184.7	1,224	-68.6	384	48
UNITED KINGDOM		-		-		-	33	
RUSSIAN FEDERATION	633,209	-63.3	232,193	38.6	321,799	-50.4	159,558	
TOTAL	672,778	-59.2	274,306	39.0	381,161	-39.6	230,216	81,223

DONOR	1988	% CHANGE 1988-1989	1989	% CHANGE 1989-1990	1990	% CHANGE 1990-1991	1991	1992 (planned)
3. NGO								
ASSOCIATION D'AMITIE FRANCO-VIETNAMIENNE		-	157	-		-		
AGENCE DE COOP. AU DEVEL. PAR LES SCIENCES ET LES TECHNIQUES		-		-	18	-		
ASSOCIATION DE COOPERATION INTERNATIONALE AU DEVELOPPEMENT		-		-	10	240.0	34	
AUSTRALIAN CATHOLIC RELIEF		-		-		-	19	
ACTIONAID		-		-	105	-		
ASSOCIATION EUROPE FRANCE ASIE		-	100	-		-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104	-57.7	44	470.5	251	37.1	344	
AUSTRALIAN TEACHER'S FEDERATION		-		-	5	-		
BROT FUR DIE WELT		-	807	6.9	863	-46.9	458	193
COMMUNITY AID ABROAD		-		-	68	-		
CARITAS GERMANY		-		-	620	-		
CHRISTOFFEL-BLINDENMISSSION	148	-24.3	112	47.3	165	-		
CHRISTIAN CHILDREN'S FUND OF CANADA		-		-		-	10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AND SOLIDARITY	143	-	1,651	-28.0	1,189	81.2	2,154	
CIMADE-SERVICE OECUMENIQUE D'ENTRAIDE		-		-	185	-		
COOPERATION DEVELOPPEMENT		-	3	100.0	6	133.3	14	
COOPERATIVE SERVICES INTERNATIONAL	12	-		-	268	-39.2	163	
CHURCH WORLD SERVICE		-		-		-	651	845
DANISH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		-		854
FRANCE AVENIRS		-	4	-		-		
FORD FOUNDATION		-		-	197	-35.0	128	
FINLAND VIETNAM FRIENDSHIP ASSOCIATION		-		-	30	-		
INTERCHURCH COORDINATION COMMITTEE FOR DEVELOPMENT PROJECTS		-		-		-	710	
INTERCHURCH FUN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		-	4	
INTERNATIONAL WOMEN'S DEVELOPMENT AGENCY		-		-		-	42	45
KINDERHILFE E.V	61	59.0	97	-37.1	61	-3.3	59	
KOMITEE VOOR WETENSCHAP EN TECHNIEK	255	-15.3	216	36.6	295	-32.2	200	50
LEAGUE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100	120.0	220	-		-	451	-
MENNONITE CENTRAL COMMITTEE		-		-	251	2.0	256	
MOUVEMENT SUISSE POUR LA PAIX		-	36	-		-		
NETHERLANDS ORGANIZATIO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		-		31

DONOR	1988	% CHANGE 1988-1989	1989	% CHANGE 1989-1990	1990	% CHANGE 1990-1991	1991	1992 (planned)
OCEAN INSTITUTE OF CANADA		-		-		-	70	
OVERSEAS SERVICE BUREAU		-		-	117	-		
OXFAM - BELGIUM		-	4,576	-99.4	28	321.4	118	179
OXFAM - HONGKONG		-		-	55	-20.0	44	6
OXFAM - UNITED KINGDOM		-	558	125.6	1,259	-61.1	490	183
PEUPLES SOLIDAIRES - BELGIUM		-		-		-	90	
PEACE VILLAGE INTERNATIONAL	395	43.8	568	-99.1	5	-		
SAVE THE CHILDREN FEDERATION - USA		-		-	239	79.9	430	240
SAVE THE CHILDREN FUND -UK	30	813.3	274	-65.3	95	-40.0	57	10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		-	237	
UNIVERSITE DE MONCTON		-		-		-	13	
WORLD COUNCIL OF CHURCHES		-		-	18	-		
WORLD VISION		-		-	650	30.8	850	
WAR ON WANT		-	55	-		-		
TOTAL	1,248	659.5	9,478	-25.6	7,048	14.9	8,099	2,586
GRAND TOTAL	716,415	-54.3	327,154	42.8	467,112	-32.9	313,414	160,229

3. 원조현황 : 분야별 원조추이 (Ⅱ)

(1,000 달러)

SECTOR / SUBSECTOR	1988	% CHANGE 1988-1989	1989	% CHANGE 1989-1990	1990	% CHANGE 1990-1991	1991	1992 (planned)
ECONOMIC MANAGEMENT								
MACRO-ECONOMIC POLICY AND PLANNING		-	10	111.2	1,122	107.8	2,332	2,595
FISCAL POLICY AND PLANNING		-	1	-		-		
MONETARY POLICY AND PLANNING		-	24	1012.0	24,314	-38.1	15,047	19,756
EMPLOYMENT POLICY AND PLANNING		-		-		-	103	81
TOTAL		-	35	725.7	25,436	-31.3	17,482	22,432
DEVELOPMENT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AND PLANNING		-	54	211.1	168	48.8	250	545
FOREIGN AID CO-ORDINATION AND PLANNING	277	-	22,737	71.1	38,910	-98.0	782	948
DEBT MANAGEMENT		-	2	-		-	1,379	
TECHNOLOGY POLICY AND PLANNING	33	-	765	137.6	1,818	-		
GENERAL STATISTICS	105	29.5	136	.7	137	17.5	161	128
GENERAL CARTOGRAPHY	756	-14.8	644	36.8	881	-90.9	80	127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LAW		-		-	114	43.0	163	
TOTAL	1,171	-	24,338	72.7	42,028	-93.3	2,815	1,748
NATURAL RESOURCES								
LAND USE PLANNING		-	5	-80.0	1	-		
WATER RESOURCES PLANNING	6,675	3.6	6,918	-77.1	1,582	-53.4	737	195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REHABILITATION	366	-62.8	136	511.0	831	135.6	1,958	3,800
MINERAL RESOURCES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27,094	9.7	29,731	60.1	47,595	-96.0	1,884	389
COAL, PETROLEUM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84,686	-85.6	12,215	-46.7	6,512	-		
TOTAL	118,821	-58.8	49,005	15.3	56,521	-91.9	4,579	4,384

SECTOR / SUBSECTOR	1988	% CHANGE 1988-1989	1989	% CHANGE 1989-1990	1990	% CHANGE 1990-1991	1991	1992 (planne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CTOR POLICY AND PLANNING	1	400.0	5	23.8	124	332.3	536	174
PRIMARY SCHOOLING	733	32.5	971	33.0	1,291	-46.3	693	1,629
SECONDARY SCHOOLING	175	134.9	411	30.2	535	312.9	2,209	1,927
TERTIARY EDUCATION	1,403	-19.5	1,129	33.2	1,504	18.9	1,789	1,163
TECHNICAL AND MANAGERIAL EDUCATION AND TRAINING	2,156	-30.3	1,502	339.1	6,595	-39.7	3,976	3,619
NON-FORMAL EDUCATION	137	324.1	581	113.8	1,242	-40.3	741	928
TOTAL	4,605	-.1	4,599	145.5	11,291	-11.9	9,944	9,440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ECTOR POLICY AND PLANNING	488	108.8	1,019	-4.4	974	-46.5	521	378
RESEARCH AND DEVELOPMENT	3,723	-63.0	1,378	31.4	1,811	1.4	1,837	1,320
SUPPORT SERVICES	244	742.2	2,055	12.6	25,998	-51.8	12,520	6,8935
FOOD CROPS	892	161.8	2,335	23.7	2,888	-56.0	1,272	684
INDUSTRIAL CROPS	18,290	-82.1	3,268	996.3	35,827	-99.8	54	10
LIVESTOCK	608	88.8	1,148	111.9	2,433	-27.7	1,759	899
FORESTRY	4,788	-9.4	4,339	93.6	8,401	79.6	15,088	12,685
FISHERIES	550	20.9	665	83.3	1,219	1.3	1,235	902
TOTAL	29,583	-45.2	16,207	390.8	79,551	-56.9	34,286	23,771
AREA DEVELOPMENT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	34	-50.0	17	40.3	703	376
RIVER BASIN DEVELOPMENT	72	211.1	224	695.5	1,782	-10.6	1,593	1,516
TOTAL	72	258.3	258	597.3	1,799	27.6	2,296	1,892

SECTOR / SUBSECTOR	1988	% CHANGE 1988-1989	1989	% CHANGE 1989-1990	1990	% CHANGE 1990-1991	1991	1992 (planned)
INDUSTRY								
SECTOR POLICY AND PLANNING	67	6.0	71	-40.8	42	-59.5	17	1
TECHNOLOG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4,222	-19.4	3,401	139.7	8,152	-26.7	5,975	4,003
SUPPORT SERVICES AND FACILITIES	24,746	-74.6	6,297	404.4	31,763	-85.0	4,770	2,556
COTTAGE AND SMALL-SCALE INDUSTRY	125	108.0	260	-72.3	72	934.7	745	441
MEDIUM-SCALE INDUSTRY	4,250	-95.4	194	17.0	227	114.1	486	839
LARGE-SCALE INDUSTRY	68,652	-58.2	28,719	-71.8	8,091	-		
TOTAL	102,062	-61.8	38,942	24.2	48,347	-75.2	11,993	7,840
ENERGY								
SECTOR POLICY AND PLANNING		-	9	188.9	26	338.5	114	10
NEW AND RENEWABLE SOURCES OF ENERGY	9	500.0	54	96.3	106	-22.6	82	5
HYDROELECTRIC POWER GENERATION AND TRANSMISSION	229,059	-58.9	94,089	-50.2	46,883	71.6	80,449	
CONVENTIONAL ENERGY SOURCES, GENERATION AND TRANSMISSION	176,294	-70.0	52,814	21.8	64,306	20.0	77,137	8,352
ENERGY CONSERVATION	935	-64.9	328	-34.8	214	-47.7	112	
TOTAL	406,297	-63.7	147,294	-24.3	111,535	41.6	157,894	8,367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SECTOR POLICY AND PLANNING				-	4	42.7	175	203
GLOBAL TRADE POLICIES AND PROCEDURES		-	4	-		-		
INTERNATIONAL TRADE IN PRIMARY GOODS		-	1	-		-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69	-94.2	4	-75.0	1	100.0	2	
EXPORT PROMOTION	6	33.3	8	-37.5	5	12.0	65	283
TOTAL	75	-77.3	17	-41.2	10	23.2	242	486

SECTOR / SUBSECTOR	1988	% CHANGE 1988-1989	1989	% CHANGE 1989-1990	1990	% CHANGE 1990-1991	1991	1992 (planned)
DOMESTIC TRADE IN GOODS AND SERVICES								
TOURISM	379	-69.7	115	387.8	561	-91.1	50	5
OTHER SERVICE INDUSTRIES		-		-	220	-98.6	3	
TOTAL	379	-69.7	115	579.1	781	-93.2	53	5
TRANSPORT								
SECTOR POLICY AND PLANNING	2,686	-99.0	28	16.5	489	-1.4	482	88
ROAD TRANSPORT		-	35	-		-	588	8,324
RAIL TRANSPORT	19,962	-98.0	404	89.6	766	-95.3	36	
WATER TRANSPORT AND SHIPPING	8,032	-.4	7,996	-42.2	4,618	-66.8	1,533	294
AIR TRANSPORT	565	172.4	1,539	-50.4	764	234.6	2,556	285
TOTAL	31,245	-68.0	10,002	-33.6	6,637	-21.7	5,195	8,991
COMMUNICATIONS								
SECTOR POLICY AND PLANNING		-	15	-33.3	10	-		
POSTAL SERVICES		-	7	48.7	348	-69.3	107	
TELECOMMUNICATIONS		-	4,785	67.4	8,011	-94.4	451	
TELEVISION, RADIO AND PRINT MEDIA		-		-	70	411.4	358	
DEVELOPMENT SUPPORT COMMUNICATION	890	-85.6	128	-43.0	73	-30.1	51	210
TOTAL	890	454.5	4,935	72.5	8,512	-88.6	967	210

SECTOR / SUBSECTOR	1988	% CHANGE 1988-1989	1989	% CHANGE 1989-1990	1990	% CHANGE 1990-1991	1991	1992, (planned)
SOCIAL DEVELOPMENT								
SOCIAL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2	-	36	455.6	200	-49.0	102	118
URBAN DEVELOPMENT		-	9	74.6	681	17.6	801	514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7,157	40.9	10,085	32.9	13,406	7.0	14,342	22,893
HOUSING	850	50.9	1,283	99.1	2,555	-73.8	669	207
CULTURE		-	83	181.1	15,115	-99.1	137	193
PREVENTION OF CRIME AND DRUG ABUSE		-		-		-	7	
TOTAL	8,009	43.5	11,496	178.0	31,957	-49.8	16,058	23,925
HEALTH								
SECTOR POLICY AND PLANNING		-	10	22.7	237	413.9	1,218	173
PRIMARY HEALTH CARE	9,427	-55.3	4,218	272.2	15,699	-2.5	15,313	15,617
IMMUNIZATION AND OTHER DISEASE CONTROL CAMPAIGNS	437	494.5	2,598	94.2	5,046	12.7	5,689	3,903
FAMILY PLANNING	1,979	311.6	8,145	-37.8	5,063	.5	5,088	4,700
HOSPITALS AND CLINICS	287	186.8	823	44.1	1,186	364.8	5,512	7,526
TOTAL	12,130	30.2	15,794	72.4	27,231	20.5	32,818	31,919
DISASTER PREPAREDNESS								
METEOROLOGY	635	-72.6	174	123.0	388	28.1	497	
SEISMIC PREDICTIONS	138	-36.2	88	-36.4	56	-92.9	4	
RELIEF PLANNING AND INSTITUTIONAL PREPAREDNESS		-	14	35.7	19	236.8	64	10
PHYSICAL MEASURES		-	96	21.3	2,141	-74.5	547	257
TOTAL	773	-51.9	372	600.0	2,604	-57.3	1,112	267
HUMANITARIAN AID AND RELIEF								
REFUGEES AND RETURNEES		-	2,636	162.1	6,910	64.4	11,361	12,660
EMERGENCY RELIEF	299	271.6	1,111	436.6	5,962	-27.7	4,311	1,823
TOTAL	299	-	3,747	243.5	12,872	21.8	15,672	14,483
GRAND TOTAL	716,411	-54.3	327,156	42.8	467,112	-32.9	313,406	160,226

3. 원조현황 : 유형별 원조추이(Ⅲ)

(1,000 달러)

TYPE OF ASSISTANCE	1988	% CHANGE 1988-1989	1989	% CHANGE 1989-1990	1990	% CHANGE 1990-1991	1991	1992 (planned)
FREE-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	659,920	-60.3	261,722	46.1	382,260	-40.6	227,023	64,982
INVESTMENT-RELATED TECHNICAL COOPERATION	11,540	25.3	14,455	-63.6	5,255	60.0	8,408	15,428
INVESTMENT PROJECT ASSISTANCE	27,498	8.4	29,730	-17.7	24,473	4.1	25,469	35,461
PROGRAMME/BUDGETARY AID OR BALANCE OF PAYMENTS SUPPORT	3,395	168.3	9,110	239.3	30,909	-19.4	24,914	17,669
FOOD AID	13,781	-32.5	9,302	6.3	9,891	70.1	16,824	13,938
EMERGENCY AND RELIEF ASSISTANCE	280	913.2	2,837	404.9	14,324	-24.8	10,772	12,749
GRAND TOTAL	716,414	-54.3	327,156	42.8	467,112	-32.9	313,410	160,227

4. 지역별 베트남 수출동향

(단위 : 100루블/달러)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추정)
총 계	789, 054	854, 199	1, 038, 434	1, 946, 004	2, 404, 039	1, 970, 000
1. 아 시 아	177, 957	176, 755	212, 853	526, 714	1, 040, 732	1, 315, 144
동남아시아	70, 981	65, 646	73, 286	133, 052	348, 588	288, 070
그 외	106, 976	111, 109	139, 567	393, 662	692, 144	1, 027, 074
한 국	20, 217	3, 894	7, 054	25, 040	26, 734	57, 410
북 한	303	916	538	536	583	300
2. 유 럽	446, 911	498, 008	599, 517	875, 654	1, 215, 138	274, 224
동 유 럽	416, 066	466, 826	564, 756	779, 499	1, 064, 976	205, 121
서 유 럽	30, 845	31, 182	34, 761	96, 155	150, 162	69, 103
3. 미 주	14, 234	11, 810	15, 247	16, 555	15, 723	7, 345
북 미	32	1, 143	363	3, 869	3, 502	2, 474
중 남 미	14, 202	10, 667	14, 884	12, 686	12, 221	4, 571
4. 아 프 리 카	40	-	1, 632	390	4, 195	12, 710
5. 대 양 주	3, 607	4, 661	3, 930	793	7, 701	16, 764
6. 국 제 기 구	355	327	479	-	1, 781	782
7. 기 타	145, 950	162, 638	204, 776	204, 776	118, 769	343, 034

5. 원조에 의한 수입액 추이

구 분	1986		1987		1988	
	수입총액	원조부문	수입총액	원조부문	수입총액	원조부문
총 계	2,155,081	46,801	2,455,098	56,276	2,756,660	65,276
1.아 시 아	227,972	400	209,566	178	246,076	761
동남아시아	54,548	11	53,977	-	57,581	-
그 외 지 역	173,424	389	155,589	178	188,495	761
한 국	6,164	-	6,788	-	4,450	-
북 한	-	-	1,323	-	138,784	-
2.유 럽	1,704,627	9,116	2,001,034	9,999	2,137,716	16,122
동 유 럽	1,645,581	3,814	1,936,335	4,446	2,001,665	8,385
서 유 럽	59,046	5,302	64,699	5,553	126,051	7,737
3.미 주	6,398	697	8,991	269	10,082	2,148
북 미	697	697	323	269	2,148	2,148
남 미	5,701	-	8,668	-	7,934	-
4.아 프 리 카	339	-	-	-	586	-
5.대 양 주	9,688	22	11,308	300	2,526	697
6.U N 기 관	31,154	31,154	41,382	41,382	42,009	42,009
UNESCO	50	50	-	-	-	-
PNUD	7,097	7,097	5,409	5,409	4,007	4,007
PAM	8,514	8,514	24,834	24,834	25,367	25,367
UNICEP	7,729	7,729	3,977	3,977	6,011	6,011
UNFPA	2,899	2,899	2,014	2,014	1,951	1,951
OMS	3,025	3,025	1,821	1,821	1,399	1,399
HCR	532	532	62	62	-	-
OMM	18	18	-	-	-	-
FAO	558	558	1,035	1,035	324	324
IAEA	73	73	142	142	155	155
ESCAP	-	-	-	-	-	-
나머지	491	491	10	10	1,048	1,048
ITU	-	-	-	-	-	-
메콩위원회	168	168	2,078	2,078	1,747	1,747
7.기타국제기구	11,577	5,412	4,601	4,148	3,989	3,989
8.기 타	163,326	-	178,216	-	313,676	-

구 분	1989		1990		1991	
	수입총액	원조부문	수입총액	원조부문	수입총액	원조부문
총 계	2,565,812	-	2,752,405	33,873	2,193,873	63,873
1.아 시 아	288,582	-	1,009,438	130	1,288,757	1,252
동남아시아	52,328	-	539,755	-	768,757	-
그 외 지 역	236,254	-	469,683	130	520,404	1,252
한 국	15,579	-	53,113	37	129,950	121
북 한	59	-	53	-	1,063	-
2.유 럽	1,787,844	-	168,972	7,883	646,714	40,157
동 유 럽	1,709,721	-	1,604,409	861	389,656	20,930
서 유 럽	78,123	-	1,421,779	7,022	257,058	19,227
3.미 주	10,082	-	11,761	568	10,730	1,080
북 미	2,392	-	4,848	568	6,824	1,057
남 미	7,690	-	6,913	-	3,906	23
4.아 프 리 카	1,977	-	2,413	-	2,225	-
5.대 양 주	10,983	-	10,694	5	10,326	227
6.U N 기 관	-	-	23,971	23,971	36,547	36,547
UNESCO	-	-	8	8	58	58
PNUD	-	-	8,587	8,587	9,248	9,248
PAM	-	-	8,806	8,806	16,850	16,850
UNICEP	-	-	2,311	2,311	5,236	5,236
UNFPA	-	-	3,028	3,028	1,575	1,575
OMS	-	-	501	501	2,359	2,359
HCR	-	-	48	48	468	468
OMM	-	-	-	-	-	-
FAO	-	-	-	-	-	-
IAEA	-	-	164	164	323	323
ESCAP	-	-	-	-	-	-
나머지	-	-	-	-	-	-
ITU	-	-	393	393	192	192
메콩위원회	-	-	125	125	238	238
7.기타국제기구	-	-	1,316	1,316	3,837	-
8.기 타	466,344	-	-	-	194,737	3,837

6. 베트남 역대국회 현황

역 대 국 회	총선일수, 의석수, 국회의장	비 고
제헌국회 (1946-1960)	○ 총선일자 : 1946. 1. 6 ○ 의 석 수 : 333 ○ 국회의장 : Bui Bang Doan	1955년 의장사망 Ton Duc Thang이 계승
2대 국회 (1960-1964)	○ 총선일자 : 1960. 3. 8 ○ 의 석 수 : 362 ○ 상임위원회위원장 : Truong Chinh	
3대 국회 (1964-1971)	○ 총선일자 : 1964. 4. 26 ○ 의 석 수 : 420 ○ 국회의장 : Truong Chinh	
4대 국회 (1971-1975)	○ 총선일자 : 1971. 4. 11 ○ 의 석 수 : 420 ○ 국회의장 : Truong Chinh	
5대 국회 (1975-1976)	○ 총선일자 : 1975. 4. 6 ○ 의 석 수 : 424 ○ 국회의장 : Truong Chinh	
6대 국회 (1976-1981)	○ 총선일자 : 1976. 4. 25 ○ 의 석 수 : 492 ○ 국회의장 : Truong Chinh	1975. 4. 30 통일후에 실시한 총선. 통일국회
7대 국회 (1981-1987)	○ 총선일자 : 1981. 4. 26 ○ 의 석 수 : 496 ○ 국회의장 : Nguyen Huu Tho	
8대 국회 (1987-1992)	○ 총선일자 : 1987. 4. 19 ○ 의 석 수 : 496 ○ 국회의장 : Le Quang Dao	
9대 국회 (1992-1997)	○ 총선일자 : 1992. 7. 19 ○ 의 석 수 : 395 ○ 국회의장 : 92. 9월 정기국회에서 선임	1992. 4. 15 개정헌법, 개정 국회조직법 및 개정국회의원 선거법에 의해 실시

7. 한 베트남 주요인사 교류 및 일지

○ 아국인사 베트남 방문

- '89. 9 KOTRA 주관 관·민 참관단 파견(베트남 '89추계 전시회)
- '90. 4 정부대표단 파견(호지민시 개최 제31차 임시 메콩위원회)
- '91. 4 삼성그룹 시장조사단, 보 반 키에트 수상과 회견(경제협력관계 유지표명)
- '91. 9 수교교섭 준비위한 정세조사단 파견
- '91.12 제2차 수교교섭 정부대표단 파견(정주년 주태국 대사)
- '92. 1 진념 동자부장관(자원 및 경제협력추진 양해각서 서명, 한국 콘소시엄/베트남 국영석유공사간 11.2 광구 조광권 획득 기본 계약 체결)
- '92. 3 제3차 수교교섭 정부대표단 파견(정주년 주태국 대사) (연락대표부 개설 합의)
- '92. 7 연락대표부 설치
- '92.12 이상옥 외무부장관 방베시 수교협정 체결과 대사관 설치 초대대사;박노수대사

○ 베트남 인사 한국방문

- '89. 2 Tuan 경공업부 장관 방한(민간기업 초청)
- '89.10 Ciang 협력투자위 부위원장(각료급) 등 방한
- '90.10 베트남 국가계획위 고문, 상공회의소, 사무차장 등 방한
- '92. 2 Dang Van Than 베트남 우전총국장(장관급) 방한
- '92. 2 Tran Lum 베트남 중공업부 장관 방한
- '92. 6 Le Duc Cang 외무부 차관보 방한
- '92.10 연락대표부 설치
- '92.12 대사관 설치, 초대대사;Nguyen Phu Binh

8. 1991년 주요일지

1. 7 - 제6기 당중앙위 제11회 총회개최
   - 신소득세법이 공포되고 3월 26일 동법의 수정법이 공포되어, 4월 1일 발효
1.10 - 국영석유가스 총공사, 호주 BHP사와 석유·가스 탐사·개발계약 조인
1.20 - 부 오아인 당중앙위서기 이하 6인의 당대표단 방중하여 齊懷遠 외무차관과 회담
1.21 - 베트남 농업은행이 하노이에 설립되고 전국에 43개 지점 개점
1.23 - 소련대표단, 양국간 경제무역협력을 신메카니즘으로 이행시킬 협정에 조인
2. 6 - 보 반 키에트 부수상, 말레시아를 공식방문하여 양국개발 합동위원회 설립에 합의
2.22 - 전군 경제회의 개최, 각군 총장 및 고관들이 참석, 군의 경제·산업 부문의 활동 토의
3. 6 - 상업성 장관이 이끄는 경제대표단, 호주를 방문, 양국경제무역 합동위 첫 회의에 참석
3.11 - 국제투자 FORUM이 호지민시에서 개막되어 31개국 431사 참가
3.26 - 구 엔 반링 당서기장, 베트남 공산당 대표를 이끌고 LAOS를 방문
4. 9 - 주 유엔대사와 베트남 솔로몬 미국무차관보 뉴욕에서 회담(제5회)
   미국측은 국교정상화를 위한 4단계 절차 발표
4.19 - 베시 미대통령 특사, MIA와 POW 문제를 다룰 미사무소 하노이 개설에 합의
5. 5 - 도 무오이수상, 소련을 방문하여 신협정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제반조치에 합의
5. 8 - 구 엔 반링 당서기장, 고루바쵸프 서기장과 회담에서 양국간의 협력강화확인
5.18 - 부정·부패·밀수방지 투쟁추진경의('90년 6월 공포)의 실행 상황 검토 회의 개최
5.19 - '91 VIETNAM 수출입 견본시장 하노이에서 개최
6.23 - 남부 붕타우 앞 해안 룡(龍)유전의 제6호 유정에서 대규모 석유발견
6.24 - 공산당 제7회대회 개최. 사회주의로 향한 과도기의 국가건설·정치강령 2000년까지의 경제·사회안정, 개발전략의 기본내용, 제6회 당대회 결의실행결과의 평가와 '91년-'95년의 주요방향·임무에 당 건설과 규약개정에 관한 당중앙위 보고와 개정

11.25 - 제7기 당중앙위 제2회 총회, '92년-'95년의 경제 · 사회개발에 관한 지도개념, 헌법 개정, 국가기구개편, 국가에 대한 당지도의 개혁 방향등 채택
- 프랑스 외상, 다수의 정부당국자와 유력한 기업대표를 이끌고 방베시 양국관계 증진에 합의

12. 1 - 베 재무부, 하노이, 하이퐁, 호지민등 3개시에서 기간 6개월의 단기국채 발행

12.12 - 호아빈 수력발전소 제4발전기의 시운전개시(20일 정식으로 가동)

12.17 - 미정부, 미국여행사가 조직하는 베트남 여행에 대한 금지조치 해제

12.27 - 각료평의회, 북부산악지대와 高地의 몬족의 경제사회 발전에 관한 회의 개최

12.30 - 개정헌법 초안의 전문공포

1992년 주요일지

1. 7 - 이탈리아, 베트남에 내년부터 2년간 7천만달러의 무상원조 및 차관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지아니 데 미켈리스 외무장관이 밝힘. 이번 對베트남 원조는 지난 '90년부터 올해까지의 1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원조에 이은 추가계획으로서 주로 정보통신 및 전기분야 개발에 사용될 것임.

1.16 - 아난드 태국총리, 보 반 키에트 베트남총리와 지난 '78년 체결되었으나 태국의 캄보디아 게릴라 지원으로 유명무실해진 양국간 무역협정을 갱신한 의정서에 서명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키로 합의.

1.23 - 진념 동자부장관, 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귀국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트란 룸 중공업부 장관과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밝힘.

2.21 - 일본 에너지 관련업계, 對베트남 기술협력을 위한 조사단을 오는 4월에 파견할 예정. 이는 일본정부의 對베트남 ODA 재개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일 · 베트남간 에너지분야 협력의 본격화 되면 일본기업의 對베트남 투자에 활력소가 될 전망.

2.27 - 트란 룸 베트남 중공업부 장관, 동자부에서 경제협력회의를 갖고 한 · 베트남 양국

간 자원개발, 건설사업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3. 5 - Richard Solomon 미국무성 亞·太담당차관보, 베트남 공식방문중 보 반 키에트 베트남총리와 회담을 갖고 연간 3백만달러의 對베트남 인도적 원조를 제공키로 결정.

3.26 - 한·베트남간 자원합작개발 등 자원분야 경제교류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동자부를 대표로 대한광업진흥공사 등 네너지 관련 정부투자기관, 대우·삼성 등 8개 민간 기업관계자 16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조사단 베트남 방문.

4. 5 - 보 반 키에트 수상, 베트남 중부와 남부의 급속한 산림황폐화에 대한 대책으로 주요 수출품인 목재의 수출을 전면금지하고, 산림부에는 산림벌채 규제를, 지방자치단체에는 제재소 면허의 재검토를 지시함.

- 베트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거주자의 소득세를 인하하고 월 263달러 이하의 소득은 면세하는 새로운 조세법 발표.
- 포항제철, 남부철강연합(SSU)과 동일한 비율로 자본금 390만 달러의 아연도금제품 제조회사인 포스비나사를 호지민시에 설립함.

4. 6 - 한국의 방림(주), 베트남측과 빈푸이 지역에 1,4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대규모 방직공장 설립에 합의.

4. 8 - 베트남, 전력이 부족한 남부지역에 북부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하노이 남서부에 위치한 호아빈 수력발전소와 남부지역을 연결하는 송전선 건설공사에 착수.

- 에어프랑스, 5월 1일부터 파리-하노이 항로 개설

4.10 - 한국 민관합동자원조사단, 광산공동개발, 광역지질조사 등 자원개발에 상호협력키로 베트남과 합의함.

- 대우, 베트남에 오리온전기, 대우전자부품 등과 합동으로 가전제품 생산기지를 조성할 계획.
- 프랑스 엥도수에즈은행, 외국은행으로는 처음으로 베트남정부로부터 지점설치 허가를 받음.

4.12 - 베트남, 1/4분기 수출액은 4억 2,000만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25%증가했다고 VAN통신이 보도함.

4.14 - 미국, 대베트남 경제제재조치 완화의 일환으로 베트남에 원거리통신망을 설치할 것을 AT&T사에 허용하여 미-베트남간 통신서비스가 재개될 전망임.

- 호주,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79년 1월)후 중단되었던 대베트남 직접원조를 재개하기로 결정함. 재무장관은 석유제품, 의료, 상하수도, 교육, 기술훈련 부문에 4년간 1억달러를 제공하기로 합의함.

4.15 - VAN통신, 작년 어획량이 전년대비 8.9% 증가하여 사상최고를 기록하였고 양식수산물의 비중이 전체 어획량 중 33%나 차지했다고 보도함.

- 베트남 국회, 공산당지도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크게 도입한 신헌법을 승인함으로서 시장경제를 장려하는 경제개혁을 제도화함. 개인기업과 외국과의 합작사업을 공인하는 한편, 토지사용권의 상속과 생산수단의 사유를 허용하였고 부당한 체류나 억류등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신설함.

4.19 - 말레이지아, 베트남에 투자사절단 파견.

4.20 - 중국, 하이퐁시와 합작으로 하이퐁시 교외(토샨)에 베트남의 첫 경제특구를 건설할 예정임.

- 한-베트남, 연락대표부 설치 합의.

- 말레이지아, 베트남과 경제, 과학기술, 우편·통신기술분야 및 석유탐사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베트남의 ASEAN 가입을 지지함.

4.21 - 말레이지아 구트리사, 베트남 국영고무회사와 합작기업 설립협정을 체결하고 고무가공기계와 관련부품을 베트남에 제공할 예정임.

- 대만, 베트남과 투자보장협정 체결 예정.

- 昭和셀석유개발, 일본업체로서는 최초로 베트남의 석유채취권을 취득하여, 남부해저의 유전개발을 시작함.

4.22 - 한국의 제일은행, 베트남은행과 동일비율로 합작예정.

4.23 - 홍콩 상하이은행, 베트남내의 경제활동 파악과 정보수집 등 지원업무를 수행할 대표사무소를 호지민시에 설립함.

- 네덜란드, 베트남과의 경제협력강화를 위한 최초의 각료급 경제사절단을 파견하고 양국간의 투자·교역 증진 등 경제협력방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함.

- 한국의 한국물산, 한국은행으로부터 198만 달러의 대베트남 단독투자를 승인 받아 현지법인을 설립함.
- 미 · 베트남, '75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베트남간에 직통전화가 미국 AT&T사에 의해 재개됨.

4.25 - 베트남, 중국, 독일 등 10개국 297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92베트남 춘계 국제 박람회"가 개막됨.
- 대한항공, 베트남에 격주로 전세기 운항.

4.27 - 대만, 투자액 6억 270만달러로 대베트남 투자 1위 기록.

4.28 - 베트남, 가격자유화정책을 강화하여 쌀, 금 등을 제외한 품목의 가격통제 철폐.
- 네덜란드 셸사, 베트남 남부 제10구역 유전개발에 참여.
- 한국의 신기(주), 완구업계로서는 최초로 베트남 현지에서 완구생산에 착수함.
- 베트남, 1/4분기중 원유, 철강, 화학비료부문의 성장에 기인하여 전년동기에 비해 48.3% 증가함.

4.29 - 베트남, 조선산업 현대화 추진으로 현행 65만 중량톤의 선복량을 '95년까지 100만 중량톤으로 증가시킬 예정임.

4.30 - 대우(주), 베트남과 합작으로 총 6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트럭, 버스 등 상용차생산공장 건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
- 미국, 베트남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무역과 비정부, 비영리단체의 사업을 허용하는 경제제재의 추가 완화조치를 단행함.
- 미쓰비시사, 베트남 중부 다낭교외에 시멘트공장을 합작으로 건설할 예정.

5. 4 - 한국의 삼광유공업, 베트남의 규사 수입 방침.
- 미국 · 베트남, 항공로 개설을 위해 양국 항공사들간 항공로 논의.
- 한 · 일 베트남, 호지민시 교외 쿠롱지구에 합작으로 상용차 생산공장 준공.

5. 5 - 베트남 중앙은행, 물가상승으로 통화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1만동짜리 고액지폐를 발행함.

5. 6 - 홍콩,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의 재개발에 참가.

5. 7 - 한 · 베트남 경제협력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 미국, 제25차 아시아개발은행 연례총회에서 베트남에 대한 원조재개에 부정적 의사를 표명함. 이로인해 베트남은 ADB차관도입이 난관에 봉착함.

5. 8 - 일본, 베트남에 농수산물 수출합작회사 설립 예정.

5. 9 - 베트남의 국회 사무국, 국회의원 정원을 현재의 496명에서 395명으로 감소시키고, 전국 158개 선거구에서 2-3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함.

5.10 - 일본, 베트남의 산림보호 지원작업에 참여코자 전문가를 파견하고 개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교본산업은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각국에 산림자원보호를 위해 연탄제조 기술을 공여할 예정.

5.12 - 영국, 베트남과 홍콩체류 난민 송환협정 체결.

5.14 - 럭키금성상사, 베트남 잠사조합과 물품인도 및 생산라인 설치 등을 포함한 660만 달러 상당의 잠사기계 수출계약을 체결함.

- 미국의 주요 9개기업, 대베트남 금수조치 완화촉구.
- 중국, 광주와 호지민시간에 주 2회 왕복 항공노선 개설.

5.17 - 베트남, 중국과 남사군도 분쟁 재연조짐.

5.18 - 한국의 동아면직, 호지민시 동북쪽 람동주 바올록에 베트남 최대규모인 자동제사공장을 설립함.

5.19 - 컨소시엄을 구성한 유공등 한국의 8개사, 베트남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 베트남사와 베트남 남부해안 석유탐사계약 체결.

5.21 - 한국의 안국화재, 베트남의 국영보험회사인 바호비엣사와 상호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양국간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해상, 화재, 배상책임 보험 등에 대한 사고조사 및 보험지급 업무를 대행키로 함.

- 베트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종업원 최저임금을 현재의 월 50달러에서 35-35달러에서 인하함.

5.25 - 홍콩사, 베트남 중부에 시멘트 합작공업 건설

- 베트남, 러시아와 합작으로 210만 달러를 투자하여 하이퐁에 수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함.

5.26 - 베트남, 가공되지 않은 임산물 및 목재 수출을 금지시키고, 완제 목재품만을 해외

로 수출할 방침

- 베트남, '85년 탈퇴했던 국제노동기구(ILO) 재가입.

5.27 - 일본, COCOM회의에서 대베트남 수출제한완화 모색.

- 프랑스 세데베르사, 베트남 북부에서부터 남부지역까지 송전길이가 1,400㎞에 달하고 평균입찰가격이 약 3천만 달러인 고압송전선 가설공사계약을 체결함.

5.29 - 베트남 국가평의회, 재무부장관에 호오케, 법무부장관에 구엔 디 로구를 임명함. 신설된 인구·가족계획장관에는 마이키가 취임하는 등 내각을 개편함.

6. 4 - 伊藤忠商社, 영국의 라모스사와 공동으로 베트남 남부 약 150㎞해상 '4-2' 광구의 유전개발권을 취득.

6. 8 - 한국, 대베트남 투자에서 세계 10위로 부상(투자건수는 13건 투자액은 9천만달러이며 대만은 7억 4,300만 달러, 홍콩은 5억 1,500만 달러로 각각 1,2위를 차지함)

6. 9 - 태국 공업단지공사, 다낭에 4,800ha 규모의 공업단지건설을 위한 협력협정을 베트남 정부와 체결함. 베트남은 다낭 주위의 산림자원을 이용한 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진출을 희망함.

6.12 - 베트남, 일본의 PKO 협력법안 비난성명.

6.16 - 한·미 재계협의, 베트남의 유전을 비롯한 자원개발과 전자통신부문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진출을 강화하기로 함.

-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안 초안 발표(외국인도 총자본금의 30%한도 내에서 주식을 살 수 있음).

- 국민기술금융(주), 일본, 싱가포르와 함께 호지민시에 있는 약 100ha의 전미군기지 탄약고 부지를 공단으로 개발하기로 함.

- 중국, 베트남에 시멘트공장 건설 추진.

6.18 - 호주의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ANZ)은행, 외국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노이 지점 개설인가를 취득함.

6.20 - 삼성물산(주), 베트남정부 경제부처 국무급 등 고위관료와 업체대표 49명으로 구성된 베트남기술연구단 일행 초청.

6.23 - 베트남 외무차관보, 이상옥 외무장관과 상호연락대표부 개설 논의.

- 베트남 어업사절단, 수산업 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홍콩을 방문함.
- 구안 만 키엠 베트남 건설차관, 싱가포르주재 프랑스 실업인들과 싱가포르 기업인들에 대해 베트남에서의 건설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함.

6.24 - 베트남은 금년 6월까지의 쌀농사에서 작년 동기대비 50% 상승한 9백 만톤을 수확하는 풍작을 거둠.

6.27 - 무역관광부, 식·음료산업이 수요를 초과함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신규합작사업을 불허함.

6.28 - 한국의 산업정책과 수출촉진정책에 관한 경험을 전수하고 양국 통상현안을 협의할 베트남 공무원 13명이 초청됨.

6.29 - 제일은행이 40%, 대우증권이 10%, 베트남의 대외무역은행이 50%를 각각 출자해 자본금 1천만달러의 합작은행을 설립키로 합의함.

7. 3 - 레 수안 트림 국가계획위원회 부의장, 상반기에 공업생산이 전년동기대비 16.6%, 농업생산이 20%, 생산성이 29% 증가하는 등 고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힘. 인플레이션율은 작년 평균의 절반인 2.1%로 낮아지고 베트남 동貨의 가치도 강세를 보였다고 밝힘.

7. 4 - 베트남의 우편통신공사, 말레이지아의 텔레콤사와 원거리 통신망 협력협정을 체결함.

7. 6 - 쿠안 도이 난 다誌, 작년 4월 부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1만개 국영기업 중 절반 이상이 업무변제를 중단했다고 보도.

- 대만 경제부, 베트남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경제협력기금(OECDF)으로부터 1천만달러의 차관을 베트남 중앙은행에 제공할 것을 승인함.
- 스위스, 베트남과 양국간의 투자증진과 투자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함.

7. 8 - 국영통신사(VAN), 상반기 석유, 쌀, 해산물, 고무, 커피 등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무역흑자가 1억 5,5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

7. 9 - 대만의 칭풍그룹, 베트남에 5,500만 달러를 투자해 오토바이공장을 건설할 투자계

획을 승인받음.

7.10 - 베트남, 인도국립은행의 호지민사무소 개설 허가.

- 베트남, 상반기 신규사업 80건, 7억 1,700만 달러의 신규투자사업을 허가했는데 이는 전년동기보다 투자액수면에서 111% 증가한 규모임.

7.13 - 베트남, 하노이-호지민시간의 대규모 송전선 건설공업에 소요되는 2억 6,000달러의 자금을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기로 함.

7.16 - 일본 코에이사,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발전사업에 노하우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힘.

- 일본공영, 전체 길이 약 1,500㎞의 하노이-호지민간 송전소 부설공사(총공사비 약 3억 4,000만달러)의 감리사업을 수주함.

7.19 - 베트남, 새로운 선거법에 따른 첫 총선거가 실시됨.

7.20 - 베트남, 한국연락대표부 개설.

7.21 - 일본, 베트남의 토라이병원 보수계획에 8억 4,000만 엔의 자금을 무상지원하기로 결정함.

7.23 - 베트남, 경제개혁을 주도해 온 보 반 키에트 수상과 판 반 카이 부수상이 19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재선됨.

7.24 - 일본경제신문, 대베트남 COCOM규제가 계속된다고 보도.

7.25 - 일본, '78년 이후 중단되었던 대베트남 정부개발원조(ODA)가 오는 9월부터 재개되며 원조는 베트남이 일본 상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될 엔 상업차관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짐.

7.27 - 아시아 월 스트리트紙, 베트남 동화는 '91년 12월 달러당 1만 4,400동에서 최근 1만 950동으로 31% 절상되었다고 보도.

- 베트남, 남사군도에 어항 건설.

8. 5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5개국, 민간인으로 구성된 베트남 友好村을 건설하여 학교, 병원 등을 운영할 계획임.

8. 9 - 미국 민간물자, 경영, 회계, 경제 관련 서적과 교과서 등 약 7만 달러 상당의 미국 서적이 최초로 베트남에 도착함.

8.17 - 대만 국제경제협력개발기금 이사장, 베트남의 도로건설 및 소규모 민간기업 교육육성으로 4,000-5,000만 달러의 저리차관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8.19 - 베트남, 송전망 건설공사를 위해 총 7,700만 달러 상당의 국채발행.

8.20 - 러시아,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귀국 명령,

8.21 - 베트남과 중국, 합작으로 북부 최대의 항만도시인 하이퐁에 베트남이 부지를 공급하고 중국 해남성의 해남과학기술총공사가 운영과 우대조치 등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여 경제특구를 조성할 것으로 알려짐.

8.22 - 베트남-프랑스, 운송, 건설, 도시서비스 분야에 관한 2개의 주요협력협정에 서명함.

8.28 - 베트남, 호지민시에 자기카드를 이용한 공중전화가 처음으로 등장함.

8.30 - 베트남, '87년 이래 5년 동안 총 461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사업을 승인했으며, 외국인 투자의 75%가 남부 호지민시 일대에 집중되어 있음.

9. 2 - 한국의 동아해운, 한국·베트남간 직항로 개설.

9.11 - 미국, 대베트남 경제제재조치 1년 더 연장함.

9.19 - 베트남, 보 반 키에트 수상 재선. 한편 대통령에 레 둑 안, 부통령에 구엔 치 진 여사를 선출함.

10. 2 - 베트남, 토지사유화 신법안 국회에 제출. 모든 토지의 소유권이 전인민에 속하며 동시에 모든 토지에 대한 장기간 사용·관리권을 설정하여 사용자를 명확히 정해 새로 등기하도록 규정함. 합작기업·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을 두어 베트남인 사용관리자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을수 있도록 함.

10. 4 - 한국중공업, 베트남 중공업부 산하의 제관공장장 8명과 기술자 21명을 창원공장으로 초청하여 경영관리, 공장관리, 시설관리 등에 대해 15일에서 최고 1개월까지 연수교육 실시.

10. 6 - 베트남 쌀수출, 지난 9월초 현재 100만 톤에 달해 세계 3위의 쌀 수출국으로 부상함.

10. 9 - 일본, 중앙정부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는 아니지만 지방당국의 홍수조절과 농업개선을 위해 지난 '78년 이후 처음으로 608만 엔(50,200달러)의 첫 원조를

제공함.

10.14 - 안국화재, 베트남과의 재보험계약 체결.

10.15 - 베트남, APEC 조기가맹 의욕표명

베트남 외무성 대변인은 「APEC에 대단히 큰관심을 갖고 있다」며 조기 가맹에 강한 의욕을 표명.

10.16 - 베트남, 올들어 9개월간 원유판매에 힘입어 수출 16억 7천만 달러, 수입은 15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무역흑자를 나타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수출은 17.5%, 수입은 9.1% 증가하였음.

10.19 - 쌍용양회, 베트남에 연간 120-150만 톤 규모의 시멘트 합작공장을 북부의 하노이에 설립할 예정임. 쌍용은 현재 베트남 건설부 산하 UCP(Union of Cement Plant)와 공장설립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를 한 후 투자비율 및 자금조달 문제를 협의중임.

10.22 - 베트남, 오랜 전쟁으로 인한 생태계파괴와 동물남획, 벌목 등으로 희귀동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하자 정부당국이 야생동물 보호대책에 부심하고 있음.

10.23 - 미국, 베트남 정부가 실종미군에 관한 모든 자료를 건네주기로 동의함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등 양국간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10.30 - 일본, 對베트남 엔借款 연내 재개

차관총액은 약 4백 40억엔으로 전액 베트남의 경제구조조정에 직접 기여하는 상품차관으로 결정함.

11. 3 - 프랑스, 베트남의 상수도, 전화, 교통, 통신시설 등 약 20개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하여 1억 5,800만 프랑(3,000만 달러)의 원조를 제공키로함.

11. 5 - 일본, 베트남에 455억円 개발차관 제공

11.10 - 국제통화기금과 유엔개발계획은 베트남 통화 및 은행관리의 개선을 위한 기술원조를 제공하기로 함.

11.11 - 미국의 AT & T사, 베트남과 직접 전화 개설 협정을 체결함.

11.12 - 필리핀, 베트남과 경제협력 강화에 합의

11.17 - 베트남, 2000년 까지 外資 110억달러 도입계획 발표

11.25 - 대만, 對베트남 투자 최대국으로 부상

금년 상반기동안 대만의 對베트남 투자는 총 57건의 7억 5,540만달러에 달함.

12. 1 - 일본 경단련, 14년만에 대베트남 円차관을 재개함에 따라 국가계획위원회와 교류 본격 추진

12. 2 - 대만, 베트남에 중국국제상업은행(ICBC) 사무소 설치 허가

12. 3 - 중국, 베트남과 경제·기술협력협정과 투자협력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있따라 서명하고, 베트남에 1,4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키로함.

12. 4 - 파리국립은행(BNP), 호지민시에 지점 개설

12. 9 - 포항제철, 하노이-하이퐁간 고속도로건설 참여 고려

12.14 - 미국정부, 지난 17년간 계속 되어온 對베트남 경제제개 조치의 일부를 완화하기로 결정.

- 현대종합상사, 남부에 메콩강 수량을 이용하는 5억 달러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립 추진

12.20 - 베트남, 「아시아·太平洋經濟센터」 설립계획

12.22 - 한-베트남 수교, 이상옥 외무장관과 캄베트남 외무장관사이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공식 수립함.

12.23 - 베트남, 외국인투자 특혜 확대

12.24 - 일본 JETRO, 베트남에 사무소 개설 준비

12.26 - 상공부, 무역부, 중공업부, 경공업부 등과 상호 협력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자 베트남 파견.

12.28 - 西方국가, 對베트남 투자 급증

베트남 투자협력위원회에 따르면 상위 10개국의 투자규모는 승인액 기준으로 지난 6월말 현재 28억달러 였으며, '92년에 18억달러가 이루어졌음. 한국은 13건에 9천만달러로 상위 10개국중 10번째에 머무름.

9. NGOs In VIETNAM

Action Aid

Adventist Development and Relief Agency(ADRA)

Aid to South East Asia, Inc. (ASA)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AFSC)

Australian Care for Refugees(Austcare)

Bröt fur die Welt(BfdW)

The Pearl S. Buck Foundation, Inc. (Buck)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CAMA Services, Inc.)

CARE International in Vietnam(CARE Vietnam)

Christian Children's Fund, Inc. (CCFI)

The Christian Church(CCDC)

Christoffel Blinden Mission(CBM)

Church World Service(CWS)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ppropriate Technology, Technical Universiy of Delft(CICAT)

Coopération Internationale pour le Dévelopement et la Solidarité(CIDSE)

Committee Science and Technology Vietnam(CSTV)

Committee to support Chidren in Vietnam(CSCV)

Community Aid Abroad(CAA)

Cooperative Service International(CSI)

Council on International Educational Exchange Direct Relief International(DRI)

East Meets West Foundation 11th Engineers Vietnam Revisited '89(ElEng)

Flemish Organization for Assistance in Development(FADO)

Fonds voor Ontwillelings Samenwerking(FOS)

Fraternité Chrétienne avec le Vietnam, le Cambodge et le Laos

The Friendship Bridge(FB)

Georgetown Business Training Program in Vietnam, Laos and Cambodia (GBTPVLC)

Groupe de Researche de d'Echanges Technologiques(GRET)

Handicap International(HI)

Harvar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HIID)

Health Science Center(HSC)

Heifer Project International(HPI)

Holt International Children's Services(HICS)

Indochina Arts Project(IAP)

Indo China Foundation(ICF)

Indochina Project, Vietnam Veterans of America Foundation(IP)

Indochina Scholarly Exchange Program,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ISEP)

Indochina Surgical Educational Exchange(ISEE)

Intensive English Language Institut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IELI)

Interchurch Medical Assistance, Inc. (IMA)

Interchurch Organization for Development Cooperation(ICCO)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IIE)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Adoption Project(IAP)

International Cranc Foundation(ICF)

International Development Enterprises(IDE)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IRRI)

International Social Service(ISS)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IUCN)

Interplast, Inc. (IPL)

Japan International Volunteer Center(JIVC)

William Joiner Foundation(Joiner)

Komitee Twee(KTwe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IFRC)

Lutheran Family Services, Vietnam Highlands Assistance Project(LFS)

Médecins sans Frontières-Belgium(MSF-B)

Médecins sans Frontières(MSF-F)

Medisch Comite Netherland Vietnam(NCNV)

Mennonite Central Committee(MCC)

Aktion Gegen Hunger und Krankheit in Der Welt Bischofliches

Hilfoswerk Misereor E.V. (MISEREOR)

National Network of Indochina Activists(NNIA)

NEED, Inc. (NEED)

Nordic Assistance to Repatriated Vietnamese(NARV)

Nederlandse Stichting voor Leprabestrijding(NSL)

Netherlands Organizatio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NOVIB)

Netherlands Organiz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Higher Education (NUFFIC)

The Ockenden Venture(Ockenden)

Operation Smile International(OS)

Operation USA(Op USA)

Organisation Canadienne pour la Solidaritéet le Dévelopment(OCSD)

Overseas Service Bureau(OSB)

Oxfam America(Oxfam US)

Oxfam-Belgique(Oxfam B)

Oxfam Hong Kong(Oxfam HK)

Oxfam UK and Ireland(Oxfam UK)

Pathfinder International(PI)

Private Agencies Collaborating Together(PACT)

Prosthetics Research Foundation(PRF)

Quaker Service-Vietnam(QSV)

Rädda Barnen-Swedish Save the Children(RB)

Swedish Agency for Research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SAREC)

Save the Children(USA)

Save the Children Fund, U.K., Vietnam(SOF UK)

School for International Training(SIT)

Secours Populaire Francais(SPF)

Southeast Asia Rescue Foundation, Inc. (SARF)

Stichting Liliane Fonds(SLF)

Association Ton That Tung-Coeur-Vietnam(TCV)

U.S. Committee for Scientific Cooperation with Vietnam(USCSCV)

U.S.-Indochina Reconciliation Project(USIRP)

U.S.-Vietnam Friendship and Aid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USVFAA)

Veterans Association for Service Activities Abroad(VASAA)

Veterans Vietnam Restoration Project(VVRP)

Vietnam Assistance for the Handicapped, Inc. (VNAH)

Vietnam Health, Education and Literature Projects(VNHELP)

Volunteer Service Abroad(VSA)

Voluntary Service Overseas in Vietnam(VSO)

Volunteers in Asia(VIA)

VU voor Vietnam(VUVV)

War on Want(WOW)

World Concern International(WCI)

Wide Horizons for Children, Inc. (WHC)

Winrock International(WI)

World Relief(WR)

World Vision International(WVI)

Yale Vietnam Education Fund(YVEF)